

博士學位論文

1950年代 新聞小說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金 東 潤

1999年 6月

1950年代 新聞小說 研究

指導教授 金 永 和

金 東 潤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6月

金東潤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인

委 員 _____ ①인

委 員 _____ ①인

委 員 _____ ①인

委 員 _____ ①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9年 6月

A Study of the 1950's Novels Serialized in Newspapers

Kim, Dong-yun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oung-hwa)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ART

DEPARTMENT OF KOREA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9. 6.

1950年代 新聞小說 研究

目 次

I. 序論	1
1. 研究 目的과 研究史 檢討	1
2. 研究 方法과 範圍	5
II. 1950년대 新聞小說의 成長 背景	14
1. 大衆文化의 樣相과 新聞의 性格	14
2. 商業主義 傾向과 作家들의 役割	22
3. 讀者들의 認識과 參與의 樣相	27
III. 1950년대 新聞小說의 人間像과 社會認識	40
1. 主要 作中人物의 社會的 位相	40
2. 順應의 社會認識：親美-反共 이데올로기 受容의 硬直性	52
1) 親美이데올로기의 擴散	52
2) 頹廢·享樂風潮의 蔓延	58
3) 反共이데올로기의 影響	70
3. 妥協의 社會認識：女性問題 意味化의 兩面性	80
1) 戰爭未亡人의 彷徨과 救援	80
2) 有閑夫人과 女大生의 脫線	91
3) 女性意識의 自覺과 限界	98
4. 對抗의 社會認識：社會腐敗相의 告發과 再建意志의 發現	112
1) 指導層에 대한 不信	112
2) 無規範性의 社會와 物質萬能主義 批判	123
3) 實踐的 社會再建의 啓蒙性	137
IV. 1950년대 新聞小說의 通俗性과 小說史의 意義	150
1. 通俗性의 樣相과 그 意味	150
2. 1950년대 新聞小說의 小說史의 意義	165
V. 結論	169
參考文獻	173
Summary	179
<附錄 I> 1950년대 新聞小說의 作中人物 一覽	182
<附錄 II> 1950년대 新聞小說의 作品別 概要	189

I. 서론

1. 연구 목적과 연구사 검토

1950년대 한국소설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장편보다는 단편소설에 편중되어 왔다. 이런 현상은 신문에 연재된 장편소설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 문학연구자들이 ‘신문소설’¹⁾을 ‘통속소설’이나 ‘대중소설’²⁾로 폄하시키고 본격문학(고급문학 혹은 순문학)만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온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결국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은 소설사의 영역을 축소시킴으로써 당시 소설의 총체적인 실상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1950년대 신문소설들이 과연 통속소설로만 간주하여 외면하는 태도가 정당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신문연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부터 특별한 문제를 갖고 있는 형식은 아니다.³⁾ 신문소설이라 해서 모두가 상업성을 띠고, 그렇기 때문에 통속소설일

-
- 1) ‘신문소설(新聞小說)’은 경우에 따라 ‘신문연재소설(新聞連載小說)’이나 ‘신문장편소설(新聞長篇小說)’이라 부르기도 한다. 우선 ‘신문연재소설’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은 ‘신문소설’이라고만 한다면 연재물이라는 형식상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며, 자칫 신문을 제재로 다룬 소설이라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그 근거로 든다(오인문, 『신문연재소설의 변천』, 강현두 편, 『한국의 대중문화』(나남, 1991), 322~323쪽; 박철우,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 연구』(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6), 1쪽). 그러나 연재되지 않는 신문소설은 거의 없으며, 신문소설을 신문에 관한 소설로 오해할 독자도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연재’라는 단어를 굳이 끼워넣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문장편소설’이란 용어 역시 신문의 기획상 장편소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장편’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필요도 없다고 판단된다(한명환, 『1930년대 신문소설 연구—소설론 및 소설의 ‘통속’ 수용을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박사논문, 1996), 21~22쪽). 물론 주류를 이루지 않는 단편일 경우에는 ‘단편’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필요는 있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여 오해의 소지들을 없애면서 굳이 정확한 용어를 쓰고자 한다면 ‘신문연재장편소설’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신문소설’이 각종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통용되는 등 일상의 용어로 자리잡아 있고 학술논문이나 서적에서도 별문제 없이 쓰이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신문에 연재된 장편소설을 지칭하는 의미로 ‘신문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2) ‘통속소설’이라는 용어에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정적이고 비하적인 이미지가 개입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중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3) 1930년대에 이미 김남천이 신문소설을 비예술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우선 저널리즘과의 교섭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문소설, 통속소설, 대중소설 등등의 일반화된 술어의 미몽을 깨뜨리고 동시에 이것이 전부 비예술적인 것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위험스럽다.⁴⁾ 예컨대 염상섭의 「삼대」, 심훈의 「상록수」, 이기영의 「고향」 등의 1930년대 작품들은 모두 신문소설이면서도 그 작품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신문소설이라는 형식 자체에 처음부터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님이 입증된다. 신문소설은 부정적 측면과 더불어 긍정적 측면도 지니고 있는 것이기에, 단지 신문에 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폄하하여 그 논의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1950년대는 출판계의 상황이 전작 장편을 출간하기에 어려운 시기였음을 감안한다면 당시 신문소설을 소설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당위성이 더욱 커진다. 1950년대에는 신문소설이 상당히 두터운 독자층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문예지의 소설들은 지면이 한정되고 독자층도 상대적으로 얇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신문소설의 소설사적 의의는 더욱 강조될 수 있다. 게다가 1960년대 이후로는 신문소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점도 1950년대 신문소설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된다. 산업화의 본격적인 진행에 따라 텔레비전이 일반에 보급되는 등 대중매체가 급증하고 출판계가 활성화되면서 신문소설 독자가 다른 매체로 분산된 1960년대 이후의 상황과는 뚜렷한 변별성을 보인 것이 1950년대 신문소설의 환경이었던 것이다.

신문소설은 그동안 대부분 대중소설로 취급되어 왔고, 또 실제로 그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중소설의 통속성 자체를 하나의 결함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대중소설의 통속성은 단지 진지한 것의 결여로만 간주하기에는 너무나 뚜렷한 독자적인 미학을 갖고 있고, 통속성은 대중소설이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중요한 지향점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중소설의 통속성 속에는 그 나름의 미학과 구조가 들어 있어 대중들을 감동시키는 독특한 힘을 지니고 있다. 통속성의 정신은 ‘놀이의 정신’이며 이 정신은 직접적이며 자발적인 인간성의 한 측면이다. 따라서 통속성을 진지성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진지성과 통속성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는 양면성의 결과로 이해함으로써 대중소설을 온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⁵⁾ 대중

가리키는 술어인데 대하여도 이 왜곡된 상식을 일층 더 완강히 물리쳐야 할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문에 게재되었다고 하여서 이것을 신문소설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는 것이며 통속적이란 그 말 자체로서는 고급예술이 이를 배격하여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선에서는 신문소설을 제하고는 장편소설이란 것은 거의 하나도 없었다. 알기 쉽게 쓰인 소설, 대중에게 한결같이 읽히는 소설—이런 것을 가지고는 그 소설이 비예술적인 것으로 단정할 건덕지가 되지 않을 줄 안다.” 김남천, 「조선적 장편소설의 일고찰」, 『동아일보』(1937.10.21.).

4) 한승욱, 「장편소설의 특질」, 현대소설연구회, 『현대소설론』(평민사, 1994), 270쪽.

소설을 엄연한 문학현상으로 인정하고 그 미학적 특성과 의미 등을 탐색해야 마땅하다. 근래의 문학사⁶⁾나 소설사⁷⁾의 서술에서 대중문학을 논의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나, 대중문학 분야에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문학사 서술방법에 대한 논의,⁸⁾ 그리고 대중문학연구를 위한 모임의 결성과 활발한 움직임⁹⁾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중소설 연구는 한국문학사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도 이바지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신문소설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문학의 차원 뿐만 아니라 신문학(新聞學) 차원의 연구에서도 신문소설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틀어서 살펴보더라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시기별로 볼 때 개화기¹⁰⁾나 일제강점기¹¹⁾의 신문소설에 관해서는 다소 연구가 진척된 편이다. 그

-
- 5) 문성숙, 「한국대중문학론의 전개과정 연구」, 『한국문학연구』 제20집(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8), 24쪽.
 - 6) 조동일은 『한국문학통사』 5권(지식산업사, 1988)의 근대문학 제1기(1919~1945)에서 ‘신문소설’ 혹은 ‘통속소설’에 주목하여 ‘이광수의 신문소설’, ‘통속 연애소설의 기본형’, ‘통속소설과 타협하는 방안’ 등을 다루었으며, 정한숙은 『현대한국문학사』(고려대학교출판부, 1982)에서 1950년대 신문소설인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비중있게 기술했다.
 - 7) 문학과교육연구소의 『한국현대소설사』(삼지원, 1999)에서는 1930년대의 소설사에서 「풍속·역사·통속소설의 전개」를 한 항목으로 설정하여 그 소설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사에서도 1950년대의 대중소설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8) 양영길은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문제점에 대한 극복방안 중의 하나로 엘리트 중심의 문학사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엘리트 중심의 문학사 서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학사나 통속문학사를 서술하여 문학사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엘리트 중심의 문학사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양영길, 「한국근대문학사의 서술양상 연구」(제주대학교 박사논문, 1999), 142쪽.
 - 9) 1993년 8월에 결성된 ‘대중문학연구회’가 대중문학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모임이다. 대중문학연구회에서는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평민사, 1995),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국학자료원, 1996),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국학자료원, 1997),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국학자료원, 1998) 등을 펴냈으며, 최근에는 대중문학연구회 소속 7명의 회원들이 『대중문학의 이해』(청예원, 1999)를 간행하였다.
 - 10) 신혜은, 「개화기 신문소설 연구」(국민대학교 석사논문, 1982).
한원형, 『한국 개화기 신문연재소설 연구』(일지사, 1990).
 - 11) 송경섭, 「일제하 한국신문연재소설의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73).
양찬수, 「1930년대의 한국 신문연재소설의 성격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석사논문, 1977).
도춘길, 「춘원의 신문소설과 그 가치」(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77).
정원근, 「일제하 신문소설에 나타난 민족의식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988).
한원형, 『한국 근대 신문연재소설 연구』(이회, 1996).
민병덕, 「한국 근대 신문연재소설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87).
이종욱, 「일제하 신문연재소설 연구」(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6).

가운데서도 1930년대 작품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해방 이후의 신문소설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빈약하다. 1970년대의 신문소설에 관한 연구¹²⁾는 다소의 성과물이 나오고 있지만, 1960년대 신문소설에 관한 연구는 신문학 차원에서만 검토된 정도다.¹³⁾ 이런 점은 대중문학 연구의 차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30년대¹⁴⁾와 1970년대¹⁵⁾의 대중소설들(대부분 신문소설이다.)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은 편인데, 이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문학의 대중화 혹은 대중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1950년대 신문소설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빈약하다. 대중문학 차원에서 논의도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몇몇 작품론의 성격을 띤 연구가 보일 뿐이다.

서광운의 『한국 신문소설사』¹⁶⁾는 1880년부터 1970년까지의 신문소설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면서 1950년대의 작품들을 포함해서 다루었지만, 저널리즘적 측면에서의 단순한 소개 혹은 자료사적인 정리 수준을 뛰어넘지 못함으로써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신문소설 연표’ 등을 제시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될 만하나, 일부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후(戰後)의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된 작품은 정비석의 「자유부인」, 김내성의 「애인」·「실낙원의 별」, 박화성의 「고개를 넘으면」, 염상섭의 「미망인」, 한무숙의 「빛의 계단」, 김말봉의 「푸른 날개」·「생명」 등에 불과하다.¹⁷⁾ 그나

한명환, 「1930년대 신문소설 연구」(홍익대학교 박사논문, 1996).

12) 고인덕, 「신문소설에 나타난 가치 연구」(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80).

박철우,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 연구」(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6).

13) 최영, 「대중문화로서의 한국 신문소설 분석 연구—1960년대부터 1969년까지 동아·조선 양일간지 신문소설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71).

14) 김강호, 「1930년대 한국통속소설 연구」(부산대학교 박사논문, 1994).

권선아, 「1930년대 대중소설의 양상 연구」(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94).

이종호, 「1930년대 통속소설 연구」(경북대학교 석사논문, 1995).

최소영, 「이태준 신문연재소설 연구」(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5)

백운주, 「1930년대 대중소설의 독자공감요소에 관한 연구」(제주대학교 석사논문, 1996).

서영채, 「1930년대 통속소설의 존재방식」, 『소설의 운명』(문학동네, 1996).

강옥희, 「1930년대 후반 대중소설 연구」(상명대학교 박사논문, 1999).

15) 조남현, 「통속소설의 실상」, 『문학과 정신사적 자취』(이우출판사, 1984).

박휘중,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계명대학교 석사논문, 1996).

추은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부산대학교 석사논문, 1997).

16) 서광운, 『한국 신문소설사』(해돋이, 1993).

17) 각 작품별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자유부인」: 정한숙, 「자유거리의 세대 풍정」, 『현대한국소설론』(고려대학교 출판부, 1977);

마 이러한 논의들마저 작가 연구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거나 소략한 점검으로 멈춘 경우가 많다. 특히 신문연재본을 텍스트로 삼는다가나 신문소설 차원으로 접근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때 1950년대 신문소설은 아직까지 그 기초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접근한 경우는 있었지만, 시대상황과 독서환경 등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의 논의는 전무한 상태인 것이다. 특히 각각의 작품들을 검토해 보지도 않은 채 논의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상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신문소설의 특성에 대한 논의는 민병덕¹⁸⁾, 임성래¹⁹⁾ 등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김창식, 「한국신문소설의 대중성과 그 즐거움에 대한 연구—해방 이후 작품을 중심으로」, 『우암어문론집』 제7집(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남상권, 「「자유부인」 시론(試論)」, 『국어국문학연구』 제25집(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유임하, 「전후소설과 대중문화의 상호 연관」, 『한국문학연구』 제20집(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8). / ○「애인」: 정세영, 「김내성 소설론」(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91). / ○「실낙원의 별」: 정한숙, 「윤리와 사랑의 조화—김내성의 「청춘극장」·「실낙원의 별」」, 앞의 책; 정세영, 위의 논문. / ○「고개를 넘으면」: 변신원, 「박화성 소설 연구—사회의식과 여성의식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95). / ○「미망인」: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일조각, 1999). / ○「빛의 계단」: 김시태, 「빛과 어둠의 형이상」, 한무숙재단 편, 『한무숙 문학 연구』(을유문화사, 1996). / ○「푸른 날개」·「생명」: 정하은 편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종로서적, 1986)에 윤경남의 「「푸른 날개」와 그림자」, 김우규의 「김말봉 문학의 대중성과 종교성」(「생명」론)이 실려 있는데, 이 글들은 본격적인 작품론이라 보기엔 미흡한 점이 있다.

- 18) 민병덕은 「한국근대신문연재소설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87)에서 신문소설의 성격과 구성요소의 특성을 밝힌 바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신문소설의 성격은 ① 1회의 매수에 제한이 있다는 것, ② 좁은 지면의 마지막에 날마다 서스펜스와 고비를 만들어 이튿날에 연결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 ③ 온갖 계층을 독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 ④ 그러기 위해서 최대공약수적인 문학의식에 맞는 내용으로 한다는 것, ⑤ 심리묘사보다도 대화장면을 많게 하고 명쾌한 줄거리를 전개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민병덕은 또한 ① 독자의 호기심을 끄는 문제가 주제로 다루어진다, ② 구성은 1회 일정 분량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회분은 소설 전체의 일관된 이야기의 한 부분이어야 하고, 전일분 이야기의 계속이어야 하며, 전일분 이야기의 복선이어야 하고 한회분만으로도 재미가 있어야 한다, ③ 신문연재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체로 종교적이고 배금주의적이며 자기개량적이고 모험적이며 인도주의적이다, ④ 변화 있고 변밀한 배경 묘사와 아울러 알기 쉽고 쉬운 용어로 서정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표현이 요구되기도 한다 등을 신문소설의 구성요소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 19) 임성래는 「신문소설의 입장에서 본 「혈의 누」」[대중문학연구회,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

이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① 시사성(時事性), ② 단절 기법, ③ 독자 참여, ④ 쉬운 표현과 틀에 박힌 줄거리 전개, ⑤ 완성된 이미지와 상투적 표현의 사용 등을 신문소설의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쉬운 표현과 틀에 박힌 줄거리 전개는 신문소설의 특징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작품을 고찰하는 데는 유용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 완성된 이미지와 상투적 표현을 사용하는 점도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것이 작품에서 명쾌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중에서 ‘시사성’, ‘독자 참여’, ‘단절 기법’ 등에 주목하여 다른 소설과 구분되는 신문소설의 특징적인 모습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²⁰⁾ 특히 ‘시사성’은 신문소설의 사회적 의미를 도출해내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시사성’은 독자들이 관심을 갖는 당대의 문제를 작품의 주제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신문이 그날그날 일어나는 사건, 곧 현재의 사건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신문소설에서도 당대 독자들의 최대 관심사를 소설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독자들의 현재적 관심사를 소재로 택하여 작품화한다는 점에서 신문기사의 현재성처럼 신문소설에서도 시사성이 중시된다. 저널리즘이라는 신문의 속성상 거기에 실리는 소설 역시 잡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소설에 비해 시사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사성이야말로 신문소설의 ‘사회성’²¹⁾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많은 소설을 신문에 연재한 정비석은 신문소설에서 시사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그는 「신문소설론」에서 그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新聞이란 말할 것도 없이 政治·經濟·社會·文化 全般에 걸쳐 國內外에서 그날그날 일어나는 새 消息을 最短 時間에 讀者에게 알려주는 것을 絶對的인 使命으로 하고 있다.

(국학자료원, 1996), 7~28쪽]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신문소설의 특징을 규정했다.

① 시의성(時宜性)을 중시하여 당대 독자들의 최고의 관심사를 소설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② 일정한 주기로 연재됨에 따라 작가는 빨리 써야 하므로 이미 완성된 이미지와 상투적 표현을 자주 활용한다. ③ 상황의 묘사보다는 줄거리 전개에 더욱 신경을 쓴다. ④ 단절기법(‘다음호에 계속’ 원칙)을 활용하여 구독자의 관심을 지속시키고자 한다. ⑤ 작가는 조간·석간, 신문 종류, 논조, 구독자 계층, 지역, 나이 등 신문 구독자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건에 맞춰 작품을 쓰게 된다. ⑥ 독자의 참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다.

20) 물론 이밖에도 통속성 등을 그 특성으로 들 수 있지만, 그것은 비단 신문소설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성격이다.

21)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성격’, ‘사회와의 관련성’ 등의 의미로 사회성(社會性)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新聞記事는 가장 現實的이요, 가장 尖端的인 性格을 띠우게 되는데, 그러한 紙面에 連載하는 小說인 만큼 新聞小說(歷史小說은 別問題이지만)은 主題를 擇하는 데 있어서도 現實的이요, 尖端的인 必要가 있다. 新聞記事는 尖端的·現實的인데 小內만은 舊態依然한 內容을 取扱하면 여간 能한 솜씨로 엮어 나가기 前에는 讀者의 感情이나 感覺과 동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이다. 換言하면, 꼭 같은 솜씨로 엮어나가는 경우에는 新聞과 더불어 尖端的인 것이 훨씬 效果的이라는 말이다.

作者가 新聞小說 속에서 어떤 理想을 論하려는 것은 作者의 自由다. 그러나 그 理想이라는 것도 現實을 土臺로 하고 現實을 銳利하게 反映시켜 가면서 그 現實 속에서 理想을 說服해 나가지 않으면 新聞讀者에게는 新鮮感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新聞小說은 社會의 銳利한 反射鏡일 必要도 있다.²²⁾

신문의 뉴스기사처럼 신문소설도 현실적이고 침단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독자의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면 '신문소설은 사회의 예리한 반사경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신문에 연재되는 소설은 신문이 본래부터 지니는 매체적 성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임현영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신문소설이란 신문에 실린 유일한 허구라는 정의 아래서 이야기한다면 이를 보다 구체화시키면 報道+虛構=신문소설이라는 假等식이 성립할 것 같다.

여기서 新聞의 功能이란 말할 것도 없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보도·논평·해설이라고 할 때, 위의 '報道'란 의미 속에서 이 3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新聞사측이나 독자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新聞소설이란 '보도의 기능'에다 '예술적 기능'을 가미시킨 것이 아닐까 싶다.²³⁾

'보도+허구=신문소설'이라는 등식을 제시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新聞소설이란 '보도의 기능'에다 '예술적 기능'을 가미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新聞소설의 '보도의 기능'이란 시사성과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小山榮三이 지적한 '뉴스의 문학화'나 '문학의 저널리즘화'²⁴⁾도 新聞소설의 시사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新聞소설의 시사성에 주목하여 1950년대 新聞소설이 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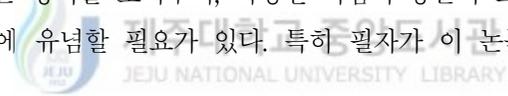
22) 정비석, 「신문소설론」, 『소설작법』(문성당, 1957), 221쪽.

23) 임현영, 「신문소설론」, 『창조와 변혁』(형성사, 1985), 279쪽.

24) 오인문, 「신문연재소설의 변천」, 강현두 편, 『한국의 대중문화』(나남출판, 1991), 333쪽.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냐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즉 각각의 작품들은 당대의 사회상을 어떤 방식으로 포착해내고 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 인지를 규명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1950년대의 단편소설들이 당대의 세태와 현실 반영에 적극적이지 못했거나 제한적 차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런 한계를 보완하는 작업도 될 수 있다. 소설작품과 그것을 탄생시킨 한 사회와의 관련 양상, 즉 소설의 구조와 사회구조와의 상동성(相同性)은 장편 양식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기에, 신문소설에서 사회성에 중점을 두어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인물과 주제²⁵⁾의 차원에서 논의의 출발을 삼고자 한다. 우선 주인공을 비롯한 주요 작중인물의 사회적 위상을 분석함으로써 거기에 나타난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러한 인물설정의 사회적 의미와 관련하여 실제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회성 있는 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사회인식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물론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남녀간의 애정이 주된 화소로 작용하지만,²⁶⁾ “소설 연애담은 지배적 제도나 이념이 개개인들의 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방식을 보여주며, 다양한 이념의 충돌과 조율을 읽어낼 수 있는 유용한 장치”²⁷⁾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자가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25) 여기서 주제의 의미는 작품 전체에서 궁극적으로 작가가 형상화해 낸 핵심적인 사상이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좁은 의미로 한정하여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message), 작품에 드러나는 화소(話素; motif)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1950년대 신문소설을 통독해 볼 때 작품 전체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강력하게 사회인식을 드러내는 작품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다만 화소라든가 부분적인 메시지를 보면 사회인식의 양상을 의미 있게 짚어볼 수 있다.

26) 그렇지만 이 논문에서 다루는 1950년대 신문소설들이 모두 연애소설이라는 것은 아니다. 남녀간의 애정을 다룬다고 모두 연애소설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연애소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남녀간의 사랑이 소설구성상 전면적인 것이어야 하며, ② 남녀간의 사랑을 그리면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나 인물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③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목표나 지향점이 인간들간의 깊은 이해와 화합(화해)에 있어야 하고, ④ 작품에 표명된 작가의 사랑관 또는 연애관이 진지하게 표명되어야 한다.(김창식, 『연애소설의 개념』, 대중문학연구회 편,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국학자료원, 1998), 9~27쪽.)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연애소설이 아닌 작품도 있다는 것이다. 설사 그것들이 모두 연애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성을 검토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연애소설에도 당대의 이념이나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27) 이선옥, 「돈, 성, 사랑 문제의 복합성에 대한 인식과 한계—『사랑과 죄』」, 대중문학연구회 편,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국학자료원, 1998), 73쪽. 이선옥의 이러한 논의는 연애가 개인이 속한 사회층의 사상이나 습관 등의 집약적 표현이라는 김남천의 견해나, 남녀관계가 주인공이 사회적·정치적 세계에 대해 맺고 있는 관계와 유사하다는 골드만의 이론에 근

연애담 자체가 아니라,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당대 사회구조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인식의 양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필자는 대중문화 이론에 힘입고자 한다. 대중문화 이론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필자가 주목한 것은 대중문화를 획일적이고 일사불란한 문화로 규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문화로 보는 관점이다. 즉, 대중이 지배계급의 문화전략적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문화의 생산자가 되기도 한다는 ‘문화주의론’의 관점과, 대중문화가 위로부터의 문화전략과 그에 대응하는 피지배계급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 변증법적으로 생산된다는 ‘헤게모니론’의 관점을 견지한다.²⁸⁾ 대중들의 행동양식이 복종과 저항을 기본틀로 가지고 있듯이 대중문화 역시 복종과 저항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대중문화로서의 신문소설을 분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지배적인 형식에 대해서 대중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순응(順應)’, ‘타협(妥協)’, ‘대항(對抗)’²⁹⁾으로 유형화하려고 한다. 당시 신문소설들에서 순응은 친미이데올로기와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응으로, 타협은 가부장제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고 대항은 정치권 등 지도층이나 부패한 사회구조에 대한 반응 양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연구는 1950년대 신문소설이 갖는 대중문화로서의 미적 특성을 도출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자 한다. 흔히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나눠 얘기할 때, 고급문화의 성격은 진지한 것으로, 대중문화의 성격은 통속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라 통속적인 것은 진지한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처럼 통속적인 것을 진지한 것의 그림자라면 간주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통속성은 인간 본성의 한 측면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를 지탱하는 그 나름의 미학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통속성에 대한 미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³⁰⁾ 통속성의 주요한 요소, 즉 통속성의 하부 범주로는 ① 해학성, ② 관능성, ③ 야만성, ④ 환상성, ⑤ 감상성 등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³¹⁾

거를 둔 것이다.

28) 대중문화론의 양상에 대해서는 원용진의 『대중문화의 패러다임』(한나래, 1997)을 참조.

29) 이는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이 커뮤니케이션 과정, 즉 메시지 해독의 방식을 설명한 ‘헤게모니적-지배적(hegemonic-dominant)’ 해독, ‘타협된-조합주의적(negotiated-corporate)’ 해독, ‘대항적(oppositional)’ 해독의 개념을 원용한 것이다. 임영호 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한나래, 1996), 20쪽과 301~304쪽 참조.

30) 대중예술의 통속성에 대한 미학적 접근에 대해서는 박성봉이 『대중예술의 미학』(동연, 1995)에서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필자는 위의 다섯 가지 요소 가운데 어떤 점이 1950년대 신문소설의 미적 요소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아직까지 1950년대 신문소설에 관한 연구가 빈약한 것을 감안하여 일단 실증적인 자료의 검토와 정리 작업을 중시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문학사회학과 수용미학의 방법을 주로 원용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950년대 신문소설을 고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그 배경적인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 시기의 영화·가요 등 대중문화의 양상과 신문의 성격은 어떤지 점검해 보고, 신문사측의 경영방침·편집방침에 대해 작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상호간의 관계를 밝히며, 신문소설에 대한 당대 독자들의 인식은 어떠했으며 참여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은 1950년대 신문소설 전반에 나타난 주요 작중인물들의 사회적 위상을 점검함으로써 그러한 작중인물 설정에 따른 의미를 사회성과 관련하여 포착하게 될 것이다. 그런 논의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내용 분석을 통해 1950년대 사회를 신문소설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는 주로 친미-반공 이데올로기³²⁾의 수용, 여성문제의

31) ① 웃음의 해학성(the comic): 난센스, 폭소, 앞치락뒤치락, 파이 집어던지기 또는 얼이 빠져 있는 사람들의 세계. ② 성의 관능성(the erotic): 정열, 키스, 강간, 스트립쇼, 성행위, 열려진 속옷 또는 검정 실크양말 등의 세계. ③ 폭력의 선정성(the sensational): 피, 공포, 테러, 복수, 폭력, 재앙 또는 죽은 자들이 떠다니는 세계. ④ 몽상의 환상성(the fantastic): 매혹, 경이, 몽상, 마법 또는 항상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세계. ⑤ 눈물의 감상성(the sentimental): 달콤한 고독, 흐느낌, 통곡, 향수, 흐물거리는 눈시울 또는 눈물에 젖은 손수건이 춤추는 세계. (위의 책, 323~324쪽.)

필자는 박성봉이 폭력과 관련하여 사용한 ‘선정성’이란 용어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야만성’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우르스 예기가 오락문학(통속소설)의 특징을 ① 구성의 공식성, ② 언어의 인습적 사용, ③ 판에 박힌 인물설정 방법, ④ 세계형상과 사회현상에 대한 허위보고, ⑤ 자기목표로서의 감각(감상성, 야만성, 관능성), ⑥ 가치전도(Urs Jaeggi, *Literatur und politik*(suhrkamp Verlag, 1972), p.105; 조남현 『소설원론』(고려원, 1988), 44쪽에서 재인용) 등으로 내세웠던 사실에서 원용한 것이다. 선정성이란 용어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은 관능성과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선정주의는 영어의 sensationalism을 번역한 말인데, 그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흔히 국어사전에서 ‘정욕을 불러일으킴’이라는 뜻의 선정(煽情)은 sensational의 일부일 수는 있어도 전부는 아니다. 현실에서는 선정성이 폭력적인 면보다 정적인 것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정주의는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시도하는 형식과 내용상의 기교, 노력, 과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폭넓은 용어라 할 수 있다(강준만, 『선정주의란 무엇인가』, 『대중문화의 결과 속』(한샘출판사, 1997), 173~178쪽 참조). 즉, 폭력도 선정성의 중요한 부분임은 분명하지만 폭력 이외의 요소도 선정주의로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32) 이데올로기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지만, 이 논문에서는 ‘가치체계로서,

부각, 사회부패상의 고발과 사회재건 의지의 발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인식의 양상을 추출하고 해명하게 될 것이다. 대중문학으로서의 신문소설에 관한 논의는 당대의 소설이 독자에게 호소하는 주된 요소는 어떤 것이 있으며 사회인식의 양상에서 대중소설적 성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도 살피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종합해 본다면 1950년대 신문소설의 소설사적 의의는 무엇이고 그 한계는 어떤 것인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의 대상은 1950년대 중앙일간지에 연재된 신문소설 중에서 당대 현실을 다룬 장편소설로 한정했다. 다시 말하면, 『동아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한국일보』 등 당대 중앙의 5대 일간지에 연재된 작품을 텍스트로 취하였으며,³³⁾ 시간적으로는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에 연재가 시작되어 1960년 4·19 이전에 연재가 끝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³⁴⁾ 또한 그 중에서 100회 이상 연재된 장편을 제외한 중·단편 연재물이나 연재 도중에 중단된 작품은 연구대상에서 배제시켰고,³⁵⁾ 다시 그 중에서도 당대(휴전 후 1950년대의 한국사회)의 현실이 시간적 배경으로 나타난 작품을 선택했다.³⁶⁾ 1950년대 소설을 논의하면서 전쟁기의 소설을 제외한 것은 전쟁 중에 씌어진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간에는 이질적인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기준으로 모두 34편을 선

한 집단이나 사회의 정치적·도덕적·사회적 이해관계나 행위 유형을 합리화시켜 주는 세계관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그 문학비평의 적용에 관해서는 여홍상,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문학비평」, 『소설과 사상』(1999.봄), 207~231쪽에서 상세히 논의되고 있다.

- 33) 국도신문, 세계일보, 연합신문, 자유신문, 평화신문 등도 1950년대의 종합일간지였으나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초반 모두 중간하여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 34) 예컨대, 「염상섭의 「취우」(조선일보, 1952.8.1.~1953.2.10.)는 전쟁 중에 연재된 작품이며, 김광주의 「석방인」(경향신문, 1953.7.10.~12.31.)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연재가 시작된 작품이고, 유희의 「제멋대로」(한국일보, 1959.11.18.~1960.5.18.)는 4·19 이후에 연재가 끝난 작품이다.
- 35) 임옥인의 「여대졸업생」(경향신문, 1957.2.20.~3.12.)은 단편이며, 염상섭의 「젊은 세대」(서울신문, 1955.6.21.~11.21.)는 미완의 작품이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대체로 1회당 200자 원고지 8~9매 분량을 게재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통상 분량면에서 200자 원고지 800매 이상을 장편으로 삼는 관례에 따라 100회 이상 연재된 작품만을 선정했다. 그리고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단편릴레이 형식의 몇 편을 빼면 중·단편이 연재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대부분 장편소설이 연재되었다.
- 36) 김팔봉의 「통일천하」(동아일보, 1954.3.11.~1955.10.25.)와 박종화의 「임진왜란」(조선일보, 1954.9.13.~1957.4.18.)은 각각 삼국시대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이며, 박계주의 「대지의 성좌」(동아일보, 1957.12.2.~1958.10.31.)는 일제시대의 이야기이며, 홍성유의 「비극은 없다」(한국일보, 1958.5.7.~12.2.)는 한국전쟁을 시간적 배경으로 작품이 전개되고 있다.

정하여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작품들을 발표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정비석, 「自由夫人」, 서울신문, 1954.1.1.~8.6.(215회)
김말봉, 「푸른 날개」, 조선일보, 1954.3.26.~9.13.(161회)
염상섭, 「未亡人」, 한국일보, 1954.6.16.~12.6.(151회)
김내성, 「愛人」, 경향신문, 1954.10.1.~1955.6.30.(265회)
박계주, 「별아 내 가슴에」, 서울신문, 1954.11.2.~1955.5.2.(175회)
정비석, 「民主魚族」, 한국일보, 1954.12.10~1955.8.8.(228회)
박화성, 「고개를 넘으면」, 한국일보, 1955.8.9.~1956.4.23.(245회)
박영준, 「荊冠」, 동아일보, 1955.10.26.~1956.3.26.(152회)
이무영, 「窓」, 경향신문, 1955.9.1~12.31.(122회)
유해준,³⁷⁾ 「招魂歌」, 경향신문, 1956.1.1.~5.30.(150회)
정한숙, 「女人의 生態」, 조선일보, 1956.4.1.~11.27.(201회)
정비석, 「浪漫列車」, 한국일보, 1956.4.25.~11.24.(213회)
김내성, 「失樂園의 별」, 경향신문, 1956.6.1.~1957.4.19.(284회)³⁸⁾
박화성, 「사랑」, 한국일보, 1956.11.25.~1957.9.15.(289회)
김말봉, 「生命」, 조선일보, 1956.11.28.~1957.9.16.(265회)
최인옥, 「愛情花園」, 서울신문, 1957.1.1.~7.4.(194회)
정비석, 「슬픈 牧歌」, 동아일보, 1957.3.20.~12.1.(257회)
김광주, 「薔薇의 寢室」, 경향신문, 1957.6.1.~11.30.(183회)
박영준, 「颱風地帶」, 서울신문, 1957.7.15.~1958.1.31.(200회)
안수길, 「第二의 青春」, 조선일보, 1957.9.17.~1958.6.14.(270회)
김말봉, 「花冠의 季節」, 한국일보, 1957.9.18.~1958.5.6.(228회)
장덕조, 「激浪」, 경향신문, 1957.12.1.~1958.5.31.(181회)
정비석, 「誘惑의 江」, 서울신문, 1958.2.1.~10.29.(271회)
박화성, 「來日의 太陽」, 경향신문, 1958.6.1.~12.14.(192회)
임옥인, 「젊은 設計圖」, 조선일보, 1958.6.15.~12.14.(183회)
장덕조, 「原色地帶」, 서울신문, 1958.10.30.~1959.5.31.(213회)

37) 유해준은 유희(兪湖)로 더 잘 알려진 작가다. 그는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하며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각색하기도 했다.

38) 「실낙원의 별」은 연재 도중 김내성이 작고함에 따라 2월 25일 257회를 끝으로 연재가 중단되었다가, 그의 장녀 김문혜(당시 이화여대 음악과 1년)가 그가 남긴 창작메모 등을 바탕으로 1957년 3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258회~284회) 연재하여 마무리지은 작품이다(김문혜, 「『실낙원의 별』을 끝맺으며」, 『경향신문』(1957.4.23. 참조). 이 연구에서는 이 작품을 미완의 작품으로 처리하지 않고 논의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무영, 「季節의 風俗圖」, 동아일보, 1958.11.1.~1959.7.15.(255회)
김말봉, 「歡喜」, 조선일보, 1958.12.15.~1959.6.21.(217회)
김광주, 「黑白」, 서울신문, 1959.4.20.~11.29.(199회)
손소희, 「太陽의 詩」, 한국일보, 1959.5.1.~9.5.(117회)
안수길, 「浮橋」, 동아일보, 1959.7.21.~1960.4.1.(254회)
김영수, 「氷河」, 조선일보, 1959.7.22.~1960.4.4.(256회)
정비석, 「燕歌」, 서울신문, 1959.8.1.~1960.4.12.(256회)
한무숙, 「빛의 階段」, 한국일보, 1959.9.6.~1960.2.6.(150회)

이 논의에 포함된 대상 작품의 작가들은 모두 18명이다. 각각의 작품들은 모두 신문연재본을 그 텍스트로 삼았으며, 신문연재 후에 출간된 단행본은 보조자료로만 활용하였다.



II. 1950년대 신문소설의 성장 배경

1. 대중문화의 양상과 신문의 성격

대중문화란 사회적 제도이며, 불가피하게 다른 사회적 제도와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다.¹⁾ 마찬가지로 대중문학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신문소설은 자족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 작품을 둘러싼 사회환경에 좌우되는 요소가 훨씬 많게 나타난다. 따라서 1950년대 신문소설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의 문화적 환경 혹은 대중문화의 양상과 신문의 성격을 견주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문소설은 대중문화의 일반적 속성을 많이 지니고 있으며, 신문이라는 매체에 연재되는 소설이기에 당시 신문의 구조적 성격 등에서 상당부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1950년대 대중문화의 양상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950년대 신문소설의 양상을 논의하면서 중요하게 검토해 볼 영역은 영화 부문이다. 당대에는 전례 없이 영화가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영화와 신문소설이 서로 적잖은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쟁 후의 1950년대는 한국영화의 '전성기'²⁾ 혹은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영화는 사극·멜로드라마·전쟁영화 등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 사극영화는 1955년 「춘향전」(이규환 감독)이 제작되어 12만 명의 관중을 동원하는 기록을 남기면서 흥행에 성공했는데, 그밖에도 고소설, 왕조애화(王朝哀話), 야사(野史) 속의 로맨스 등을 바탕으로 많은 역사물이 영화로 만들어졌다. 이를 테면 「양산도(陽山道)」(1955, 김기영 감독)·「막난이 비사」(1955, 김성민 감독)·「마의태자」(1956, 김창근 감독)·「구원의 정화(情火)」(1956, 이상만 감독)·「단종애사」(1956, 전창근 감독)·「무영탑」(1956, 신상옥 감독)·「시집가는 날」(1956, 이병일 감독)·「봉이 김선달」(1957, 한홍렬 감독)·「선화공주」(1957, 최성관 감독) 등이 그것이다. 1950년대 중반에 사극과 함께 흥행을 이끈 영화는 멜로드라마였다. 당시에 나온 최초의 멜로드라마 흥행작은 정비석의 신문소설을 영화화한 「자유부인」(1956, 한형모 감독)이었는데, 이 영화는 11만

1) 원용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한나래, 1997), 24쪽.

2) 김소희, 「『아리랑』에서 『파업전야』까지」, 한국역사연구회,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1』(역사비평사, 1998), 88쪽. 김소희는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는 한국영화의 눈부신 전성기였다”고 언급하였다.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이후 「아름다운 악녀」(1958, 이강천 감독)·「실낙원의 별」(1957, 홍성기 감독)·「별아 내 가슴에」(1958, 홍성기 감독)·「산 넘어 바다 건너」(1958, 홍성기 감독)·「청춘극장」(1959, 홍성기 감독)·「어느 여대생의 고백」(1958, 신상옥 감독)·「그 여자의 죄가 아니다」(1959, 신상옥 감독)·「춘희」(1959, 신상옥 감독)·「로맨스 빠빠」(1960, 신상옥 감독) 등 많은 멜로드라마들이 흥행에 성공하였다. 전쟁영화는 주로 반공을 주제로 하여 처참한 전쟁의 비극을 반영하면서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가미한 경우가 많았다. 「자유전선」(1955, 김홍 감독)·「피아골」(1955, 이강천 감독)·「포화 속의 십자가」(1956, 이용민 감독)·「비극은 없다」(1956, 홍성기 감독) 등이 당시의 대표적인 전쟁영화들이었다.³⁾

1950년대 영화에서 특히 멜로드라마의 양상은 당시 시대상과 세태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 검토하는 신문소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당시 멜로드라마에서 유한부인들과 여대생들의 탈선, 미국식 자유주의와 퇴폐·향락주의 풍조 등이 주된 이야기거리로 등장하는데 이런 점은 신문소설의 양상과 일치한다.

특히 1950년대에는 영화 「자유부인」⁴⁾의 흥행 성공에 힘입어 많은 문학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이 논문의 논의 대상으로 삼은 신문소설 중에서도, 정비석의 「자유부인」·「낭만열차」·「슬픈 목가」·「유혹의 강」, 김내성의 「애인」·「실낙원의 별」, 김말봉의 「생명」, 박계주의 「별아 내 가슴에」 등 총 34편 가운데 23.5%에 해당되는 8편이 영화로 제작된 작품들이다.⁵⁾ 특히 정비석 소설의 경우 6편 중 4편이 영화화된 것을 본다면, 그의 소설은 당대 대중들의 관심사나 취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소설은 영화의 시나리오를 제공하였고, 영화는 소설을 대중화시켰”⁶⁾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은 1950년대 신문소설이 대중성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정중화, 『자료로 본 한국영화사 2(1955~1997)』(열화당, 1997), 7~29쪽.

4) 영화 「자유부인」 시리즈는 모두 6편이다. 1956년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을 필두로 1957년에 김하림 감독의 「속 자유부인」, 1969년에 강대진 감독의 「자유부인」, 1981년에 박호태 감독의 「자유부인 '81」, 1986년에 박호태 감독의 「자유부인 2」, 1990년에 박재호 감독의 「자유부인」이 제작되었다. 김유리, 「「자유부인」 영화들—시대상의 반영과 반동적 해석의 두 얼굴」, 『멜로드라마란 무엇인가—「자유부인」에서 「접속」까지』(민음사, 1999), 47~49쪽.

5) 『한국영화 1919~1989 작품색인』(영화진흥공사, 1990) 참조.

6) 최인자, 「문학과 영화」, 문학과학연구소, 『문학의 이해』(삼지원, 1999), 197쪽. 지금은 시나리오가 전문작가에 의해 독자적인 장르로 분화되고 있는 형편이지만, 초기만해도 극영화는 소재의 대부분을 소설에 의지하였다. 또한 소설은 영화화를 계기로 삼아 집단적이고 대중적인 소통방식을 개척하였다. 1950년대에서 소설과 영화의 관계는 이같은 양상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1950년대에는 외국영화 수입이 늘면서 많은 한국의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1955년부터 1957년까지 3년간 국내에 개봉된 영화는 모두 461편이었는데, 그 중에 외국영화가 385편으로 83.5%를 차지하였음⁷⁾은 당시의 외국영화가 대중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음을 입증해 준다. 당대의 잡지에 실린 영화광고를 모아 출간한 『궁핍한 시대의 희망, 영화—1950년대 우리 잡지에 실린 영화광고』(열화당, 1989)에 수록된 488편의 영화 가운데에서도 75.2%인 367편이 외국영화였다. 수입된 외국영화의 대부분이 미국 할리우드 영화였음을 볼 때,⁸⁾ 미국영화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김중원의 「1950년대 영화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회고가 실려 있다.

(……) 어느새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미국의 반항아 제임스 딘이 과속으로 거리를 질주했다. 「로마의 휴일」(1953)의 앤 공주 오드리 헵번이 짧은 커트머리로 단숨에 ‘헵번 헤어스타일’을 선보이면서 유행가의 스타가 되었고, 「돌아오지 않는 강」(1954)의 마릴린 문로는 선정적인 엉덩이 걸음 하나로 일약 글래머라는 말과 함께 ‘문로 워크’ 선풍을 일으켰다.⁹⁾

이런 양상은 세계적인 열풍이면서 동시에 우리 나라에 그대로 이식되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안정효의 장편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1992)에서 보더라도 1950년대 한국사회에서 미국영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현실에 굳게 정착하지 못하는 정신적 부유(浮遊)의 삶이었기 때문에 영화 속 현실을 실제 현실로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이다.

한편, 1950년대 신문소설에는 영화적 요소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배우·감독·시나리오 작가·영화회사 관계자 등이 주요 인물로 나오는 작품도 적지 않다. 「별아 내 가슴에」·「애정화원」·「화관의 계절」·「환희」·「흑백」 등이 대표적

7) 1955~57년 국내 개봉영화 국산·수입 대비표

연도	한국영화	수입영화	계
1955년	10편	150편	160편
1956년	26편	115편	141편
1957년	40편	120편	160편
계	76편	385편	461편

이정선, 「마스·미디어로서의 한국영화—영화 기획의 방향과 우리의 반성」, 『자유세계』 1958년 4월호, 167쪽 참조.

8) 해방 이후 우리 나라에 수입된 외화(外畵)의 80~90%가 미국영화다. 박명진, 「대중문화의 현실—영화」, 강현두 편, 『한국의 대중문화』(나남, 1991), 190쪽.

9) 김중원, 「50년대 영화 이야기」, 열화당 영상자료실 엮음, 『궁핍한 시대의 희망, 영화—1950년대 우리 잡지에 실린 영화광고』(열화당, 1998), 10쪽.

인 예다. 김광주의 「흑백」에는 영화 촬영 장면이 수차례 묘사된다. 작중인물들이 영화를 관람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고, 영화관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도 나타나며, 주연배우들에 관한 대화가 오가는가 하면, 영화의 내용이 소개되는 경우도 있다. 작중인물들이 관람하는 영화는 한결같이 외화들이라는 점은 당대의 문화적 풍속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듯 1950년대의 한국영화는 사극·멜로드라마·전쟁영화 등이 많이 제작되었는데 특히 멜로드라마는 당대를 다룬 신문소설의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이 영화와 만나면서 대중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할리우드영화가 많은 관객을 모으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미국문화가 한국에 급속히 전파된 점도 주목할 점이다.

대중가요도 1950년대의 문화적 환경을 읽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일제 시대에 형성된 양식들이 주도하면서 새로운 세태를 담아냈고, 지금 들으면 당혹스러울 정도로 이국취향을 과시하는 작품들이 많은 것도 1950년대 대중가요의 한 특징이다. 특히 미국 대중음악과 닮으려고 하거나 미국을 연상시키는 요소의 삽입 등 기존의 작품 관행에서 크게 이탈하는 현상은 1950년대만의 특징이다. 당시 유행했던 가요를 몇 편 예시해 본다.



럭키 모닝 모닝 모닝 럭키 모닝 / 달콤한 바람 속에 그대와 나 / 새파란 가슴에 꿈을 안고서 / 그대와 같이 부르는 스윙 멜로디 / 랄랄랄 랄랄라라라 단들이 불러보는 럭키 모닝 (「럭키모닝」, 1956, 유광주 작사, 전오승 작곡)

오늘은 선데이 희망의 아베크 / 오늘은 선데이 행복의 아베크 / 산으로 바다로 젊음이 쌍쌍 / 다같이 노래하는 청춘의 세계란다 / 오늘은 선데이 그대와 함께 / 오늘은 선데이 즐거운 아베크 / 지는 해가 야속터라 청춘 아베크 (「청춘 아베크」, 1957, 이철수 작사, 이재현 작곡)

벤조를 울리며 마차는 간다 마차는 간다 / 저 산골을 돌아서가면 내 고향이다 / 이랴 어서 가자 이랴 어서 가자 구름이 등실대는 고개를 / 꾸불 꾸불꾸불 넘어간다 말방울 울리며 마차는 간다 (「내 고향으로 마차는 간다」, 1955, 유노완 작사, 전오승 작곡)

뷰너스 동상을 얼싸안고 소근대는 별 그림자 / 금문교 푸른 물에 찰랑대며 춤춘다 / 불러라 샌프란시스코야 태평양 로맨스야 / 나는야 꿈을 꾸는 나는야 꿈을 꾸는 아메리칸 아가씨 (「샌프란시스코」, 1952, 손노원 작사, 박시춘 작곡)

럭키, 모닝, 빌딩, 스윙 멜로디, 선데이, 아베크, 벤조, 뷔너스, 샌프란시스코, 로맨스 등의 서양말을 과시적으로 사용한 흔적과 서양 풍경의 상상적 묘사가 어색하게 나타난다. 특히 「내 고향으로 마차는 간다」, 「아리조나 카우보이」(1955, 김부해 작사, 전오승 작곡) 같은 가요에서는 미국 서부영화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에는 ‘뷔너스 동상’이라는 샌프란시스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가 등장하거나 ‘태평양 로맨스’ 같은 과시적인 영어 사용이 두드러진다.¹⁰⁾ 이러한 사실은 당대인들의 가요가 이국취향(exoticism)과 미국지향성의 풍조를 반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들이다.

이처럼 1950년대에 영화와 대중가요 등 대중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대중사회의 도래’¹¹⁾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사회와 문학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1950년대의 신문들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신문소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문학은 매체(media)에 의존하여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양식”¹²⁾이므로 신문소설을 독자에게 전달한 매체인 신문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문의 대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그것은 우선 식자층 급증에 따른 독자층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1950년대는 학교, 학생수, 교원수, 취학률 등에 급격한 증가를 보인 시기였다. 1940년도의 취학률이 31.7%였으나 1945년도에는 64%, 전쟁 직전에는 81.8%로 급증했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던 취학률은 1954년에는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1960년에는 95.3%에 이르렀다. 이러한 교육의 양적 성장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근대화과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³⁾ 1950년대에는 해방 직후 어떤 정책보다도 선행해서 이루어진 의무교육제도의 보급과 국민의 높은 교육열의 영향으로 식자층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신문의 독자도 그만큼 증가하는 현상을 낳게 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문자 미디어는 전통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더욱이 구한

10)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시공사, 1998), 99~138쪽.

11) 박명림, 「195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민주주의 ‘제도’와 권위주의 ‘실천’의 역사적 조건」,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역사비평사, 1998), 72쪽.

12) 김재국, 「사이버문학」, 임성래 외 6인,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청예원, 1999), 266쪽.

13) 임대식, 「195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친미 엘리트의 형성」,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역사비평사, 1998), 139쪽.

말의 개화언론에서 비롯하여 일제하의 민족언론을 거쳐 해방후의 반공언론으로 이어지는 ‘사회의 목탁’으로서의 신문의 공익기능은 독자들로부터 커다란 기대와 신뢰를 받고 있었다. 1950년대의 언론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문의 年代’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¹⁴⁾ 이러한 지적은 1950년대 신문의 사회적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50년대 한국 신문기업들의 물질적 토대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신문기업의 소유주들은 대부분 원조자금을 특혜로 용자받아 자본을 축적하였고, 이들 신문기업은 신문용지의 구입비용과 운전기 등 시설구입비용을 원조자금에 의존함으로써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당시 국가권력은 지속적으로 신문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신문기업의 물질적 토대에 개입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신문상품이 담을 수 있는 내용에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법률적·정치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한국신문의 성격을 규정하는 지배적인 요인은 국가권력이었으며, 산업자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한국신문은 자본가 계급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던 국가권력의 지배이데올로기인 반공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¹⁵⁾ 당시 신문이 반공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녔다는 사실은 신문소설의 양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1950년대는 한국 언론기관에 상업주의가 비롯된 시기이자 사기업으로서의 언론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로 규정된다.

韓國言論機關에 商業主義가 비롯된 時期는 1950年代라고 할 수 있다. 이 時期에는 電波媒體가 아직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商業主義가 움트기 시작했다. 또한 1950年代는 韓國動亂의 종결과 함께 韓國社會의 構造的 轉換期이며 동시에 西歐文化가 도입된 시기로, 近代化와 西歐化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커지고 都市의 人口集中으로 말미암아 大衆社會, 大量生産이 움튼 시기였다. 이 때에 創刊된 新聞들은 政治志向性을 탈피하고 신변잡기와 퀴즈 등으로 채워진 일요판과 부록 등 서비스 페이지를 중심으로 傳統있는 신문을 누르고 경이적인 發行部數를 기록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타 新聞들도 大衆의 기호에 알맞는 방향으로 편집을 전환해 나갔다. 이와같이 商業主義 傾向은 言論史의인 側面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었으며 企業과 編輯의 양면에서 現代의인 體質改善을 이룬 것이다.

14) 최정호 외 2인, 『매스미디어와 사회』(나남, 1990), 138~139쪽.

15) 최영석, 「1950년대 한국신문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89), 104~106쪽.

1950年代는 私企業으로서의 言論機關의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기 시작한 시기였다.¹⁶⁾

이러한 지적은 사회 구조적인 변동과 관련하여 신문매체의 상업주의¹⁷⁾와 신문사의 사기업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당시 창간된 신문은 『한국일보』를 말하는 것인데,¹⁸⁾ 『한국일보』는 그런 의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창간 직후 염상섭을, 그 뒤를 이어 정비석을 연재소설의 필자로 끌어들이는 바 있다.¹⁹⁾ 특히 1950년대 신문들이 ‘대중의 기호에 알맞는 방향으로 편집을 전환해 나갔다’는 점은 신문소설의 성격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 분명하다.

1950년대에는 중앙에서 간행되는 종합일간지로 『경향신문』·『국도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연합신문』·『자유신문』·『조선일보』·『평화신문』·『한국일보』 등 10개지(個紙)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한 일간지는 『경향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조선일보』·『한국일보』 등 5개지 정도로 할 수 있다. 1950년대의 중앙 일간 신문기업과 그 신문 발행 부수는 다음과 같다.

<표1> 1950년대 중앙 일간 신문기업²⁰⁾

신문명	창간일	중간일	발행인
경향신문	1946.10. 6.	현존	한창우
국도신문	1949. 4. 7.	1961. 5.28.	김장성
동아일보	1920. 4. 1.	현존	국태일
서울신문	1945.11.22.	현존	김형근
세계일보	1957. 1. 1.	1960. 7. 8.	설국환
연합신문	1949. 1.22.	1960. 7.11.	김성근
자유신문	1953. 9. 6.	1961. 8. 6.	백남일
조선일보	1920. 3. 5.	현존	방일영
평화신문	1949.10.18.	1961. 1.31.	홍 찬
한국일보	1954. 6. 9.	현존	장기영

자료: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신문백년지』(1983); 『한국신문편집인회보』, 1957년 8월 13일자 및 1957년 10월 29일자 참조. *발행인은 1957년 8월 기준.

- 16) 원우현, 「한국언론제도의 구조에 관한 서술적 고찰」, 『신문학보』 제14호(1981), 92쪽.
 17) 송지영도 「문학과 신문문화면」이라는 좌담회에서 당시의 신문을 ‘상업신문’으로 규정한다. 『자유문학』(1957.9.), 83쪽과 87쪽.
 18) 이상우는 “50년대 한국 상업주의신문의 대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은 『한국일보』의 창간일 것”이라고 했다. 이상우, 「언론 운영의 상업주의」, 강현두 편, 『한국의 대중문화』(나남, 1991), 119쪽.
 19) 서광운, 『한국신문소설사』(해돋이, 1993), 323쪽.
 20) 최영석, 앞의 논문, 26쪽.

<표2> 1950년대 중앙일간지 발행 부수²¹⁾

연도 신문명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 경향신문	43,000	100,000				201,875 240,000
㉡ 동아일보	80,000	176,000 200,000			300,000	350,000 400,000
㉢ 서울신문	63,000					
㉣ 조선일보	45,000 60,000	66,000 80,000	80,000	95,000		100,000
㉤ 한국일보	8,000 38,000	66,100 65,000	74,600	100,000	125,800	166,300
㉥ 국도신문		20,000				
㉦ 연합신문		32,800				
㉧ 자유신문		30,000				
㉨ 평화신문		68,000				

자료: ㉠ 최준, 『한국신문사』(일조각, 1983), 406쪽; 대한신문연감편찬위, 『대한신문연감』(1956), 479쪽; 문화방송경향신문, 『문화경향사』(1976), 211쪽; 정진석, 『한국현대언론사론』(전예원, 1985), 344쪽/ ㉡ 최준, 위의 책, 406쪽; 『대한신문연감』, 479쪽;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사사』권2(1978), 213, 234, 272쪽; 「좌담—이것이 한국의 신문이다」, 『사상계』 1960년 10월, 106쪽/ ㉢ 1954년의 63,000부 중 12,000부는 군대(軍隊). 최준, 위의 책, 406쪽/ ㉣ 최준, 위의 책, 406쪽; 『대한신문연감』, 479쪽; 조선일보60년사편찬위원회, 『조선일보 60년사』(1980), 312~320쪽. 사사에 기록되어 있는 부수는 유가지 부수임/ ㉤ 최준, 위의 책, 406쪽; 『대한신문연감』, 479쪽; 『한국일보』 1964년 6월 9일/ ㉥㉦㉧㉨ 『대한신문연감』, 479쪽.

위 신문들 가운데 『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의 발행 부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들 신문의 발행 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 신문들은 비교적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편 신문들로, 이들 신문의 발행 부수가 많았던 것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 민중들이 지니고 있던 현실변혁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²²⁾ 당시 가장 야당성이 강했던 『경향신문』이 1959년 4월 30일에 강제폐간된 사태는 당시 신문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실상을 가늠케 하는 사건이다. 아울러 신문사 자체의 상업적인 판매 전략도 이들 신문의 발행 부수를 늘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본다. 『서울신문』은 정부의 기관지여서 경영상태의 취약성 여부에 그다지 구애받지 않고 발행해 나갈 수 있었으며, 특히 「자유부인」이 연재될 무렵에는

21) 위의 논문, 41쪽.

22) 위의 논문, 40쪽.

상당히 많은 독자를 확보하였다.

1950년대 들어 신문들이 보여준 또 하나의 변화는 대폭적인 증면이다. 각 신문의 증면 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955년 1월에 각 신문들은 2면에서 4면으로 증면되었고, 1958년 후반에는 6면으로 증면되었다. 1959년 전반기에 이르러 각 신문기업들은 조·석간 8면을 발행하였다.²³⁾ 이러한 신문의 증면에 따라 신문사들은 소설을 연재하는 데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1950년대 후반 들어 두 가지의 연재소설이 동시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물론 1950년대 중반까지도 장편연재 도중에 단편이 연재되는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장편 두 편이 동시에 연재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동아일보』는 1956년 4월부터, 『경향신문』은 1957년 7월부터, 『조선일보』는 1957년 9월부터, 『서울신문』은 1958년 10월부터, 『한국일보』는 1958년 11월부터 대체로 장편을 두 편씩 연재하였다. 이 경우 한 편은 역사물이고 다른 한 편은 현대물이 연재되는 게 일반적인 방향이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루어진 교육의 양적 팽창에 따른 식자층의 증가, 신문의 상업주의적 성격이나 신문의 증면 현상 등은 신문소설의 성격에 변화를 초래하고 신문소설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상업주의 경향과 작가들의 역할

앞에서 살펴본 대로 1950년대는 신문의 상업주의가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린 시대로서 신문소설 역시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정비석의 「자유부인」 등과 같은 작품이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²⁴⁾은 신문의 상업주의를 본격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自由夫人』 이후 신문연재소설의 상업주의 성향은 더욱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요컨대 『自由夫人』의 놀라운 대중적 반향을 접한 이후 신문의 經營主측은 새삼 신문소설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기왕의 연재소설을 십분 활용해 販賣高를 올려보자는 계산에

23) 위의 논문, 42쪽.

24) “「자유부인」을 연재하는 동안에는 『서울신문』의 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다가 연재가 종결될과 동시에 5만 2천부 이상이 일시에 격감되었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우리 나라 신문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정비석, 「작가의 말」, 『자유부인』1(고려원, 1996), 8쪽.

지 이르게 되어 이제 신문사측은 아예 신문연재소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自社 발행 신문의 販賣高 신장이라는 등식을 내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⁵⁾

위의 설명에도 나타나듯이 신문사 측에서는 신문소설을 통해 ‘자사 발행 신문의 판매고 신장’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문의 상업주의화 현상은 1930년대에 어느 정도 엿보이기 시작했지만²⁶⁾ 노골적으로 표면화된 시점은 1950년대였던 것이다.

지면이 급증한 상황에서 신문사 측에서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재소설을 이용한 것은 부정적인 면을 초래한 요소이기도 했다. 신문마다 그 뉴스의 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각 신문사 측에서는 독자에게 그날그날 자사 신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한 유인책을 주로 소설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新聞企業主는 뚜렷한 目的을 가지고 新聞에 小説을 連載하는 만큼, 作者側에서도 新聞連載小説에 對할 때에는 暗黙裡에 그 要求 條件을 承認하는 結果가 된다. 즉 企業主로 볼 때에는 連載小説 自體가 純粹한 讀者 奉仕이므로, 讀者가 읽어서 반드시 滋味있는 小説—다시 말하면 讀者가 連載小説로 因해서 그 新聞에 愛着을 가질만한 小説을 쓰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아서 成敗는 如何間에 于先 그만한 附帶 條件만을 念頭에 두어야 한다. 藝術的이거나 非藝術的이거나, 新聞社로서는 그런 點에는 關與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萬人이 읽어서 재미있는 小説, 그러므로 해서 讀者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끌 수 있는 小説이었으면 그만이다. 그것은 비록 成文化된 條件은 아니지만, 新聞小説에 따르는 하나의 不文律的 要求가 아닐가 한다. 新聞小説이 자칫하면 低俗한 通俗小説에 떨어지기 쉬운 危險性이 여기에 潛在한다. 그러한 危險性을 어떻게 避해가면서 모든 讀者들에게 最大公約數의 文學作品을 꾸며나가는가 하는 것이 新聞小説 執筆家의 苦心인 것이다.²⁷⁾

신문사의 입장에서는 연재소설을 통하여 독자 수를 늘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집필을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작가는 그 요구조건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문사측이 노골적으로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재미있는 소설을 작가에게 요구하게 되면서, 이러한 상업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설은 연재 도중에

25) 박철우,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 연구」(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6), 7쪽.

26) 1930년대 초반에 “(신문에서) 민중을 리드하는 목탁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상품화·부르주아의 기관화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량, 「타락한 민간신문」, 『제1선』, 1933년 2월, 7~8쪽. 김한식, 「1930년대 후반기 장편소설론 연구—통속소설론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제9호(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238쪽에서 재인용.

27) 정비석, 「신문소설론」, 『소설작법』(문성당, 1957), 220~221쪽.

도 중단되는 일까지도 있었다.

김팔봉이 『서울신문』에 역사소설 「군웅(群雄)」을 연재하다가 일방적으로 집필을 거부당해 작가와 신문사간에 공방이 오갔던 사건은 연재중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한 김팔봉이 『경향신문』에 「무례지극(無禮之極)」이라는 항의성 글을 발표하였는가 하면 박계주·최정희 등 61명의 작가들이 ‘작가권익옹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신문』에 연재소설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었다. 당시에 작가들이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서울신문은 소설을 게재하다가 그때마다 제 마음대로 百五十回라든가 百三十回라든가 지정해 주고서 그것으로써 완료시키어 온 것이 확실하였”고, “이와 같은 불명에 피해자는 최근五六년간만 해도 金末峰, 李無影, 崔貞熙, 朴啓周, 李鍾桓, 廉想涉” 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²⁸⁾ 다음의 인용문도 신문의 상업주의화에 따른 파장을 적시(摘示)하고 있다.

(……) 新聞連載小説을 쓰는 데 있어서도 取材가 農村, 農民이라면 벌써 新聞社側에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이다. (……) 우리 주위의 그 腐敗 頹廢한 現實과 風俗, 거기서 發達한 것은 一般大衆의 低俗한 趣味, 그 趣味에 迎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쓰는 人氣小説 가운데에는, 實로 우리 文學史의 어느 新聞小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破廉恥한 場面까지 나간 것이 많다. 여기서 農民小説을 쓴다면 설마 農村을 그리면서, 댄스파-티가 나오고, 露骨的인 性慾 場面이 그려질 수 없을 것이니까, 찌널리즘에서 農民小説을 歡迎하지 않을 것은 事實이다.²⁹⁾

작품의 제재나 내용에서도 독자의 취향에만 영합하는 신문사의 상업주의에 작가들이 좌우되는 경향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신문사측에서 연재소설을 철저히 독자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였고, 작가들은 그에 따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무영이 「계절의 풍속도」를 연재하기 직전에 언급한 다음 부분은 당시의 그런 분위기에 처한 신문사와 작가간의 역학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너무 작자 본의로만 고집하지 말고 신문사 생각도 좀 해 가며 쓰시오.” 이렇게 웃으며

28) 김팔봉, 「『서울신문』과 집필거부와 나」, 『신세계』(1957.1.), 139~145쪽. 이 글에서는 「군웅」이 연재를 중단케 된 경위와 그 일로 촉발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29) 백철, 「농민문학을 제안—민족문학의 제재를 넓힌다?」, 『자유문학』(1956.7.), 227~228쪽.

하는 편집자 앞에 나는 또 “신문사 생각만 마시고 작자 생각도 해 주시오.” 하고 웃으며 협상이 되었다. 이쯤 되면 신문사도 작자도 별로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³⁰⁾

이무영은 노골적으로 ‘협상’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며 신문소설을 연재하는 데 따른 신문사측과 작가의 줄다리기를 양상을 말하고 있다. 신문의 판매 부수를 신장하는 일과 연계하려는 신문사측의 입장과 문학성을 견지하려는 작가들의 입장이 맞설 수밖에 없게 되지만, ‘신문사도 작자도 별로 큰 손해를 보지 않을’ 만한 선에서 ‘협상’한다는 것이다. 결국 적당한 지점에서 타협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작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들과의 반응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영준과 안수길은 각각 「태풍지대」와 「제이의 청춘」의 연재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신문소설을 집필하는 작가들이 독자들과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 하는 점을 시사해 준다.

㉠ 신문소설을 쓸 때마다 시험을 치는 것 같은 초조를 느끼게 된다. 소설을 읽을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는 독자들과의 얼굴이 무서운 그림자처럼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소한도 꾸지람을 하는 독자가 없도록 써야 하겠다. 그리고 최소한도 나의 문학이라고 내세울 만한 작품을 써야겠다.³¹⁾

㉡ 많은 독자에게 읽어줍소사 하는 것이므로 글이 힘들고 지루해서는 안 되겠고 같은 남녀의 애정을 다루는 데에도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나 서툰 글발이라 성과가 어떨지 오직 여러분의 편달을 바랄 뿐입니다.³²⁾

㉠에서 박영준은 독자의 반응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신문사측의 눈치를 의식하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최소한도 나의 문학이라고 내세울 만한 작품을 써야겠다’면서 작품성을 추구하려는 의지도 표출하고 있다. ㉡에서 안수길이 ‘힘들고 지루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흥미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작가는 독자의 구미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품위를 잃어서도 안 되겠다’고 함으로써 대중과 야합하여 독자의 취향만 따라갈 수는 없음을 표명하고 있

30) 「다음 4면 연재소설 ‘계절의 풍속도」, 『동아일보』(1958.10.19.).

31) 「다음에 연재할 소설 ‘태풍지대」, 『서울신문』(1957.7.13.).

32) 「다음 연재소설 ‘제이의 청춘」, 『조선일보』(1957.9.15.).

다. 특히 안수길은 이런 입장 때문에 신문소설이 ‘통속소설이면서도 예술소설’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속적인 이야기(素材)를 문학적으로 구상 표현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재미있는 줄거리로 끌고 나가되, 그것이 품위와 더불어 작가의 강력하고 투철한 전제의식(全題意識)에 집중”됨으로써 “독자가 매일매일, 흥미를 가지고 읽는 동안에 작가가 제시하는 문제를 작가와 함께 생각하고 그러면서 표현(문장)과 구성이 세련되어 있어 문학적인 감흥에까지 끌리어 올라가게” 하는 것이 ‘통속소설이면서도 예술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³³⁾

그러나 예술성과 통속성을 동시에 추구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었다. 작가들은 신문사의 상업주의 경향에 적절히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는 작가들이 소설 내용에서 신문사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말봉의 「환희」에서는 소설 연재지인 『조선일보』를 작품 내용 가운데에 여러 차례 노골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신문사를 홍보하고 있다.

순영은 도시락을 받아놓고 이것저것 집어먹으며 수화기를 든다.

“거기가 조선일보사예요? 영업부로 좀 바꿔주세요...영업부야요? 여기는 「아마존」(여인왕국)영화주식회사인데요 신문 좀 배달시켜 주세요, 오늘부터 구독하겠어요. 주소요? 충무로이거 ××번지 당구장 이층야요.”

사무실에 신문이 한 가지도 없는 것을 살펴본 순영은, 이렇게 신문구독을 의뢰해 놓았다. (「환희」 156회)

“당선된 분의 이름은 조선일보 내일 아침 조간에 발표하겠습니다. 당선된 분은 내일 아침 열한시까지 ‘아마존’영화회사까지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환희」 168회)

이튿날 날이 새자 찬애는 신문을 기다렸다. 배달된 신문은 조선일보는 아니다.

“백모님 조선일보 안 와요?”

하고 물어본다.

“아니다. 우리는 ××신문이다. 네 오빠가 ××신문사 기자가 아니냐.”

따는 그럴 듯도 하다. 찬애는 거리로 뛰어나왔으나 신문팔이는 눈에 띄우지 않는다.

찬애는 북미창동에서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까지 한달음질로 달려갔다.(「환희」 169회)

조선일보사에 전화를 걸어 『조선일보』를 구독 신청하는 장면, 『조선일보』를 통해

33) 안수길, 「창작 여담—「제이의 청춘」을 쓰고 나서」, 『신문예』(1958.8.), 15쪽.

신인배우 합격자를 발표하겠다는 장면, 백모집에서 『조선일보』를 구독하지 않자 조선일보사까지 신문 구하러 가는 장면 등이 그려져 있다. 반면에 다른 신문은 ‘××신문’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 작가가 노골적으로 신문사의 상업주의 방침에 야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향신문』에 연재된 「실낙원의 별」에서도 ‘K신문’이라 하여 연재지를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인공 <강석운>이 K신문에 소설을 연재한다든지, <강석운>이 애정의 도피행각을 벌이고 <김옥영>이 가출하자 큰딸이 부모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K신문에 게재한다든지, <송찬>이라는 K신문 기자가 등장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물론 당시 발간되던 『국도신문』도 K신문일 수는 있지만 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신문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K신문이라 하면 당연히 『경향신문』을 떠올렸을 것이다.

작가들이 상업주의에 부응한 현상은 통속성의 측면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작가들이 통속적 요소를 더 많이 끌어들이면서 독자의 관심을 모으려던 경향이 많아졌던 게 사실이다. 이 점은 1950년대 신문소설이 대중소설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분이다.³⁴⁾

이상에서 1950년대의 신문의 상업주의 경향과 작가들의 대응을 살펴본 결과, 신문사의 상업주의에 연재소설 역시 영향을 받았고, 어떤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소설이 게재되는 신문을 홍보하기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점들은 작가들이 통속성의 요소를 적극 활용한 것과 함께 신문소설은 곧 통속소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신문사 측의 상업성 추구가 노골화되고 작가들이 그에 추종한 결과 신문소설은 곧 흥미만을 추구하는 통속소설이라는 관념을 대중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1950년대의 신문소설들이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3. 독자들의 인식과 참여의 양상

높은 교육열과 식자층의 증대로 신문 독자가 늘었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는 신문소설의 독자가 그만큼 많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다. 신문사측의 상업주의 전략 역시 신문소설 독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1950년대 독자들은 신문소설을 어떻게 인식·수용하고 있었

34) 통속성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IV장에서 논하기로 하겠다.

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정태용은 1950년대 신문소설의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신문소설의 배경적 요인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문소설이 사회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휴전 전후부터다. 이 시기에도 그러나 鄭飛石의 「自由夫人」을 제외하고 나면 대개는 신문 體裁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 「自由夫人」은 말하자면 신문소설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인식시켜 준 중요한 역할을 했다.

五四년에 들어 신문이 倍大版 四面으로 되면서부터 연재소설은 뺄 수 없는 것이 되었고, 五八년에 들어 朝夕刊制가 실시되자 그 수요량은 부쩍 늘어서, 이제까지 藝術小說 부분에 머물던 사람들까지도 신문소설에로 대량 진출해 갔다.

그러나 休戰 전후로부터 이제까지 六~七년 동안 신문소설로서 많은 독자를 이끌었고 또 물의를 일으켜 준 것은 전기한 「自由夫人」과 金來成의 「失樂園의 별」 정도다. 또 역사물로서 현대사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임혀진 것은, 朴鍾和의 「壬辰倭亂」이며, 이것은 量的으로도 단연 다른 것을 壓倒하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金八峰의 「統一天下」도 많은 독자를 끈 장편 역사물이었다.

역사소설을 제외한 전기한 두 개의 작품 「自由夫人」과 「失樂園의 별」은 어떤 사상성의 깊이를 가진 것은 아니나, 6·25전란 후의 우리 사회를 잘 반영한 것으로서 이 六~七년간의 대표적인 신문소설로서 취급할만한 것들이다.³⁵⁾

위의 인용에서 보면, 휴전을 전후하여 신문소설이 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당시 신문들의 지면이 급격히 증가한 점이 신문소설 독자층의 확충에 주된 요인이었음도 알 수 있다. 또한 위 글에서는 정비석의 「자유부인」이 「신문소설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인식시켜 주었다고 언급하는 등 「자유부인」의 영향력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부인」과 더불어 「실낙원의 별」도 「사상성의 깊이를 가진 것은 아니나, 6·25 전란 후의 우리 사회를 잘 반영」한 신문소설로 평가하고 있고, 박종화의 「임진왜란」과 김팔봉의 「통일천하」 같은 역사소설류도 많은 독자를 가졌던 신문소설임을 증언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대개는 신문 체재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는 언급은 전후 문맥의 흐름에서 볼 때 「자유부인」 이전까지의 신문소설이 그러했다는 뜻으로 파악해야 옳을 듯하다.

뿐만 아니라, 1950년대에서 신문소설의 위상은 상당했으며, 그 영향력 또한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신문소설이 대중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음은 다음과

35) 정태용, 「신문소설의 새로운 영역」, 『사상계』(1960.4.), 268쪽.

같은 김우중의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新聞小説은 每日 數 많은 讀者에게 接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社會的인 影響은 時間的으로나 空間的으로 廣範圍하고 큰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社會的인 影響이 큰 藝術의 하나로 映畫가 登場되고 있는데 그것은 新聞小説에 비하면 그 社會的인 影響이 역시 新聞에 미치지 못하리라고 推測된다.

왜냐면 아직도 映畫는 都市中心으로만 興行되고 있고 比較的 高價한 觀覽料가 必要하기 때문에 新聞만큼 廣範圍한 地域으로 繼續的인 影響力을 社會에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한 新聞小説의 連載가 完了될 때까지는 적어도 六個月 정도씩 되니까 그 동안의 料金이 映畫의 것보다 더 클지도 모르겠으나 新聞은 連載가 完了되었을 때만 影響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繼續的으로 影響을 끼치는 것이니까 역시 新聞小説은 우리에게 가장 쉽게 接觸되고 影響을 주는 藝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⁶⁾

1950년대에서 영화가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그 영향력에서는 신문소설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당대에 가장 쉽게 대중들이 접촉할 수 있고 영향을 주는 예술이 신문소설이었다는 것이다. 이보다 2년 앞서 있었던 조사에서도 역시 1950년대 신문소설의 인기가 대단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덕은 1957년 이화여대 재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신문소설 구독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梨花女大 二百五十 名의 學生들에게 輿論調査(四二九〇年 六月 十四日 現在)한 統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今日를 基準해서 六箇月 동안에 新聞小説을 읽은 學生은 文科 理科를 합쳐 九十五 퍼센트에 達하고, 單行本 小説 讀者는 文科系 學生이 六十四퍼센트, 理科系 學生이 四十四 퍼센트 좀 未達이었다. 今年 들어 새로 單行本 小説冊을 사서 본 學生은 文·理科를 합쳐 不過 十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大概是 그 前에 出版된 것을 使用하거나 圖書館에서 본 것이었다.

2, 六月 現在 新聞小説을 읽는 讀者(文·理科 합쳐)는 六十五 퍼센트였고, 單行本 讀者는 文科系 學生이 五十六 퍼센트가 넘으며, 理科系 學生은 十 퍼센트에도 未達이었다. 六月 中에 單行本 小説책을 새로 사서 본 學生은 文·理科 學生 합쳐서 五 퍼센트 程度였다.

3, 學生들을 통해서 그들 家庭에서 新聞小説을 읽는 讀者를 間接的으로 輿論調査한 結

36) 김우중, 「신문소설의 사회적 영향—작가의 태도가 문제」, 『동아일보』(1959.8.1).

果 六箇月 동안에 九十 퍼센트에 이르렀다.

앞의 輿論調査에서 나타난 統計와 같이 約 半年 동안에의 新聞小說 讀者는 新聞을 읽는 사람이면 거의 다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며, 또한 小說讀者의 九十 퍼센트 以上の 사람이 新聞小說을 읽는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이 統計에 나타난 現實을 생각컨대 低俗한 官能的인 新聞小說이기 때문에 讀者가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一面 單行本 讀者가 적다는 것을 생각하면 出版界의 不振과 購買力의 貧困 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우리의 生活이 娛樂이 적은 탓으로 新聞小說로 쏠리는 面도 생각하여야만 될 것이다.³⁷⁾

여자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1950년대 신문소설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우선 당시 신문소설 독자가 단행본 독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신문소설을 읽었다고 대답하고 있다. 독자들이 신문소설을 많이 읽는 이유는 ① 출판계가 부진하고, ② 구매력이 빈곤하며, ③ 생활의 오락이 적은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파매체의 보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당시 실정에서, 그리고 출판계의 활동이 부진하고 그에 대한 구매력이 빈곤한 실정³⁸⁾에서 보면, 당시에 생활 오락의 수단으로 신문소설이 많은 독자층을 확보한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1970년대 초반³⁹⁾에도 어느 정도 이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문소설이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최근의 실상⁴⁰⁾에 비한다면 1950년대의 신문소설의

37) 김영덕, 「신문소설과 윤리」, 『자유문학』(1957.7.), 141쪽.

38) “오늘날 한국의 문예작품은 단행본과 대중지와 전문지와 그리고 신문의 문화면을 통해서만 발표의 가능성이 부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단행본 발행은 출판 경기의 저하로 말미암아 부진상태에 있거니와 목하 가장 많은 발표지면을 작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신문의 문화면이다.”(김내성, 「신문소설의 형식과 그 본질」, 『현대문학』(1957.2.), 61쪽)라는 진술을 통해서 보면 출판계가 부진했던 반면 상대적으로 신문소설의 영향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39) 한국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신문소설의 독자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1972년 제16회 신문의 날 기념으로 『경향신문』이 1292명의 독자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향신문의 어떤 면을 가장 많이 읽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연재소설이 24개 항목 중 9위로 나타나고 있다. 오인문, 「한국신문연재소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고찰」; 김우중, 「신문소설과 상업주의」, 강현두 편, 『한국의 대중문화』(나남, 1991), 336쪽.

40) 1997년의 조사 결과를 보면 50년대의 신문소설이 얼마나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를 대비해 볼 수 있다. 1997년 3월말 (주)리쿠르트가 대학 4년생 1천4백95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신문구독실태’ 조사에 따르면 신문의 고정란을 보는 우선 순위는 사실이 37.8%로 가장 먼저였고, 칼럼 22.9%, 만화 18.3%, TV프로그램 5.6%, 증권시세 2.7%, 날씨 1.3%, 연재소설 0.7%의 차례였다(『리쿠르트 Times』 120호(1997.4.7.)).

위상이야말로 대단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50년대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문소설의 독자가 많았다⁴¹⁾고 한다.

신문소설의 작중인물을 통해서도 독자의 성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자유부인」의 주인공 <오선영>의 경우를 보면 신문소설의 위상은 대개 짐작된다.

오선영 여사는 황홀한 감정이었다. 자기는 신문이라면 소설이나 가정란 기사를 심심풀이로 읽을 정도였는데, 한태석은 거기서 사회의 실태를 파악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자유부인」 63회)

<오선영>은 신문에서 소설을 심심풀이로 읽는다고 했다. <오선영>은 대학(여자전문)을 나온 30대의 여성이며 대학교수의 부인인 바, 그에게도 신문소설은 소일거리 정도이지만 주된 읽을 거리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이 신문소설의 주된 독자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⁴²⁾ 앞에서 이화여대생에 대한 조사에서 보았듯이 대학생들도 신문소설을 많이 읽었음을 확인했거니와, 신문소설의 주된 독자층은 대학생과 중산층 이상의 가정주부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일보』가 박화성의 「고개를 넘으면」을 연재하고 나서 독자평을 공모하였는데, 그 투고자의 대부분이 학생층 또는 가정부인이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입증해 준다.⁴³⁾ 따라서 소설 내용도 그들의 취향에 부응하는 경향이 많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잖아도 오늘 마침 웬 친구가 와서 요새 소설은 날라두 다방 아니면 명동거리 아니면 술집만 나와서 실증이 나온대구 불평만 늘어놓구 잤답니다. 하기는 소설가들두 답답은

41) 1950년대에는 일본에서도 신문소설이 상당히 인기가 높았다는 조사가 있다. 1958년 일본 신문총회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는 신문소설을 읽는 순위가 24개 항목 중 농촌에서는 3위, 중소도시에서는 5위, 대도시에는 10위로 나타나고 있다. 오인문, 「한국신문연재소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고찰」; 김우중, 「신문소설과 상업주의」, 강현두 편, 『한국의 대중문화』(나남, 1991), 336쪽.

42) 여성들이 대중소설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여성독자가 자신의 생활경험과 연관된 문제나 욕망을 대중소설들이 전해주는 데서 비롯된다고 한다. 대중소설 읽기는 여성독자들의 심리적 욕구의 확인과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J. Radway, *Reading the Romance: Woma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London: Verso, 1987; 원용진, 앞의 책, 233쪽에서 재인용.

43) “本紙에 連載되었던 朴花城作 連載小説 「고개를 넘으면」에 대한 讀者評은 各界各層으로부터 殺到하여 編輯者로 하여금 그 選擇을 困難케 하였다. 여기 紹介하는 것은 그 中의 一部이며 이번 讀者評의 全體的 特徵은 投稿者가 大部分 學生層 또는 家庭婦人들이었다는 事實이다.” 『한국일보』(1956.5.7), ‘독자평’ 편집자주(註).

할 꺼라. 연애하는 사이니 한두 번두 아니구 어디 끌구 다니겠소? 종로 네거리서 이야기도 시킬 수 없으니까 좀 조용한 데루 끌구 가자니까 창경원이나 덕수궁 아니면 다방이지! 그 사람네두 딱하긴 딱할 꺼야.”

“그때 모두들 들키나 보죠?”

그실 송 여사는 신문소설 이야기를 하고 있었건만 안대식 박사는 또 뜨끔해진다.(『계절의 풍속도』 178회)

<송자옥>은 전문학교를 졸업한 마흔 살 전후의 여성이다. 역시 중산층 이상 여성 독자층이 많았으리라는 추측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아침에 친구와 신문소설에 관한 얘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신문소설이 대화의 화젯거리로 등장하고 있음은 그만큼 생활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독자들은 신문소설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다음과 같은 문화면 편집자의 말에 비추어보면 그런 점을 파악할 수 있다.

鄭飛石 作 「浪漫列車」가連載되는 동안 編輯者는 讀者들로부터 이 小說에 대한 많은 批評을 入手하였다. 어떤 家庭夫人—學校에 다니는 많은 子女들을 그는 가졌다고 말하였다—은 이 小說이 子女教育에 有害한 것이라고 憂慮하여 『한국일보』 購讀을 中止하였다고 通告하여 왔다. 어떤 女人은 鄭飛石 氏가 果然 韓國 唯一의 大作家라고 激讚을 아끼지 않았다.⁴⁴⁾

신문소설이 독자들의 생활의 영역에 깊이 잠식하여 희로애락에 적잖이 관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신문소설의 내용이 독자들의 신문 구독 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신문소설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전후 1950년대 사회에서 신문소설은 그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대중들에게 ‘생활의 오락’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 견준다면 텔레비전 일일연속극과 유사한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독자 참여’가 두드러진 점은 신문소설의 주된 특성의 하나다. 신문소설에서의 독자 참여는 작가가 독자의 요구와 제안, 비판과 격려 등을 수용함으로써 작품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공동창작 형태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독자가 소설의 호

44) 『한국일보』(1956.12.2.) ‘독자들의 독후평(讀後評)’ 편집자주.

름에 적잖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독자를 의식하고 독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도가 전작장편이나 문예지·잡지 연재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인기리에 연재되는 소설일수록 독자 참여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이는 결국 독자의 개입에 따른 독자와의 타협을 의미한다.

신문소설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독자의 반응을 수용하는 비교적 유동적인 성격을 갖는 양식이다. 월간지나 계간지에 게재되는 장편도 연재물이긴 하지만 신문소설에 비해서는 독자의 반응에 대한 수용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신문소설의 내용은 독자들의 참여에 의해 다소간의 변화가 있을 개연성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말봉의 「푸른 날개」인 경우 독자들의 참여로 작품 내용에 일부 수정이 가해지기도 했다는 증언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함으로써 결론을 내리겠다. 작품 속에 나오는 권상오의 부인 탄실의 존재에 관해서다. 이 소설이 1945년에 『조선일보』에 연재되고 있을 때, 매력 있는 주인공 권상오가 총각이 아니라 북에 두고 온 부인이 있으며 그 생사를 모르고 있다는 대목에 이르자 많은 독자들로부터 탄실을 동정하면서 한영실과의 결합을 맹렬히 비난하는 편지와 전화가 빗발치듯 날아왔다고 한다.

특히 탄실을 권과 꼭 다시 결합시키라는 여론이 끓어 작가도 당황하며 탄실이란 인물을 잠시 등장시켰다고도 한다. 탄실의 등장은 오히려 분단의 아픔과 “사랑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심화시켜 준 셈이다.⁴⁵⁾

작가는 애초에 <탄실>이라는 여성을 등장시킬 의도가 없었는데 독자들의 비난과 항의 등 여론에 따라 그녀를 등장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작품을 보면 처음에는 주인공 <권상오>에게 이북에 두고 온 부인이 있다는 서술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야기가 표면화된 것은, 즉 독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권상오>가 여러 여인들 틈에서 고향의 후배인 <한영실>과의 애정을 더욱 뜨겁게 달구어갈 때이다. 이때 작가는 그 둘의 결합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걸림돌로 <권상오>가 이북에 두고 온 처인 <탄실>의 존재를 비로소 노출하였던 것이다. <한영실>은 <권상오>에게는 자신도 잘 아는 전처가 이북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권상오와 결합할 수 없다고 한다. 연애소설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고난의 장치였던 셈이다. 그런데 그것이 독자들을 다소 엉뚱하게 자극하였고, 급기야는 작품의 내용에 수정을 가하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다. <탄실>은 얼굴에 상처를 입은 <미스 현>을 우

45) 윤경남, 「「푸른 날개」와 그림자」, 정하은 편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종로서적, 1986), 89~90쪽.

연히 목격하여 병원으로 수송하다가 <권상오>의 청첩장을 보게 되어 그의 결혼식장에 찾아간다. <권상오>와 <추백련>의 결혼식은 거행되지 못하고 <권상오>는 <탄실>과 함께 고향아주머니를 찾아간다. 그 와중에 교통사고로 <탄실>이 죽고 <권상오>는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 결국 <권상오>와 <한영실>의 사랑은 결실을 맺는다. 만약에 <탄실>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권상오>가 <한영실>을 비롯하여 <미스현>·<추백련>·<윤지순> 등과 애정 갈등을 벌이는 모습이 더 많이 그려졌을 것이다.

「자유부인」에서도 독자의 반응에 따라 소설의 흐름에 변화를 보였음직한 흔적을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부인」의 인기를 더욱 부채질한 것은 이 작품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 논쟁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면서 작품의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논쟁의 발단은 서울대 법대 황산덕 교수가 「자유부인 작가에게 드리는 말」이란 제목의 글⁴⁶⁾을 통해 「자유부인」이 대학교수를 모욕하는 소설이라고 비판한 데 있었다. 황산덕은 “수억인의 원성을 개의치 않고서 자기 고집을 부리던 스탈린의 흉내를 내면서 수백명의 대학교수와 수천명의 그 가족과 수만명의 대학생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전체의 非難聲을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배짱”이냐고 따졌다. 이런 황 교수의 공개비난문이 나오자 정비석은 황 교수의 글이 문학자들을 모욕한 것이라는 내용의 반박문 「탈선적 시비를 박(駁)함」⁴⁷⁾을 쓴다. 그는 작품을 읽어보지도 않고 비난한 점, 유명해지기 위해 소설을 쓴다고 모욕적 언사를 한 점, 감정적 흥분으로 일관한 점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첫번보다 더욱 격렬한 내용의 반박문 「다시 ‘자유부인’ 작가에게」⁴⁸⁾를 발표했다. 그는 「자유부인」은 문학작품일 수 없다면서 “아비한 인기욕에만 사로잡히어 예로 작문을 희롱하는 문화의 적 이요 문학의 파괴자요 중공군 50만 명에 해당하는 적”이라고 정비석을 몰아부쳤다. 그러자 홍순엽 변호사가 작가를 변호하는 내용의 「‘자유부인’ 작가를 변호함」⁴⁹⁾을 『서울신문』에 기고했다. 그 글의 요지는 황 교수가 정비석을 비난하는 태도가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대학신문』에는 문학작품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따지는 백철의 글이 실렸다.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자유부인’ 논의와 관련해서」⁵⁰⁾라는 이 글은 양쪽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황 교수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를

46) 『대학신문』(1954.3.1.).

47) 『서울신문』(1954.3.11.).

48) 『서울신문』(1954.3.14.).

49) 『서울신문』(1954.3.21.).

50) 『대학신문』(1954.3.29.).

문제삼느냐고 따진 부분에 대해 “대학교수 가정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말을 했는가 하면, 작품 「자유부인」에 대해서는 인물과 환경의 필연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같이 우리 문학사에서 유래가 드문 격렬한 논쟁으로 인해 「자유부인」은 더욱 독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던 것이다. 작품을 발표한 지 30여 년이 지난 1985년에 쓴 글에서 작가 정비석은 당시 이 소설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자유부인」을 연재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는 어느 대학 교수로부터, 「자유부인」은 중공군 40만 명보다 더 무서운 해독을 끼치는 소설이라고 맹렬한 비난을 받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의 정치 경제계의 인사들로부터 「자유부인」은, 북괴의 사주(使虜)로 남한의 부패상을 샅샅이 파헤치는 이적 소설(利敵小說)이라고 규탄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연유로 하여, 나는 집필 중에 시경(市警), 치안국, 특무부대 등등, 온갖 수사 기관의 취조를 받아야만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웃지 못할 희극이었다. 「자유부인」을 연재한 신문이 국가의 기관지인 『서울신문』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소설을 끝까지 연재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가 하면, 일반 독자나 대중들은 ‘어느 누가 무슨 박해를 가하든 간에 조금도 굴하지 말고 용감하게 써 나가라’는 격려의 편지를 수없이 보내 주었다. 여기에 힘입은 나는 날마다 빗발치듯 쏟아져 나오는 협박장과 위협 속에서도, 나 자신을 굳게 지켜나가면서 집필을 계속했던 것이다.⁵¹⁾

독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자유부인」은 작중인물들과 관련된 사회의 일부 지도층 인사들에게는 혹평을 받았지만, 일반 대중들로부터는 호응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두 부류가 각기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지도층의 경우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데 따른 비난이었던 반면, 일반대중의 경우 대리만족이나 카타르시스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독자들이 ‘정서적 연대감(affective alliance)’을 형성했다는 말이다. 특히 작중인물 <오선영>은 일반대중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 독자들에게 정서적 연대감을 적극 유도하는 인물이었다는 점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독자들은 「자유부인」에서 벌어지는 세계에 대해 자신들의 일상과 다른 듯하면서도 호기심이 끌렸을 것이기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대중문학은 일상 삶에서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금지되어 온 영역을 통제된 방식으로나마 조심스럽게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상의 세계를 통해 제공한다. 예

51) 정비석, 「작가의 말」, 『자유부인』1(고려원, 1996), 7~8쪽.

를 들어 주로 악역을 맡은 인물들의 대리행위를 통해 독자들은 문화적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최대한의 호기심을 충족시킨다”⁵²⁾는 논리와 일치한다. 작가는 이러한 독자의 경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은 이 작품의 전개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파악된다.

소설이 진행될수록 <장태연>이 점점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가는 것은 황산덕 교수의 공개비난문 같은 문체제기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선영>의 외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의 남편인 장태연의 일탈은 그 정도가 매우 약하다는 점도 논쟁의 영향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오선영>은 옆집 대학생 <신춘호>와 춤을 추고 포옹하고 키스하는가 하면 <한태석>과 호텔에까지 드나드는 애정행각을 벌이지만, <장태연>은 <박은미>와 영화를 보고 식사하고 함께 거닐거나 선물을 받고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정도에 그친다.

특히 작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국회 공청회장에서의 <장태연>의 당당한 모습은 황산덕 교수 등과의 논쟁의 결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지 않나 생각된다. 다음의 예에서 보듯 작가가 처음 부분에 장 교수를 묘사한 부분(①)과 공청회장에서의 모습을 묘사한 후반부의 장면(②)을 비교해 보면 그런 점이 확인된다.

① 장 교수는 자못 유쾌한 기분이었다. 장태연 교수도 목석이 아닌 바에야 짧은 미인과 단들이 명랑하게 이야기하기가 유쾌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유쾌하게 웃으면서 다시금 종아리를 바라보았다.

아무리 억제하려고 해도 시선이 자꾸만 그리로 쏠렸다. 장 교수도 역시 남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모양이다.

은미가 가 버리자, 장 교수는 무슨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한동안 멍하니 앉아서 그가 남기고 간 아름다운 환상을 더듬었다. 어쩐지 마음이 훈훈해 오는 것만 같았다.(『자유부인』 23회)

② 방청석에서는 또다시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장태연 교수의 이야기는 끊인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어디까지나 이로(理路)가 정연하고도 함축성 있는 이론이었다. 진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권력조차 초개시(草芥視)하는 장교수의 준엄한 태도는 순교자의 그것처럼 비장해 보이기도 하였다.

방청객들도 모두 탄복하는 모양이지만, 누구보다도 경탄한 사람은 오선영 여사였다.(『자유부인』 214회)

52) 카웰티(J.G. Cawelti), 『도식성과 현실도피의 문화』, 박성봉 편역, 『대중예술의 이론들』(동연, 1994), 107쪽.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지도층 인물들의 부패상을 파헤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는 일부 약화되긴 했어도 크게 훼손되지 않고 끝까지 견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작가의 말처럼 일반 독자와 대중들의 많은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오선영>의 탈선이 최후의 선을 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점도 윤리적 측면에서 독자들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이미 세간에 화제가 되어 사회적으로 상당수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던 상황에서 작가가 성(性)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자제해야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③ “마담!”

“글쎄, 왜 자꾸만 이러느냐 말야?”

“마담……아이·러브·유!”

신춘호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쏘아보며, 문득 어릿광대같이 중얼거린다.(…)

‘에라! 한번만 소원을 풀어주기로 할까?’

위험천만한 사상이건만, 오 여사가 그런 생각조차 먹어보는 순간, 돌연 방문 밖에서

“엄마— 이 집에 우리 엄마 왔어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자유부인』 117회)

④ 침대언저리가 다리에 부딪치는 바람에 오선영 여사는 제풀에 눈을 반짝 떠보다가, 약간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몸과 마음의 준비는 벌써부터 다 되어 있지만, 휘황한 광선이 양심의 눈에 부시었던 것이다.

“불, 끄세요!”

오선영 여사는 무심중에 중얼거렸다.

“불을 꺼요?”

한태석이가 약간 불만한 어조로 물었다.

“꺼 주세요”

“그럼 끄죠”

팔을 들어, 전등 스위치를 막 끄려고 했을 그 순간이었다. 벼란간 벼락치는 소리로 문이 열리며, 누구인가 비호같이 방안으로 뛰어들더니, 땃바람에 오선영 여사의 머리채를 휘어 쥐고 우박같이 주먹을 내리족치면서(『자유부인』 193회)

③은 <오선영>이 <신춘호>의 방에서 춤을 추고 난 직후의 한 장면이다. <신춘호>의 고백과 유혹에 이끌려 ‘에라! 한번만 소원을 풀어주기로 할까?’ 하고 생각을 먹으며 막 넘어가려 할 때다. 소원을 풀어준다는 것을 빙자하여 사실 <오선영>은 <신

춘호>와 육체적 관계를 맺으려고 걱정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오선영>의 아들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탈선은 거기서 그치게 된다. 이는 다분히 독자를 의식한 윤리적 측면에서의 고려라고 볼 수 있다. 설령 이 대목에서는 이야기를 더 끌고 가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처리했다 할지라도 후반부에 전개된 ④에서는 작가가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점이 확실히 드러난다.

④의 장면은 <오선영>의 탈선이 최고조로 진행된 상태다. 통행금지 시간에 호텔에 들어간 남녀다. 더구나 그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원하던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사건의 진행은 이 대목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거기에서 <한태석>의 부인인 <이월선>을 등장시킴으로써 그 이상의 관계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작가는 <오선영>의 육체 만은 끝까지 지켜주었던 것이다. 정비석의 다른 소설에 비해 오히려 이 작품에서는 남녀간의 육체관계가 그다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성 관계를 갖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 역시 이 소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은 그런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본다. 1950년대 사회 분위기에서는 다수의 독자가 관심을 가지고 읽는 소설임을 감안하여 작가는 가정부인인 <오선영>의 탈선을 어느 정도의 선까지 조절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정비석의 소설창작론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 作品이 內包하고 있는 社會的 倫理觀에 있어서도 新聞小説은 純文藝 長篇과 다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文學이란 항상 낡은 것을 止揚하고 새 것을 探究하는 精神的 所行인 만큼 純文學 作品에 있어서는 讀者大衆이야 歡迎하거나 말거나 作者 自身의 主觀에 依하여 새로운 倫理觀을 얼마든지 強力히 主要해도 相關없지만, 新聞小説은 直接 間接으로 讀者와의 妥協을 全然 無視할 수가 없기 때문에 倫理觀에 있어서도 多分히 既成 倫理를 尊重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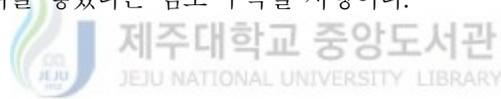
신문소설은 순문에 장편과는 달리 독자와 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성 윤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그의 지론이 「자유부인」 창작에도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측면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대중문학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자유부인」은 이처럼 독자의 엄청난 관심 속에 그들의 영향을 부지불식간에 받으면서 씌어진 작품이다. 독자의 참여와 개입으로, 독자와 타협하며 씌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전작장편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다.⁵⁴⁾

53) 정비석, 「신문소설론」, 『소설작법』(문성당, 1957), 224쪽.

인기가 있었던 신문소설일수록 독자의 참여가 더욱 많았을 것이고 독자의 참여를 통해 작품의 내용에도 다소간에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하였다. 신문사에서는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재 중간중간에 지난 호까지의 줄거리를 게재해 주기도 하며, 연재가 끝난 뒤에는 독자들의 반응을 신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한국일보』는 연재가 끝날 즈음에 독자들로부터 ‘독자평’·‘독후평’을 공모하여 대대적으로 게재하는 경우가 많았다.⁵⁵⁾

이상에서 1950년대 신문소설의 성장배경과 독서환경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영화·대중가요가 새로운 면모로 대중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하였으며 그 와중에서 미국문화가 급류처럼 밀려 들어왔고, 그 여파가 대단히 크게 번진 것이 당시의 문화적 상황이었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의무교육의 실시로 교육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 신문지면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 신문의 상업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점, 작가들이 신문소설의 상업주의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는 점, 신문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인기가 높았다는 점, 독자들의 참여가 작품의 내용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점 등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 시기에 신문소설이 곧 통속소설이라는 부정적 관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도 주목할 사항이다.



54) 김동윤, 「1950년대 신문소설의 한 양상—정비석의 「자유부인」론」, 『국문학보』제14집(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71~78쪽.

55) 예컨대 「고개를 넘으면」의 ‘독자평(讀者評)’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신문소설—대화는 매력적, 구상에도 여운, 「운명에 굴복했고 승리했다—예상에 반(反)하여 매일마다 새 자극, 「개성과 동기가 대체로 빈약—능숙한 조정은 현대에 부합, 「안일을 버린 남자들에 호감—‘봐인·클럽’은 본받을 씨스텝, 「자미있으나 역작은 아니다—쓰지도 달지도 맵지도 않아, 「우리 문단의 커다란 수확—수준을 혁명적으로 높였다, 「전문가 입장서 경탄—발전소를 말하는 작자」 등이 실렸다(『한국일보』(1956.5.7)). 그리고 「낭만열차」의 ‘독자들의 독후평(讀後評)’에는 「낭만열차가 달린 방향은?—재미있었으나 승객은 어리둥절, 「흥미로우며 실리적—‘난심’의 꿈을 갖고 싶어, 「‘권달수’와 ‘채옥’을 증오—“참되게 살자”는 교훈 감득(感得), 「필연적 동기 없어 무기력—해피·앤드 아닌 것은 하나의 여유, 「농촌으로 파고드세요—대학교수의 연애는 고만하시고, 「시대성을 반영—끝을 맺으니 섭섭」 등의 다양한 반응이 게재되어 있다(『한국일보』(1956.12.2)).

Ⅲ. 1950년대 신문소설의 인간상과 사회인식

1. 주요 작중인물의 사회적 위상

여기서 주요 작중인물의 사회적 위상을 살펴보는 것은 1950년대 신문소설의 사회인식을 인간상을 중심으로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텍스트로 삼은 34편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작중인물은 전후(戰後)의 사회상과 1950년대 신문소설의 성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작가가 소설을 쓴다는 것은 결국 작품에서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인물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독자에게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건은 인물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말할 정도로 인물은 소설 창작에서나 소설 읽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¹⁾ 따라서 소설에서의 인물 분석은 그 작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여기서는 1950년대 신문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작중인물의 사회적 위상과 인물설정에 나타난 의미 등을 파악해 보기로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조역까지 포함한 주요 작중인물들을 선정하여 계층·신분 등 외적 조건에 나타난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주인공만을 대상으로 삼아 그 논의를 병행하기도 하였다. 그런 연후에 주요 작중인물들의 성격과 행동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2~4절).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인물들은 비교적 등장 횟수가 많은 인물들 중에서 사건 전개에 주체가 되는 인물, 사건 전개에 필연성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방향이 제약되기도 하는 인물 등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소설 속의 갈등구조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배경적 인물, 즉 단역(extra)형 인물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인물을 선정한 결과, 분석대상은 모두 324명으로써, 작품당 6명에서 16명까지로 평균 9.5명이 되었다. 이 324명의 인물을 대상으로 성별, 나이, 혼인 여부, 직업, 학력, 등을 파악해 보았다(<부록 I> 참조).²⁾ 이를 종합적인 차원에

1) 현길언, 『소설쓰기의 이론과 실제』(한길사, 1994), 67쪽.

2) 주요 작중인물의 신상일람(<부록 I>)을 작성함에 있어서 작품 속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공란으로 두었으며, 통계 처리할 때는 확인불가라고 별도로 표시하였다. 작품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앞뒤 사정으로 보아 거의 확실한 것은 뒤에 ‘?’를 덧붙여 놓았다. 주인공은 주요 작중인물의 맨 처음에 내세우면서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연령은

서 작중인물들의 남녀 성비, 혼인 여부, 연령, 학력, 직업, 등에 대해 정리·분석해보면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인물설정의 양상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남녀 性比는, 남자가 156명(48.1%), 여자가 168명(51.9%)으로 여자가 12명 많게 나타났다. 주인공 34명 중에는 남자가 14명(41.2%), 여자가 20명(58.8%)으로 더욱 여성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작중인물들의 혼인에 관련된 사항³⁾은 미혼이 189명(58.3%), 기혼이 89명(27.5%), 홀아비와 미망인이 40명(12.3%), 이혼이 6명(1.9%)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미혼 84명(53.8%), 기혼 60명(38.4%), 홀아비 11명(7.0%), 이혼 1명(0.6%) 순이고, 여자는 미혼 105명(62.5%), 기혼과 미망인이 각각 29명(17.3%), 이혼 5명(3.0%)으로 파악되었다.(<표 3>)

주인공의 혼인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미혼이 21명(61.8%), 기혼과 홀아비·미망인이 각각 6명(17.6%), 이혼이 1명으로 밝혀졌다. 주인공 가운데 남자는 미혼 9명(64.3%), 기혼 3명(21.4%), 홀아비 2명(14.3%)으로, 여자는 미혼 12명(60.0%), 미망인 4명(20.0%), 기혼 3명(15.0%), 이혼 1명(5.0%)으로 각각 나타났다.(<표 4>)



<표 3> 주요 작중인물의 혼인 여부 단위 : 명 (%)

구분	미혼	기혼	홀아비·미망인	이혼	계
남	84 (53.8)	60 (38.4)	11 (7.0)	1 (0.6)	156 (100.0)
여	105 (62.5)	29 (17.3)	29 (17.3)	5 (3.0)	168 (100.0)
계	189 (58.3)	89 (27.5)	40 (12.3)	6 (1.9)	324 (100.0)

작품 전개 중에서 변화가 있을 경우 맨 처음 등장할 때의 나이를 기준으로 명시했다.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를 잃은 남녀는 각각 홀아비와 미망인으로 표시했다. 미망인인 경우 분단 상황과 관련된 미망인은 남편이 전쟁으로 사망하였는지 납치되었는지 월북하였는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첩(소설), 동거 상태, 미혼모 등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 미혼으로 처리했다. 혼인관계와 직업에서 '→'로 표시한 것은 그에 대한 변동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속에 묶어 처리한 것은 작품에 등장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이전(소설적 과거)에 이루어졌던 상황임을 뜻하는 것이다. 학력에서 '대퇴'는 대학 중퇴를 말하는 것이며, '대학원재', '대재'는 각각 대학원 재학, 대학 재학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작품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혼인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변화 이전의 것을 중심으로 처리하였다.

<표 4> 주인공의 혼인 여부

단위 : 명 (%)

구분	미혼	기혼	홀아비·미망인	이혼	계
남	9 (64.3)	3 (21.4)	2 (14.3)	0 (0.0)	14 (100.0)
여	12 (60.0)	3 (15.0)	4 (20.0)	1 (5.0)	20 (100.0)
계	21 (61.8)	6 (17.6)	6 (17.6)	1 (2.9)	34 (100.0)

셋째, 주요 작중인물과 주인공의 연령별 분포를 알아보면,⁴⁾ 20대가 166명(51.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66명(20.4%), 40대가 61명(18.8%)으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였다. 50대, 10대, 60대, 70대는 각각 17명(5.2%), 7명(2.2%), 5명(1.5%), 2명(0.6%) 등으로 분포도가 낮았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순위가 달라진다. 남자는 20대가 66명(42.3%)으로 가장 많았지만 40대가 34명(21.8%)으로 32명(20.5%)인 30대보다 다소 많았다. 50대도 14명(9.6%)으로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0대와 60대는 각 4명(2.6%), 70대는 2명으로 파악되었다. 여자는 20대의 분포가 절대적이었으며(100명, 59.5%), 30대가 34명(20.2%), 40대가 27명(16.1%), 10대와 50대가 각 3명(1.8%), 60대가 1명(0.6%)의 분포를 보였다.<표 5>

주인공은 20대가 21명(61.8%)으로 압도적이었고, 30대가 7명(20.6%), 40대가 4명(11.8%), 10대와 50대가 각 1명(2.9%)으로 나타났다. 남자주인공은 20대가 8명(57.8%), 30대가 3명(21.4%), 40대가 2명(14.3%), 50대가 1명(7.1%), 여자주인공은 20대가 13명(65.0%), 30대가 4명(20.0%), 40대가 2명(10.0%), 10대가 1명(5.0%)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6>

<표 5> 주요 작중인물의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남	4 (2.6)	66 (42.3)	32 (20.5)	34 (21.8)	14 (9.0)	4 (2.6)	2 (1.3)	156 (100.0)
여	3 (1.8)	100 (59.5)	34 (20.2)	27 (16.1)	3 (1.8)	1 (0.6)	0 (0.0)	168 (100.0)
계	7 (2.2)	166 (51.2)	66 (20.4)	61 (18.8)	17 (5.2)	5 (1.5)	2 (0.6)	324 (100.0)

4) 통계 처리과정에서 연령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낮은 연령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였다. 예컨대, 30~40대는 30대로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표 6> 주인공의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계
남	0 (0.0)	8 (57.1)	3 (21.4)	2 (14.3)	1 (7.1)	14 (100.0)
여	1 (5.0)	13 (65.0)	4 (20.0)	2 (10.0)	0 (0.0)	20 (100.0)
계	1 (2.9)	21 (61.8)	7 (20.6)	4 (11.8)	1 (2.9)	34 (100.0)

넷째, 주요 작중인물의 학력 분포⁵⁾는 대학졸업자가 94명(37.9%), 대학재학생이 56명(22.6%), 고교졸업자가 41명(16.5%), 대학원재학 또는 졸업자가 22명(8.9%), 대학중퇴자가 17명(6.9%), 중학졸업 이하가 13명(5.2%), 고교재학자가 3명(1.2%), 고교중퇴자가 2명(0.8%)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는 대학졸업 62명(53.0%), 대학원재학·졸업 19명(16.2%), 대학재학 18명(15.4%), 대학중퇴 6명(5.1%), 중학졸업 이하 6명(5.1%), 고교졸업 5명(4.3%), 고교재학 1명(0.9%)이다. 그리고 여자는 전반적으로 남자보다 낮은 학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재학 38명(29.0%), 고교졸업 36명(27.5%), 대학졸업 32명(24.4%), 대학중퇴 11명(8.4%), 중학졸업 이하 7명(5.3%), 대학원재학·졸업 3명(2.2%), 고교재학 2명(1.5%), 고교중퇴 2명(2.5%) 등이다.(<표 7>)

주인공의 학력분포는 대학졸업이 15명(44.1%), 대학재학이 10명(29.4%)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고, 고교졸업이 5명(14.7%), 대학원재학·졸업이 2명(5.9%), 대학중퇴와 중학졸업 이하가 각 1명(2.9%)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다시 분석하면, 남자 주인공은 대학졸업이 9명(53.0%)으로 압도적인 가운데 대학원재학·졸업과 대학재학이 각각 2명(14.3%), 대학중퇴가 1명(7.1%)으로 드러났으며, 고졸이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여자주인공도 대학재학과 대학졸업이 각각 8명(40.0%), 6명(3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학졸업은 5명(25.0%)으로 남자보다 훨씬 많았으며, 중학졸업 이하도 1명(5.0%)이 있다.(<표 8>)

5) 유학자의 처리에서는 해방 이전에 유학을 다녀온 경우는 대졸자로, 해방 이후에 유학한 경우에는 대학원졸업자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해방 이전의 유학은 일본에서 학부과정을 이수한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학교는 대학으로, 사범학교·간호학교·기술학교·보육학교와 막연히 여학교로만 된 것은 고졸로 처리하였다.

<표 7> 주요 작중인물의 학력 분포

단위 : 명 (%)

구분	대학원재학·졸업	대학 졸업	대학 재학	대학 중퇴	고교 졸업	고교 재학	고교 중퇴	중학졸업 이하	계
남	19 (16.2)	62 (53.0)	18 (15.4)	6 (5.1)	5 (4.3)	1 (0.9)	0 (0.0)	6 (5.1)	117 (100.0)
여	3 (2.2)	32 (24.4)	38 (29.0)	11 (8.4)	36 (27.5)	2 (1.5)	2 (1.5)	7 (5.3)	131 (100.0)
계	22 (8.9)	94 (37.9)	56 (22.6)	17 (6.9)	41 (16.5)	3 (1.2)	2 (0.8)	13 (5.2)	248 (100.0)

* 확인불가 96.

<표 8> 주인공의 학력 분포

단위 : 명 (%)

구분	대학원재학·졸업	대학 졸업	대학 재학	대학 중퇴	고교 졸업	중학졸업 이하	계
남	2 (14.3)	9 (53.0)	2 (14.3)	1 (7.1)	0 (0.0)	0 (0.0)	14 (100.0)
여	0 (0.0)	6 (30.0)	8 (40.0)	0 (0.0)	5 (25.0)	1 (5.0)	20 (100.0)
계	2 (5.9)	15 (44.1)	10 (29.4)	1 (2.9)	5 (14.7)	1 (2.9)	34 (100.0)

다섯째, 주요 작중인물들의 직업⁶⁾을 보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63명으로 19.4%를 차지했고, 주부가 29명(9.0%), 사업가가 27명(8.3%)의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무직도 25명(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학자, 회사원·사무원, 유흥업소 근무여성(마담·창녀·기생 등)도 각 20명(6.2%)씩으로 비교적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상업종사자는 19명(5.9%)이고, 언론계와 은행원, 강패·소매치기·건달·사기꾼 등이 각 8명(2.5%)씩인 것으로, 의사, 연예인, 군인은 각 7명(2.2%)씩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법률가(변호사와 판사 등), 작가, 공무원·관료가 각 6명(1.9%), 초중고생, 음악가·미술가, 농업이 각 5명(1.5%), 재봉일·수예·바느질, 사회복지사업(미망인구제사업·고아원운영 등)이 각 4명(1.2%), 간호사, 가내고용인(식모·관리인)이 각 3명(0.9%), 정치인, 연출가·영화감독이 각 2명(0.6%), 선장, 잡역, 디자이너, 실내장식가, 간첩 등은 각 1명(0.3%)씩으로 파악되었다.

남자에 한정하여 주요 작중인물의 직업을 보면, 사업이 27명(17.3%)으로 가장 많

6) 작중에서 직업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직업을 선정했다. 유학생은 대학(원)생에 포함하였다. 기타에 속하는 직업은 선장, 잡역, 디자이너, 실내장식, 간첩 등으로 각 1명이다. 대학생이 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대학생으로만 처리하였다.

고, 대학(원)생이 24명(15.4%), 교직·학자가 15명(9.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무직도 11명(7.1%)으로 나타났고, 회사원·사무원이 10명(6.4%), 의사, 군인, 강패·소매치기·건설·사기꾼이 각 7명(4.5%), 법률가, 작가, 언론계가 각 6명(3.8%)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은행원이 5명(3.2%), 상업, 농업이 각 4명(2.6%), 초중고생, 공무원·관료가 각 3명(1.9%), 정치인, 연예인, 연출가·영화감독이 각 2명(1.3%)씩이었고, 이밖에 음악가, 가내고용인(관리인), 선장, 실내장식가, 간첩이 각 1명(0.6%)으로 나타났다.

여자 주요 작중인물의 직업 분포를 보면, 대학(원)생과 주부가 각 39명(23.2%)과 29명(17.3%)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고, 마담·기생·창녀 등 유흥업소 근무여성도 20명(11.9%)으로 비교적 많이 나타났으며, 상업과 무직도 각각 15명(8.9%)과 14명(8.3%)으로 그 뒤를 이었다. 회사원·사무원은 10명(6.0%), 교직종사자와 연예인이 각 5명(3.0%)이었고, 음악가·미술가, 재봉일·수예·바느질, 사회복지사업이 각 4명(2.4%)으로, 간호사, 공무원, 은행원이 각 3명(1.8%)으로, 초중고생, 언론계, 가내고용인이 각 2명(1.2%)으로, 소매치기, 농업, 잡역, 디자이너가 각 1명(0.6%)으로 조사되었다.

주인공들만의 직업분포는 주요인물과는 다소 차별적인 양상을 보인다. 대학(원)생이 11명(32.4%)으로 가장 많고, 주부가 5명(14.7%)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언론계는 3명(8.8%), 교직, 작가, 연예인, 회사원·사무원이 각 2명(5.9%)으로 나타났다. 기타 법률가(변호사), 음악가, 사업, 상업, 은행원, 잡역, 농업이 각 1명(2.9%)씩으로 조사되었다.(<표 9>)

주인공의 직업 분포를 다시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는 대학(원)생과 언론계가 각 3명(21.4%), 교직과 작가가 각 2명(14.3%), 법률가, 사업, 은행원, 농업이 각 1명(7.1%)으로 파악되었다. 여자주인공의 경우 대학(원)생이 8명(40.0%)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 데 이어, 주부가 5명(25.0%), 연예인과 회사원·사무원이 각 2명(10.0%), 음악가, 상업, 잡역이 각 1명(5.0%)씩이었다.(<표 10>)

<표 9> 주요 작중인물의 직업 분포

단위 : 명 (%)

구분	남	여	계
대학(원)생	24(15.4)	39(23.2)	63(19.4)
주부	0(0.0)	29(17.3)	29(9.0)
사업	27(17.3)	0(0.0)	27(8.3)
무직	11(7.1)	14(8.3)	25(7.7)
교직·학자	15(9.6)	5(3.0)	20(6.2)
회사원·사무원	10(6.4)	10(6.0)	20(6.2)
유홍업(미담·기생·창녀)	0(0.0)	20(11.9)	20(6.2)
상업	4(2.6)	15(8.9)	19(5.9)
인론계	6(3.8)	2(1.2)	8(2.5)
은행원	5(3.2)	3(1.8)	8(2.5)
강제·소매치기·건달·사기꾼	7(4.5)	1(0.6)	8(2.5)
의사	7(4.5)	0(0.0)	7(2.2)
군인	7(4.5)	0(0.0)	7(2.2)
연예인	2(1.3)	5(3.0)	7(2.2)
공무원·관료	3(1.9)	3(1.8)	6(1.9)
법률가	6(3.8)	0(0.0)	6(1.9)
작가	6(3.8)	0(0.0)	6(1.9)
음악가·미술가	1(0.6)	4(2.4)	5(1.5)
농업	4(2.6)	1(0.6)	5(1.5)
초중고생	3(1.9)	2(1.2)	5(1.5)
재봉일·수예·바느질	0(0.0)	4(2.4)	4(1.2)
사회복지사업	0(0.0)	4(2.4)	4(1.2)
가내고용인(식모·관리인)	1(0.6)	2(1.2)	3(0.9)
간호사	0(0.0)	3(1.8)	3(0.9)
연출가·영화감독	2(1.3)	0(0.0)	2(0.6)
정치인	2(1.3)	0(0.0)	2(0.6)
기타	3(1.9)	2(1.2)	5(1.5)
계	156(100.0)	168(100.0)	324(100.0)

<표 10> 주인공의 직업 분포

단위 : 명 (%)

구분	남	여	계
대학(원)생	3(21.4)	8(40.0)	11(32.4)
주부	0(0.0)	5(25.0)	5(14.7)
인론계	3(21.4)	0(0.0)	3(8.8)
교직	2(14.3)	0(0.0)	2(5.9)
작가	2(14.3)	0(0.0)	2(5.9)
연예인	0(0.0)	2(10.0)	2(5.9)
회사원·사무원	0(0.0)	2(10.0)	2(5.9)
기타	4(28.6)	3(15.0)	7(20.6)
계	14(100.0)	20(100.0)	34(100.0)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신문소설에서 창조해낸 인물들이 당시 사회구조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1950년대 신문소설의 성격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성별 비중에서 주요 작중인물은 3.8%, 주인공은 17.6% 차이로 여자가 많은 현상은 당대 대중을 독자로서 하는 신문소설에서 미망인 문제, 유한부인과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 탈선 문제, 여성의식의 자각과 한계 등 여성문제를 의미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둘째, 혼인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미혼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작중 인물 가운데에서는 미혼자(189명, 58.3%)가 혼인 경험이 있는 인물(기혼자·홀아비·미망인·이혼자)에 비해 54명(16.6%) 많게 드러나고 있다. 주인공만을 보면 미혼자의 비중은 더욱 높아져 61.8%로 혼인 경험자보다 23.6%나 많게 분포되어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검토 대상의 작품들이 애정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음에 따라 미혼남녀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혼남녀끼리의 사랑의 비중이 유부남·유부녀끼리의 관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청년들의 방황이나 개척의지에 대한 양상이 드러나는 작품의 경향과도 연관된다.

셋째, 미혼자의 비중이 남성(53.8%)보다 여성(62.5%)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애정의 양상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미혼 남녀끼리의 애정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남성 기혼자와 여성 미혼자의 관계를 다루는 경향이 여성 기혼자와 남성 미혼자의 관계를 다루는 경향보다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대생들의 탈선이 적잖이 나타나는 시대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법하다.

넷째, 여성의 경우 미망인의 비중이 많이 나타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혼자와 똑 같은 29명(17.3%)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망인 중에서도 전쟁미망인·납치미망인·월북미망인 등이 1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성인물의 10.1%에 해당된다. 주인공만 놓고 보았을 때는 남녀 통틀어 11.8%(여자만 한정하면 20.0%)인 4명이 미망인인데, 이들은 모두 전쟁·납치·월북미망인이다. 이처럼 미망인의 비중이 높은 것은 분단상황이 소설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미망인의 방황과 구원의 문제가 1950년대 신문소설의 중요한 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0년대 신문소설에서 여성의 3.1%(97명 중 3명)만 미망인으로 나타나는 것⁷⁾과 대비해 보면 대단히 특징적인 면모다.

7) 박철우,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 연구」(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6), 30쪽 참조.

다섯째, 혼인 여부와 관련된 분석 결과를 보면 불안정한 처지의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나고 있다. 주요 작중인물 가운데 이혼 상태의 여성인물이 5명(3.0%)이고, 작품 전개 도중에 이혼하는 경우도 5명(3.0%)이나 된다. 남성의 경우 이혼자가 1명(0.6%)이고, 작품 전개 중 4명(2.6%)이 이혼하는 것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주인공도 남성은 이혼자가 없는데 여성은 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당시 여성들이 전통적 규범에서 이탈하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작중인물에서 미혼으로 분류된 105명 가운데에서도 첩(소실)과 미혼모가 6명(3.6%)인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들은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여성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여섯째, 주요 작중인물들의 경우 20대가 절반 이상(50.9%)을 차지하고 있다. 주인공만으로도 한정하면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1.8%로 더욱 높아진다. 혼인 여부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 남녀의 애정 문제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연령별 분포는 남녀별로 구분해 봤을 때도 유의성을 가진다. 특히 여성인 경우 20대의 비중이 더욱 많게 나타난다(주요 작중인물 59.5%, 주인공 65.0%). 젊은 여성과 중·장년 남성의 애정 관계를 소설화하는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여성의 경우 20~30대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점(주요 작중인물 79.7%, 주인공 85.0%)은 애정물이 주류를 이루되 그것이 성적(性的)인 면을 많이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앞서 독자층에 대해서 확인한 것처럼 신문소설의 주된 독자가 대학생(특히 여대생)과 가정주부들인 점과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본다. 또한 20대 층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당시 사회가 새로운 세대의 의식과 행동양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말하자면 전쟁 후에 기존의 전통적 가치체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특히 젊은 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⁸⁾ 젊은 층이 사회개선 의지를 실천해 나가는 「슬픈 목가」 등 일부 작품의 양상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일곱째, 주요 작중인물의 학력은 대학 이상(중퇴, 재학 포함)이 78.0%로 거의 절대적이다. 주인공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82.3%). 대학 이

8) 박철우는 1970년대 신문소설에서 주요 작중인물 중 20대가 많은 비중(57%)을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 “산업화에 따른 전통규범 및 가치관의 붕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사회구조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한 바 있다. (위의 논문, 33쪽.)

상인 인물이 28명인 데 비해 고졸 이하는 6명에 불과하다. 이런 현상은 대중독자들의 계층상승 욕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이는 대중들의 민생문제가 뒤로 밀려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없는 자’·‘피해받은 자’·‘뿌리뽑힌 자’인 하층민의 삶의 문제⁹⁾와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멀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문제를 거론하여 비판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되 본격적으로 정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대중문학의 일반적 성향을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주요 작중인물이나 주인공의 직업 양상을 통해서도 작품의 사회성을 측정할 수 있다. 주요 작중인물의 경우 대학(원)생이 19.4%로 가장 많고 주부, 사업, 교직·학자, 회사원·사무원, 유흥업소 근무 여성, 상업 등의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주인공도 대학생이 32.4%로 가장 많았고, 주부도 25%로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주요 작중인물이나 주인공이나 모두 대학생이 1위로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점이다. 특히 여자의 경우 대학생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주요 작중인물 23.2%, 주인공 40%). 현실적으로 훨씬 대학교육이 확대된 1970년대의 신문소설에서도 대학생이 14%¹⁰⁾인 것에 비한다면 1950년대 소설에서 대학생의 비중은 대단히 많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이 많은 것은 앞서 연령별 분포에서 보았듯 청춘남녀의 사랑문제를 다룬 작품이 많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주부가 많은 것은 여성들의 탈선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흥업소 근무 여성이 적잖게 나타나는 것은 남성들의 외도와도 관련이 있으며 전후사회에서 겪는 여성들의 사회적 시련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혼녀나 미망인이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경우로 나오는 작품이 많다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적 시련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업가나 교직 등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대중독자들의 계층상승 욕망과 연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별아 내 가슴에」, 「애인」, 「실낙원의 별」, 「짧은 설계도」 등에서처럼 직업이 소설가인 인물이 적지 않다는 것도 특징적인 면모다. 이는 작가가 소설을 수월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보았을 때, 1950년대 신문소설의 작중인물들이 대부분 학력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인정된 직업을 가지는 등 상류층으로 설정된 것은 대중들의 계층상승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중들의 계층상승 욕구를 신문소설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1950년대 신문소설이 대중소설로서의 특징을 보

9) 조남현은 소설에서 하층민의 삶의 문제에 애정어린 눈길을 주는 것이 세계문학적인 추세라고 말한 바 있다. 『소설원론』(고려원, 1988), 141쪽.

10) 박철우, 앞의 논문, 34쪽.

여주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상류층 인물이 많은 것은 또한 매체의 특성에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대중매체에서 상류층 인물이 매체 수용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뉴스메이커로서 기능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상이 신문에 연재되는 소설에도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소설적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뚜렷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이는 곧 여성문제와 동시대의 사회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나 권익신장을 위한 노력, 퇴폐·향락주의와 성 개방 풍조에 따른 여성들의 탈선, 분단상황으로 인한 여성들의 시련 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오랫동안 강력하게 사회를 지탱해오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위상이 분단과 전쟁, 근대화 등을 거치면서 흔들리게 됨에 따라 전통적 가족제도가 해체되고 사회가 재편되는 징후가 여성인물의 소설적 기능의 강화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물설정과 관련하여 애피레이션(appellation)¹¹⁾ 문제를 검토해 보더라도 1950년대의 사회상이 드러난다. 1950년대 신문소설의 애피레이션에서는 외래지향성, 퇴폐·향락주의, 물질만능주의, 정치불신의 양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애인」의 <마담 로즈>, 「실낙원의 별」의 <이애리>, 「장미의 침실」의 <주리에>, 「화관의 계절」의 <민수산나>, 「원색지대」의 <미스캐리>, 「빛의 계단」의 <미스윤> 등은 유흥업소 근무여성이거나 첩, 연예인으로 등장하는 여성이다. 이들은 한결 같이 서구적인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외래지향적 풍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외래지향적인 풍조는 곧 미국식 자유주의나 퇴폐·향락풍조와 관련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11) 작중인물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가져다주는 환기작용에 의해 그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부드러운 이름이나, 거친 이름이나에 따라 부드러운 이름의 주인은 부드럽게 느껴지고 거친 이름의 주인은 거칠게 느껴진다. 따라서 작가가 작중인물을 대하는 태도는 여기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김동인의 소설에서는 「마음의 열은 자」의 <K>, 「목숨」의 <M>, 「발가락이 닳았다」의 <M>, 「배회」의 <A> 등 가벼운 부호로 작중인물의 이름을 대신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어느 사람을 그대로 지칭한 듯한 느낌을 주면서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인물임을 말하는 것이다. 음성상징을 이용한 「무지개」의 <연연>과 <애애>는 이름 그대로 부드럽고 나약한 여인이고, 「곰네」의 <곰네>는 곰같이 억세고 둔한 여인이고, 「붉은 산」의 <삼>은 거칠고 난폭한 인물이며, 「대탕지(大湯池) 아주머니」의 <다부꼬>는 돼지같이 둔하고 못생긴 인물이다.(김영화, 「동인 소설의 구조」, 『현대한국소설의 구조』(태광문화사, 1977), 15~16쪽.) 김성환의 「박쥐」에 나오는 <박쥐>라는 인물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또 그늘진 세계 속에서 약삭빠르게 눈치나 살피면서 사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이다.(조남현, 『소설원론』(고려원, 1988), 137쪽.)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결혼한 여자를 부를 때 서양식으로 남편의 성을 따서 지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장미의 침실」에서는 <박한일>의 부인을 <박 부인>, <변국태>의 부인을 <변 마담>으로 부르며, 「후백」에서는 <공창수>의 부인을 <공 부인>이라고 하고, 「사랑」에서도 <황 사장>의 부인을 <황 부인>이라 칭한다. 이 역시 친미이데올로기의 경향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생을 연상하게 하는 이름인 「생명」의 <유화주>, 「격랑」의 <추련>, 「환희」의 <옥설란>은 작품에서 배금주의에 젖어 애욕을 탐닉하는 인물로 나온다. 이런 명명법은 성 문란, 성 개방 풍조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미의 침실」의 <왕우일>은 탐욕이 가득한 부자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는 이름이다. 그는 방직회사 사장으로서는 첩을 거느리고 여배우에게 집적대며 헬리콥터까지 타고 다니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인물로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방하기도 한다. 「낭만열차」의 <권달수>는 ‘권달’을 연상케 하는 이름이다. 국사보다는 사리사욕만 앞세우는 국회의원인 그의 인물됨을 잘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당시의 물질만능주의 세대나 정치의 타락상을 짐작케 하는 인물들이다.

「장미의 침실」의 <술개미>는 이른바 뒷골목의 ‘어깨’인데, 매과의 텃새인 날짐승의 생태를 그대로 인물에 반영한 이름이다. 「젊은 설계도」의 <추익태>는 ‘추악(醜惡)’을 연상케 하는 이름이다. 깡패인 <술개미>와 <추익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한다. 「슬픈 목가」의 소매치기 두목 <한도숙>은 ‘도둑’의 음성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깡패들의 정치 참여로 혼탁했던 1950년대 사회의 한 측면이 반영되고 있는 이름들이다.

그러면 이러한 주요 작중인물의 사회적 위상을 토대로 하여 2절~4절에서는 그 인물들이 당대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작품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지배적인 형식에 추종하는 인간상의 양상은 ‘순응’으로, 지배적인 형식과 적절한 선에서 합의점으로 찾는 인간상의 양상은 ‘타협’으로, 지배적인 형식에 맞서 행동하는 인간상의 양상은 ‘대항’으로 나누어 살펴으로써 1950년대 신문소설의 사회인식을 정리해 보겠다.

2. 순응적 사회인식 : 친미-반공 이데올로기 수용의 경직성

1) 친미이데올로기의 확산

개화기 이래 기독교, 교육, 의료선교, 발전된 물질 문명을 앞세운 미국은 대중적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지향성을 심어나갔다.¹²⁾ 대중문화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국 영화는 1920년대부터 중산층 이상의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1920년대부터 미국영화 일변도였으며 일제의 강력한 양화(洋畵)통제정책에 의해 1930년대 말 상영 허가된 영화건수 중 60~70%로 줄어들기까지 미국영화가 지배적이었다. 영화는 오락으로서 뿐만 아니라 근대세계의 교과서로 인식되었다. 특히 학생과 부녀자층에게 영화관람이 일종의 일상적인 관행으로 자리잡는 양상을 보였다. 영화가 미국산에 치우쳤다는 것은 개화기 이래의 미국지향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한국에서의 미국 대중문화의 뿌리를 심는 시작이기도 했다. 일상언어에서 영어가 지적인 과시욕구에 의해 남발되었으며, 미국 대중의 우상들이 식민지 조선에서도 우상화되고, 잼즈가 도입되는 등 기독교와 함께 영화는 조선 내부의 ‘亞米利加니즘(Americanism)’의 토대를 다지고 있었던 것이다.¹³⁾

일제강점기에 토대를 다진 미국지향성은 해방이 되면서 더욱 뚜렷해진다. 미국이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킨 은인으로 인식되고 미군정까지 실시되면서 미국이란 존재는 엄청난 위력을 떨치기 시작한다. 더욱이 미국은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에서 공산화의 위기로부터 구해낸 구세주의 입장이 됨으로써 친미이데올로기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성역으로 되었던 것이다.

해방 후 핵심 지배엘리트의 대중은 친미파였고 미국은 친미파들을 적극 이용하면서 한국사회 전체의 친미화를 꾀하였다. 그 친미화 작업 과정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도미유학이었다. 따라서 1950년대 사회에서부터 미국유학파가 한국사회의 최고 엘리트로 부상하게 된다.

미국유학은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유학파들은 이후 한국사회의 최고 엘리트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미국 유학은 개인적 출세의 방편이기도 했고, 선진적인 물질과 의식이 도입되는 강력한 통로였으며,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식의 또 미국이 의도하는 근대화가 진행되었을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

12) 유선영, 「한국대중문화의 근대적 구성과정에 관한 연구」(고려대 박사논문, 1993), 360쪽

13) 위의 논문, 366쪽.

국 유학생들이 학계를 장악함으로써 그 영향은 더욱 장기적이고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것이었다.¹⁴⁾ 한국사회에서 미국의 존재는 모든 부문에서 절대적으로 군림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문학의 번역물도 해방과 미군정기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소설의 경우 해방 전에는 영국소설이 가장 많이 번역되었는데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미국소설이 가장 많이 번역되었다. 1954년부터 1959년까지만 해도 168편이 번역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역시 미국지향성을 보여주는 일면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영향력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더욱 크게 나타난다. 1950년대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로부터 좌절과 폐허만을 물려받았다고 인식하였다. 전쟁과 분단은 해방 직후의 다양한 역사 경험 중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도록 강요하였고, 그 속에서 전후세대는 선배세대와 철저한 경험의 단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유년기에 한국전쟁을 경험하였고, 전쟁 이후 많은 유엔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식 교육체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다.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젖은 세대였던 이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풍속, 서양적인 가치와 사고들이 혼돈된 상황에서 성장하고 생활하였다. 미래에 대한 좌표를 잃어버리고 좌절과 방황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특히 전후 미군이 남기고 간 문화를 여과 없이 흡수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국주의 문화에 전면적으로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꼬집어서 당시 어느 외국인인 “한국 학생들에게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한국 학교의 교실에는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였다.¹⁶⁾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에 토대를 형성한 아메리카니즘은 1950년대에 이르러 젊은 이들을 중심으로 더욱 확고한 ‘희망의 등불’로 자리잡았던 것이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이러한 친미이데올로기의 노골화 경향이 반영된다. 때로

14) 임대식, 『195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친미엘리트의 형성』,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역사비평사, 1998), 167쪽. 또한 이 임대식의 논문에서 ‘해외유학생 인정자 통계’를 보면 1950년대에는 해마다 미국유학생이 해외 유학생의 80~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래 도표는 같은 논문의 164쪽에 실린 ‘해외유학생 인정자 통계(1951~67)’에서 발췌 인용한 것임).

연도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총유학생수(명)	634	1,129	1,079	520	435	376	418
미국유학생수(명)	576	1,041	963	429	359	299	350
미국유학생비(%)	90.9	92.2	89.2	82.5	82.5	79.1	83.7

15) 김병철, 『한국현대번역문학사연구』상(을유문화사, 1998), 50~76쪽 참조.

16) 배경식, 『‘모던 보이’에서 ‘X세대’까지』, 한국역사연구회,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2』(역사비평사, 1998), 197~198쪽.

는 그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전창님>과 <설병국>의 기구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생명」은 친미 이데올로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다. 그것은 주로 작품의 무대가 미국으로 옮겨지는 후반부에 집중되며, 미국에서의 상황만이 아닌 미국에 가게 되는 경위 등에서도 나타난다.

여주인공 <전창님>은 결혼까지 약속했던 <설병국>과 헤어진 뒤 기름장수 할머니를 간호하며 도와주다가 병실에서 미국인 <안더슨 부인>을 만나게 되고, 그녀의 추천으로 미국 유학 길에 오른다. 그때 <전창님>은 <설병국>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미국에 간 <전창님>은 미혼모를 위한 사업을 벌이는 <허드슨 부인>의 신임을 얻어 그녀 집에서 거주하는 가운데 가까이 지내게 된 <짜아넷> 등의 도움을 받으며 미국 생활을 해 나간다. 한편 <전창님>과 이별한 뒤 <김정미>와 가까워진 <설병국>은 그녀와 혼담이 오가면서 결혼을 앞두고 둘이 함께 미국에 가게 된다. 그들은 각기 다른 경로로 미국에 가서 머물게 된 것이다. 그 세 사람은 <코오렌스 부인>이 동양계 유학생들을 초대할 자리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다. 결국 교통사고를 계기로 <전창님>이 <설병국>의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짜아넷>을 통해 알게 된 <김정미>는 <설병국>의 곁을 떠나 유럽으로 가고, <설병국>은 <전창님>과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안더슨 부인>, <허드슨 부인>, <짜아넷> 등 미국인들이 한결같이 선인(善人)들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전창님>을 도와준다는 사실이다. <전창님>은 곤경에 처한 할머니를 간호하는 등 선행(善行)을 베풀었기 때문에 미국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유학도 간 것이며 유학중에 옛 남자와 재회하여 사랑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구도인 것이다. 노골적인 친미이데올로기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친미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미국가정에 대한 선망 역시 친미이데올로기의 반영인 것이다.

① “만약에 식탁에 닿지 못하게 되거든 전화를 해야 돼요. 미국은 식사시간이 여간 까다롭지 않아요.”

짜아넷은 목소리를 낮추어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예고 없이 저녁식탁에 두 번 빠지면 그 부부는 이혼하는 첫 계단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행을 떠났다면 도리가 없지만.”

정미가 신기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식사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아들이나 딸은 또 감화원으로 가는 수가 많으니까. 말하자면 불량 소년소녀가 될 아이들은 식사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단 말이죠.”

“오 그래요? 미국가정의 식사에 대한 규정은 참으로 엄격하군요.”

하고 정미가 커다랗게 눈을 뜬다. 짝아넷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십사시간 중에 식탁에 둘러앉는 시간을 제일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장이나 공장에서 먼지를 둘러쓰고 일을 하던 사람도 저녁밥 시간에는 말짱히 몸을 씻고 새 옷으로 바꿔 입고 머리를 빗고 얼굴을 만지고 웃는 낯으로 식탁에 앉지요. 신앙이 독실한 가정에는 오늘은 아버지가 내일은 어머니가 그 다음 날에는 아이들이 차례로 감사기도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시작합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미국 가정생활.”

정미가 감탄을 하는데 짝아넷은 신이 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미국사람들이 처음 이 대륙으로 건너와서 힘들게 농사짓고 자기네 손으로 집을 짓고 천신만고 어려운 노동을 하는 틈에 해가 기울어 식구들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 만족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하루생활의 승리요 또 그만큼 생활의 창조를 느꼈는지도 모르죠”

정미가 깊은 감격에 잠겨 짝아넷의 말을 음미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식탁으로 갔다.〔『생명』 250회〕



미국에 간 <김정미>가 시간을 엄수하고 유쾌하면서도 경건한 분위기를 견지하며 기도를 드리는 등 미국 가정의 식사예절을 보고 미국 가정생활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느끼며 ‘감탄을 하고 ‘감격에 잠겨’ 있다. 이는 곧 미국 전체가 아름다우며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 감탄·감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설병국>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목(206회)에서도 친미이데올로기를 엿볼 수 있다. <전창남>과 헤어져 <김정미>와 가까이 지내게 된 <설병국>은 어느 날 포천에 있는 광산의 광부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하고 오라는 <김한주>의 부탁으로 현금 일천만 원을 수송하게 된다. 그런데 도중에 산모퉁이에서 운전사가 갑자기 폭력배로 돌변하여 파이프렌치로 그를 가해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에 운동으로 단련된 <설병국>이 그를 때려눕히기는 하지만 왼쪽 관자놀이가 크게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지나던 차를 잡아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 어려운 순간에 차가 다가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군 트럭이었다. 미군들은 <설병국>을 차에 싣고 서울로 가서 차 주인을 찾아 그의 신변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김으로써 그를 위기에서 구해준다. 미국이야말로 ‘구원의 존재’요 ‘해결사’인 것이다.

『생명』이 이처럼 친미이데올로기를 노골적으로 반영한 것은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즉, 김말봉이 미국인 어을빈(魚乙彬)의 부인이 경영하는 기독교계 소학교와 일본 동지사(同志社)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점, 1949년 하와이를 시찰한 점, 1955년부터 1956년까지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도미 시찰한 점 등의 경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¹⁷⁾ 특히 1950년대의 1년간의 미국 시찰은 김말봉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¹⁸⁾

1950년대 최대의 화제작인 「자유부인」도 친미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미국지향성의 세태가 잘 그려진 작품이다. 아래의 인용에서 보면 미국제품에 대한 대중들의 선호 양상이 반영되고 있다.

② “최고급품으로 주시오! 물론 외국품이겠지요?”

“네! ‘맥스파다’ 상품이라고 미국제품입니다.”(「자유부인」 35회)

③ “나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미세스 오께서 적당히 선택해 주십시오.”

(……)

“향수와 코티 분만은 불란서 제품이고, 그 밖의 것은 죄다 미국 제품입니다.”(「자유부인」 37회)

④ “이거, 미제(美製) 와이사릅니까?”

신춘호는 여전히 상품에 시선을 부은 채 잠꼬대처럼 물었다.

17) 「생애와 작품 연보」, 정하은 편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종로서적, 1986), 411~414쪽 참조.
18) 김말봉이 미국시찰 중에 보내온 편지의 내용(㉠)과 귀국한 뒤에 작가 이종환에게 했다는 말(㉡)에서 보면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K형. 흔히 영화에서 본 대로 한다면 아메리카 여성들은 선녀 같은 채림새를 하고 고급 술과 고기와 진기한 과실을 싫도록 먹고 마시고는 사나이들과 어울려 춤만 추고 산다고 생각한 일이 있지 않소? 분명 내가 그 중의 한사람이었소.

그러나 여기 와서 보니 그것은 한 개의 커다란 착각이었소. 이곳 부인들의 그것이 주부이거나 독신이거나, 하나같이 착실하게 살림을 살고 돈과 시간의 이념이 또렷한 데는 경탄할 일이요.

동전 한 푼을 쓰는 데도 가장 효과 있게, 주방에서 감자 한 개, 배추 한 이파리의 요리에도 달아보고 재어보고, 머리를 쓰는 것은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소.

K형. (……) 이 사람들은 결단코 물건을 기분대로 사지 않는 것이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아무리 헐해도 또 아무리 사라고 권해도 사지 않는 것이 우리 나라 주부와 다른 점일 것이요.(「아메리카 3개월 견문기」, 위의 책, 322쪽.)

㉡ “(……) 미국 사람들 사는 것 보니까 되도록 쓸데 없는 일에 신경을 안 쓸라카데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남이 여간 언짢게 굴어도 모른 척하고 지나쳐 버리는 게 생활술로 아주 그만이에요. 나도 배웠어요. 되도록 신경질 부리지 않고 사는 게 좋겠네요. 요컨대 남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동시에 내 일에 남의 간섭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걱정하니까 여간 맘이 편하질 않아요.”(이종환, 「나는 대중소설가다」, 위의 책, 37쪽.)

“미제야... 왜, 와이사쓰가 필요한 거야?”(「자유부인」 143회)

위의 인용문 ②, ③, ④는 모두 주인공 <오선영>이 근무하는 ‘파리양행’이라는 화장품점을 겸한 양품점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이다. 화장품이든 옷이든 미국제품이라는 점이 구매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선영>을 중심축으로 <백광진>(②), <한태석>(③), <신춘호>(④)가 모두 미국제품을 매개로 삼아 서로에게 접근하면서 호감을 사려고 애쓰고 있다. 이 소설의 22회 연재분에서는 가정주부들이 미제 화장품을 매우 선호하는 장면도 나온다. 미군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직접 구입해 온 것을 쓴다는 것이다.¹⁹⁾ 「자유부인」에서는 <신춘호>와 <오명옥>이 영문과 학생이라는 점, 그들이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점 등도 미국지향성의 세태와 관련되는 사항이다.

「생명」이나 「자유부인」 이외에도 여러 작품에서 친미이데올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설계도」에서 <강난실>이 모교에서 열리는 YWCA 행사에 참가했을 때의 한 장면(54회)에서 보면, 미국 소년 <지미>와 소녀 <메리>에 대해 매우 정감 있고 평화스럽게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강난실>은 미국인 학교 소년·소녀들의 모습에 대해 주위에 있는 나무나 꽃이나 돌들처럼 자연스럽게 순진하게 여기고 있음이 드러난다. ‘셋노란 금발에 눈이 파아란’ 미국인들에게 매우 호감을 갖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 장면의 묘사는 작품 전개상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삽화(挿話)였는데, 이 점은 친미이데올로기에 대해 순응하는 당대의 양상을 더 잘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태풍시대」의 <손창우>도 외국에 대한 선망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선

19) 제품을 통해 나타나는 미국(혹은 외국)지향성은 「푸른 날개」에도 나타난다. 양담배를 선호하는 <박경래>(9회)와 미국·프랑스·일본 등지에서 들여온 외제 화장품만을 즐겨 쓰며 자부심을 느끼는 <미스 현>(26회)의 행위는 당대 부유층과 유한마담들의 외국지향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민주어족」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데 대해 비판하는 부분은 미국지향성에 대한 경계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 작품의 화자(話者)는 해방 이후 크리스마스가 우리 나라에서 전사회적으로 호화판 명절이 된 데 대해 “자기 것을 경멸하고 남의 것을 맹목적으로 숭상하는 사대주의사조(事大主義思潮)가 팽배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미국 세력이 밀려들어오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화자는 그것이 급기야는 공금횡령·뇌물·환락·범죄 등을 낳는 사회악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할리우드 영화나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인들의 생활 등을 접하면서 그들의 생활에 크리스마스가 깊숙이 뿌리내린 것을 알게 되었고, 미국을 따라가는 것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인 양 인식되던 시대였으므로 크리스마스가 “우리 나라의 어떤 명절보다도 가장 호화로운 명절”이 되었던 것이다(74회). 이는 기독교와 친미성향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하다.

우영>이 얻어 놓은 초대권을 그녀와 함께 조선히텔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가게 되자 “조선히텔에서 열리는 음악회라면 대개 외국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 만큼 음악도 좋으려니와 분위기도 좋을 것이 분명하다”고 전제하고 “외국사람들 사이에 끼어 그들 흥내를 절반만 낸다 해도 얼마나 멋진 일인 것인가”라며 외국인들의 행위를 선망의 대상으로 본다(48회).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인식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멋진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소설 속의 친미이데올로기는 독자들의 계층상승 욕망이 반영된 양상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외국인은 곧 미국인을 연상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외국선망은 곧 미국선망과 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흑백」에서도 신인여배우 <공미주>의 생각이 서술된 부분에서 보면, 그녀가 대학입시에 떨어지자 “걱정 말아! 네 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은, 흥! 나는 한국에서 첫 손을 꼽히는 일류인기 여배우가 되어서...‘허리운’의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떠나게 될거야...호호호...두구 봐!”라고 큰 소리를 친다(50회). 미국에 가는 것이야말로 출세의 상징이라는 인식이다. 전형적인 아메리카니즘이 반영된 부분이다.

이렇듯 1950년대의 친미이데올로기는 엄청난 위력을 떨치고 있었고 그것은 노골적으로 여과 없이 신문소설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작품에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대체로 미국·미국인·미국문화·미국제품 등에 대한 무조건적 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순응의 양상이었던 것이다.

2) 퇴폐·향락풍조의 만연

1950년대 들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친미이데올로기는 미국문화에 대한 동경과 함께 퇴폐·향락적 삶의 태도를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시 사회에서는 할리우드 영화나 미국의 대중가요 등을 통해 접한 미국의 소비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인 양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영향이 주로 향락이나 계층상승의 환상과 관련되는 것은 미국문화가 “풍요로운 미국의 물질문명과 함께 들어왔다는 점,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미국의 군대문화로부터 유입되었다는 점, 특히 사교춤 문화의 유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²⁰⁾ 등을 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백철²¹⁾은 당대의 시점에서 우리 나라가 “해방 뒤十年간에 있어서

20)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시공사, 1988), 136쪽.

미국의 문명 문화를 받아드린 결과는 어떤 面으로 나와있는가 반성할 때에 不幸한 사실은 그 미국문명의 건실한 면이 아니고 不健全한 面이 더 誇張되어 反映 진과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 이유를 ㉠ 미군정시대나 그 뒤에 미국에서 과전되어온 행정 관리들이 저질(低質)이었다는 점, ㉡ 미군들이 전후에 미국문화를 전달해온 주요한 매개체가 되었다는 점, ㉢ 미국의 서부개척영화와 성적(性的)인 영화가 미국문화를 진과하는 루트가 되었다는 점 등으로 꼽았다. 한국문화를 퇴폐·향락주의로 흐르게 한 주된 요인이 미국문화에 있다는 인식이다. 특히 미군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점은 설득력이 크다.

(……) 한국에 온 ‘지 아이’라는 것이 또한 참된 미국문화를 전달하는 데는 적당한 것이 아니었으니 年齡은 젊고 교양은 낮고 취미는 저속하여 이들이 滯韓해서 퍼뜨린 美國風이란 浮薄 低俗한 그것이었다.

거기에도가 한국의 대중으로선 그들이 마치 문명미국의 표본인 것처럼 생각하여 盲目的으로 그들을 모방했기 때문에 ‘지 아이’가 퍼뜨린 미국적인 輕薄風이 전후의 한국의 과도기에 浮薄한 社會的인 풍조와 혼란을 일으킨 주요한 매개가 되었다.²¹⁾

일본의 경우에는 미군이 점령군으로 주둔하고 미국영화가 유입되면서 풍속의 영역에서 큰 변화를 초래한다. 1920년대 이래 일본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미국영화는 미국과 전쟁을 벌이던 4년 동안 일본에서 상영되지 않다가 종전이 되면서 다시 홍수처럼 밀려들어온다. 아울러 전후 미군이 점령하면서 일본인들은 미국인의 행동을 영화 속이 아닌 거리의 일상사로 보게 된다. 특히 남녀교제 풍속은 큰 변화를 초래한다. 이전에는 남녀가 어깨를 나란히하고 걷는 것은 부도덕하게 생각되었으나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²²⁾ 일본은 미국에 의해 패전한 입장에서 그들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한국은 입장이 달랐다. 한국에게 미국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준 존재이자 공산화의 위기에서 구해준 은인으로 인식되던 터였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미국은 환상 속의 낙원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21) 백철, 「오인된 미국문화—부박(浮薄)과 퇴폐가 과장되다」, 『신태양』 1958년 9월호, 196~201쪽.

22) 위의 글, 199쪽.

23) 鶴見俊輔, 『戰後日本の大衆文化史』; 김문환 옮김, 『전후 일본의 대중문화(1945~1980)』(소화, 1996), 27~28쪽.

①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오선영 여사도 잠을 청해 보았으나 이상하게도 오늘밤은 잠이 오지 않았다. 최윤주가 십년 동안이나 동고동락(同苦同樂)하던 남편과 이혼을 하였다든 사실과, 내일 저녁 여섯시에는 ‘이십오시’ 다방에서 신춘호를 만나 ‘엘·시·아이’에 놀러갈 일과, 머지않아 한태석과 함께 화교회 ‘파아티-’에 출석할 일과, 백광진이란 사나이의 초대를 받을 일 등등……가지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리에 떠올랐다. 머리 속에 그려 보는 풍경은 미국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두가 화려하였다. 그리고 그 화려한 장면에 등장하는 오선영 여사 자신은 언제나 여왕처럼 신성불가침의 존재이었다. 공상 속의 오선영 여사는 황홀한 행복에 도취할 수도 있었고, 최고의 향락에 자기만족을 마음대로 누릴 수도 있었다.(「자유부인」, 71회)

② (……) 허 여사의 어깨는 으쓱해졌다. 대학을 나온 이 젊은 사나이가 모든 여대학생을 제체놓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역시 젓비린내 나는 계집애들보다 자기가 월등하게 매력 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솟을 지경으로 고마웠다. 사실 말이지, 요새 서양영화를 보면 젊은이들끼리의 연애란 별로 없잖은가.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와 더불어 연애하고, 젊은 남자는 유부녀들과의 비련에서 죽자살자 하지 않던가. 이것이 서양의 문명이요, 진보적 현대연애인 것이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해보는 허영희 여사는 전에 없이 선일이 훌륭해 보였다.(「별아 내 가슴에」, 68회)

①에서는 「자유부인」의 <오선영>이 남자들과 만난 일 등 여러 가지 사건을 생각 하면서 미국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도취되어 있다. 그녀가 인식하고 있는 미국 영화 속의 장면들이란 자유스럽고 황홀하고 향락적인 모습이다. 당시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미국식 자유주의란 이런 식으로 편협하게 인식되었던 것이다.

「별아 내 가슴에」의 ②와 같은 부분에서도 당시 한국사회에서 인식하는 미국식 자유주의의 성격이 감지된다. <현선일>이 한번 시험삼아 사랑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유한마담 <허영희>가 감격해 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그녀는 서양영화(주로 미국영화)를 통해 유부남과 처녀, 유부녀와 총각 사이의 애정 양상을 익히 접해왔던 바, 그것을 마치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연애로 착각하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 등을 통해 수용되는 미국식 자유주의는 이렇게 편협한 방향으로 인식되어 방종과 탈선, 퇴폐와 향락으로 흐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별아 내 가슴에」에는 또한 <홍정숙>이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고 <현암>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두고 “아메리카의 첨단도 대경실색할지 모를 일”이라며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와 근면과 성실은 이 나라에 얼른 이식되지 않는 반면에 아메리카의 화

려한 사치와 육체과의 모던 패션은 제트기의 초음속적 속도로 날아들어 오곤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75회). 지나친 여성의 노출 등 부정적 현상들이 미국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미국식 자유주의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변형되어 수용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오해된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만연된 것이 퇴폐·향락주의였다. 그 대표적인 양상은 ‘댄스바람’²⁴⁾이었다. 일부 특수층에서는 부산 피난 시절에도 댄스 파티로 세월을 보내는 몸도 있었으며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와서 얼마간 안정을 되찾게 되자 한때 주춤했던 사교계(社交界)가 부활되고 댄스 바람이 강력하게 일기 시작했다.²⁵⁾ 1955년에는 한 건달이 댄스홀을 무대로 혼인을 빙자하여 춤바람이 난 여대생과 직업 여성을 70여명이나 농락한 ‘박인수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²⁶⁾ 백철은 당시 댄스바람의 단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미국문명 문화의 本質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착란을 해서 그것을 받아드린 點이 많다. 一例를 들면 소위 ‘社交춤’이다. 한국에선 대개 ‘댄스’라고 하면 미국사회의 대표적인 장면인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많지만 실제로 미국에 가 보면 의외로 미국사회에선 춤이 流行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언젠가 한국에서 女學校長님이 미국을 가게 되어 수개월 동안 춤 연습을 해 가지고 갔다는 것도 美國의 문명에 대한 喜劇的인 착각을 한 一例

24) ‘댄스바람’을 ‘춤바람’이라 지칭할 수도 있지만, 주로 미국에서 들어온 춤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1950년대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댄스바람’을 그대로 쓰고자 한다. 1950년대 댄스바람의 양상은 대중가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망향의 탱고」(1952), 「도라지 맘보」(1953), 「나의 탱고」(1957), 「나포리 맘보」(1957), 「댄서의 순정」(1957) 등은 모두 댄스바람과 관련된 가요다. 이 가운데 댄스홀에서 일하는 여성의 사연이 담긴 「댄서의 순정」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 처음 본 남자품에 열싸 안겨 / 네온싸인 아래 오색등불 아래 / 춤추는 댄서의 순정 / 그대는 몰라 그대는 몰라 울어라 색소폰아.”(서우석, 『한국대중가요의 가사 분석—가사의 시대적 양상과 그 삶의 모습』, 강현두 편, 『한국의 대중문화』(나남, 1991), 261쪽.)

25) 서광운, 『한국신문소설사』(해돋이, 1993), 310쪽.

26)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면 「흑백」의 <이일성>은 바로 이 실재인물 박인수를 모델로 한 듯하다. 이는 시사성 있는 메시지를 다루는 신문소설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침 석간신문이 배달되었다.

그것을 펼쳐들고 사회면을 무심코 들여다보던 ‘미주’의 두 손은 부들부들 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일성’의 사진이 변칙 눈에 띄도록 큼직하게 나타나며, 옆으로 가로질러 붙인 흑지백자(黑紙白字)의 제목이 왈각 두 눈을 찌를듯이 덤벼드는 것이었다.

‘희대(稀代)의 사기환(詐欺漢), 색마(色魔) 드디어 체포.’

‘댄스’와 외모를 무기로 삼고, 여대생, 유한 ‘매담’들과 결혼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편취한 액수가 무려 수천만원. 피해자 수효가 삼사십 명에 달하며 그 중에는 소위 모고관(高官) 실업가(實業家)의 부인들도 몇 명 섞여 있다는 놀라운 기사였다.”(「흑백」 163회)

라고 볼 수 있다.²⁷⁾

「자유부인」은 당시의 댄스바람 세태를 선구적으로 적나라하게 묘사함으로써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다. 「자유부인」에 나타난 댄스바람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③ “민주주의도 좋지만, 나는 우리 집 양반이 외국손님들이 많이 모이는 파티에 같이 나가자는 데는 질색이야, 호호호……. 외국 손님을 초대할 경우에는 주인측에서도 부부동반이 예의인 줄은 알지만, 춤도 능란하지 못하면서 나같이 늙은 것이 그런 데에 나가 뭘 하니, 글썄!” 외교관의 부인은 외교 예식에도 풍부한 지식이 있어 보인다.

“그게 얼마나 민주주의적이유! 참 언넌, 텡고 왈츠도 잘 추신다지?”

화제는 어느덧 댄스로 비약하였다.

“아이참! 잘 출 게 어디 있어! 그저 흥내나 내는 정도지. 일전에 미국에서 경제사절단이 왔을 때 환영파티에도 갔었는데, 단장 되는 분이 나더러 춤을 추자는 게 아냐, 글썄. 어떻게나 부끄럽던지. 호호호.”(「자유부인」 9회)

화교회에서 부인들끼리 나누는 대화다. 외교관 부인은 파티에서 춤을 추는 것을 걸으론 부끄럽게 느끼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은근히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선영>은 화교회원들의 이런 대화에 자극을 받고 옆집 대학생 <신춘호>를 만나 그에게 댄스를 배우게 된다. 처음에는 <신춘호>의 방에 가서 배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신춘호>를 자기 집 안방으로 끌어들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고, 해군장교구락부(LCI)라는 공개된 장소까지 거리낌없이 춤추러 다닌다. 저녁 일곱시가 지나 해군장교구락부 댄스홀에 들어간 <오선영>은 “너무나 화려한 눈앞의 광경에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도록 황홀하게” 놀란다. “악대(樂臺) 위에서 파도처럼 웅장한 음악이 유랑하게 흘러나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삼십평이 훨씬 넘을 듯싶게 넓디넓은 홀에서 호화찬란하게 차린 칠팔십명의 남녀들이 제각기 짝을 지어 멋들어진 스텝을 밟고 돌아가는 것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흥겹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자유부인」 78회). 이렇게 대학생 <신춘호>에게 춤을 배우고 그와 어울려 춤추러 다니던 <오선영>은 작품의 후반부에서 40대 초반의 사업가 <한태석>을 애인으로 삼아 수정궁에서 열리는 댄스파티에 참석한다. 다음은 그 댄스파티장에 막 도착했을 때의 장면이다.

27) 백철, 앞의 글, 201쪽.

④ 홀 안의 광경은 눈이 부시도록 호화찬란하였다. 넓디넓은 홀을 휘황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샹들리에 밑에서는, 60여명의 남녀들이 아름다운 고기떼처럼 춤을 추며 돌아가고 있었다. 화려한 인어떼였다.

마룻바닥에 허영게 깔려 있는 봉산가루를 아낌없이 밟고 돌아가는 스텝과 스텝……. 음악이 고비를 넘길 때마다 멋들어지게 넘실거리는 육체와 육체! 향기로운 음악과 향기로운 행복에 황홀하게 도취되어 돌아가는 얼굴과 얼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돌아가는 것은 정녕 사람이런만, 서로서로 얼싸안은 남녀들이 하도 리드미컬하게 넘실거리기 때문에 마치 방안 전체가 회전목마처럼 돌아가는 듯이 보였다. 음악이 돌아가고, 술병이 돌아가고, 테이블이 돌아가고……. 모두가 회전목마를 타고 비잉빙 돌아가는 듯이 보였다.

여기에서만은 인간 생활의 모든 시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오직 쾌락과 행복만이 무르녹고 있을 뿐이었다. 인생의 쾌락과 정열의 발산과 청춘의 난무가 있을 뿐이었다. 관능적인 체취에 정신이 현혹해 오도록 대담 무쌍한 애욕의 분방이기도 하였다.

“어머나……, 어찌먼.”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던 오선영 여사는 한태석의 팔을 꼭 붙잡으며 무심중에 감탄성을 발하였다.(『자유부인』 187회)



<오선영>의 눈에 비친 파티장의 모습이다. <오선영>에게는 춤추는 남녀들이 인어떼로 보이는가 하면 파티장 전체가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듯하다. ‘눈이 부시도록’, ‘휘황찬란하게’, ‘화려한’, ‘멋들어지게 넘실거리는’, ‘향기로운’, ‘황홀하게’ 등의 표현에서도 보듯이 그야말로 환상적인 세계였던 것이다. 이런 환상적인 세계에 감탄하는 <오선영>은 결국 쾌락과 애욕만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한태석>과 호텔까지 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1950년대 댄스바람은 물밀듯이 밀려드는 미국문화와 함께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정비석은 『자유부인』에서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민주어족』·『유혹의 강』 등 그의 후속 소설에서도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의 신문소설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민주어족』에는 사회적으로 댄스홀이 물의를 일으켜 서울시내의 댄스홀이 당국에 의해 폐쇄조치 되었지만 외국인들을 위해 특별히 존속되는 곳이 있었고 실제로 거기에 드나드는 손님들은 대부분 우리 나라 사람들이라는 서술이 나온다. 그러면서 세상이 온통 불경기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댄스홀만은 어디까지나 ‘특수지대’가 아니

나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 댄스홀에 처음으로 간 <강영란>은 댄스가 근로대중의 레크리에이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53회), 현실적으로 댄스는 퇴폐의 온상일 수밖에 없었다. 알루미눔제작소 연구원 <홍병선>은 그런 당대 현실을 제대로 간파하여 “유부녀가 ‘댄스’에 미치면 가정을 배반하기가 예사요, 사내가 ‘댄스’에 빠지면 사회를 망치기가 보통이다. 그러고서 무슨 빌어먹을 ‘건진오락’이란 말인가.”라며 개탄한다(65회). 댄스가 건전한 오락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1950년대 한국사회에서는 한낱 이상에 불과할 뿐이었다.

「유혹의 강」에서도 “어둠침침한 불빛 아래에서 수백명 가까운 남녀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얼싸 안은 채 음악에 맞추어 멋들어진 스텝을 밟고 돌아가”고 있는 장면(120회)이 예외 없이 그려진다. 40대 중반의 의사 <윤만호>는 그 댄스홀에서 전혀 새로운 체험을 한다. 늘 ‘도라무통 같은 마누라’ <권숙경>만 안아오던 그로서는 30대 미망인 <이경혜>와 춤추는 행위란 “품안에 착 달라붙는 맛이 한없는 매력이었다.” 그래서 “뒤로 끌어당길 때마다 전신에 느껴지는 야릇한 중량감, 가까이 접촉할 때마다 가슴에 느껴지는 젖무덤의 탄력성, 바레이손을 넣을 때면 멋들어지게 율동하는 허리의 곡선미... 어느 하나이고 정신을 황홀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특히 상대인 <이경혜>는 노골적으로 접근해오고 있는 상황이니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윤만호>와 <이경혜>는 결국 성관계까지 갖는다. 댄스홀이야말로 불륜과 일탈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정비석은 그런 댄스바람에 대한 문제들을 「자유부인」, 「민주어족」, 「유혹의 강」 등에서 예리하게 포착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사랑」에서 보면 당시에는 직장여성들이 단체로 댄스 교습을 받는 것이 일상화되었으며,²⁸⁾ 뿐만 아니라 춤꾼을 집으로 불러서 부부가 함께 댄스 교습을 받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쟁의 와중이었던 1952년 4월에 피난처 부산에서 매일 두 시간씩 부부가 함께 춤을 배웠다는 것은 댄스바람의 영향력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²⁹⁾ <정남철>이라는 춤선생은 춤음기나 전축을 살 수 없어서 일부러 라디오

28) 작년 여름에 여자 행원들끼리 두 달 동안 남철에게서 댄스 교습을 받을 때 찬에는 특별히 칭찬을 많이 받았다.(「사랑」 22회)

29) “그래 아저씨가 날마다 남철일 불러다가 뭘 하셨어?”

“내외분이 댄스를 배우셨드랍니다”

“아니 정말?”

민우는 눈과 입을 한꺼번에 크게 했다.

“뭘 놀라셔? 그때 부산에선 아주 한창이었는데”

“그러기로 아저씨가?”

“어머니가 남들 하는 걸 보구 자꾸 말하니깐 그럼 거치 하자구 밤 일곱시부터 아홉시까지

상점 근처에 방을 얻어놓고 그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추어 댄스교습을 한다(85회). 이 작품에서도 갖가지 사건들이 댄스바람을 둘러싸고 벌어진다. <장계선>이라는 50대 초반의 가정부인이 대학생 <정남철>에게 댄스를 배우면서 그에게 빠져 집안일을 팽개쳐 두고 육체적 향락만을 추구한다. <장계선> 여사는 <정남철>을 끌어들이고 식모를 방앗간에 다녀오라며 내보낸 뒤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안방에서 춤을 출 정도로 춤과 남자에 빠지고 만다(26~27회). 무역회사 사장부인인 <황 부인>도 춤바람난 가정주부로 나온다. 국민학교(초등학교) 5학년인 그녀의 딸 <애주>마저도 어머니가 댄스바람 때문에 정신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못마땅하게 여긴다. “주부가 자기 혼자 재미에 팔려서 미쳐가는 맨쓰의 해독이 집집마다 전가족에게 이렇게도 빠르고 깊게 영향이 가는 것인가”(104회)라는 <김찬애>의 우려처럼 1950년대의 댄스바람은 엄청난 과장을 일으켰던 것이다.

「제이의 청춘」의 <백은주>는 댄스를 통해 유부남인 직장상사를 유혹하는 인물이다. 증권회사 여사무원인 그녀는 ‘댄스매니아’였던 젊은 과장을 되레 댄스로써 지배할 정도였다. 그녀의 춤 솜씨는 대단해서 그 젊은 과장은 “백은주와 취야만 춤을 춘 것 같다고 했다.” 따라서 그녀는 완전히 과장을 지배할 수 있었고 “사원들을 눈 아래로 보”며 ‘여왕행세’를 하고 다녔다. 젊은 과장이 물러가고 <신현우>라는 새로운 과장이 부임해 오자 그녀는 다시 ‘댄스의 매력(魔力)’을 행사하여 그를 유혹한 뒤에 부정을 저지르려고 시도한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끌려 다니던 <신현우>는 스텝이 익숙해지면서 점점 댄스에 빠져든다(178회). 옛 애인인 <유자애>와 막 새살림을 차린 <신현우>였건만 그런 <백은주>의 댄스를 통한 전략에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흑백」에서는 <변순자>라는 여인이 밤중에 춤판을 벌임으로써 밤늦도록 동네주민들을 잠 못 자게 했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다. 3남매의 어머니인 마흔 세 살의 <변순자>는 남편이 출장간 틈을 타서 친구들과 함께 외간남자(<이일성>)를 초청해 놓고 집안에서 춤을 배우다가 경찰서에 붙들려 갔던 것이다. 그녀는 제발 남편만은 모르게 해 달라고 애원한다(52~53회). 가정주부들이 댄스바람에 휘말려 방종한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는 양상이다. <변순자>에게 춤을 가르쳐 준 <이일성>은 거의 직업적인 춤 선생이다. 이북이 고향인 그는 외삼촌과 함께 월남하여 외

지 두 시간씩 배우셨죠”

“홍 참 훌륭한 남편이셨군. 도대체 그때가 언제야?”

“오십이년 사월부터요.”(「사랑」 56회)

삼촌의 도움으로 대학 4학년까지 다니다가 외삼촌이 세상을 떠나자 대학을 중퇴한 뒤에 줄곧 춤 선생으로 활동하며 여러 여자들을 농락하는 20대 후반의 청년이다. 그는 <공 부인>과 <공미주> 모녀를 넘나들며 애정행각을 벌이기도 한다.

「미망인」에서도 댄스바람의 세대가 그려진다.³⁰⁾ <신흥식>이 <유금선>과 <박창규>를 따라 갔을 때의 상황(35회)을 보면, 댄스홀이 오후 여섯 시에 문을 열자마자 “남녀가 때를 지어 쏟아져 들어”온다. 지각하지 않으려고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던 듯 금방 테이블이 초만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때를 가리지 않고 문전성시를 이루던 1950년대 댄스홀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논의 대상으로 삼은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남녀간에 춤추는 행위가 묘사되지 않는 소설은 「생명」, 「슬픈 목가」, 「내일의 태양」, 「짧은 설계도」, 「계절의 풍속도」, 「부교」, 「빛의 계단」 등 7편에 불과하다. 그만큼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당시의 댄스바람 세대가 강력한 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댄스바람 이외에도 퇴폐·향락적 풍조는 사회 곳곳에 번져간다. 당시 신문소설에서 보면 유흥업소만이 아니라 사찰이나 병원까지도 퇴폐·향락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⑤ 스무 살 갓 넘었을 듯 싶은 예쁜 웨이트레스가 카비넷을 열고 목욕타올과 세수타올을 꺼내주면서

“제가 이 방 당번이에요...옷을 벗으시거든 카비넷 속에 넣어주세요...목욕을 하시겠어요? 샤워를 하시겠어요?”

하고 묻는다.

“글쎄... 이왕이면 목욕을 하죠.”

“그럼 그러세요. 목욕통에 물을 받아드릴게요.”

웨이트레스는 커튼을 쳐놓고 저 방으로 가, 목욕통에 물을 받는다. 임보희는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목욕을 하려고 옷을 벗으면서도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었다.

임보희가 목욕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소녀는 나갈 생각을 아니하고, 비누도 갖다주고, 빗도 꺼내놓으며 시중을 부지런히 들어준다.

“남자손님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당신은 지금처럼 시중을 들어요?”

하도 궁금해서, 임보희는 소녀에게 물어보았다.

“그럼요! 저는 이방의 당번인 걸요. 목욕이 끝나시면 전신맛짜지를 해드려야 하거든요!”

30) 염상섭은 「댄스」(『신태양』, 1957.8)라는 작품에서 비밀 댄스홀에 무상으로 출입하며 남편 친구와 पार्ट너가 되어 놀아나느라 정신없는 여자를 그리기도 한다. 조남현, 「염상섭의 후기소설」, 『한국현대소설의 해부』(문예출판사, 1993), 158쪽.

소녀의 대답은 지극히 직업적이다.

“남자 손님 중에는 괴상한 손님도 많을 텐데 전신 맛짜지를 해주노라면, 이상하게 구는 사람도 더러 있겠죠?”

“있구말구요. 얼마든지 짓궂게 구는 사람이 많은 걸요. 남자들이란 그러는 게 보통이 아닐까요”(『연가』 130회)

⑥ (……) 선일은 서울 주변의 사찰(寺刹)이나 유람지의 사찰의 거개가 유흥장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에 비소하기보다도 의문을 가져보기도 한다. 아무리 종교가 타락했다 하기로 아직 기독교나 유교가 경내에서 요리를 만들어놓고 음식영업을 하거나, 또는 장구치며 기생을 안고 돌아가는 그러한 말세적인 유흥조발의 장소로 제공하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위 여승들만이 있다는 청량사를 위시하여 신흥사, 진관사, 등등의 허다한 서울 주변의 절들의 경내를 기생, 유부녀, 여학생, 할것없이 그들을 끼고 온 사나이들의 돈에 아첨하여 중들은 그들에게 개방할 뿐더러 방들을 유곽화하는 데에 부끄러움은 고사하고 도리어 싱글벙글거리며 기뻐했던 일이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았던가. 이것이 대처승들의 즐기는 바 일인지, 또는 비구승들의 업적 소행인지는 알 수 없거니와, 이렇게 승려들이 자본에 아첨하고 신성해야 할 사찰의 경내가 음탕한 장소로 제공되는 한 그들 중들의 목탁은 그야말로 ‘나무아미타불’의 공염불로만 그쳐질 것이다.(『별아 내 가슴에』 64회)

⑦ “맞은편 병실에 입원한 환자는 무슨 환자요?”

“왜요?”

간호부는 새카맣고 동그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생글생글 웃기만 하는 것이었소.

마치 그 병실에 있는 환자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여러 번 겪어봐서 속속들이 아는 이니, 그것을 묻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다는 그런 표정이었소.

“부인 환자요? 남자요?”

“오호호…네에…그래서…부인 환자죠…호호호…”

한바탕 어린아이같이 죄 없는 웃음소리로 깔깔대고 나더니, 간호부는 맞은편 병실에 들릴 것을 겁낸다는 듯 음성을 낮추어 가며 가만가만히 말하는 것이었소.

“호호호…무슨 환자나구요? 지독한 환자죠.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불치(不治)의 환자요. 연애병(戀愛病) 환자, 정신병(精神病) 환자, 성병(性病) 환자, ‘댄스’병 환자…그 모든 병을 겸한 환자—그리면서두 환자가 아닌 멀쩡한 환자…호호호…선생님…그만하면 아시겠어요?”

“언제부터 입원했오?”

“일년에두 몇 번씩 입원했다 퇴원했다 하죠. 새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요…호호호”(『흑백』 133회)

⑤는 「연가」에서 <임보희>가 <방준걸>을 따라 방갈로식 러브호텔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이다. 그곳에는 간단한 침대, 호화로운 캐비닛, 커다란 화장대, 증기목욕탕 등이 갖춰져 있다. 러브호텔 객실에서 갓 스무 살 정도의 당번 여자가 일일이 시중을 들며 목욕을 도와주는가 하면, 목욕 후에는 전신마사지까지 해 주고 있다. 그녀는 그런 일을 남자손님에게도 한다고 아무 거리낌없이 말한다. 즉, 나아가 거기서 매춘행위 까지도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퇴폐·향락이 산업화된 현장이다. 「연가」에는 많은 남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호텔에 드나드는 현실에 대해 택시운전사가 개탄하는 장면도 있다. 특히 가정부인들이 대낮에 외간남자와 호텔에 드나들기를 예사로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남녀간의 풍기가 말이 아니”라며 한탄한다(243회).

⑥은 「별아 내 가슴에」에서 사찰이 유흥장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면서 그러한 타락한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작가 박계주가 기독교신자인 점 때문에 사찰의 유흥장화·유곽화를 좀더 강하게 비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소설이 연재되던 즈음에는 실제 사찰경내의 풍기 문제가 심각했었고 그런 문제가 이 작품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는 게 더 나올 듯하다.³¹⁾

심지어는 병원의 병실이 남녀간 밀회의 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당시 신문소설에 나오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는 환자도 아닌 <공 부인>이 춤 선생 <이일성>과 함께 병실의 침대에서 밤을 보낸다. <공 부인>은 육체의 향연을 위해 으리으리한 저택도 이미 싫증이 났고 호텔이나 여관 같은 곳도 너무 평범하다고 느껴서 변태적인 발상으로 병실에서의 쾌락을 도모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밤을 보낸 뒤 그녀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은 뒤의 개운함”을 느낀다(91회). 향락 풍조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용문 ⑦은 <안수인>이 <최명훈>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눈 수술을 한 <안수인>은 <공 부인>과 <이일성>이 육체의 향연을 벌인 바로 옆 병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간호사는 <공 부인>이 연애

31) 「사찰경내(境內) 풍기단속—술 못먹고 작부출입도 엄금」이라는 제하의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그 점이 확인된다. 사찰의 타락상에 대해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는 내용인데, 작부들이 사찰 경내에 출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사찰경내의 풍기가 문란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사찰의 타락상을 반영한 이런 점들도 신문소설의 시사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교부에서는 삼십일 각 시도에 ‘각 사찰(寺刹) 경내의 풍기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찰경내 백 ‘메-터’ 내에는 매점(賣店) 설비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음주를 금하도록 하라’는 요지의 경고를 시달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일반인들이 교외로 소풍 나가는 것이 성행될 것을 예기하고 사찰시설의 파손과 사찰 경내의 풍기를 단속하기 위한 미연방지책의 하나인데 특히 작부(酌婦)의 사찰경내 출입을 엄금할 것이 지시되었다.”(『서술신문』(1955.4.1.))

병·정신병·성병·댄스병 등 그 모든 병을 걸린 불치의 환자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입원한다고 알려주고 있다. <공 부인>이야말로 퇴폐·향락적 인물의 전형이다.

퇴폐·향락주의는 불륜과 성 개방 등으로 이어지면서 그 폐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사 <윤만호>에게 찾아온 스물세 살의 <방정자>라는 여인은 미혼이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서 유산시키려고 한다. 가정부인이 아닌 미혼여성이 거리낌 없이 낙태수술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서 의사인 <윤만호>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31~32회). 퇴폐·향락풍조의 만연에 따른 성적(性的) 일탈의 결과물인 셈이다.

⑧ 으리으리한 자가용, ‘짚’차들이 열을 짓고 양편으로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카바레·모나코’의 정문 앞.

붉은 불. 푸른 불.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짜스·밴드’의 ‘썩스폰’ 소리가, 무수한 남녀들의 살 냄새, 화장품 냄새를 훤히 내뿜고 있는 것만 같이 서울의 심장(心臟)을 찌르고 있는 뒷골목.

똥차자 잣차……차…….

(……)

술이 있고. 춤이 있고.

여인이 있고. 여인의 육향(肉香)이 진동하고.

‘산테리아’

‘네온사인’

선정적(煽情的)인 전등 광선 아래서 남자의 팔에 매달린 수많은 여인의 둔부(臀部)들이 미친 듯이 흔들거리다가, 툭 스치는 ‘테-블’ 위에서는 따라져 놓인 채 임자를 잃어버린 큼직한 유리‘꺠’에서 양주(洋酒)의 투명한 액체가 찰찰찰찰 넘쳐흘렀다.

“맘보우!”

“맘보우!”

‘와하하……와하하……하하하……’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그들 자신도 똑똑히는 모르는 모양이었다.

어쨌든 수도 서울의 여름밤이, 선남선녀(善男善女)들의 아우성 속에서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장미의 침실』 95회)

연극연출가 <박한일>이 <왕우일>의 칩 <강명옥>의 유혹에 이끌려 카바레에 들 어간 장면이다. 작가 김광주는 특유의 짧은 문장을 구사하며 마치 영화 카메라가 급하게 움직이듯 도시의 밤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네온사인’·‘상들리에’·‘재즈밴드’·

‘색소폰’·‘카바레’·‘맘보’ 등의 외래어 단어들도 도시의 향락적 분위기를 한껏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살 냄새’·‘화장품 냄새’·‘여인의 육향’·‘선정적’·‘여인의 둔부’ 등의 단어를 나열하면서 성적인 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왜곡된 자유주의와 미국문화에 침윤됨으로써 퇴폐와 향락이 만연한 1950년대 서울의 밤 풍경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미국식 자유주의와 미국문화를 편협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퇴폐주의·향락주의로 흘러가던 당시 한국사회의 세대를 잘 포착하여 반영하고 있다. 특히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킨 댄스바람은 대부분의 작품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짐으로써 1950년대 신문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면모로서 작용하게 된다. 퇴폐·향락업소의 범람, 사찰의 유흥장화, 입원을 빙자한 병실에서의 성관계 등도 그려지고 있다. 이런 퇴폐·향락주의의 반영은 통속성의 한 요소인 ‘관능성’과 연결되면서 독자들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3)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

친미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반공이데올로기³²⁾는 1950년대 한국사회의 흔들리지 않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그것은 신문에도 영향을 끼쳤다. 반공이데올로기는 1950년대 국가권력이 신문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되었고, 이 시기 한국신문의 일치된 이데올로기 역시 반공이었다. 동아일보는 1956년 4월 12일자 사설에서 스스로를 “뚜렷한 반공의 전통을 자랑하는 신문”이라 밝히고 있으며, 경향신문 폐간에 관한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의는 경향신문을 “반공대열의 선두에서 언론문화에 기여한 공헌이 큰” 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³³⁾ 이 시기 신문기업의 소유주

32) 1950년대 한국사회에서 친미(親美)와 반공(反共)은 한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 도미(渡美)유학한 이들을 도미유학 2세대라 하는데, 이들은 거의 예외없이 반공주의자였다. 이들이 반공적인 것은 대부분 기독교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은 선교사와 교회의 도움을 받아 유학했다. 당시에는 ‘서북 출신-기독교-도미유학’이라는 연계고리가 작용하고 있었는데, 기독교 교세가 강했던 지역이 상대적으로 서북지역이었으며, 이들이 분단 과정에서 북한에서 탄압을 당하고 대거 월남하면서 더욱 반공성향이 되었던 것이다. 이들 도미유학파들은 해방 후 이승만과 한민당계에 포섭되어 사회주의에 대항하면서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했다. 전쟁을 거치면서 이들은 친미-반공이데올로기의 가장 핵심에 있게 되었다. 따라서 냉전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반공은 필연적으로 친미화로 귀결되었고 결국 ‘친미=반공’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던 것이다(임대식, 앞의 논문, 167~179쪽 참조). 이 논문에서 미국지향성의 세대와 반공이데올로기 수용을 같은 장에서 다루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33) 「정일형 의원 대정부질의」, 『한국신문연감』(1968), 488쪽. 최영석, 「1950년대 한국신문의

들은 우익계 정치인이나 국가권력과의 유착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한 자들로, 이들에게 반공이데올로기는 내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한국신문은 지배이데올로기인 반공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⁴⁾

신문에 게재되는 연재소설도 이런 현상에 예외적일 수 없었다. 친미이데올로기와 함께 당시 사회의 강력한 지배이데올로기인 반공이데올로기를 비판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별아 내 가슴에」에는 작품 속에서 작가 <현암>이 쓰는 ‘영화소설’이 한 편 등장한다. 그 내용은 소설가인 <나(현)>가 서가에서 책을 뒤적이던 중 서울대학의 <K교수>를 만나 미국인 <캐논>의 집에 가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개를 기르는 그의 집에는 한국여인의 초상화가 인상적이었다. 그림 속의 여자 때문에 살았다는 캐논은 그녀를 찾고 있다고 했다. 50년 7월 이등상사였던 <캐논>은 한국전에 참전했다. 어느 날 부대가 포위되어 홀로 탈출한 캐논은 피난민과 옷을 바꿔 입은 뒤 어느 민가에 들렀는데 20살 남짓한 여인(<임선희>)이 달걀을 내놓아 그걸 먹고 고맙다며 인사하고 나왔는데 공산군이 점령한 마을에 당도한다. 다시 <선희> 집으로 돌아온 <캐논>은 <선희> 식구들의 도움으로 숨어 있다가 <선희>와 그녀의 사촌오빠 <임선구>와 함께 남으로 간다. 셋이 남하 도중 선희가 앓아 눕자 노파가 사는 외딴 민가에 그녀를 맡기고 <캐논>과 <선구>가 계속 남행한다. <선구>는 강을 건너는 도중 총에 맞아 죽게 되고 <캐논>만 미군에 구출된다. <캐논>은 유엔군의 복진 때 <선희>를 두고 왔던 민가로 가봤으나 공산주의자들에게 끌려갔다고 노파가 전한다. 그 후 <선희> 집에 가 봤더니 어머니가 붙들려가고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아 동생 <선영>이 개와 함께 폐허된 집을 지키고 있기에 데려온다. <캐논>은 전투에서 부상당해 귀국해야 하는 몸이었지만 <선희>의 시체라도 찾기 위해 <선영>과 개를 데리고 살면서 <선희>의 시체라도 찾게 되면 ‘영원한 나의 아내’라는 묘비명을 쓰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이렇듯 이 영화소설에는 공산당과 싸우는 휴머니스트 미국인이 그려지고 있다. 미국인에 대한 호감, 즉 친미이데올로기적 인식이 반공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영화소설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도 있다.

① “두 분은 사셔야 해요 …절 내버려두고…가세요 …전 죽어도 공산군의 더러운 손에 죽지 않고…이렇게 깨끗한 산 속에서 오빠 곁에서…자유의 십자군 옆에서 죽게 되는 것을 기뻐해요.”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89), 103쪽에서 재인용.

34) 최영석, 위의 논문, 102~103쪽.

선희의 두 눈에는 이슬이 댕땡 맺혔었다.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릴 하느냐. 이제 곧 나올텐데. 용기를 내라. 우리는 이삼일만 더 고생하면 자유의 세계에 발을 들여 밀게 된다.”

그러나 선희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캐논에게 시선을 돌리더니 영어로 자유의 십자군 곁에서 죽게 되는 것을 심히 기뻐하노라고 말했다.

선희의 이 말을 듣는 캐논 역시

“염려 마십시오.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세계로 살아 돌아갈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여 입을 쩍죽거리며 말했다. 그는 공산군의 총칼 앞에서, 고독과 공포의 탈주의 길에서도,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도 눈물을 가져보지는 않았던 것이다.(「별아 내 가슴에」 132회)

죽어가는 <임선희>가 사촌오빠 <임선구>, 미군 <캐논>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선희>는 미군을 ‘자유의 십자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캐논>은 ‘자유의 세계로 살아 돌아갈 것’이라며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특히 ‘자유의 십자군 옆에서 죽게 되는 것을 심히 기뻐한다’는 그녀의 말은 ‘친미-반공’의 구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는 악의 온상이요 공산군은 악마라는 1950년대 소설의 전형적인 반공이데올로기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계절의 풍속도」는 간첩이 등장하는 등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반공이데올로기가 가장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다. <송자옥>은 남들이 납치미망인이라고 부르지만 자신은 남편이 납치되어 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전쟁 전에 국회의원이던 남편은 사회에 대해 분노를 느끼던 중에 공산주의자들과 관련을 맺다가 전쟁이 터지자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체념하고 살아간다. 그러던 중 신문에 간첩이 침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 남편 <박철웅>은 <송자옥> 앞에 나타난다. <송자옥>은 남편에게 자수를 권하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자수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서 신고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거듭한다. 그러던 중 그녀는 6·25 특집이 실린 신문을 접하게 된다.

② 무엇보다도 송 여사를 격동시킨 것은 六·二五 동란의 확보였다. 수없이 듣기도 했거니와 송 여사 자신 목격한 일도 있는 인민재판의 광경이며 처참히도 살해된 양민들의 시체, 대량학살의 어마어마한 사진들...

그것은 벌써 사진이 아니었다. 과거도 아니었다. 송 여사는 이들 사진에서 그대로 피를

보았고 피 비린내를 맡을 수 있었다. 인간의 처참한 최후의 비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아니 여사 자신 그 고통을 육체로서 체험할 수 있었다.

“아이구!” 하는 비명이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 나왔다.

무서운 공포이기도 했지만 또 무서운 적개심이었다.

이가 꼭 갈린다.

“죽일 놈들!”

이 죽일 놈들 속에 자기의 남편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자 송 여사는 머리가 아찔해진다.(……)

“…六·二五동란에 희생된 인명만 해도 납북자를 포함하면 백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피해를 입기는 남편 두천만 전체였던 것이다. 이 동족상잔의 천인공노할 앞잡이가 동난 전에 침투되어 있던 간첩군이었던 것은 그들의 기록에도 남아 있는 것이다. 이 간첩의 수효는 동난 직전까지에만도 천명으로 계산되었지만 간첩 한 명에一万 명의 동료가 희생이 된 싸움이다…”

이렇게도 실려져 있다.

“간첩 한 명이 삼천리를 초토로 만든다!”

“또 한번의 六·二五를 간첩은 꾸미고 있다!”

“독사와 같이 살고 싶은 사람만이 간첩을 숨겨둔다!”

“간첩을 길르는 자가 간첩이다!”

마침 ‘방첩강조주간’이기도 하여 이런 표어들이 페이지마다에 한두 개씩 가로세로 실려져 있기도 했다.

“남편도 사랑할 의무가 있지만 또 한번의 六·二五를 막을 의무도 내겐 있다…”

송자옥 여사는 이런 결론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다. (『계절의 풍속도』, 218회)

온통 간첩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내용이다. 간첩으로 인해 남한국민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남편을 포함한 그들은 ‘죽일놈들’이다. 마침 ‘방첩강조주간’이어서 지면마다 실려 있는 반공표어도 읽던 <송자옥>은 ‘남편도 사랑할 의무가 있지만 또 한번의 六·二五를 막을 의무도 내겐 있다’고 깨닫는다. 그녀는 남편을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갔으나 차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한다. 우익인물은 휴머니스트로 그려지는 전형적인 1950년대 소설의 반공이데올로기 수용 양상이다.³⁵⁾ 결국 남

35) 1950년대 소설에서 좌·우익 인물은 다음과 같이 도식적으로 설정된다.(김동윤, 『1950년대 소설의 이데올로기 수용 양상—‘구세대’의 작품을 중심으로』(제주대학교 석사논문, 1993), 62쪽)

구분	신분	배움 정도	사상선택요인	행로(활동상)	선/악
좌익인물	하층민	무식자층	관념적, 충동적, 보상심리	무모성(희화화 됨), 비참한 종말 또는 전향	악
우익인물	중류층 이상	식자층	애국심, 보복심리	우국적 행동, 휴머니스트 기질 발휘	선

편은 경찰에 붙잡히고 <송자옥>은 간첩과 연루된 혐의로 검거된다. <박철웅> 등이 검거된 후 간첩사건의 진모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국회 프락치사건 이래 가장 조직적이기도 하려니와 그 주동인물의 대부분이 굉장한 거물급인 점에서도 해방 이후 최대 규모라는 것이었다. 그 사건은 ‘국제간첩사건’으로 명명되었다.

③ “(……) 그놈이 아편보다두 더 하거든! 한번 그놈의 사상에 물이 들어노면 무명웃에 든 생감물처럼 안 빠지는 법입네다. 九·二八에 전향했다는 사람들 이야길 가만히 좀 유의해 들어보지? 남 듣는덴 빨갱이가 어찌니 생각만 해두 진저리가 나느니 하지만, 누가 빨갱이 옥을 해봐? 슬몹이 건들구 나서지! 할일 없는 아편이라니까요! 아편야! 아편쟁이 종내 떼는 것 보셨소? 뗐다가 또 하구 또 하구— 그 놈의 사상두 그렇디다. 못떼요! 못떼! 또 한번 우우 몰려 내려온대봐? 또 얼씨구나 하구 완장을 척 돌려구 나서지 않을 줄 아오?”

“하긴 그래! 내 친구에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원래 본다면 지금쯤 지옥을 헤매고 있어야 할 사람이 처자하구 땡땡거리구 잘 살면서두 늘 불평이거든! 그 불평에두 가시가 돋쳤어! 정부를 비판하는 데두 같은 말하면서 어떻게 독기가 느껴지는지…특하면 그놈을 잘 쓰는 문자가 불쑥 튀어 나오구—.”

“그렇다니까 그래요! 개꼬리三年 주었자 황소꼬리 안 된다니까…”

일본에 있는 북한계의 조련일과는 물론 일본 공산당과도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해서 ‘국제간첩사건’으로 명명이 된 이번 사건은 항간에 수많은 화제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밀파된 거물급의 간첩만 해도 다섯 명이나 되었지만 국내에서도 은행, 대학교수, 방송국, 군·관의 고위층에 접선이 된 사람의 수효만 해도 십여 명이 된다는 것이다. 자금으로서 굉장한 양의 아편을 밀수해 오기도 했지만 미화로도 五만 불이라는 놀랄만한 액수가 투입되었고 ‘한양재건주식회사’라는 간판 밑에 억대의 대부까지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계절의 풍속도, 223회〕

「계절의 풍속도」는 이처럼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여러 모로 강력하게 고취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들의 비인간성·부도덕성을 부각시키며 사회 곳곳에 그런 무리들이 엄존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게다가 좌익이었다가 전향한 사람들도 의심스러운 점이 매우 많으므로 조금도 경계 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③의 인용문 이후에는 간첩단들은 일본과 한국, 남한과 북한 사이를 자유자재로 10여 차례에 걸쳐 왕래했으며 그들의 아지트인 ‘한양재건주식회사’ 지하실에는 무전기, 기관단총, 수백 발의 총탄을 비롯하여 아편 등 밀수품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는 설명도 이어진다. 이무영은 「창」에서도 반공이데올로기를 드러낸다. <한현주>가 기차에 탔을 때의 상황에서 보면, 차칸에서 여러 번의 꿈을 꾸었는데 주로 도둑이 나타나는 악몽이었고 한번은 ‘빨갱이’가 나타났다는 부분이 있다(75회). 이처럼 도

독이나 빨갱이가 나타나는 악몽을 꾸었다는 것은 ‘도둑=빨갱이=악마’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동적인 청년인 동생 <고현주>와 과도기적 세대를 대표할 만한 내성적인 형 <고한주>의 삶과 행동의 양상이 대비적으로 그려지는 「형관」도 반공이데올로기가 여러 부면에서 나타나는 작품이다.

④ “역시 남의 힘을 빌려서라도 힘이 있는 척 가장을 해야 하누만요 참 재미있는 세상이야—”
현주가 쓴웃음을 웃었다.

“사실 그래요. 六·二五 때 공산당의 공갈협박 정책이 나쁜 영향을 남기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손을 들 것이지 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피는지도 모르겠어요. 잘못이 없어도 나쁜 놈이라고 죄명을 붙이면 반공분자가 되고야 마는 공산주의 사회라면 상대방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지 모르지만 인간들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체면이 없는 것 같아요.(……)”

(……)

“아까 형이 공산주의의 나쁜 영향이라고 말했지만 나두 그런 걸 생각해 보았읍니다. 일제 시대에는 민족적 압박을 받으면서도 신분증명서라는 것이 필요치 않았읍니다. 얼굴하구 명함하구만 있으면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六·二五 이후에는 얼굴두 명함두 신용을 잃었읍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완전한 타락 속에 빠지고 말았시오. 이 이상의 타락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가치까지 잊어버리게 된 그 타락 속에 선이 머리를 들 수 있겠읍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인간의 휴머니티에 변질을 일으키고 말았어요”(「형관」 59~60회)

④는 <고현주>와 <홍광윤>간의 대화다. 사회가 각박해진 절대적인 책임이 공산주의에 있다는 인식이 엇보인다. 특히 일제시대에는 민족적 압박을 받으면서도 신분증명서라는 것이 필요치 않았지만 6·25 이후에는 얼굴도 명함도 신용을 잃어서 인간이 완전한 타락 속에 빠지고 말았다면서 공산주의는 인간의 휴머니티에 변질을 일으키고 말았다고 탄식하고 있다. 일제보다 공산주의가 더 해악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반공포로와 관련되어 반공이데올로기가 강조되기도 한다(79회). <홍광윤>은 6·25 때 인민군에게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국군에게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있던 중 반공포로로 석방된 인물이다. 포로였다는 게 사회생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그의 말에 <고현주>는 ‘반공’이라는 투쟁적이고 영웅적인 것으로 그 낙인을 씻어낼 수 있다며 격려한다. “공산주의자들은 한번 변질했다던가 한번 잘못했다고 하면 언제라도 숙청을 하고야 만다지만, 인간을 기계로 만들려는 그런 공산주의가 용납

된다면 인간은 희망이란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고현주>의 말에서 철저한 반공의식을 읽을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또한 “공산주의식 형벌은 해악적(害惡的)이고 권력적(權力的)인 것으로 범죄인의 의사를 확대시켜 책임지우는 동시에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포관념을 줌으로써 형벌을 과중하게 씌운다.”(113회)는 <고현주>의 인식을 통해 반공이데올로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형관」이 반공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작가 박영준의 전기적 사실과 상당한 관련을 갖는다고 본다. 평안남도 강서군 출신의 월남 작가인 박영준은 아버지가 기독교 목사였으며 전쟁 때 피난을 못 가고 있다가 인민군에게 납치되어 끌려가던 중 탈출한 경험이 있는데,³⁶⁾ 이런 점들이 그의 반공의식 형성에 적잖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빨치산」(1952), 「암야」(1952), 「용초도근해」(1953), 「지열」(1954), 「피의 능선」(1955), 「도하기」 등 1950년대의 여러 단편에서 반공의식을 강하게 드러낸다.³⁷⁾

정비석은 「낭만열차」·「슬픈 목가」·「민주어족」·「연가」 등 여러 작품에서 반공이데올로기의 양상을 제시한다.

「낭만열차」에는 여러 상황을 통해 당시의 반공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국회의원 <권달수>와 대학원생 <김창헌>의 대화 내용에서 보면, <김창헌>이 정치와 사회를 강력하게 비판하자 <권달수>는 “이 녀석이 공산당은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27회). 비판의식을 가지면 일단 공산당으로 의심하는 세태가 그려진 것이다. 또한 <권달수>는 딸 <채옥>을 밤늦게 어두운 곳으로 끌고 다니는 <원동준>을 공산당보다도 더 무서운 위험인물이라고 생각한다(70회). 나쁜 것은 모두 공산당과 연관하여 사고하는 당시 사회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⑤ “그러면 자네는 좌익서적을 읽어도 상관없단 말인가?”

“장려할 일은 아니지만, 학문으로 연구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 같은 반공국가에서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도 오히려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디까지나 이상주의에 입각한 논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을 내세우는 것을 보면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 증거인 상 싶다.

그것을 깨닫자 권달수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하기는 적을 쳐부시자면 적을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는 격언도 있지만 그러나 사상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공산주의자가 자꾸 생겨나면 그것도 큰일이니까 군자는 위방불입(危邦不入)이라고 애초부터 그런 데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겠지!”

36) 「박영준 연보」, 『농민 / 종각 외』(삼성출판사, 1986), 422~425쪽 참조.

37) 김동윤, 앞의 논문 참조.

“그것은 기우(杞憂)라고 봅니다. 六·二五동란으로 공산정치의 잔학무도한 행패를 직접 경험한 우리로서는 돈을 주어가면서 공산주의자가 되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공산주의자가 될 사람은 없을 겁니다.”(『낭만열차』 28회)

⑤처럼 학문의 차원에서 좌익서적을 읽고 공산주의를 연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거나 현실비판과 공산사상이 별개가 아니냐고 하는 <김창현>의 인식은 당시로서는 꽤나 진보적인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상주의에 입각한 논법’이라느니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을 내세우는 것을 보면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 증거’라느니 하는 화자의 서술에서 그러한 <김창현>의 인식에 대한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슬픈 목가』도 당시의 반공이데올로기 수용 양상을 잘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 <한도숙>의 과거에 대한 서술(41~42회)에서 보면 그녀는 공산주의자인 남편을 만나 불행하게 된 것으로 나온다. <한도숙>은 대학을 졸업한 똑똑한 청년과 결혼한다. 그러나 결혼 반년만에 전쟁이 일어나자 남편은 좌익극렬분자로 날뛰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남편은 남로당 비밀당원으로서 대남 특수공작대원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한도숙>은 ‘원수 같은’ 남편을 고발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한다. 마침 선원 <황현태>가 목숨을 구해줌으로써 살아난 그녀는 결국 소매치기의 두목으로 살아가게 된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공산주의에 있다는 인식이다.

『연가』에서도 삶 속의 반공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방준결>은 서울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거짓말도 세 번 들으면 정말로 믿게 된다는 ‘市虎三傳’과 같이 거짓말을 자꾸 반복하여 믿게 하는 것을 공산주의의 술책이라 말한다(229회). 여자의 마음을 끄는 방식에 대해 말하면서도 무엇이든 좋지 않은 것은 공산주의와 관련지으면서 말하고 있다.

당시의 반공이데올로기는 극단적으로 홀리 매카시즘(McCarthyism)으로 가게 되었으니, 그에 따른 폐해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반공이데올로기 수용의 양상이 비판적 입장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매카시즘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수준이었다. 다음은 매카시즘에 대한 반발을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

⑥ “(……) 아까 조사 나갔던 순경 말에 의하면, 너는 대한민국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지?”

강병철은 점점 깊이 얽혀 들어가는 자신을 깨닫고 아연히 놀랐다.

사태가 그쯤 되고 보니 강병철도 변명을 아니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나는, 월급살이가 희망이 없다고 말한 일은 있어도, 대한민국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 일은 없었습니다.”

“월급살이에 희망이 없다는 것과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

“그거야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는 봉급생활에 대한 소견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조국을 배반하는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식아! 나를 찔러 알구 그런 깡대기 수작을 부리는 거야!”

주임은 벼락같은 소리를 지르며 뺨을 한대 후려갈기더니,

“이 쌍 개 같은 놈의 새끼야! 내래 너 같은 빨갱이 놈들 때문에 고향에서 여기까지 쫓겨온 줄 모르나. 당당한 월급자리가 싫어서 지켓군들을 산속으로 끌고 들어와 땅을 판다면, 네 놈의 새끼가 빨갱이가 아니고 뭐냐 말이다!”

주임은 공산도배한테 단단히 혼이 났는지, 이를 북북 갈며 야단이었다.(……)

뒹어놓고 열닷냥급으로 없는 죄상을 실토하라고 우격다짐을 하는 데는 어안이 병병하였다. 무엇보다도 곤란한 것은 자세한 설명도 들어보지 않고 다짜고짜 빨갱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해주는 것이었다.(『슬픈 목가』 108회)

⑦ “내게 잘못이 없는데, 후환이 무슨 후환이란 말이요?”

“그렇지만 상대자가 권세 있는 정치요인인 만큼 나중에 무슨 보복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다른 사원이 물었다.

“보야하니 감히 그럴 위인도 못되어 보이지만, 보복을 하려고 들면 정정당당히 싸우면 그만 이겠지. 나에게 잘못이 없는 바에야 무서울 게 뭐란 말이요! 도대체 정치를 한다는 위인이,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미끼삼아, 개인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협박과 공갈을 일삼는다는 것은 몰상식하기 짝없는 일이지요. 하물며 공산당도 아닌 사람을 공산당이라고 공공연히 모략 중상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불순분자야말로 공산당 이상으로 무서운 존재요! (……)”(『민주여족』 38회)

⑥은 <강병철> 일행이 개간사업을 벌이던 중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 장면이다. 경찰서 주임은 빨갱이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온 인물로서 공산주의에 대단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강병철>이 현실에 대해서 다소 불만을 가졌다고 우격다짐으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 자세한 설명도 들어보지 않고 다짜고짜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 매카시즘 풍조가 드러나고 있다.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은 급기야는 폭력까지 낳는다. 그 어떤 가치보다 반공이 우위라는 당대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강병철>은 국장급(나중에 차관으로 승진함) 공무원인 외삼촌 <현홍섭>의 이름을 대어 풀려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꼼짝없이 공산주의자로 몰

리고 말았을 것이다.

⑦에서 ‘공산당도 아닌 사람을 공산당이라고 공공연히 모략 중상을 하고 있’다는 <박재하> 사장의 발언은 곧 정비석의 육성이라 할 수 있다. 정비석이 이처럼 매카시즘에 대해 반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작가 자신의 체험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자유부인」을 연재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로 몰려 고난을 겪었던 일³⁸⁾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반감이 그의 여러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반공이데올로기야말로 1950년대 한국사회를 지배하던 절대적인 가치였다. 그것은 사회 전반을 경직시켜 놓았으며 매카시즘으로 인해 국민들은 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 1950년대 소설에서는 이런 양상들이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주로 맹목적인 차원에서 반공의 논리를 작품 속에서 펴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개중에는 매카시즘에 대한 폐해를 그림으로써 소극적이거나 저항한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

이상에서 친미-반공 이데올로기가 낳은 세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친미이데올로기가 노골화하면서 편협하게 수용된 미국식 자유주의가 범람하고 퇴폐·향락풍조가 만연하였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친미이데올로기를 노골적으로 표출한 작품이 적지 않았으며, 댄스바람 등이 상당히 많은 작품에 반영되면서 당시 신문소설의 특징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퇴폐·향락풍조에 대해서는 당시 신문소설들이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도 하지만, 친미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순응적인 양상을 보인다. 반공이데올로기도 친미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당시 사회에서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했는데 그것은 대체로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작품에서는 매카시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경우도 없지는 않았지만 소극적인 문제제기에 그쳤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친미-반공 이데올로기를 형상화한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대중들이 그러한 강력한 지배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38) 이 논문의 35쪽 「작가의 말」 참조.

3. 타협적 사회인식 : 여성문제 의미화의 양면성

1) 전쟁미망인의 방황과 구원

전쟁이 끝나자 갖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대두되었는데, 미망인 관련 문제도 그 주요 문제의 하나였다. 전쟁을 전후하여 남편이 전사하거나 폭격 등에 의해 죽은 경우, 납치된 경우, 월북한 경우³⁹⁾ 등 미망인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58년 2월 10일자 『서울신문』에 사회면 머릿기사로 실린 「돌봐주어야 할 50만 미망인」 보도는 그 심각성의 정도를 드러내주고 있다.⁴⁰⁾ 전국적으로 50여만 명의 미망

39) 이 논문에서 다루는 미망인은 1950년대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분단상황과 관련된 미망인이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논문에서의 미망인은 분단상황과 관련된 미망인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쟁미망인, 납치미망인, 월북미망인 등으로 지칭하였다. 물론 엄격히 말하자면 납치미망인이나 월북미망인은 미망인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남편이 북한으로 납치되어 가거나 스스로 넘어가 생사를 모르는 것일 뿐이지 사망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 사실상 그 남편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그런 점을 인식하여 1950년대에는 자의든 타의든 남편이 북으로 가서 홀로 남은 여인들을 미망인으로 부르는 것이 관행이었다. 당시 신문기사라든가 소설 속에서도 그들을 미망인으로 칭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남편이 납치되거나 월북한 경우도 미망인으로 칭하기로 한다. 아울러 이 항의 제목에서 ‘전쟁미망인’이라 한 것은 편의상 납치미망인과 월북미망인 등 분단상황과 관련된 미망인을 모두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사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40) 「돌봐주어야 할 50만 미망인」, 『서울신문』(1958.2.10).

六·二五 전란을 전후하여 六만여명을 헤아리게 된 군·경 유족 미망인을 비롯하여 현재 전국에는 납치자 미망인 실종자 미망인 그밖의 병사자 미망인 등 총계 五십여 만 명의 미망인들이 자녀들의 양육문제 심치어는 노부모들의 부양문제까지를 짊어지고 생활에 허덕이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변변한 일터와 직업 보도기관이 마련되지 않아 점점 악의 구덩이로 빠져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 미망인들을 위한 새로운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보건사회부 통계에 의하면 작년 시월말 현재로 전국에 군인 유족 미망인 四만八천四백십八명, 경찰관 유족 미망인 一만一천七백六십九명 그밖의 납치자 실종자 병사자 미망인들을 합쳐 미망인 총수는 무려 五십만五천二십二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십九세 이하가 四천六백二십一名, 二십세에서 二십四세 사이가 二만二천七백십四名, 二십五세에서 二십九세 사이가 五만四백八십五명, 三십세에서 三십四세가 五만八천四백五십五명, 三십五세 이상이 三십五만六천二십一名이다. 이 중 三만四천八백七십四名이 독신미망인들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몇몇 자녀들이 부양가족 수는 무려 九십一만六천二백七십三名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교육정도는 대학졸업이 六백三십명, 중학교 졸업이 九천九백九십九명, 취학치 못한 자가 二십三만一천三백九십명으로 미망인 총수의 반수는 무식자이다.

이들 중에는 십六만一천五백九십七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부양가족과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미망인 수를 합하면 요구호 미망인수는 二십五만二천三백五십六명(50%)에 달하고 있다.

인이 있는데, 그 중에 50%가 구호를 필요로 하는 미망인이어서 당국의 관심이 절실하지만 그 혜택을 받는 경우는 2%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더구나 미망인들의 부양가족 수는 91만 명이 넘는다고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미망인들이 자녀들의 양육문제 심지어는 노부모들의 부양문제까지를 짊어지고 생활에 허덕이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변변한 일터와 직업 보도기관이 마련되지 않아 점점 악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있어 미망인들을 위한 새로운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미망인 가운데에는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중에 상당수는 남편이 전쟁 중에 죽었거나 납치되었거나 월북한 미망인, 즉 분단상황과 관련된 미망인이라는 말이다. 창녀 가운데 8.2% 정도가 전쟁 관련 미망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염상섭의 「미망인」이 연재되던 시점이던 1954년 9월에 『한국일보』에 「독행자(篤行者)의 집을 찾아」란 기획물이 5회간 연재되는데, 그 중 2회가 전쟁미망인이 그 주인공으로 나온다. 9월 7일자에는 「묵장수로 남편을 대신해—모진 세파에도 일가(一家)를 공양(供養)」이라는 제목 아래 녹두묵 장사를 하며 곳곳이 살아가는 전쟁미망인의 사연이 게재되어 있고, 9월 10일자에는 「전쟁미망인의 사표(師表)—시모공양(媼母恭待)에 애정 무한대」라는 30살 효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또한 『서울신문』 1958년 3월 9일자에는 납치미망인이 자살했다는 기사가 게재된다.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한 납치미망인이 아들을 시험장에 보내놓고 비관 자살했다는 내용이다.

1955년 4월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인 박남옥(朴南玉)이 「미망인」이라는 영화를 제작하여 중앙극장에서 개봉되기도 했다. 전쟁미망인의 고독과 삶에 대한 길건 의욕을 그린 이 작품은 이민자, 이택균, 나애심 등이 출연했다.⁴¹⁾

현재 이들의 보호시설과 직업보도 기관으로는 모자원 六십개소, 자매원 六개소, 수산장 八십 七개소 등 一백五拾七개소에 미망인 四천九百八拾九명과 자녀 四천五백五명을 수용하고 있을 뿐으로 요구호 미망인이 겨우 二·퍼센트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으로 二십여만명의 미망인들은 직업을 찾아 헤매다가 막연 악의 구렁으로 떨어지게 된다.

현재 주택까지 침투하여 번창일로에 있는 사창들의 환경을 중앙성병원에서 조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 二천三백七拾一명 중 七拾명이 군·경 유족 미망인이며 그밖의 실종자 납치자 미망인들을 합하면 八·二·퍼-센트인 一백九拾四명에 달한다. 이러한 비률로 보면 전국 四만五천여명(보건사회부 방역국 추산)의 사창수에는 적지 않은 전쟁미망인들이 섞여있는 셈이 된다. 이러한 관계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악성성병이 국민보건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대부분 무서운 소년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保健社會部 申次官 談=미망인 직업보도가 시급한 줄 안다. 금년에는 우선 국립모자원과 몇 개 모자원을 선택하여 직업보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41) 정중화, 『자료로 본 한국영화사 2(1955~1997)』(열화당, 1997), 18쪽.

1950년대의 대중가요에도 미망인들의 정서가 드러난다. 다음의 「단장의 미아리 고개」(1955, 반야월 작사, 이재호 작곡)⁴²⁾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남편이 납북되어간 납치미망인의 심정이 절절하게 드러나 있는 노래다. ‘눈물’·‘이별’·‘한’ 등의 전통적 정서들이 분단상황과 결부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 가요에서 ‘십년이 가도 백년이 가도 살아만 돌아오’길 바라는 미망인의 심정은 절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전후 1950년대 한국사회에서 미망인 관련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였는지를 알 수 있다. 1950년대 신문소설은 그 점을 시의적절하게 포착해내고 있다. 『서울신문』에 연재되던 「유혹의 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① “선애야! 어때? 우리 팔령회원들이 이만했음 제법 근사하지? 이제 한사람이 더 오면 더욱 요란할거야…참 엇그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나라에는 미망인이 오십만 명이 넘는다면서?”

강 마담은 최선에 여사를 쳐다보며 의기양양하게 지껄인다.

그러자 딸라아주머니라는 홍순주 여사가 이내 그 말을 받아서

“언니도 그 신문기사를 읽었나 보구려? 나는 그 신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오십만 명이나 된다는 우리 미망인 대군이 한데 뭉치면 천하에 못할 일이 없을 거야. 정치도 맘대로 움직일 수 있고 정권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들었다.(「유혹의 강」 20회)

①에서 ‘엇그제 신문’이니 ‘그 신문기사’니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돌봐주어야 할 50만 미망인」 제하의 『서울신문』(1958. 2. 10.) 사회면 기사가 틀림없다. 사회면 기사 게재 열흘 뒤의 신문에 이러한 내용이 소설에 나타난 것은 신문소설의 시사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실례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특히 「미망인」과 「유혹의 강」 등의 작품이 미망인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다.

「미망인」 연재에 즈음하여 염상섭은 단순히 과부의 설움을 그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전란의 부작용으로 생긴 전쟁미망인이 조국부흥의 건설적 정신에 발맞추어 그

42) ① 미아리 눈물 고개 / 님이 넘던 이별 고개 /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해매일 제 /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꽂꽂 묶인 채로 /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절며 /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 많은 미아리고개.

② 아빠를 그리다가 / 어린것은 잠이 들고 / 동지선달 지나긴 밤 북풍한설 몰아칠 때 /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고 / 십년이 가도 백년이 가도 살아만 돌아오소 / 울고 넘던 이 고개여 한 많은 미아리 고개.(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시공사, 1998), 107쪽.)

쓰라린 생활고와 싸우며 얼마나 씩씩히 살아 나가는가 그 참담하고도 아릿답고 웅건한 모습을 엿보자는 것”이 집필 의도라고 언급하였다.⁴³⁾ 다시 말하면, 전쟁미망인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면서 그들의 앞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의 메시지를 제시해 보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미망인들이 현실적으로 절망하고 실의에 잠겨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미망인」의 주인공은 <명신>으로 전쟁미망인이다. 대위였던 남편은 전사하였으며, 네살박이 딸과 친정어머니 등 세 식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명신>의 처지를 통해 처신하기 힘든 미망인의 정신적 고민이 잘 묘사되고 있다.

② 피난살이에 찌들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과부가 되고 한 명신이는 무엇이나 의지할 데가 있어야만 살 것 같은 허전한 생각이면서도, 그와는 정반대로 뉘게나 손톱만치라도 끼아치지 않고 자기는 자기대로 살겠다는 고깝고 꼬장한 감정에 옥죄인 자기 마음을 죄지 못하는 그런 모순된 감정에 사는 것이었다.

(……)

남편이 살았을 때는 홍식이가 저의 형님의 심부름이거나 뭐나 해서 간혹 들리고, 거리에서 만나고 하여도 심상히 대할 부가 있었는데, 아직 학생이라 하여도 홍식이가 삼사년 동안에 인제는 훨씬 어른티가 박여진 데 놀려서 그렇겠지마는, 홀몸이 된 뒤로부터는 명신이는 어떤 젊은 남자와 딱 마주치면 무안쩍은 생각부터 앞을 서고 공연히 쭈뼛쭈뼛해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미망인」 2회)

아무에게나 의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기대로 살아가기도 어려운 미망인의 처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어떤 젊은 남자와 딱 마주치면 무안쩍은 생각부터 앞을 서고 공연히 쭈뼛쭈뼛해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 그 모든 것은 남편이 없는 홀몸이기 때문에 비롯되는 상황인 것이다.

미망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나 여건도 몹시 열악하기 짝이 없다. 육아문제 또한 어려운 일의 하나다. 미망인들이 생계를 위해 생활전선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43) “「未亡人」이라는 제목으로 보면 과부 서툼을 쓰자는 뜻 같지마는 같은 과부 서툼에도 이것은 우리가 겪은 이 전란의 부작용으로 생긴 전쟁미망인이 조국부흥의 건설적 정신에 발 맞추어 그 쓰라린 생활고와 싸우며 얼마나 씩씩히 살아 나가는가 그 참담하고도 아릿답고 웅건한 모습을 엿보자는 것이다. 폐허의 속에도 봄은 오고 새싹은 돋는다. 깨어진 벽돌 조각 밑에서 돌아나는 그 새 움이 옆구리로 비틀어져 나오다가도 그 생태의 정기를 받아 어떻게 꽃꽂히 뻗어나가서 이 나라의 부흥과 이 자손의 번영에 빛이 되는가를 바라보려 한다.”(「연재소설 미망인」, 『한국일보』(1954.6.12.))

돌봐줄 시설 등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시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다. 전쟁 직후의 상황에서 그런 시설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그래서 <홍식 부친>은 독지가가 나서서 탁아소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미망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미망인의 원호사업이니 구제사업이니 하지마는, 일자리를 주는 동시에 어린애 문제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혼잣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본격적으로 공장을 경영한다면 유치원 삼아서 그러한 탁아실 같은 것도 부설해야 할 것”(18회)이라고 구상해 보기도 한다. 이 소설에는 전쟁미망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당위성을 촉구하는 부분이 여러 차례 나온다.

③ “그래두, 그 권놈이 탐을 내서 데려가는 모양인데, 어린 게 가서 부엌구석에나 자처 있을 형편이니 사정이 가엽지 않아요.”

“그두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 수절(守節)을 하라겠니, 무어 볼 게 있니. 밥 한술이라도 먹여살릴 만한 놈이 모셔가는 자국이면 그만 아니냐.”

아들의 동정이나 관심이 지나치게 가는 듯 싶어서 영감은 싫었다.(……)

“과부댁이 됐다는 것이 죄가 아니요, 더구나 전쟁미망인은 동정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타락하기 쉬운 길로 쫓려가는 걸 붙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미망인』 59회)

<신홍식>은 <명신>을 도와주면서 그녀에게 연정을 느끼는 청년이다. 아이까지 딸린 전쟁미망인을 총각이 연모하는 상황이다. ③은 <홍식>과 그의 아버지가 대화하는 부분이다. 미망인 <명신>이 <창규>의 음흉한 계략에 휘말릴 위기에 처하게 되자 <홍식>이 그 대책 마련에 나서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데서 다소 언쟁이 오가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과부댁이 됐다는 것이 죄가 아니요, 더구나 전쟁미망인은 동정을 받아야’ 한다며 타락하기 쉬운 길로 끌려가는 걸 붙들어 줘야 한다는 <홍식>의 발언은 미망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작가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이 작품의 주제이기도 하다. <화숙모친(회장마님)>도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 “과부의 수절이란 것을 남정네는 예사루 알지만 처녀보다 더한 것입니다. 결단코 한때 희롱이 아닙니다. 희롱당할 사람두 지금 세상엔 없습니다.”

(……)

“뭘 길게 말씀할 거 없이 저의끼리 살겠다는 걸 무슨 재주로 뻘니까? 우리 늙은 사람은 묵은 생각 속에 문을 닫고 들어앉아서 고집을 부리지만 시대가 다릅니다. 젊은 애들은 저

살대루 살길을 뚫어 나가는 걸요…»(『미망인』 150회)

④는 <회숙모친>이 <홍식>과 <명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홍식부친>을 설득하는 부분이다. 과부의 수절이 처녀의 수절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과부의 수절을 고집할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둘이 좋아서 하는 일이니 결혼을 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결국 <홍식부친>은 <홍식>과 <명신>의 결합을 승낙하게 된다. <명신>의 경우, 그 방향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홍식>과의 재혼으로 구원받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유혹의 강』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20~30대 미망인들의 삶이 그려진다. 『미망인』에 비해서 더욱 다양한 유형의 미망인들의 삶이 나오고 사회구조적인 면보다는 성적인 갈등과 고뇌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린 작품이다. 작가 정비석은 연재를 앞두고 미망인들의 욕망과 그들을 둘러싼 유혹의 양상을 통해 “젊은 미망인들의 탄식하는 생활”을 그려보겠다고 작품의 의도를 밝힌 바 있다.⁴⁴⁾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젊은 미망인들은 탄식하는 생활의 와중에서 ‘유혹의 강’을 건너가기도 하고 건너가려다가 되돌아오기도 한다. 강을 건넘으로써 안착하는 경우도 있고 더욱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미망인 중에서도 가장 딱한 처지는 납치미망인의 입장이었다. 돌아올 기약이 없는 남편을 기다리기에 그렇고, 그렇다고 새 길을 찾아 나서기에 그렇고 상당히 애매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일생에 두 번 없는 여자의 황금기(黃金期)를 번민과 고독과 눈물로 허망하게” 지내며 속절없이 보내버리게 되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돌아올 가망은 점점 아득해 오다가, 이제는 죽기까지 기다려도 만날듯 말듯 하니, 기다리는 입장으로 보면 간장이 녹아내릴 판이었다.”(114회) 『유혹의 강』의 주인공인 <최선애>는 바로 그런 납치미망인이다. 다음에는 그녀의 심리가 잘 드러나 있다.

44) “사람은 욕망에 의하여 움직인다. 식욕 색욕 명예욕 권세욕 소유욕… 백 마리의 양을 소유했던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아흔아홉 마리에 대한 만족감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욕망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다. 그러나 욕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유혹이 따른다. 욕망이 무한하듯이 유혹도 무한하다. 인간사회는 그로 인해 다채롭고 복잡다단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유혹의 강』이라고 이름지은 이 소설 속에서 젊은 미망인들의 탄식하는 생활을 한번 그려볼까 한다. 전쟁미망인, 납치미망인… 지금 우리 나라에는 미망인의 수요가 오만이든가 십만이든가.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된 욕망은 오직 하나다. 그 하나의 욕망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욕망이기에 그에 따르는 유혹은 가지가지이리라.”(『다음 연재소설 『유혹의 강』, 『서울신문』 (1958.1.24.))

⑤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 거울 앞에 마주섰을 때면, 남편은 으레 등뒤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안고 뜨거운 포옹을 하였다. 그것은 그것대로 황홀한 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그날을 충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랑의 맹세이기도 하였다. 수업이 따겁다고 남편의 애무를 의식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애교의 거부였었다.

지금 거울 앞에 서 있는 피부는 과거의 기억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 그리하여 안타깝도록 뜨거운 포옹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것만은 어찌할 수 없는 생리적 욕망이기도 하였다. 병아리는 어미닭의 날개죽지 밑에 품에 안겨야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듯이, 아내라는 여성의 이름은 남편이라는 보호자의 포옹을 받아야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른다.

그토록 절실히 필요한 남편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리라 생각하니, 불현듯 눈물겨워지며 한숨이 절로 나왔다. 가장 행복스러워야 할 거울 앞에 마주서는 시간도 지금의 그에게는 오직 한숨과 비애가 있을 뿐이었다.(『유혹의 강』 2회)

서른일곱 살의 <최선에>는 남편이 납치되어 홀몸으로 지낸 지 8년이 지난 미망인이다. 그런 그녀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남편의 손길을 그리워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기 몸의 모든 부위가 모두 남편의 손길을 받았던 부분이지만 이제는 그런 손길이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남편을 생각하니 눈물겨워지면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즐거울 수 있는 모든 것이 오직 남편이 없기 때문에 슬픔으로 화해버리는”(2회)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망인들의 성적 갈등과 방황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갈등과 방황은 다음에서도 잘 드러난다.

⑥ 요컨대,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화장이란 살아있다는 상징(象徴)이라고 볼 수 있다. 여자로서 화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부류는, 육십 칠십을 넘은 노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자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미망인 정도가 아니던가. 결국은 ‘살아있는 송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화려하게 진열된 화장품들을 구경하며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최선에 여사는 무심중에 한숨을 쉬었다.(『유혹의 강』 10회)

⑦ “(……) 남편이 뒤길래 우리들을 이렇게도 슬프게 만드는지 모르지. 우리들에게는 남편이 아니라, 원수야 원수! 정말로 원수를 사랑했다면 예수님같이 유명해 지거나 하련만, 우리들은 아무 명예도 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 뭐냐”(『유혹의 강』 16회)

모리스 지로디아스(M. Girodias)에 의하면 여자들은 남편을 포함한 모든 남자를 유

혹하고 심지어는 시각적으로나마 강간당하기 위해 옷·보석·향수 등에 신경쓴다고 한다.⁴⁵⁾ 여자가 화장하는 것이야말로 성적 본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⑥에서 보는 것처럼 화장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미망인이야말로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름없다. 아울러 미망인들을 그렇게 산송장으로 만든 남편이야말로 ‘원수’가 아닐 수 없다(⑦). 미망인 <최선애>와 <강귀순>은 그것을 절감하면서 비통해하고 있다.

미망인들은 생활 능력이 모자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갖가지 고충을 겪는다. <최선애>는 시집에서 생활비를 얻어서 살아가는 형편이다. 시집에 가서 매번 생활비를 얻어 쓰는 것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손을 벌려 돈을 타서 쓰는 것이 ‘피눈물 나도록’ 슬픈 것인데도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되레 핀잔을 준다. 그러니 <최선애>에게는 시집이 ‘범의 굴’로 인식되면서 남편이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로부터도 구박받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54회).

이 작품에는 ‘팔령회(八令會)’라는 미망인들의 특이한 모임이 등장한다. 젊은 미망인들이 ‘팔자 타령(八字打令)’을 하기 위해 결성한 모임이 팔령회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여덟 명이었으나 2년 동안 두 명의 회원이 이미 재혼으로 탈퇴한 상태였다. 회원들은 탈퇴자가 발생할 때마다 그들을 ‘배반자’라고 낙인찍으면서 경멸하고 모욕하곤 했다(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내심으로는 부러워했다.). 그런 상태에서 또 <황희숙>이 노인과 재혼하면서 탈퇴하게 되자 <강귀순>, <이경혜>, <장길녀>, <김진옥>, <홍순주> 등 5명만 남았다가, <유옥분>이 신입회원이 된다. <강귀순>은 서른일곱 살의 납치미망인으로 ‘상봉각’이라는 다방을 경영하고 있으며, <이경혜>는 서른세 살의 전쟁미망인으로 백화점에서 화장품 장사를 하고 있고, <장길녀>는 스물아홉 살의 전쟁미망인으로 미군 PX점원으로 근무한다. <김진옥>은 스물아홉 살의 납치미망인으로 교사이고, <홍순주>는 전쟁미망인으로 달려장사를 하고 있으며, <유옥분>은 부산에 사는 서른두세 살의 전쟁미망인이다. 다음은 팔령회 회원들이 모여서 팔자 타령을 하는 한 장면이다.

⑧ 홍순주 이주머니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좌중을 돌아보면서

“이대로 썩어나가는 너무도 안타까운 청춘들이로구나! 우리는 전쟁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서방 하나를 제대로 지니지 못하게 되었던구!”

하고 한숨을 쉬어가며 탄식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경혜가 주먹으로 자기 젓가슴을 두들겨 보이면서

45) Maurice Girodias, "The Erotic Society," *Encounter*(February 1966), p.57; 박성봉, 『대중 예술의 미학』(동연, 1995), 334~335쪽.

“누가 아니라우. 그 혼해빠진 사내 녀석들이 뭐가 그다지 그리운지 밤저녁만 되면 앞가슴이 허전하고 전신이 확확 달아올라서 정말 죽을 지경이야”

하고 뉘두리를 하였다.

“몸만 달아오르고 설움은 복받치지 않더라구?”

“왜 서럽지 않겠우. 어젯밤만 하더라도 두동베개를 부둥켜안고 한숨을 지으면서 눈물로 밤을 세웠다우!”

강 마담은 그 소리를 듣더니 술 한잔을 단숨에 쪽 들이키고 나서

“서방이 그렇게도 그림겨든 경해도 황희숙의 모양으로 시집을 가지 않고 왜 그러고 있는 거야?” 하고 말하였다.

“언니는 답답한 소리만 하는구려. 자식새끼들만 없다면 벌써 시집을 열 번이라도 더 갔겠수. 커다란 자식이 들썩이나 있는데 그것을 데리고 어딜간단 말유? 그렇지만 맘속으로는 벌써 시집을 열 번도 더 간 셈이야!”

홍순주도 그 말에 크게 동감되는 점이 있는지, 큰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말이야 바른 대로 저녁마다 시집 안 가보는 과부가 어디 있을라구! 그러나 그런 시집이야 실속이 있어야지. 하두 안타까운 때는 그저 아무라도 좋으니 누가 와서 기운이 쪽 빠지도록 겁탈이라도 좀 해주었으면 좋겠더라!”(『유혹의 강』 27회)

남편을 제대로 못 만나 홀로된 것에 대해 탄식을 하고, 밤마다 앞가슴이 허전하고 온몸이 확확 달아올라서 죽을 지경이라고 뉘두리하며, 서러움 때문에 한숨을 지으며 눈물로 밤을 지새기도 한다는 등의 신세타령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식들 때문에 개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홍순주>는 ‘하두 안타까운 때는 그저 아무라도 좋으니 누가 와서 기운이 쪽 빠지도록 겁탈이라도 좀 해주었으면 좋겠더라’는 말까지 해댄다. 이들에게는 성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인 것이다.

팔령회 회원들은 제각기 다른 양상의 삶을 살아간다. <강귀순>은 삼영토건주식회사 사장이인 <오영환>이라는 유부남을 사이에 두고 팔령회 회원인 <이경혜>, <유옥분> 등과 애욕의 다툼을 벌인다. <오영환>은 그런 미망인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그녀들을 농락한다. <오영환>에게 “주인 있는 가정부인들은 도덕적으로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족속”이지만, 미망인이란 “누구나가 점유할 수 있는 무주공산적(無主空山的) 존재”로 “가능(可能)의 세계요, 희망의 세계요, 환락의 세계”로 인식된다(92회). 그런 <오영환>에게 넘어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강귀순>은 임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오영환>의 외면으로 중절수술을 하고 급기야는 수술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 의사인 <윤만호>에게 접근해 보던 <이경혜>는 <오영환>과도 가까워지더니 결국 <오영환>의 소실이 된다.

성적 욕망을 해소할 길 없는 미망인들은 동성연애의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장길녀>는 “진옥이가 좋아서 죽을 것만 같”다면서 “얼마나 그리웠던지 어제밤 꿈에는 진옥이를 꼭 껴안고 키스까지 했다”고 고백한다(58회). <최선애>는 <김진옥>에게 애정을 갖는 <장길녀>에게 질투의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김진옥>이 원한다면 자기가 그녀를 사랑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성적인 억압상태에 있는 <최선애> 역시 그 억압된 욕망을 동성애를 통해서라도 해소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진옥>은 <장길녀>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최선애>와 동성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다. 결혼 석 달 만에 남편이 이북에 납치되어간 미망인인 <김진옥>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30대 초반의 <장치순>으로부터 청혼을 받는다. 천주교 신자인 그녀는 도덕적 입장 때문에 청혼을 수락하지 못하던 와중에 납치되어간 남편이 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최선애는 남편의 사망을 확인한 김진옥에게 “지금까지는 납치되어 가신 분의 소식을 몰라서 마음을 달리 먹을 수도 없었겠지만, 그 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알려진 지금에는 진옥이도 장선생하고 결혼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한다. “언제까지나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자기 행복은 자기가 건설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250회). <김진옥>은 <최선애>의 권유대로 <장치순>과 결혼할 것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김진옥>을 좋아하던 <장길녀>는 미군을 만나 임신하고 그를 따라 미국으로 간다.

<최선애>는 과거에 혼담이 있었던 의사 <윤만호>와 우연히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그에게 연정을 느끼게 된다. 그 와중에 <최선애> 집 식모인 전쟁미망인 <순이엄마>도 채소장수인 홀아비 <권 서방>과 살림을 합하게 된다. 그런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최선애>는 많은 고민을 한다.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아들과 시부모를 위해 마음을 추스를 것인가? 결국 그녀는 현실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태섭이는 손과 손을 마주 잡더니, 엄마를 번쩍 잡아 일으킨다. 그리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순간, 최 여사는 아들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과 꼭 같아 보이면서 태섭을 힘차게 껴안으며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지웠다.”(271회)—이것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다. 아들 <태섭>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로 보인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기에 <최선애>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남편을 기대고 살았던 것처럼 아들 <태섭>에게 의지하며 그에게 희망을 걸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들은 가부장제의 후계자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부장의 권력을 이어받아 그 질서를 꾸려나가는 후계자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가정을 지키는 쪽에 가장

큰 비중을 둠으로써 가부장제의 질서로 이루어진 현실에 안주하도록 하고 있다. 타협의 양상인 것이다.

「민주어족」에 나오는 <강영희>의 생활에는 미망인의 설움이 잘 드러난다. <강영희>는 아들 창호를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무 의논도 없이 집을 내놓고는 친정으로 들어가 살라고 한다. 몹시 서글퍼진 <강영희>는 동생 <영란>의 권고로 취직을 결심한다. 그녀는 옛 애인인 <오창준> 변호사의 도움으로 미망인들을 수용하는 모자아파트 관리 일을 맡아하기로 한다. 이후에도 <오창준>은 계속해서 <강영희>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녀 또한 그를 좋아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가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기 때문에 그의 호의가 부담스럽기만 하고 그것으로 인한 많은 갈등을 한다. 그러던 중 그의 부인 <김은애>가 방탕한 생활을 하는 바람에 합의이혼하는 상황이 되면서 갈등이 해소되기에 이른다. <강영희>는 <오창준>으로부터 청혼을 받은 데 이어 그 아이들로부터도 함께 살자는 부탁을 받는다.

「낭만열차」의 <김정옥>은 납치미망인으로 씩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다가 새로운 사업을 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다방마담으로부터 국회의원 <권달수>를 소개받고 그의 도움으로 새 사업을 도모하나, <권달수>에게 사기당하고 몸마저 주고 만다. 「낭만열차」에는 “납치미망인이니 전쟁미망인이니 해서, 서울 장안에도 과부가 오만 명이나 된다”(108회)는 진술이 나오기도 한다.

「푸른 날개」에 나오는 스물아홉 살의 <윤지순>은 납치미망인이다. 그녀는 결혼 삼년만에 남편이 납치되어갔는데 데리고 있던 아들마저도 피난길에서 죽고 말았다. 그 이후 그녀는 빼어난 미모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다방을 옮겨다니며 레지 생활을 한다. 그러다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스텐드바를 차리게 된다. 스텐드바 마담 생활을 하는 가운데 <권상오>라는 교사를 사랑하며 우여곡절을 겪던 <윤지순>은 어느날 종적을 감추었다가 나중에는 간호사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나마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새 삶을 찾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여인의 생애」의 <윤순옥>도 남편의 월북으로 인해 어렵게 살다가 결국 다방마담이 된 인물이다. 서른세 살의 <윤순옥>은 남창(男娼)과 어울리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공공연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남창과 어울리는 데에 통금시간 때문에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통금시간을 해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힌다(29회). 타락한 미망인의 한 양상이다.

이렇듯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전쟁미망인·납치미망인·월북미망인 등 분단상황과 관련된 미망인들의 방황과 구원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 많다. 신문소설의 사회

성을 잘 드러내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미망인 문제가 많이 다루어지는 것은 성 문제와 관련이 크다고 본다. 즉 이들이 성적 욕망을 분출할 통로가 현실적으로 막혀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그에 따른 성의 갈등과 방향을 겪는 문제적 인물이 되며, 그 점이 독자를 자극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미망인들은 남편이 없으므로 오히려 성 문제에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유로운 성적 접촉은 더욱 독자들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결국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관능성을 자주 표출하는 것과 미망인이 문제적 인물로 등장하는 것에는 상관관계가 크다는 말이다.

2) 유한부인과 여대생의 탈선

전쟁이라는 대격변을 겪은 1950년대에 우리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은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그 중에서 특히 여성들의 성도덕 동요 현상도 극심하게 나타났다. 특히 자유로운 사교생활을 즐기려는 여성들의 풍조가 서양적 관습을 모방함으로써 허영과 향락에 치우치게 했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여성의 성 해방은 왜곡된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군과의 자유로운 성 관계와 자유부인형의 무책임한 삶이 해방된 여성상으로 오인될 수 있었다. 성도덕의 전환과 무책임성은 전통적인 현모양처의 지위와 가정의 안정에 대한 도전이었다.⁴⁶⁾ 즉 여성들의 도덕적·윤리적 일탈 현상이 전례 없이 심해진 것이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그러한 여성의 일탈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주로 성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탈선은 당대의 성 개방(性開放) 풍조를 반영한 것임은 물론이다. 당시에 조연현이 「간통문학론」이라는 평론을 썼던 점도 여성들의 탈선 양상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⁷⁾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의 탈선은 유부녀의 경우와 대학생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⁴⁸⁾

특히 유부녀들의 일탈은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소라고 할 수 있다. 유부녀들 중에서도 유한부인(有閑夫人)이라 하여 상류층의 여유 있

46) 이효재, 『한국의 여성운동—어제와 오늘』(정우사, 1989), 243~244쪽.

47) 조연현, 「간통문학론—새로운 성도덕 추구의 유형과 그 방향」, 『현대』(1958.1.), 237~244쪽. 조연현은 이 글에서 간통문제에 있어서는 여성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문학에 반영된 간통의 유형을 ① ‘안나’형, ② ‘엠마’형, ③ ‘차타레이부인’형, ④ ‘복녀’형으로 나눠 검토한 후, ‘차타레이부인형’처럼 창조적인 방향과 결부되는 ‘간통문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8) 미망인이 탈선하는 경우는 앞의 항에서 그들의 방향과 구원의 문제에 포함시켜 다뤘기에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는 여성들이 그런 경우가 더욱 많다. 「자유부인」의 <오선영>은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여성의 일탈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오랜만에 서울시내의 밤거리 풍경을 보면서 노예처럼 살았다고 느낀다. 그것은 이미 그녀의 탈선을 예고하고 있었다.

① 밤은 이미 여덟 시가 지났건만, 거리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들끓었다. 군데군데 가로등이 켜 있고, ‘소우·윈도-’에서는 광선이 발산하여, 거리가 제법 즐비해 보이면서도 전쟁 중에는 보지 못하던 풍경이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어보기가 얼마 만이었던가. 피난살이 삼년을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울에서 살았건만, 오늘밤의 서울거리는 처음 보는 거리만 같았다. 서울 안에 살면서도 서울의 밤거리와는 인연이 너무나 멀었던 자신을 새삼스러이 깨달았다. 더구나 놀랍도록 새로운 풍경은, 서울의 밤거리에는 ‘아백크’의 무리가 많은 것이었다.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의 팔을 끼고 다니는 것쯤은 본인들도 아주 보통인 모양이었다. 오 여사가 ‘아내’라는 명목으로 부엌에서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동안에 몇 세기쯤 진보를 한 것 같았다.

‘나는 왜 노예처럼 살아왔던가?’

화려한 바깥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왔던 자신이 뉘우쳐지며, 속절없이 흘러간 청춘이 아쉽기 그지없었다. 자유의 푸른 하늘—그 푸른 하늘을 제비처럼 자유로이 날아보고 싶었다. (「자유부인」 19회)

‘화교회’⁴⁹⁾에 참석하고 나서 귀갓길에 오랜만에 서울의 밤거리를 거닐어보는 <오선영>은 전혀 낯선 세상을 보는 듯한 충격을 받는다. 집안 살림만 하던 동안에 세상은 ‘몇 세기쯤 진보’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화려한 바

49) 지도층인사 부인들의 모임인 화교회는 탈선의 공간이다. 화교회와 같은 모임은 「애정화원」에서 ‘여학사회(女學士會)’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아래 인용문을 보면 유한마담들이 ‘여학사회(女學士會)’와 같은 모임을 만들어 퇴폐·향락적인 일탈을 일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사회 회원들은 모두 지도층 혹은 부유층의 유한마담들로서 날마다 남편 아닌 젊은 파트너를 데리고 다니며 비밀스런 장소에서 댄스를 즐기는 등 향락적인 생활을 한다.

“이 여학사회의 주요 멤버어들은 대개 남편의 세도만 믿고 으시대는 고관의 부인들을 비롯하여 돈 많은 실업가와 은행간부, 의사 등 부유계급의 유한마담들로서, 그들이 하는 일이란 거의 날마다 먹고 노는 호화로운 파티와, 남편 아닌 젊은 파트너어를 데리고 비밀한 장소에서 댄스를 즐기는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이들의 세력이란 거의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는 것을 영숙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각급 학교의 사친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경제, 행정 등 각 방면에 걸쳐서 이들의 세력이 반영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심지어는 웬만한 관공리의 인사이동까지도 이들의 숨은 힘이 발효(發效)하는 때가 없지 않은 것이다.”(「애정화원」 183회)

깎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왔던 자신이 누워치지며, 속절없이 흘러간 청춘이 아쉽게 그
지없었다.’ 아내라는 명목으로 부엌에서 ‘노예 노릇’을 하고 있었음을 후회하며 ‘푸른
하늘을 제비처럼 자유로이 날아보고 싶’은 욕구를 실행하고 싶어진다. 그녀의 탈선은
이렇게 시작되어, 이웃의 대학생 <신춘호>와 어울려 춤을 배우고 <한태석>이라는
40대 유부남과 호텔방에 들어가기까지 한다. 결국 그녀는 남편에게 쫓겨나 방황하다
가 다시 남편을 찾아가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 <오선영>의 친구 <최윤주>는 남편과
이혼한 뒤 <백광진>과 가까이 지낸다. 그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그녀는 임신
까지 하게 되자 낙태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입원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자유부
인」에서 유한부인들의 가정을 벗어나는 행위는 부정적으로 처리된다. 가부장제 이데
올로기에 타협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부인」 이후 유부녀가 일
탈하여 외간남자와 어울리는 것은 1950년대 신문소설의 도식적 요소로 자리잡는다.

「별아 내 가슴에」에는 납치미망인 <홍정숙>의 탈선과 함께 유한마담 <허영희>의
성적인 일탈의 양상이 잘 그려져 있다. 어느 날 영화사 사장 부인 <허영희>는 시나
리오 작가인 청년 <현선일>을 불러내어 양복도 맞춰주고 그를 요릿집으로 유인한다.
맥주를 시켜 마시면서 그녀는 덤덤하며 저고리를 벗어 가슴을 내보이며 유혹한다.⁵⁰⁾
축음기를 틀어 놓고 함께 춤을 춘 다음에 그녀는 <현선일>에게 목욕할 것을 제의한
다. <현선일>이 먼저 목욕하고 있는데 <허영희>는 혼욕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다
(59회~70회). 오히려 <허영희>의 대담한 행위에 당황한 <현선일>은 몰래 그 집을
빠져 나오고 만다. 그녀는 밀수혐의 등으로 남편 <최철>이 붙잡혀간 뒤 방탕한 생
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매소부(賣笑婦)로 전락한다.

② 성인이는 기사 용지를 집어다 놓고 자리에 앉았다.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삼남매나 되는 어린 자식을 집에 놔두고 어느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간 채 소식이 없는 여인의 사건이었다.

자기가 나간 뒤의 어린것들의 보도한 기사를 보고 여자는 전비를 누우치고 돌아온 것이다.

성인이는 오늘따라 얼마 안 되는 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꾸만 종이를 찢어버렸다.

눈물을 줄줄 흘리던 여자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

50) <허영희>가 저고리를 벗고 가슴을 내보이며 <현선일>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66회)에서
화자는 남성들의 유혹을 끌기 위한 여인들의 행태를 매우 비판적으로 묘사한다. 특히 브레
지어 착용이 느는 현상을 보면서 ‘인공유방’으로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규
정하여 “옛날에는 여자들이 눈으로 추파를 던졌다 하지만, 요새 여자들은 주로 가슴으로
추파를 던지고 있”다고 비난한다.

어찌하여 돌아왔느냐고 하니까 어린애들이 보고싶어 못건디어서 돌아왔노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면서 그 후에 비로소 남자에게 속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초혼가』 96회)

②는 『초혼가』에서 신문기자 <박성인>이 자신이 취재한 사건을 기사화하는 과정이다. 삼남매를 둔 유부녀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가출했다가 어린애들이 보고 싶어 돌아온 사건을 기사로 작성하고 있다. 1950년대에는 가정부인들의 탈선에 따른 각종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큼 적잖이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인의 생애』에는 ‘제비’나 ‘청맥(靑麥)’이니 하면서 유한마담들이 외간남자들과 어울려 다니는 행태를 희화화(戲畵化)한다. 즉 유한마담들이 제비를 몰고 다닌다고 말하던 시대는 벌써 옛날이라면서 “요즈음은 제비가 아니라 청맥(靑麥)”을 몰고 다닌다고 말한다. 즉 푸른 보리순을 뜯어 몰고 자근자근 씹으면 근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다(23회). 1950년대에서 유한마담들의 그런 일탈의 양상들이 사회적으로 꽤나 확산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흑백』에서는 무역회사 사장 부인인 <공 부인>이 집에 여러 유한부인들을 불러서 노는 장면(18회)이 나온다. 노름과 춤 등에 빠져 흥청대는 유한부인들의 허영과 탈선의 양상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노름에 지치면 춤을 찾고, 춤에 지치면 또 다른 멋들어진 유흥장(遊興場)을 찾”는 것이 “이들 ‘매담’의 인생을 지배하는 전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향락만을 추구하던 <공 부인>은 <이일성>이라는 청년에게 자신과 딸이 육체관계를 맺었음을 알고 결국 실성하고 만다.

『사랑』의 50대 유한마담 <장계선>은 유한마담의 탈선 양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녀는 피난지 부산에서 춤을 배우면서 춤 선생인 대학생 <정남철>에게 반한다. 댄스곡들은 그녀의 관능을 자극시켜 주었으며, “남철의 품에 자기의 전신을 맡기고 아찔아찔하게 신경이 마비되든 즐겁던 순간들! 게다가 지금도 뽀중을 보이지 않고 충실하게 지도하여 주던 남철의 성실함! 작은 피로도 느낄 줄 모르는 남철의 동물적인 건장!”에 매료되었던 것이다. 전쟁이 끝나 서울에 돌아온 그녀는 <정남철>을 잊지 못해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우연히 재회하고 재회 첫날 그들은 오전에 만나 통금사이렌이 울리고 나서 헤어진다. 그후부터 그녀는 <정남철>에게 돈을 투자하며 불륜의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111회). 특히 1년 전부터는 노골적으로 몸을 호화롭게 치장하고 허구헌날 나돌아다니면서 딴 사람처럼 되고 말았다. “부정한 아내가 되었고 위신을 잃은 어머니가 되었”(204회)던 것이다. 이렇게 한없이 탈선하는 양상을 보이던 <장계선>은 <정남철>과의 불륜현장을 포착한 남편 <홍관수>에게 맞아

서 목숨을 잃게 된다.

③ ×月×日

아침 열시오십분에 집을 나온다. 택시를 종로로 달려, 에덴다방에 도착. 에덴에서 대학생 김종모(金宗模)와 밀회. 김종모는 S대학 사회학과 삼학년에 재학중인 이십사세의 미남. 삼십분 후에 다방을 나오자, 단둘이 우이동으로 드라이브. 드라이브 도중에 차에서 키스. 우이동 도착이 정각 한시. 송림 속에 파묻혀 있는 방가로 제십칠호에 들어가 점心和 맥주 세 병을 주문하다. 밀폐된 방 안에서 단 둘이 술과 점심을 먹고 애정을 회탕하기 네시간 후인 다섯시 십분에 택시로 서울에 귀환. 미도파에 들려, 일금 팔천칠백환을 던져 남자에게 와이샤쓰, 넥타이, 양말 등을 선사한 뒤에, 일곱시십오분에 카바레 백운장에 도착. 거기서 양주와 코카콜라를 마시며 춤을 추기 세시간만인 열시이십분에 퇴거. 남자와 함께 돌아오는 도중에 차중에서 또다시 키스. 자기 집 앞 한길에서 남자와 며칠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작별. 이웃집 가게에서 양과자 한갑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간 것이 열한시 정각.

(.....)

×月×日

아침 열한시에 집을 나온다. 종로 춘정다방에서 유한마담 십여명과 집합. 일행은 인사동 무허가 요릿집으로 가 점심을 먹다. 오늘을 그들의 께날인 모양이었다. 오후 두시에는 일행이 D극장에서 「황혼의 연정」이라는 영화를 감상. 오후 다섯시에 일행과 작별한 구영희 여사는, 택시를 달려, 원남동 로타리에서 남편의 비서인 원준길(元俊吉)과 밀회. 둘은 혜화동 비밀 아지트로 가서 여섯시간 동안이나 환락을 즐기다가, 밤 열한시에 뽀뽀이 흠뻑이 흠뻑이 귀가. (「연가」 107~108회)

「연가」에서는 <구영희>라는 마흔 살의 유한마담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인물이다. ③은 <구영희>의 남편(남편 <안건식>은 기생 <채순실>과 어울려 다니다가 나중에 그녀와 결혼한다.)이 사람을 시켜 뒷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구영희 여자 미행기(尾行記)’의 일부다. 다방에서 대학생 청년을 만나 드라이브를 하면서 키스하고 방갈로에서 동침한 뒤 댄스홀에서 밤늦도록 노는가 하면, 남편의 비서와 비밀아지트에서 밀회하여 환락을 즐기는 등 <구영희>의 불륜행각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결국 <구영희>는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어울려 다닌다.

이러한 유한부인들은 자신의 탈선을 반성하거나 비극적 생애로 전락한다. 그들을 이해하는 차원은 결여되어 있으며, 대부분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이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것으로 파악된다.

1950년대 후반 한 여대생이 자신의 애정적 방황을 그린 일기체의 책 『슬픔은 강물

처럼』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적이 있다. “...‘추워, 눕고 싶어’ 거의 피로가 몰리자 어리광처럼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불과 요를 깔아 줍니다, 방이 따뜻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당신...내가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자존심도 방어도 없이 당신을, 서있는 당신을 보았을 때 제니의 목을 껴안고 참을 수 없었던 기다림으로 오래도록 정말 오랫동안, 제게 최초의 입술을 강렬히, 엄청나도록 야성에 불타 비비었던 거예요...”—이것이 당시 이화여대 국문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최명숙의 『슬픔은 강물처럼』의 일부다. 이 책에서 여주인공 주변에는 <영>, <보헤미안>과 더불어 많은 남자들이 등장한다.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미국인이 극장에서 그녀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기도 하고, 어느 땐 프랑스 유학을 준비중인 한 귀공자가 갑자기 나타나 겨울밤 강변에서 그를 껴안고 열정적인 키스를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애정편력을 쓴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된 데 이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⁵¹⁾ 당시 여대생들의 풍속도를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박인수 사건’도 여대생들의 풍속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에서 보면 박인수에 대한 비난만이 아니라 그 사건에 연루된 여대생들에 대한 비난도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뜻 있는 사람들은 여학생들—특히 일부 여자대학생들의 방종과 사치에 대해 평소부터 품고 있던 불평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폭발되었다고도 볼 수 있었다. 나의 어떤 친구는, “이번 피해자들은 여자대학생이 아니라, 양갈보가 대학에 들어가 있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거야!”

하고 말한 일도 있지만, 하여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히 여자대학에서는 사치를 무제한으로 방임해 두어서는 안 되리라는 점과, 대학생은 대학생다운게 프라이드를 가지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만은 거의 일치되어 있는 상 싶다.⁵²⁾

박인수 사건에 연루된 여대생들에 대해 유희를 즐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전통적 윤리가 지배하는 당시 사회에서 정조를 가벼이 여기는 그런 여대생들은 당연히 비난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이러한 여대생들의 성 풍속도를 잘 포착해낸다.

「별아 내 가슴에」에는 당대 여대생들의 성적인 일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적잖이

51) 양평, 『베스트셀러 이야기』(우석, 1985), 111~115쪽.

52) 정비석, 「박인수의 경우」, 『전망』(1958.10.), 138~139쪽.

드러난다. <문은심>은 “요새 소위 인테리 계급에 속한다는 여대학생의 지성(知性)마저 땅에 떨어진 것에 나는 정말 분해 죽겠다”면서 ④와 같이 그 세태를 비판한다.

④ “글쎄, 뭇 때문에 자기 연인도 아닌데 대학 다닌다는 계집애들까지 사나이들을 따라다니며 차 얻어먹고, 저녁 얻어먹고, 극장 구경시켜 주는 것을 좋아하고, 춤추자는 것을 좋아하니? 그녀들이 고등거지 아니야? 애.”

(……)

“비록 자기 애인이라 하더라도 그와 더불어 거리로 다방으로 궁둥이를 휘젓고 돌아가면 남들이 먼지 일으키는 연애 데몬스트레이션이요 「광고연애」인 꼴불견이라 하여 비웃거든, 글쎄 연인도 아닌 녀석과 같이 다방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눌러 붙어 앉아서 웃음을 팔고 있구나. 겨우 차 한 잔 얻어먹으면서……. (……) 이젠 남자 쫄무니를 줄줄 따라다니며 차 얻어먹고 저녁 얻어먹고 극장 구경시켜 준다 하여 옆에 붙어 앉아 주고, 부둥켜안고 춤춰 주고……. 너, 매소부(賣笑婦)나 위안부라는 이름이 꼭 육체를 팔아서만 붙이는 이름인 줄 아느냐? 그때위가 다 매소부요 위안부라는 거야. (……)”

“하긴 어떤 낫살이나 들었다는 사람이 하는 말을 좀 들어봐. 젊은 여자나 여학생들하고 노니까 한결 마음이 젊어지고 기분이 좋단 말이야, 하는 것 아니야? 그렇다면 그 사나이는 자기의 기분이 젊어지고 좋아지기 위한 도구(道具)로 여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며, 차 사주고, 저녁 사주는 것 아니잖아? 여자에게 있어서 이런 인격적 모독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따라다니며 웃음 웃어주고 얻어먹으니 위안부요 매소부라는 네 지론이 정곡(正鵠)을 찔렀어.” (『별아 내 가슴에』 31회)

연인도 아닌 남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차나 밥을 얻어먹고 극장에 따라가거나 춤추러 다니는 여대생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매춘부나 위안부와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자유분방한 여대생들의 행태를 매우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초혼가』에서는 여학생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 접촉을 하는 상황이 그려지기도 한다. 나이가 많은 남자가 대학생인 듯한 여자에게 학비를 미끼로 윤락행위를 강요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여학생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학교는 계속해야 될 게 아냐?”라는 말에 나이든 사내를 따라간다(99회). 여성들의 탈선에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다.

『애정화원』에서는 당대의 여대생들을 두고 “쾌활이 도가 지나쳐서 건방지고 방종하고 게다가 분에 넘치는 허영까지 곁들여서, 정조관념은 희박해지고 물질적인 향락

에만 정신이 팔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농후”(12회)하다고 평한다. 댄스홀에서 댄서로도 일하는 여대생 <은주>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몸을 팔면서 여자에게는 정조보다 피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⑤ “(……)여자는 정조가 생명이라고 하지요? 정조가 생명인가? 피가 생명인가? 저는 정조란 것보다 피가 훨씬 귀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피를 팔기보다 몸을 팔기로 했죠. 그게 제가 댄서어란 직업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첫 동기였어요.”(「애정화원」 68회)

<은주>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가서 피를 팔았으나, 그것으로도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결국 몸을 팔기로 했던 것이다. 정조의 가치는 물론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1950년대 상황에서 보았을 때는 적어도 목숨과 바꾸어야 할 만큼 절박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여대생들은 이렇게 전통적인 사회질서나 규범에서 이탈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 등장하는 여대생들은 또한 청춘남녀간의 사랑이 아닌 유부남과의 사랑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별아 내 가슴에」의 <이미혜>, 「민주어족」의 <강영란>, 「창」의 <한현주>, 「실낙원의 별」의 <고영림>, 「애정화원」의 <허영숙>·<하은주>, 「태풍지대」의 <손애령>, 「제이의 청춘」의 <김성희>·<백은주>, 「원색지대」의 <명유라>, 「계절의 풍속도」의 <양미리>(유학생) 등은 모두 유부남과 열애에 빠지거나 유부남과의 관계 때문에 사랑의 갈등을 겪는 인물들이다.

이처럼 당시 신문소설에서는 댄스바람이나 성 개방 풍조 등과 관련하여 유한마담과 여대생들의 탈선 현상이라든지 불륜 묘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관능성’을 통해 독자들의 흥미를 유도하고자 한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1950년대에 이르러 전통적 가족제도가 해체되는 징후를 보여주는 한 양상이기도 하다.

3) 여성의식의 자각과 한계

한국전쟁의 발발은 가장을 잃은 부녀, 이산가족 등의 문제를 파생시켜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이 당시 여성활동도 이들의 구호·보호·선도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을 통해 여성들은 그들의 사회인식을 높이고 경제적 독립이 바로 여권신장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기간 중에 여성문제연구원이 황신덕·박순천·

이태영·이희호 등 17인의 발기로 1952년에 발족되어 여성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도하였던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 단체는 우선 남녀쌍벌죄 적용을 규정한 형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여성연구원은 대한부인회·YWCA·기독교절제회·대한간호협회 등과 연합하여 여성의 법적 지위향상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계몽과 여론조성에 힘쓰기도 했다. 1950년대 후반에 오면서 가정법률상담소·JOC(가톨릭노동청년회)의 부녀회 등에서 여성의 법적 문제, 노동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대한어머니회·대한여성복지회 등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문화단체와 함께 전문직 여성들의 친목단체인 여기자클럽·여성항공협회 등이 결성되기도 했다. 1959년에는 이들을 총망라한 여성단체협의회가 발족되어 여성운동이 횡적·종적 연결을 도모하였다.⁵³⁾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사항은 가족법 제정이다. 대한민국의 신민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가족법의 민주화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한 것은 1953년이다. 전쟁이 끝난 뒤 법률 초안 작성과 심의과정에서 여권신장을 위한 의견 반영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 당시 한국 최초의 여관사 이태영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대한 YWCA와 여성문제연구회의 간부들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이끌었다. 즉, 신민법의 제정에서 결혼·친권·상속 등과 관련된 여성의 법적 지위를 조선시대의 관습법에서 탈피한 평등한 지위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기 위해 1953년 이 두 단체를 비롯한 8개 단체가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에게 ‘여성단체의 민법(특히 친족상속법)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한다. 이 건의서는 호주권, 혼인관계, 친권문제, 양자문제, 호주상속인의 순위문제, 재산상속문제 등에 대해 종래의 구습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민법기초위원회에서 작성한 친족상속법 초안과 심의요강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각 분야에서 평등화를 요구하면서 법률상의 여권신장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은 동성동본 불혼제의 철폐를 완강히 반대하는 유림들의 압력에 부딪쳐 가족법의 민주화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여성단체지도자들의 주장도 점차 약화되고 후퇴하였다. 이렇게 하여 1957년 국회에서 통과된 가족법은 호주제도 폐지 대신 실현성이 희박한 입부혼(入夫婚)을 제정하는 한편, 동성동본 불혼을 위시한 관습법들을 대체로 유지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YWCA지도자 등은 좌절하지 않고 여권신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1958년부터는 여성들을 상대로 혼인신고를 권장하는 운동을, 한편으로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강좌를

53) 최민지, 「한국여성운동 소사(小史)」, 이효재 엮음,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창작과비평사, 1994), 255~256쪽.

개최하였다. 관습에 젖어온 여성들이 혼인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없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남편들의 중혼(重婚)으로 배척당하여 법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는 피해자들이 많은 상태였고, 여자들은 관습적인 축첩제도의 희생자로 체념하며 계속 참고 살아가는 상태였기 때문이다.⁵⁴⁾ 이런 점들은 1950년대에 서 여성의식의 자각과 더불어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여성들이 부당하게 차별 받고 있으며 그것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작품 속에서 전면적으로 제기되기보다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성차별의 구조적 요인을 밝혀내고 합리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기보다 소박한 문제제기의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신문소설이 여성의식의 자각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냄으로써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타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50년대는 미망인들이 많아지고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워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여성들의 자각에 의한 성차별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자유부인」의 <최윤주>가 “남편의 압제를 받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있어야”(11회) 하겠다고 자각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내성은 「애인」과 「실낙원의 별」에서 여성의식의 자각을 형상화한다. 「애인」에서는 남녀평등 문제가 <이석란>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① “그런데 너 잘못하다가는 석란에게 쥐어 살라.”

“쥐어 사는 것, 좋지 않아요?”

“안될 말이지. 가정은 역시 남편이 위주여야 한다. 옛적부터 하는 말이, 암탉이 울면 집안은 망하는 법이라고, 여편네한테 쥐어 사는 사나이들 꼴은 구역질이 나서 정말 못 보겠더라.”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쥐지도 않고 쥐우지도 않으면 되잖아요? 민주주의적으로……”

“아이구 애두 헛공부를 했구나! 민주주의 국가에두 정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 정부의 수반이 역시 남편이 돼야만 한다는 말이다.”

“왜 아내가 되면 어때요?”

“글쎄 그렇지 않다는 밖에! 세상에선 남녀평등을 부르짖지만두 본질적으로 남녀평등은 될 수 없느니라. 역시 남자가 여자보다는 모든 점을 종합해봐서 나오니까, 도리가 없지, 뭐냐?”

54) 이효재, 『한국의 여성운동—어제와 오늘』(정우사, 1989), 252~254쪽.

“그렇가요? 주먹은 다소 썰는지 몰라두……”

“그것 봐라. 그것부터가 벌써 평등이 될 수 없는 첫 조건인 걸 어떻거니?”(『에인』 94회)

<이석란>과 결혼 약속을 한 뒤에 <임지운>이 어머니와 대화하는 부분이다. 집안에서의 주도권은 남자가 돼야 한다는 어머니와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지운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는 여성이면서도 남녀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보수적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라며 ‘어편네한테 쥐어 사는 사나이들 꼴을 구역질이 나서 정말 못 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는 것이다. 남존여비 사상이 1950년대 사회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지배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남녀평등의 문제는 ②의 예에서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②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여자 관계로 우리 어머니를 울린 사람이지요. 우리 어머니 같은 상당히 뽀족한 성미의 소유자로서도 결국에 있어서는 울면서 참아나가는 도리밖에 없었지요. 나는 어머니를 울리는 아버지를 무척 미워했지요. 철이 들면서부터는 그런 아버지와는 깨끗이 헤어져 버리자고 저는 주장했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자주력이 없는 것과 다소의 인간미와 그리고 갈라져서 더 불행해지는 것은 반드시 여자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어머니에게 참을성이 있는 울음 끝에 온 것이 무관심이었지요. 지금은 어머니가 다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살아있을 무렵에는 반항적으로라도 그러고 싶어도 못 그랬어요. 사회적인 비판 앞에 나서기가 무서웠으니까요. 왜 무서웠나?……사회적인 비판을 마련하고 형성하는 주체가 여성이 아니고 남성들이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모든 문화의 추진력이 되고 도덕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남성이기 때문이에요. 남성 분위이기 때문이에요.”(『에인』 175회)

<이석란>의 입장은 ①에서 본 <지운어머니>의 시각과는 매우 상반적이다. 자기 부모의 예를 들며 남성분위사회의 폐해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여자문제로 어머니를 울렸지만 상당히 뽀족한 성미를 지닌 어머니로서도 울면서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 어머니가 경제적인 자주력이 없는 것, ㉡ 다소의 인간미, ㉢ 헤어져 살았을 때 여자편이 불행해진다는 점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반항적으로라도 다소 방탕한 생활을 하려고 해도 사회적인 비판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사회적인 비판을 마련하고 형성하는 주체가 여성이 아니고 남성들이기 때문’이며, ‘모든 문화의 추진력이 되고 도덕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남성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머니의 그런 세계를 보며 자란 <이석란>은 남성에게 자신의 의사

를 당당하게 내세우는 여성이 된다. 그녀는 <임지운>과의 결혼을 앞두고 ㉠ 절대로 아내를 때리지 말 것, ㉡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안아줄 것, ㉢ 작가라고 해서 예술을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 등의 결혼조건을 제시한다. 강한 자기주장을 통해 권리를 찾아 누림으로써 남자에게 종속되지 않으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석란>은 작품 속에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석란> 같은 여성주의적 관점을 갖는 인물이 부정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독자들은 그 인물뿐만 아니라 그 인물이 주장하는 남녀평등사상까지도 부정적으로 바라볼 개연성이 크다. 이처럼 성차별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결국 스스로 주저앉고 마는 것은 이 작품의 한계로 지적된다.⁵⁵⁾

「실낙원의 별」에는 <고영림>이 「애인」의 <이석란>과 비슷한 성격의 인물로 등장한다. 그녀 역시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당찬 여성이다. <고영림>이 그의 오빠인 <고영해>와 말다툼하는 상황(133~134회)을 보면 그것이 확인된다. <고영해>는 여러 여자들을 만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다니면서 아내 <한혜련>이 옛 사랑에 대한 감정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다고 해서 ‘불륜한 아내’라고 나무란다. 이에 <고영림>은 “오빠나 아버지지가 모두 돼먹지 못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저희들은 미친개처럼 싸돌아다니며 방탕할 대로 방탕하면서도 아내의 마음속까지를 문제로 삼겠다고 날뛰요? 뭐 불륜한 아내?……남자들의 어디를 누르면 그때워 뻔뻔한 인생관이 튀어나오는 거요?”라고 반박한다. 언쟁 끝에 <고영해>는 성차별의 사회에 여성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들썩거리고 나서봤댔자 별반 신통한 일이 없으니까 암전하다는 말이라도 들어”보려는 심리 때문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한다. <고영림>은 그런 <고영해>의 태도에 대해 ‘남성주의의 횡포’이며 인류의 이상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고영림>은 유부남인 <강석운>과 애정의 도피행각을 벌이는 등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주제로 행동함으로써 작품에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 <김옥영>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응을 거부한다. 남편의 애정이 식은 결혼생활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남편 <강석운>이 여대생 <고영림>과 애정의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을 때 <김옥영>은 집을 나가겠다고 남편의 애정이 식어버린 상태에서 “가정을 지킨다든가 자식들을 보호하고 양육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한다(218회). 남편이 어떤 짓을 하더라

55) 김동윤, 「김내성의 「애인」에 나타난 연애양상과 그 의미」, 대중문학연구회 편,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국학자료원, 1998), 157~169쪽.

도 아내가 희생정신과 모성애를 갖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윤리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기어코 가출을 하지만 결국에는 아이들 때문에 귀가한다. 이는 여성의식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순응은 거부하였지만 결국에는 타협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푸른 날개」에는 제한적이거나 여성주의적 입장이 드러나고 있다. 여편네가 남편의 사업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느니 남자의 요구대로 그 기분에 맞춰주는 것이 내조라느니 하는 남편의 인식에 대해 <미스 현>은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자 남편 <길가>는 “자기가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눈을 감고 죽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는 철저하게도 ‘선량한 여자’”인 <산월이>와 살림을 차린다. 결국 <미스 현>은 남편과 헤어져 양품점을 운영하며 혼자 살게 된다(24회). 이처럼 <미스 현>은 가부장제의 폭력을 거부한 여성이다. 그러나 그녀도 이 작품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권상오>를 좋아하는 그녀는 밤중에 그의 방에 찾아가 옷을 벗으며 유혹하는 등 성적으로 가벼운 여성이다. 이런 점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여 혼자 사는 여자의 경우 여자 자체의 문제도 많지 않느냐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인의 생애」에서도 <옥순>을 중심으로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드러난다. <옥순>은 쇠똥구리 이야기를 통해 성차별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한다(17회). 쇠똥구리는 암수가 함께 열심히 쇠똥을 굴리고 가다가 암놈이 쇠똥에 알을 까는 사이에 수놈이 주위를 돌며 암놈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평등하다는 의미다. 쇠똥구리 같은 천한 벌레들도 그만큼 ‘민주주의적인 평등권’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인들 신세가 그만큼 못하지 않느냐는 것이 그녀의 논리다. 그녀는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곤경에 처한다. 그녀의 만동서는 참고 견디라고 조언한다.

③ 결국 만동서의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소리였다.

간식(間食)으로서 냉면(冷麵)을 먹으면서도 한때의 쌀밥을 잊지 않는 것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대한 애정이라는 논법이었다.

구미를 잃었을 때에 간식을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생리의 요구인 것처럼 남편들이 외박(外泊)하는 그런 행동이란 아내에게 대한 애정 상실(喪失)이라기보다는 그와 반대로 권태에서 오는 그것을 방지하려는 행동이라는 것이었다.

옥순으로선 그 말을 이해하기는커녕 그 만동서의 정신상태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

말하자면 만동서의 말은 애정과 애욕(愛慾)을 구별하라는 것이었다.

(.....)

어디까지가 애정이며 어디서부터가 애욕의 한계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을 구별한다는 그것부터가 옥순은 봉건적인 굴욕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었다.

만동서는 그런 낱아빠진 생활테두리 속에서 자기를 지키며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막 물올랐던 청춘도 고비를 지나 한창 무성(茂盛)해지려는 계절을 만난 요즈음에 있어서 열흘 후인 제사날 잘 먹겠다고 그 동안을 굶고 살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만동서모양 늙은이 팔자가 좋아지겠다고 자기의 불만을 구속할 순 없었다.〔「여인의 생애」 9회〕

③에서는 성차별 문제에 대한 <옥순>과 만동서의 관점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만동서의 생각은 철저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있다. 남자들의 외도는 참고 기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남편들의 외도는 아내에 대한 애정상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권태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이라고까지 적극 두둔하고 있다. 오히려 그런 남편에 대해 불만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내가 애욕을 주체하지 못한 때문이므로 애욕을 탐하지 말라고 충고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옥순>은 만동서의 의견에 동조할 수 없었다. 바람난 남편에 대한 그녀의 대응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밖으로 나도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밀 ‘맨스·홀’을 찾아다니며 ‘스텝’을 밟아 봤지만 옥순의 가슴에 번지는 고독이랄까……혹은 메달랐을망정 전신에 펼쳐드는 싱싱한 정욕의 불길은 그런 것으로 잦아들지 않았다.” <옥순>은 유혹도 받으면서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도 있었지만,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육체를 내던지기에는 ‘평소의 교양’이 그걸 허락지 않았고 “아직도 등뒤에 버티고서 있는 가정과 남편의 존재가 지나치게 뚜렷하고 컸”던 것이다(10회). 결국 그녀는 남편에게 찾아가던 다음 남편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된다.

「태풍지대」의 <최상희>는 남편이 첩을 얻어 살림을 차리고 가정은 제대로 돌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자신의 처지를 거세(去勢)당한 것으로 여긴다. 그런 상황이니 만큼 가정에 붙어있을 수 없다는 심경이다. “아내가 아내의 위치에서 거세를 당한” 마당에 자기가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느냐고 강변하는 것이다(31회). <최상희>는 <유길추>의 아내가 죽자 그와 점점 가까워졌으나 결국에는 가정으로 돌아온다. 그녀의 한계이자 당시 한국여성들의 한계다.

「내일의 태양」의 <남희숙>은 남녀평등의식이 강한 여자대학생이다. 그녀는 웅변가나 정치가로서의 기질을 가졌다고 해서 남성적이라 운운하는 한편 여성들은 문학적이고 가정적인 기질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라고 강변한다. “소질에 남

녀적인 구별을 붙인다는 건 수공업시대의 유물”임을 깨닫고 변화된 시대감각에 맞는 사고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18회). 여성이 그렇게 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생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을 그렇게 기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녀는 정치논문이 잘 된 것을 가지고 남자와 견주어가며 칭찬하는 언니 <남희라>의 말에 왜 자꾸 남녀를 구분하려 드느냐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50회). 그러한 사회적 편견을 버려야 남녀평등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 작품에서는 이혼녀인 <남희라>와 총각 <윤형진>과의 애정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다. <윤형진>이 <남희라>에게 구애하자, 처음에는 거부하던 <남희라>도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이혼녀와 연하의 총각간의 혼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리 없었다.

④ “(……) 헨기집이 뭐니까?”

“한번 결혼했던 여자 말이란다.”

“한번 결혼했던 여자는 두 번 못하는가요? 남자들은 두 번도 세 번도 잘만 가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다르거든.”

“뭣이 달라요? 민주국가에서는 남녀가 동등이러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을 무한히 받는 이 막내딸은 아버지의 앞에서든 제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새언넛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카데요. 그런 훌륭한 여성이 한번 결혼했다 그 조건 하나로 거절을 당한다카른 우리 여성들은 공부해서 머합니까?”

“허허 계집애가…”

“더군다나 오빠가 그 여자 아니른 죽는다칸다는데 남의 사랑을 함부로 망쳐서 되는가요?”

“계집애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니”

“그런 말도 못할라카른 공부도 안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요? 어무니 참 나쁩니다. 어제 보니 환장한 사람 같데요. 참 이기주의자데요.”(『내일의 태양』 141회)

<윤형진>의 여동생인 <윤형숙>의 발언이다. 16살의 여중 3학년생인 그녀는 <남희라>가 한 번 결혼했던 경력이 있다고 어른들이 결격사유로 삼고 오빠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남자들은 두세 번 결혼하는데 여자들은 왜 안 되느냐며 남녀를 차별하는 현실에 강한 불만을 토로한다. 여성 의식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남녀평등 의식 역시 다소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결혼 경력이 있는 <남희라>가 온갖 난관을 뚫고 연하의 총각인 <윤형진>과의 결혼에 성공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작품의 후반부(165~192회)에 가서 매우 영웅적이면서 만능인으로 행동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남희라>는 <윤현수>(〈윤형진〉부친) 집에 살면서 온갖 굵은 일을 척척 해내며 폐렴환자인 <윤현수>를 극진히 간호하여 건강을 회복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동네사람들을 모두 치료해 준다. “가까이 드나드는 사람들이나 먼 일가까지도, 감기에 희라의 알을 서너 알 먹기만 하면 불덩이 같은 몸이 밤새 식어버리고 이튿날엔 일어나서 멀쩡하게 돌아다녔다. 토사에도, 고뿔에도, 기침에도, 이질에도 그들은 희라를 찾아왔다.”(190회) 이런 점은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라거나 사회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superwoman⁵⁶)이기 때문에 ‘헨기집’이라는 허물이 상쇄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동거 경험이 있는 <강난실>이 우여곡절 끝에 의사인 <민석호>와 결합하는 이야기를 다룬 「젊은 설계도」도 여성주의적 입장이 잘 드러나는 소설이다. ⑤에서는 남성의 횡포에 맞서는 여성들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⑤ “(……) 그 작자가 또 와서 지랄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있어, 혼을 좀 내줘야지. 그런 악질이 어디 있어? 무법천지처럼 그제 뭐야? 깡패면 깡패지, 약한 부녀자에게 폭행을 하다니! 참 비겁한 녀석이구먼……”

(……)

“난 모르겠어요. 남자란 여잘 회루 먹으러 들어요!”

“바보 소릴 말어. 자기가 자신을 방어해야지, 이제 와서 그런 소릴 하면 어떻게 해?”

난실은 제 일처럼 화를 내고 있었다.

“이봐, 우리 S선생 쇼나 끝나면, ‘여성법률상담소’에나 가서 의논해 보자구. 그 기관은 이런 문젠 조절하고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것 아냐?”

“그렇지만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창피하다는 그 생각이 우릴 망쳐 놓는 거야. 싸울 일에는 정정당당히 싸와야 해.”

“싸울 건덕지나 있나요?”

“그럼 이렇게 울고만 있을래? 남편에겐 밀려나구, 그 사내에게선 폭행을 당허구……”(「젊은 설계도」 121회)

56) 현대의 여성들은 일과 가정에서 완벽한 슈퍼우먼의 신화를 많이 접한다. 이들은 직업에서도 성공했지만 가정 일도 자신이 손수 알아서 하는 완벽한 여성상을 제시하면서 가부장제에서 이중으로 착취당하는 여성들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김유리, 「「자유부인」 영화들」, 유지나 외, 『멜로드라마란 무엇인가—「자유부인」에서 「접속」까지』(민음사, 1999), 56쪽.

<정애>가 <추익태>에게 폭행을 당하자 <난실>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여성법률상담소’에 가서 의논해 보자고 말하고 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사회기관 혹은 법률의 도움을 받아 여성들이 겪는 불이익과 피해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식이 엿보인다. 감성적 대응에서 진전된 양상이다. 특히 ‘창피하다는 그 생각이 우릴 망쳐 놓는 거야. 싸울 일에는 정정당당히 싸와야 해.’라는 <난실>의 말은 여성들의 자각과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말이다.

기성세대 여성들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아무래도 현실순응적인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본 「여인의 생애」의 <옥순 큰동서>나 「애인」의 <지운어머니> 등이 그 전형적인 인물이며, 「부교」의 <이정순>도 같은 유형의 인물이다.

⑥ “남자의 외도란 한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마치 불과 같은 것이라고 할까. 그런데 불이 한창 붙을 때 키질 해봐라, 불은 꺼지기는커녕 더 일어나는 법이다. 불이 꺼지면 어차피 돌아오는 게 또 남자의 외도거든. 돌아오고야 말 남편의 뒤를 쫓아다니고 극성을 피웠잖아, 남편을 망신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고, 영영 남편을 잃어버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모르는 체 버려 두고 있는 거다”

“그때를 기다려 혼자 속을 썩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찌했니?”

남주는 어머니의 생각이 어처구니없었다.

“그게 무슨 곱팡내 나는 생각이예요. 지금이 어느 때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버지가 외도를 해 망신을 당하는 것도 나쁘지마는 어머니의 태도도 그러했었어요.”

(……)

“외도를 하게 된 까닭도 캐구 보면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 데 있으니까 나로서는 할 말이 없구나.”(「부교」 56회)

<김남주>의 아버지 <김춘배>는 <정선비>라는 요정마담 등과 관계를 가지며 외도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⑥에서 보듯 <남주>의 어머니 <이정순>은 남편의 외도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남편이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기대하며 혼자 속을 썩이고 있다. 더구나 그녀는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된 까닭도 따지고 보면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한 데 있다고 자책까지 한다.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적 사고에 맹종하고 있는 인물이다. 가부장제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딸 <남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머니의 태도야말로 ‘곱팡내 나는’ 것이다. 그러나 <남주>는 아버지의 그

런 태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뚜렷한 대항을 하지 못한다.

역시 외도하는 남편을 둔 「빙하」의 <정경애>는 「부교」의 <이정순>과는 달리 덜 순응적인 여성이다. 그녀 남편 <최건호>는 <주 마담> 등 여러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집안 일에는 관심도 두지 않는다. 방탕한 남편을 둔 <정경애>는 여자 나이 40이 넘으면 자식들 때문에 산다는 말을 부정하려 한다. 바로 그런 말 때문에 “항상 이득(利得)을 보는 것은 세상의 방탕한 남편들이오, 손해를 보는 것은 현숙한 아내”라고 생각한 그녀는 남편에 대한 반항의식으로 남편처럼 자기도 하고픈 대로 행동하겠다고 결심한다. 어머니의 만류도 통하지 않는다(21회). <정경애>는 30대 홀아비 <김창수>와 불륜의 관계를 맺는다. 더구나 <김창수>는 딸 <최난주>의 직장동료이자 <난주>가 호감을 갖던 남자였다. 한 남자를 놓고 모녀가 경쟁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최선애>는 <김창수>와의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 자신은 이십여 년 동안 아내의 의무만 지키면서 살아왔지 한번도 아내로서 혹은 여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한다.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권리를 찾겠다고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혼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밝힌다(153회).

⑦ “(……) 세상에 애정을 모르고 돌아가는 부부같이 불행한 부부는 없을 것이다. 애정없이, 오직 아내라는 이름 때문에, 그냥 그 때문에 자식을 낳고, 늙어야 한다면 이런 서글픈 일이 또 어디 있겠니. 난주야! 나는 이십여년 동안 모든 것을 참고, 복종하고, 그리고 나를 스스로 죽이고 살아왔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현모양처의 길인 줄 알고.

그러나, 나는 나를 너무나 학대하고 멸시해온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를 괴롭히고 짓밟고 울리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내가 깊은 잠에서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였고, 나의 모든 자유를 속박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울었다. 왜 울었는지 그것은 나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한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무도 비굴하고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너는 어찌면 다시 나를 안 만나줄지 모른다. 그렇게만 자꾸 생각된다. 그래도 좋다. 너는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돌진하면 되는 것이다.(……)”(「빙하」, 210회)

⑦은 <정경애>가 딸에게 보낸 편지내용의 일부다. ‘깊은 잠’에서 눈을 떴다는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길을 찾아 돌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타자가 아닌 자아로서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한계를 보인다.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앞으로 또 슬픈 나날이 얼마나 계속될지도 모르면서 퇴원하는 남편을 품에 안는다(256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 장면에서 독자들은 안도감을 내쉬며 차라리 잘 되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을 듯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애초부터 딸과 가까워지려던 남자와 애정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작가는 처음부터 그녀의 입장에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들은 사적 영역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강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점들이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나타나는 여성의식의 한계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여성해방에 대한 작가들의 부정적 목소리가 적잖이 나타난다. 정비석은 그 대표적인 작가로서 여성들을 비하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한다.

⑧ 그러나 사업적인 용무에 임했을 때에는, 그 얼굴이 핵 뒤집혀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처럼 근엄하고 냉정한 얼굴로 변해버린다. 그런 경우에는 여자 같은 것은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활동적이고 정력적인 사람일수록 그런 구별이 현저해서, 여자와 사업을 결코 혼동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자에게 있어서는 애정이 인생의 전부이지만, 남자들에게는 애정은 인생의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에 대한 정열이라는 말이 있거니와, 꼭 같은 사람이면서도 남자들의 얼굴이 두 개로 구별되는 것은 그 때문인지 모른다.〔연가, 26회〕

「연가」에는 ⑧과 같이 남성우월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남자는 여자관계가 복잡하더라도 일은 제대로 처리하는데 여자는 애정에 얽매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다. 다분히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서술이라 할 수 있다.

「민주어족」에는 나약한 여성에 대한 질책도 엿보인다. <배영환>에게 정조를 잃은 뒤 그에게 외면당하는 <고순례>를 보며 <강영란>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장면(215회)이 그것이다. 화자(혹은 강영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조를 제공했다면, 속았거나 말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 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렇건만 요즘의 여성들은 자기가 좋아서 정조를 제공하고 나서도 배반을 당했을 때에는 모든 책임을 으레 남자에게만 돌린다”고 불평한다. 그것을 두고 “여성들이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남성에게 예속되어 있는 확연한 증거”라며 “그러고서 무슨 빌어먹을 남녀평등”이나 질책하고 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보면 오히려

여성들의 책임이 많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란은 문득 오늘아침 신문에서 읽은 가짜 육군대위 박인수(朴仁秀)의 희대(稀代)의 엽기사건을 연상하였다. 수다한 여성들의 정조를 유린했다는 놀라운 신문기사를 읽었을 때, 영란은 박인수라는 청년을 미워하기보다도 현대여성들의 부패한 정신에 무한한 경멸감이 느껴졌다.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여성들 중에서 처녀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박인수 자신의 입으로 장담한 점이다.”(215회)라고 언급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허구가 아닌 현실에서 일어난 실재사건인 이른바 ‘박인수 사건’을 거론하면서 여성들에게도 문제가 많다는 논평을 가함으로써 신문소설의 시사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짚어볼 또 하나의 문제는 작가 정비석이 박인수 사건을 보는 관점이다. <영란>의 생각은 곧 작가의 생각임이 분명하다. 정비석이 「박인수의 경우」라는 글을 통해서 “근래 신여성들간에는 결혼과 연애를 완전히 분리해 생각하는 기풍이 농후하다는 말을 들었거니와, 이번 ‘박인수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들의 결혼관 연애관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구체적으로 보았다고도 말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이번 피해자들의 연령이 거의 전부 스물한 살에서부터 스물네 살까지임을 볼 때, 연대적으로 가장 새로운 층에 속하는 그들의 성적 도의관념은 이미 기성세대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도 짐작된다”⁵⁷⁾는 입장을 피력했음은 그것을 입증해 준다.

이처럼 정비석은 여러 작품에서 여성문제를 다루고 여성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소설화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와 적절히 타협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점은 비단 정비석뿐만이 아니라 1950년대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인 인식의 경향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그에 대한 여성의 기대가 허물어지면서 스스로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경우가 많다. 즉, 남녀평등을 주장하되, 본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파렴치한 남성에게 대한 반감의 차원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남녀평등의식을 가진 여성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녀들은 남성중심사회의 부당함을 비난하지만 가부장적 틀을 변모시킬 만한 힘은 없다. 나아가 그녀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여성이 가정(가족)을 벗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남편이나 사회의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남녀평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쉽게 타협하고 마는 양상을 보인다.

57) 정비석, 「박인수의 경우」, 앞의 책, 146쪽.

지배이데올로기의 틀을 깨트리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대중문학적 한계와 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여러 가지 여성문제가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이 그 주된 특징의 하나다. 1953년부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시작된 사실을 본다면 여성문제가 부각되었다는 것이 곧 여성의식의 고취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상품화는 여성의식의 자각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면서 그와 동시에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음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1950년대 신문소설은 여성문제를 사회의 이슈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여성의식의 자각과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미망인의 시련과 방황이라든지 유한마담과 여대생들의 탈선 등을 중심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가운데 성차별의 실상을 고발하고 여성의식을 고취하는 기능을 나름대로 수행했다는 것이다. 여전히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지배이데올로기로서 굳건히 자리잡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높은 현실의 장벽 속에서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하였고 볼 수 있다. 1930년대와 해방직후에 그 기운이 싹트던 여성주의가 대항이데올로기로서의 맹아(萌芽)를 다시 틔우기 시작했음이 1950년대 신문소설에 드러난다. 이는 전쟁을 겪으면서 전통적 가족제도가 급격히 해체되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처럼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여성의식의 쟁점화 양상이 많이 드러나는 것은 여성작가의 활동이 활발해진 점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김말봉, 박화성, 장덕조, 임옥인, 손소희, 한무숙 등의 여성작가들이 쓴 작품은 이 논문의 대상 작품 34편 가운데 35.3%인 12편인 바, 여성작가들이 집필하는 작품에서는 자신들이 겪는 성차별의 양상을 형상화하거나 여성들의 자각을 고취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그만큼 크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여성해방이나 여성주의적 인식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가능성을 노크해 보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말하자면, 문제제기는 하면서도 현실의 높은 장벽 속에 스스로 주저앉고 마는 상황이었으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한 측면도 많았다. 따라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응하는 신문소설의 여성문제 인식은 ‘타협’의 양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4. 대항적 사회인식 : 사회부패상의 고발과 재건의지의 발현

1) 지도층에 대한 불신

1950년대의 권력 엘리트 대부분은 특정 파벌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성격은 파벌과 파벌 사이의 갈등만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이나 국가 발전이라는 측면보다는 정권의 장악에만 집착하였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행태는 자연히 그 뒤의 정치적 혼돈에 연관되어 있다. 1950년대 중반기 이후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일제 관료출신들의 진출은 정치를 그만큼 후퇴시키게 되었다. 또한 당시의 정치과정은 정책결정이라든가 정당의 운영이 국민과 밀착된 성격을 보여주기 보다는 국민과의 격심한 간격만을 조성시킴으로써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정치를 조장하고 말았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성격은 자연히 한국 정치사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즉 정치적인 영역에 실제로 관여하는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지나 이익에 충실한 인사가 아닌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승만 정권 아래서 정치가의 대다수는 국민과의 연대성이나 결속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활동함으로써 국민과의 거리가 점차 멀어졌던 것이다.⁵⁸⁾ 그들은 전쟁 중이던 1952년 7월 4일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키고 1954년 11월 29일에는 4사5입 개헌을 단행하는 등 파행적 정치를 계속했다. 따라서 국민들은 정치인이나 관료 등 지도층 인사들에 대해 불신할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민감하게 수용된다. 정치인을 비롯한 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특히 정치인은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 이승만 정권의 무능과 부패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비석의 작품들은 그 중에서도 지도층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경향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낭만열차』는 대학교수 <원낙영>과 옛 제자인 기생 <박난심>의 사랑 이야기를 주로 다루면서도 지도층의 부패상과 정치불신을 곳곳에 표출하는 작품이다. 특히 국회의원 <권달수>가 그 주된 표적이다.

① 날마다 신문지면을 호화찬란하게 장식하는 기사는, 오직 사기 협잡 강도가 아니면 사회지도층의 증수회사건뿐이 아니던가. 국회의원 권달수 대선생도 ‘큰고기가 잔고기를 잡아먹

58) 진덕규, 『1950년대의 이승만론』, 『1950년대의 인식』(한길사, 1981), 27~28쪽.

는 것은 생물계의 자연법칙'이라고 공공연하게 토로하였다. 십만 선량으로서 그러할진댄, 그 밖의 사람들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었다. 만약 권달수 대선생의 말을 그대로 시인한다면 민주주의라는 미명(美名)하에 거행되는 민의원 선거는 도둑의 괴수를 선출하는 것이나 다름이 무엇이랴? 그야 물론 대다수의 선량들이 진정한 애국자임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권달수와 같은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은 크게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낭만열차, 13회』)

①은 대학교수인 <원낙영>이 자신의 친구인 국회의원 <권달수>를 통해 인식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생각이다. ‘민주주의라는 미명(美名)하에 거행되는 민의원 선거는 도둑의 괴수를 선출하는 것’이라며 강한 정치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의원 <권달수>를 ‘대선생(大先生)’이라고 비꼬아 표현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원낙영>은 <권달수>가 “된 소리 안된 소리 함부로 지껄이다가 신문지상에서 하두 두들겨 맞”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그렇지만 <권달수>는 그러한 신문기사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며 “정치가란 필요에 따라서는 여론을 꾸며낼 만한 수단도 있어야”한다는 반응을 보인다(4회). 말하자면 누가 뭐라 하든 제멋대로 하는 게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권달수>는 또한 영업세 때문에 걱정하는 요릿집 <최 마담>에게 “그까짓 세금쫓, 있거든 내고, 없거든 뺏장을 튀겨버리”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녀의 세금탕감 부탁에 세무서장한테 말해보고 만일 세무서장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재무장관한테 말해서 목을 잘라 버리”겠다는 호언까지 한다(22회). <권달수>야말로 국가 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험잡과 부정을 일삼는 전형적인 부패정치인이다. 그러기에 이 작품에서는 국회의원 <권달수>를 지칭하여 ‘정치간상배’라 규정하면서 “우리 나라에는 정치간상배는 많아도 진정한 민주정치는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하”라고 단정하기도 한다(140회).

<권달수>는 선거에 임하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무릇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인민이란 거대한 지배자에 대해서는 항상 반감을 품는 법”이기에 민심이 자당(自黨)에서 이탈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당의 존재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증거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아무 것도 모르는 유권자들이 일시적 감정으로 반대당에 투표를 했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는데, 우리는 그러한 투표를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문제는 그 점에 있는 것이오. 이번 선거에 있어서 이 지방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여러분

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만 토론해 주시오”라면서 억지 논리를 편다(163회). 민심이 돌아선 원인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건강부회하고 있다. 국민을 우민(愚民)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이다. 바로 자유당 정권의 행태를 빗댄 것으로 보인다.

<권달수>는 세상에서 “옳고 그른 것이 따로 있는 법이 아니”며, “옳고 그른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약자의 비명에 지나지 않”다고 약육강식의 원리를 강조한다. 민주주의란 명분이나 간판에 불과하고 “정치에는 오직 승리가 있을 뿐”이라느니 “정치라는 것은 권모술수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느니 하며 그녀의 딸 <권채옥>과 대화를 나누는데(171회), 이 역시 정치불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권달수>는 기생에게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인물이다.

② “하하하 내가 의정단상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박난심도 알고 있는 모양이지? 그런 걸 보면 제법 맹랑한 것이 일반대중이란 말야 하하하”

“그러니까 영감은 물론 정신을 똑똑히 차리셔야 해요”

“말이야 바른 대로 이백여 명 국회의원 중에서 제구실하는 친구가 몇 사람이나 될는지 의문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거수기란 말썸이군요 호호호”

“예기 이년! 십만 전랑계 대해서 그런 말버르장머리가 어디 있단 말이냐!”

도적이 제 발이 저린다는 것일까. 권달수 국회의원은 거수기라는 소리에 화를 내었다. (『낭만열차』 83회)

③ “선생님두! 그이가 욕심이 사나워 그렇지 저를 좋아해서 그러는 줄 아세요. 도대체 요사이의 정치가들이란 정치생활에 있어서나 지조라는 것이 너무도 없어요. 지조가 없는 사람이 남을 좋아한다기로 그게 무슨 진실이겠어요”

“허기는 요사이의 정치가 물론 권력만 있지, 국가의 주인공인 국민의 존재를 너무도 무시하는 것 같더군. 신문을 읽어보면 그런 사실이 확연하거든!”

“그네들은 우리를 기생이라고 멸시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요새 정치계들이야말로 매소부 이하의 존재예요. 우리가 구복이 원수가 되어 기생노릇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각 있는 여자는 그 사람들처럼 더럽게 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낭만열차』 107회)

②는 요정 기생인 <박난심>이 국회의원에 대해 ‘거수기(擧手機)’라고 표현하자 <권달수>가 도둑이 제발 저린 듯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다. 이 소설에서는 대학생 <원동준>도 국회의원은 거수기일 뿐이라는 발언을 한다.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존재를

대단하게 여기는 어머니에게 “국회의원이 뭐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거수기밖에 안 되는 걸!”(110회) 하고 비아냥거린다. ③은 <원낙영>과 <박난심>의 대화내용이다. 기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치인들이 ‘지조가 없는’ ‘매소부 이하의 존재’라느니 ‘더럽게’ 노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 상황에서 정치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은 대단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의 주인공인 국민의 존재를 너무도 무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이다.

「민주어족」 역시 강한 사회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민주어족(民主魚族)’이라는 제목에서 보여주듯 개혁의지와 비판의식이 강한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민주적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⁵⁹⁾

이 작품에서는 “요새 우리 국회에서는 개헌안 표결을 둘러싸고 사사오입(四捨五入)을 해야 하느니 안해야 하느니 하고 말썽이 많은 모양”(9회)이라는 발언으로 국회를 비판하며, “남보다 못사는 것은 오로지 정치의 빈곤 때문”(131회)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감투 쓴 양반놈이야 돈벌기에 바빠서 그런 데(연구에 투자하는 데=인용자) 관심이 있겠어요”(33회)라며 사리사욕만 채우는 부패한 관료들을 비판하기도 한다. 「민주어족」에 나오는 정치 비판의 양상을 보자.

④ “(……) 민주시대의 문화인은 반드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법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를 보시오. 五·二〇 선거 이후, 제3대 국회의원들이 지나간 반년 동안에 한 일이 무엇이겠소? 사사오입의 개헌안을 하나 결정한 이외에는 석탄가격을 올리고, 전기와 우편요금을 올렸을 뿐이니, 우리들의 십만선량은 그렇게도 알량하던 말이요. 그리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비료(肥料)를 창고에 쌓아 놓고도 제 시기에 농민에게 배급을 아니하여 생산을 저하시키고, 석탄을 탄광에 잔뜩 파놓고도 운반을 아니하여 백성들을 추위에 떨게 하면서, 자꾸 관영요금(官營料金) 올리는 것만을 능사로 삼고 있으니, 참말 이처럼 기가 막히는 일이 어디 있겠소. 생산을 확충하여 물가를 안정시킬 근본 대책은 세우지 않고, 관영요금을 인상하는 이외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모양이니, 이 나라가 장차 어찌될 것인지 모르겠소. 생각해 보시오. 관영요금을 올리는 데 따라, 전차 기차 ‘빠스’ 우표딱지, 게다가 심지어 ‘커피’값 이발료 목욕값까지 우줄우줄 올라갔으니 마치 물가 인상의 ‘오림픽’대회를 열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단 말이요. (……)”

59) 광종원은 「민주어족」에 대해 “이 作品은 解放後 우리가 口頭禪처럼 부르짖고 있는 民主主義에 對한 하나의 解說書라고도 볼 수 있다. 입으로만 부르짖고 있는 民主主義가 우리의 生活周邊에는 거의 가짜요 偽造品 模造品만으로 가득 차 있는 感이 없지 않은 때에 이 作品에는 主人公으로 하여금 民主主義에 對한 理念을 正當히 把握케 하는 同時에 生活體驗으로 實踐케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광종원, 「신문소설의 공과(功過)」, 『동아일보』(1958.5.28.)

(.....)

“(.....) 그러니 정신 채려야 하오. (.....)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정부에서 지출한 산업장려금이 막대한 액수에 달할 터인데, 나는 아직 그러한 국가재산을 제대로 살려 쓴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고, 국가 역시 지금 이후에 감사해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소. 이렇게 모두가 무책임하고서 무엇이 제대로 되어 가겠소.”(『민주어족』 39회)

알루미늄제작소를 경영하는 <박재하> 사장은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민주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헌안을 사사오입으로 처리하고 민생문제를 외면하는 정치권의 무능과 파행적 경제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현실정치의 문제를 그대로 작품에 끌어들이며 형상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작품에서는 부유층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표출한다. 아버지가 은행장인 <배영환>은 은행차를 자기 차처럼 몰고 다니는데, <강영란>은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공적인 것을 사유물로 여기는 상류층의 삶의 태도에 대해 “그런 논법대로 나아간다면 세무서장은 세금을 맘대로 받아 쓸 수 있고, 장관은 장관대로 국고금을 유용해도 상관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15회)고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그런 상류층들의 몰지각함 때문에 결국 민주정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며 국민의 생활은 더욱 피폐할 뿐이라는 인식이다. 이 작품에는 또한 부유층의 귀족취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배영환>이 영화관에 뒤늦게 갔는데도 미리 사람을 시켜 마련해 놓은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회사원인 <강영란>은 귀족취미를 발휘한다고 비아냥거린다. 그런데도 <배영환>은 “서서 구경할 사람들과는 인종이 다르”라고 천연덕스럽게 답한다. 그같은 <배영환>의 응답을 들으며 <강영란>은 “세상이 통털어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판에, 근거도 없는 귀족취미를 발휘하려는 것은 이십세기의 어릿광대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특권계급의 머릿속에서 그러한 어릿광대 사상을 축출해버리기 전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진정한 민주주의란 바라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18회).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도층의 자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자유부인』에서도 지도층의 부패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고급관료도 정치인도 사업가도 교수도 이 소설에서는 거의 부패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화교회(화교회는 고위층을 남편으로 둔 부인들의 모임이다.) 모임에서 식사 도중 나누는 대화들(연재 7회분부터 10회분까지)을 보면 당시 지도층의 부패상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남편이 내무부장관 세력인 고관 부인은 은으로 만든 반상기 한 벌을 받고 동창생의 남편을 취직시켜 줬다고 으스스대며, 외교관 부인은 남편의 잦은 외식을 불평하는 듯이 과시하

고, 은행중역의 부인은 자기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식사만 집에서 하는 걸 자랑한다. 지도층 부인들의 위선과 허풍이 풍자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부인」에서는 특히 <오병헌>의 행각을 통해 당시 정치인들의 부패한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그는 “국회의 무슨 분과 위원에 모 정당 중앙집행위원이요, 게다가 무슨 단체, 무슨 단체의 고문 직함을 십여 종이나 가지고 있어서, 나는 새라도 떨어뜨릴 만한 세도가였다.”(12회) 그는 선거가 다가오자 당선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당시 부패정치인의 전형이다. 그는 고향에 학교를 세우는 것도 선거운동 때문이고, 다리를 건설하는 등의 각종 선거공약들도 표를 많이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공약의 실현성 여부는 안중에도 없다. 그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131회). 바로 당시 정치인의 한 전형이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낙선할 뿐만 아니라 빗쟁이에게 쫓기다가 경찰에 잡혀가는 신세가 된다. 대체로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이런 인물들의 말로는 불행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민중들의 기대심리에 부응하는 ‘위안으로서의 문학’이라는 역할을 당시 신문소설이 수행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슬픈 목가」는 <강병철>이라는 예비역 장교가 월남민들과 함께 임야를 개간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 재건의 한 모델을 제시한 작품이다. 물론 그러한 사회재건의 필연성을 가져오게 하는 동인(動因)은 사회의 부패상에서 기인한다.

이 소설에서는 <강병철>의 외삼촌인 <현홍섭>이라는 고급관료가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지도층이다. “현홍섭(玄洪燮)은 도청 국장으로, 그의 집은 대지(垜地)가 삼백 평에 건평이 팔십 평이나 되는 호화로운 저택이었다. 해방 직후에 맨주먹으로 월남한 그가 관리생활 십여 년에 이제는 누구 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 지불하는 봉급은 살림을 꾸려나기에도 부족하련만, 무슨 상재(商才)가 있어서 치부(致富)를 하였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 집의 “높다란 담장 위에는 철조망이 겹겹이 쳐 있건만 그리고도 안심치 않아서 웨퍼-트를 기르”고 있다. <현홍섭>의 집을 보면서 <강병철>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자신의 집에는 높은 담장을 쌓고 거기다가 철조망을 치고서도 모자라서 세퍼트까지 기르는 게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라는 것이다. <강병철>은 그것을 보며 “자기 집에 철조망을 두르기에 바쁜 사람들이, 과연 도난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정책을 얼마나 수렴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나만 안전했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이, 도둑을 낚아치기 번식시키는 직접적인 결과가 된다”고 생각한다(17회). 민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만의 안위를 도모하는 고위공직자를 비판하는 것이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

에 ‘언제나 무방비상태로 있는 서민층’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인식이다.

⑤ 현홍섭도 족자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젊었을 때에는 서화에 대해 아무 취미가 없었는데, 나도 나이를 차차 먹어오니까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이제는 완당(阮堂) 글씨를 꼭 한 폭 구해야 하겠는데, 완당 글씨는 좀처럼 구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야!”

하고 혼자말 비슷이 중얼거린다.

강병철은 그 소리를 듣자 하마트면 폭소를 할 뻔 하였다. 완당과 추사는 동일인이라는 것을 현홍섭은 모르는 모양이었다.

강병철은 폭발하려는 웃음을 억지로 참아가며,

“아저씨! 완당과 추사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고 넌지시 깨우쳐 주었다.

그러나 현홍섭은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원 천만에! 완당과 추사가 같은 사람일 리가 있다. 완당은 완당이고 추사는 추산데!”

세상에 무식처럼 무서운 것은 없는 상 싶었다.〔슬픈 목가, 19회〕

국장직위의 고급관료인 <현홍섭>이 ‘완당(阮堂)’과 ‘추사(秋史)’가 모두 김정희(金正喜)의 호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작가 정비석의 생각으로는 당시 우리 나라 고급 관료들 중에는 실제로 그런 무식한 부류들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런 관료들이 일하는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할 리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인 듯하다. 더구나 작품의 후반부에 가면 <현홍섭>이 차관으로 승진까지 하게 된다. <강병철>은 외삼촌 집에 저명인사들의 이름이 달린 축하 화환과 화분이 넘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는 판에, 꽃다발이 무슨 빌어먹을 꽃다발이란 말인가. 백성들이 기아의 아우성을 외치게 된 것이 누구의 죄이기에, 고급 공무원이 무엇을 잘했다고 꽃다발인가” 하고 반발한다. 더욱이 그것이 <현홍섭>이 차관으로 승진한 데 따른 것임을 알고는 “국장으로 한 일이 무엇이며 그에게 무슨 경륜이 있다고 차관으로 승진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권세를 쥐고 흔들게 되면 장차 이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되려는 것인가?”라며 탄식한다(234회).

『슬픈 목가』에는 공무원들보다는 소매치기가 사회에 덜 해악을 끼친다는 논리도 등장한다. 소매치기 두목 <한도숙>은 “쓰리꾼들은 어느 한 사람의 포켓나 털어먹지만, 소위 공무원이라는 사람들 중에는 국가의 공금을 예사롭게 털어먹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면서 “감투를 썼다는 사람들이 회전의자에 버티고 앉아서 국고금을 먹어

삼키는 최악에 비기면, 개인의 호주머니를 털어먹는 것쯤 문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변한다(12회).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임이 드러나고 있다.

<현홍섭>이 조카 <강병철>에게 재무부 취직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말하는 장면(21회)을 보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왜 그렇게까지 심각한가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현홍섭>이 재무부 공무원으로 근무하기를 권하는 이유는 ‘국물’이 많아 수지가 맞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부수입을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현실에서는 공무원들이 ‘국고금을 깎아먹거나 백성들의 등을 쳐먹거나’ 온갖 수단을 쓰면서 부수입을 챙김으로써 치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현실이기에 공무원의 부패에 비하면 소매치기들의 행위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한도숙>의 발언에 <강병철>은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⁶⁰⁾

「슬픈 목가」에서는 정치권과 폭력배들의 밀접한 관련양상에 대해 서술되기도 한다.

⑥ “실은 나와 무척 가까운 사람으로 정치가들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엇그제 그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 말이 어떤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사람을 많이 동원할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나더러 사람을 좀 모아달라고 그러더군요.(……)”

(……) 김상원의 말대로 정치가들과 인연을 맺어두면 확실히 유익한 점이 많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단원들을 통한다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정치가들에게 이용을 당하는데 불과한 일인데 사람을 이용하고 나서는 헌신짝처럼 차버리기가 일쑤인 정치가들이 과연 자기네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줄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었다. (……)

그뿐이 아니었다. 그들이 자기네를 동원해서 어떤데 이용하려는지는 모르나, 한도숙 자신으로서도 정치가들에게 그런 이용은 당하고 싶지 않았다. 쓰리군을 이용해서 올바른 일을 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었다.(「슬픈 목가」 88회)

⑦ “그래, 유명한 정치가한테 술 한 잔 얻어먹은 것이 그렇게도 영광이유?”

“이년아?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았다는데 그러네! 그분이 내 손을 꼭 붙잡더니, 황 선생의 힘을 빌어야 할 시기가 있을지 모른다구 하면서 간곡히 술을 권하지 않아! 성인이 능지성인(能知聖人)이라고 정치가도 일류썸 되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거든!”

60) 공무원들의 부패와 관련하여 「연가」에는 “민중의 공복(公僕)인 공무원이 주권자인 백성들에게 제왕(帝王)의 우세를 가지고 군림(君臨)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나라의 사회실정인데, 것처럼 주객(主客)이 전도(轉倒)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가 순조롭게 육성되지 못하는 최대의 원인은 공무원들의 월권 행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89회). 국민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래 당신 같은 불한당을 데려다가 뒷에 씨먹을 작정이랍디까?”

“이 똥물에 튀해 죽일 년 좀 봐! 나더러 불한당이랴구? 자고로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고… 때만 오면 내가 너같은 년의 기둥서방 노릇이나 하고 있을 줄 아느냐?”

“……”

말이 말 같지 않아 한도숙은 대꾸도 아니하였다. 그러면서도, 김상원이가 쓰리군을 정치 행사에 동원시키려고 계획하던 일을 연상해 보면, 황현대의 말이 전연 허풍 같지는 않았다. 정치가들이 부랑배를 어떻게 이용하려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정정당당해야 할 정치에 불한당을 이용한다는 그 자체가 정치의 부패상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 같아, 한도숙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슬픈 목가」 93회)

⑥은 소매치기조직의 두목 <한도숙>과 부두목 <김상원>간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행사에 소매치기들을 동원하는 세태에 대해 소매치기 두목조차 한심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다. 소매치기를 이용해서 올바른 일을 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이용했던 것이다. ⑦에서처럼 불량배인 <황현태>에게도 정치인들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소매치기들만이 아니라 불한당·불량배들을 정치권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정당당해야 할 정치에 불한당을 이용한다는 그 자체가 정치의 부패상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1공화국 당시 이정재·임학수·유지광 등 정치깡패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이용되었던 사실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판단된다.⁶¹⁾

「슬픈 목가」에서는 <한도숙>이 소매치기 생활을 청산하게 됨에 따라 그 조직에서 새로운 두목을 선거를 통해 뽑게 되는데, 그 소매치기 조직의 선거에서도 매수와 환표(換票) 등 정치인들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그러면서 “일반 사회에서는 선거 때마다 매수와 환표 사건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신문지상으로 흔히 보았지만 그런 사건이 자기네 세계에도 있을 줄은 몰랐다”는 <한도숙>의 탄식도 서술된다(150회). 이러한 서술을 통해 작가는 ‘정치인’과 ‘소매치기’는 도덕성에서 동격(同格)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 작품에서는 농촌문제(57회), 매춘문제(16회)에 대한 정치가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가 하면 지도층인사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특권의식을 비판하기도 한다(25회). 이렇듯 「슬픈 목가」는 여러 부면에서 사회부패상에 대한 지도층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회재건의 당위

61) 1950년대 신문소설에는 깡패가 선거에 출마하는 사례가 묘사되는 경우가 있다. 여대 졸업생을 포함한 첩이 다섯이나 있으며 국회의원에 출마한 경력까지 있다는 「젊은 설계도」의 <추억태>란 깡패가 그런 인물이다(15회).

성을 역설하는 사회성이 강한 작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격랑」에서는 정치와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최금희>는 “유능한 정치가라고 불리우고 싶으면 싶을수록 책략과 허위를 일삼아야 하는 모양”이라며 선거운동이란 거짓말 경쟁이라고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가라는 건 출세를 위해서는 어떤 부끄러움도 창피도 무릅”쓰다면서 “양심이란 걸 가져서는 정치가가 될 수 없”다고 흥분한다(133회). 정치와 선거에 대한 강한 불신은 다음에도 표출되고 있다.

⑧ “왜요? 사람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여넘기는 건 외려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있는 세태야요. 속는 사람이 바보죠.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혼줄이 나아 해요.”

“미쓰 최는 무서운 소리를 하는구려.”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요. 보세요. 지금 민의원 선거가 최종단계 아녜요? 우리 아버지란 이도 입후보를 했지만 당선이 되겠다는 사람일수록 어찌구 어찌구 사람들을 속여 넘기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부터두 부정한 돈으루, 관권 금권을 발동해서 뻔한 거짓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금희는 식사할 것도 잊어버리고 말을 계속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이들은 틀림없이 당선이 될 꺼예요. 그래 당선이 된다 하고 혹 그 사람의 공약이 현실의 장벽에 부딪쳐 실현이 못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 약속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느낄 줄 알아요? 어림없어요. 속는 사람이 잘못이라니까요. 맞치지 못하는 복표(福票)나 마권(馬券)을 산 사람은 그 산 사람이 손해를 볼 뿐이에요. 누가 그런 복표를 사고 그 따위 인간들을 뽑으랬어요?”(「격랑」 159회)

<최금희>는 민의원 선거가 관권과 금권을 동원한 부정선거라며 그들에게 속아서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 사람들의 공약을 믿으려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말한다. 자기 아버지부터 그런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또한 민의원 선거를 “민중의 모든 행동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차단기”요 “인권을 유린하고 사회의 공명(公明)과 명량을 짓밟고 있는” 선거로 규정하면서 모두가 속임수라고 비난한다(170회).

「애정화원」에서는 관리들의 부패 등에 대해 대학생 <송진옥>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 공복이라는 관리가 허턱 직권을 팔아서 뇌물을 건어들어기가 일수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바친 고귀한 세금으로 관록을 먹으면서 도리어 국고금을 훔쳐서 사복을 채우는 일까지 허다반하게 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그들은 “무역을 빙자하고 밀수품을 들여다가 국가 경제를 파괴하고 거기서 얻은 부당한 이득으로 고급요정에서 만판 향락을 일삼으며 갖은 독소와 부패의 균을 흘뿌리고 있으니 생각하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고 흥분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자유당 정치가 왜 이런 건 처치를 못하는지 우리들은 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실정치를 비판하고 있다(95회).

「생명」에서는 지도층의 부도덕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다. <전창님>은 중학생 동생이 학교 등록금을 못낸 것을 비판하여 자살한 데 대한 책임이 사회의 물지각한 지도층 인사들에게 있다고 역설한다. 그녀는 “이권을 얻으려고 할 때는 정부에다 별별 약속을 다하고 문화사업이니 교육사업이니 국방사업이니 모가지라도 베어다 바칠 듯이 날뛰다가도 몇 십억 환이나 몇 백억 환을 남기고 나서는 국가와 정부에 했던 맹세는 헌신짝같이 버리는 배신자, 악질 모리배”들 때문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한다(7회). 또한 지도층 인사들의 매음 행위도 거론된다. 미군부대 주변에서 펌프(pimp) 노릇을 하고 있는 대학생 <이진>은 처음에는 “통역을 할 때마다 무슨 죄나 짓는 듯 얼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으나, 며칠 지나고 보니 “기가 막히게도 미군에 얼러 무슨 국장이 오시는가 하면 어느 날은 젊은 과장님이 오셔서 숙자를 안구 자”고, 또 다른 날에는 자신이 수강하는 강좌를 맡은 대학강사가 찾아오더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당 간부도 미군 장교를 앞세우고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는 데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사뭇 눈알이 캄캄해지”더라고 흥분한다(133~134회). 이 같은 매춘에 대한 인식은 작가 김말봉이 해방 직후 공창(公娼) 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던 사실⁶²⁾과 관련이 있다. 이 작품에서 특히 다음과 같이 공권력의 무능을 비판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⑨ 정미는 아버지의 분해 하시는 것을 보자 여지껏 과출소 순경이 와주지 않는 것이 비로소 생각이 났다.

전화한 지가 벌써 다섯 시간이 넘었다는 일이 왈각 정미의 부화를 일으킨다.

“아버지 경찰은 뭇 하자고 생겨먹은 것들이야요? 도둑이 들어왔으니 곧 좀 와달라고 허겁지겁 전화를 걸었더니 곧 간다고 대답은 딱딱듯이 해 놓고 여지껏 개미코가 아냐요?”

“순경 올 리 없지”

김한주 씨는 별로 흥분하지도 않는다.

“어째서 그래요?”

“어째서라니, 도둑이 들었다면 잘못 덤비다가는 도둑놈들에게 맞아 죽는 수도 있으니까, 비실비실 피하려 드는 거다. 개중에는 용감한 순경도 있다만”

62) 김선목, 「한국 여성해방사에 빛나는 폐창 민권운동」, 정하은 편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종로서적, 1986), 181~185쪽 참조.

“그럼 우리는 경찰도 못 믿고 살겠어요?”

“군인은 믿고 살겠니? 요새 같으면 호젓한 곳에서 군복 입은 사람만 보면 대개는 마음이 찻해진다”

“아이 속상해”

정미는 어깨를 흔들고

“아버지, 그럼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해요?”(『생명』 74회)

어머니 <허 여사>가 계원들에게 떠밀려 쓰러지는 바람에 혼수상태가 되자 <김정미>는 경찰을 불렀다. 그러나 ⑨에서 보듯 경찰은 다섯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없다. 국가와 사회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나 군인을 믿고 살기도 힘든 현실이라는 것이다. 정치인도 관료도 공권력도 모두가 제 잇속만 챙기면서 부패해 있다. 그 와중에 민중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간다.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누구에게도 기댈 언덕이 없는 세상, 그것이 1950년대 민중들이 겪고 있던 현실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지도층과 부유층 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결국 1960년의 4·19혁명을 가져온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당대 신문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 그것은 당시 독자들의 ‘보복적 쾌락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보복적 쾌락심리란 자신이 현실에서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경우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판단되는 대상들을 향해 가학을 함으로써 쾌락을 느끼는 심리를 말한다. 즉, 1950년대 대중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신들의 삶을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지도층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는 그들이 증오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허구 속에서나마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봄으로써 쾌락을 얻고 싶어하는 대중들의 심리를 작가들이 적절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2) 무규범성의 사회와 물질만능주의 비판

1950년대 사회는 ‘무규범성(無規範性; normlessness)’의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무규범성이란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社會的 規範이 붕괴되거나 행위의 법칙으로서 더 이상 효과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서술한 뒤르켐(Emile Durkheim)의 아

노미(anomie)의 서술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으로 용인되지 않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높은 期待感”을 말하는 것이다.⁶³⁾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배경을 등에 업거나 금품·유 흥 등을 제공하면서 원만한 일 처리를 부탁하는 풍조가 사회에 만연했다는 것이다. 이런 무규범성이 지배하다 보니 사회는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게 된다. 정상적인 규 범이나 가치가 무력해지는 혼돈의 상태였던 것이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비증 있게 취급함으로써 지배적 형식에 대항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우선 무규범성의 양상은 뇌물청탁형과 권력동원형으로 요약된다. 이른바 ‘사바사바’ 와 ‘백’⁶⁴⁾이 만연한 사회의 양상으로서, 이 두 단어는 1950년대의 부패한 세태를 명징 하게 드러내는 말이다. 1950년대 신문소설을 통독해 보면 이런 세태가 작품마다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남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의 장면들은 그런 세태를 잘 보여준다.

① “그것쯤 가지고 뭘 그러세요. 그보다 더한 것도 사바사바루 통하는데…”

“그보다 더한 것도 사바사바루 통해? 뭣이 그것보다 더한 거냐?”

“많지 뭐예요…”

“그래서 네가 네 선생님을 위해서 아버지께 사바사바하는 중이구나.”

“그러나 선생님이 날더러 아버지께 사바사바하라고 하신 건 절대루 아니예요. 방학 동안 한 번도 뵙지 못했는 걸요. 물론 내가 선생님에게서 와이로를 먹은 것두 아니구요.”

“와이로?”

임동호 선생은 어처구니없다는 듯이 웃다가 훈계처럼 말했다.

“사바사바나 와이로 같은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아.”

“왜요? 모두들 쓰는데 나만 안 쓰면 이야기할 때 통하나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와이로’는 뇌물이라고 번역한다손 치더라도 ‘사바사바’는 뭐라고 해야 될까? 문득 임동호 선생은 어떤 중학교 교사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국어시험에 ‘교섭’(交涉)이란 낱말의 뜻을 쓰라고 했더니 한 아이가 ‘사바사바하는 것’이라고 했더라는.(『부교』 45회)

② “아버지 오늘밤에는 수지맞으셨는데요…… 누가 보결청탁이라도 있었던가요?”

아들놈은 맹랑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63) 정문길, 『소외론 연구』(문학과지성사, 1979), 210쪽. 이 부분에 대한 정문길의 논의는 시 이맨(Melvin Seeman)의 소외(疎外)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64) ‘사바사바’란 소곤거리듯이 남몰래 이권과 관계되는 일을 청탁하는 것을 일컫는 卑語이고, ‘백(back)’은 후원하는 사람이나 세력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원낙영 교수는 오직 아연할 뿐이었다. 칠없는 자식놈의 입에서 그런 기괴망칙한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다. 입학시기에는 술만 한잔 먹어도 자식놈조차 무슨 교제라도 받은 줄 아는 모양이니, 개탄을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탄만 하고 대답을 아니하면 아들의 질문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좌우간에 대답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에끼 이 녀석아! 무슨 그런 되지 않는 수작을 하느냐!”

“아버진 괜히 저까지 속이려고 그러세요. 교제를 받으셨기로, 제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줄 아세요?”

“하하하 세상은 참 큰일이로다. 너까지 그런 소릴 하게 되었으니 세상은 인제 아주 말세로구나!”

원낙영 교수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양천대소를 하였다.

동근은 천천히 따라오면서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 무슨 걱정이세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조심하세요. 괜히 선불리 교제를 받다가 아차 잘못하면 망신하세요”

하고 제멋대로 단정해버린 뒤에, 주재님은 충고까지 들려주는 것이 아닌가.(「낭만열차」 12~13회)

①은 「부교」에서 여고 2학년생인 <임용희>와 의사이자 음악평론가인 <임동호> 사이에 오가는 부녀간 대화내용이다. 여고생이 ‘사바사바’니 ‘와이로’니 하는 말을 쓰면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다. 특히 ‘교섭’의 뜻을 쓰라는 국어시험문제에 대해 ‘사바사바하는 것’이라 답했다고 하는 일화는 당시 사회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고등학생에게도 뇌물수뢰와 청탁이 아무렇지도 않게 비취지는 세태는 「낭만열차」에서도 ②와 같이 그려진다. 대학교수인 아버지가 술 한잔 마시고 온 것을 보고 <원동근>은 보결입학에 관한 건 등의 청탁과 뒷거래가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그것을 부인하는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심하라는 충고까지 건넨다. 고등학생인 그만이 아니라 큰아들인 대학생 <원동준>도 공무원인 딸 <원설영>도 아내도 모두 입학 학기가 되면 으레 대학교수에게 청탁의 대가가 생기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들은 ‘메뚜기도 한때’라며 ‘이번 기회’에 아코디언·양복 등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다(17~18회).

그러면 권력동원과 뇌물청탁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학교나 은행 등과 관련되어 권력동원과 뇌물청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아울러 취업·승진·비리무마·세금탕감 등과 관련해서도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묘사된다. 우선 학교와 관련된 권력동원과 뇌물청탁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학교와 관련되어서는 입학과 성적 문제 등이 주로 부

정의 대상이 된다.

③ “(……) 그래도 학업 성적이 하향하면 학점을 딸 수가 있나?”

“호호, 사장님은 아직 모르시는군요. 그거쯤은 문제도 아니에요. 아무리 시험을 못 쳐도 교수님을 만나서 차 한잔만 잘 사면 학점도 나오는 수가 있답니다.”

(……)

“사장님! 모르시죠. 전 대학에 입학할 때도 시험에 낙제를 하고 돈으로 입학했어요. 우리 학교 주임교수란 사람이 아주 얼마를 내라고 까놓고 말하는 데야 어떻게 하겠어요.”

“……”

“호호호 참 재밌는 세상이지? 지금 세상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고 하는데 신성한 학교라고 사바사바가 없을 리 있겠어요?”

“그분들도 다 밥먹고 사는 인간이라, 하긴 그런 수도 있겠지.”

“물론 교수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도 유독 돈 탐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누구 하면 우린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제 또 보세요만 얼마 아니면 입학 씨-즌이라, 돈에 기갈 든 교수님들, 마누라 금반지라도 해 주려고 눈이 빨개서 날떨 때가 왔어요. 호호호호.”
(『애정화원』 35~36회)

『애정화원』에서는 학교 관련 부정이 횡행하는 현실이 잘 그려지는데, ③은 입학과 학점이 모두 돈과 뇌물청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있음을 보여준다. <허영숙>은 시험을 잘못 치러도 교수를 만나 차 한잔만 잘 사면 학점이 나온다면, 자신이 대학에 입학할 때도 시험에 낙제를 해서 돈으로 입학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성한 학교라고 사바사바가 없을 리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입학시즌만 되면 ‘돈에 기갈 든’ 일부 교수들이 ‘마누라 금반지라도 해 주려고 눈이 빨개서 날떨’ 것이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또 여자대학의 영문과 교수인 <길명선>이 부정입학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는다. 그는 학과장 <양 선생>의 부인이 놓고 간 돈 뭉치를 고급 관료 딸의 부정입학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아내를 통해 전달받는다. <박내명>이라는 외자청 국장의 딸이 공부 못하면서 일류대학에 들어가겠다고 하여 시험도 보기 전부터 돈 뭉치를 싸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다. 특히 <양 선생>이라는 영문과 주임 교수는 연중행사처럼 부정입학의 대가로 돈을 챙기고 있음이 나타난다(73~74회).

『푸른 날개』에서도 여고교장과 사촌인 교사 <권상오>에게 토건회사 사장인 <박경래>가 자기 딸의 보결 입학을 청탁하는 부분이 나온다(9~12회). <박경래>는 교장과 접촉할 때 필요한 교제비는 얼마든지 대겠고, 수교료도 두둑하게 주겠다고 하며, 우

선 봄양복이라도 해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권상오>를 유혹한다. <박경래>는 이어 양담배와 수표 등을 내놓고 식사를 대접하며 계속 청탁한다.

「형관」에서는 대학입학과 관련된 뇌물청탁과 세태가 드러난다. 토건업자인 <정홍서>가 X대학 교수를 잘 안다는 금융조합원 S씨에게 십만 원을 대어 동생의 대학입학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동생은 낙제하고 말았으며 S씨는 돈을 돌려주기는 커녕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고 <정홍서>는 불만을 터뜨린다(27회).

「계절의 풍속도」를 통해서도 당시에 입학과 관련된 부정이 난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들 <박진국>의 중학교 입학시험 낙방으로 인해 <송자옥>이 교장·교무주임·후원회장은 물론 백만 환 내면 책임진다는 브로커까지 만나 각종 수단을 써가며 보결 입학을 위해 쫓아다니는 상황(173회)이 그것이다.

「자유부인」에서는 S대학 국문과 졸업반 <원효삼>이 현금 3만 환이 든 과자상자를 주면서 학점을 올려달라고 부탁하자 대학교수 부인 <오선영> 여사가 흔쾌히 수락한다. <오선영>은 “화교회원인 어떤 고관마누라는 은으로 만든 반상기 한벌을 받고, 동창생의 남편을 무슨 회사 과장으로 취직을 시켜 주었다고 하지 않았던가”(89회)라며 남들은 더한 것도 하는데 그간 게 무슨 대수냐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도덕불감증의 세태를 드러낸다. 그러나 남편 <장태연> 교수는 이미 <박은미>로부터 <원효삼>의 성적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부는 아니 하고 사바사바해서 점수를 얻으려”(85회) 한다며 거절한 터여서 <오선영>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자 그녀는 남편 몰래 30점인 점수를 80점으로 고쳐준다.

다음, 은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합당한 담보물의 설정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하면서 뒷돈이 오가는 것이 그 대표적인 양상으로 포착된다.

「격랑」에서 <최금희>가 은행 영업부장인 <김옥>에게 부정대부를 부탁하는 장면(57회)에서는 감정을 허위로 해서 대부한다거나, 규정보다 많이 대부한다거나, 뺄을 동원해서 대부하거나,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은 것을 담보물로 설정하여 대부하는 등 부정대부의 여러 양상이 서술된다. 아울러 어느 은행의 영업부장대리가 횡령 사건에 걸려들었는데 “삼 년 동안에 받은 은주전자만 아홉 개”이고 “그밖엿 뇌물은 자기 자신도 얼마를 먹었는지 모르”더라는 이야기도 나온다(58회).

④ “뇌물을 보내기는 보내야지요?”

“부탁을 하는데 사실 빈손으로 할 수야 없지”

“보증수표를 보내나요?”

“건 안되, 수표는 뒤에다 찾아간 사람의 이름을 적거든. 사건이 드러날 때 이걸루 해서 발각이 나기 쉽단 말야. 그래서 요즈음 그 방식은 통 쓰이지 않아요”

“그럼 역시 캐쉬(現金)루 하나요? 과자 상자 아래 현금을 주욱 깔고 그 위에다 과자를 살짝 덮어 보낸다드구면”

“아니 것두 구식(舊式)이야”

“구식?”

“도진희(都晋熙)사건 이래 더군다나 그 방법은 안 쓰게 되었지. 도대체 그 방식은 위험한 방식이었어. 본인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아이들 입에서 말이 흘러나올 수도 있고 사건이 드러날 때 문제화 될 수도 있고—”

(……)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를 알아내어야 한단 말이지. 셋다를 하는 게 취미냐? 혹은 마작을 좋아하느냐? 그런 걸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끌어내어 슬슬 돈을 잃어주는 거야. 뇌물로 주고 싶은 정도의 돈을 그런 방식으로 잃어 주는 게 보통이지”(「격랑」 59회)

뇌물을 주는 방법이 ④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중역들에게 어떤 식으로 뇌물을 전달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데, 수표는 발각되기 쉬워서 곤란하고, 한 동안 많이 쓰던 현금을 다른 선물인 것처럼 위장하여 전달하는 방식도 위험하므로, 최근에는 도박관에서 일부러 뇌물로 주고 싶은 만큼의 돈을 잃어주는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은행원 <손창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태풍지대」에도 부정대부 현상이 만연했음이 그려지며, 「애정화원」의 <황원태> 사장도 부정대부 혐의로 수배된다.

다음, 비리를 무마하거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뇌물청탁과 권력동원은 「초혼가」, 「흑백」, 「빙하」, 「별아 내 가슴에」, 「화관의 계절」 등에서 볼 수 있다. 「초혼가」에는 은행부정대부 문제, 학교장의 뇌물수취 등과 관련하여 그것을 추적하여 기사화하려는 <박성인> 기자를 매수하기 위한 갖가지 행태가 그려진다.

⑤ “어느 신문사라구 하셨던가?...”

“에 대한일보올시다...”

“아 그럼 바루...내 김 사장하구두 잘 알지...요 며칠 전에 다방에서 편집국장두 만나 뵈구...아하...그래요...”

사장과 면식이 있고 또 편집국장을 아니까 저윽히 마음이 놓인다는 눈치다. 그런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방에까지 찾아들어 와서 새과란 애송이에게 인사를 청하지 않더라도 될 것을

그랬구나 하는 기색도 없지 않다.

(……) 박 상무는 성인이가 고개를 푸욱 수그린 것으로 보아 자기 말대로 일어설 줄 알았는지
“그러나…기왕에 이렇게 오신 분을 대접상이라두 내 어찌 그대로야 보내드리겠소?… 또
들구 보니 알만한 처지두 되구 게다가 종씨라니…”

하며 안주머니에서 알팍한 돈지갑을 꺼내서는 둘로 접은 종이쪽을 내놓는다.

열린 보기에도 수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일랑 그대로 돌아가 주시구서…또 종종 만납시다…하하하 언짢게 생각지 말구…”

박 상무는 성인의의 한쪽 손을 끌어당기어 수표를 쥐어준다.(「초혼가」 23회)

은행에 근무하는 <박 상무>는 신문사 사장과 편집국장을 잘 안다고 ‘백’을 동원하는 한편 부정대부 사건을 눈감아달라는 뜻으로 <박성인> 기자에게 십만 환의 수표를 건네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기자를 매수하기 위하여 <강성영>과 기생 등 여자를 동원하면서 노골적으로 육탄공세를 감행하는 장면도 나온다. 교장 비리와 관련 있는 한 건축업자는 <박성인> 기자를 요릿집으로 데리고 가서 출세를 시켜준다느니 여자를 붙여준다느니 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148~149회).

기자에게 뇌물로 청탁하는 장면은 「흑백」에도 나타난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기자에게 촛지를 주는 상황이 그것이다. <손갑성> 사장은 아들 <손춘호>가 여배우 <공미주(남예성)>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며 향도일보 사회부장 <오국주>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넨다(112~113회). 그러나 이 사건은 대서특필된다.⁶⁵⁾

⑥ “그렇지만, 뭐, 대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아마 이삼일 중으루 나오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요?”

“네? 하하… 다 되는 수가 있습니다. 좀, 돈이 들지만, 몇 놈 먹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돈 마련하려 다니는 중입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먹이다뇨? 누굴 먹여요?”

65) 「흑백」에서는 이밖에도 돈과 향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장면이 나온다. <최명훈> 감독의 영화에 주연배우로 촬영하고 있던 <공미주>가 문제를 일으키자 그녀의 아버지인 <공창수> 사장이 딸의 문제를 적당히 해결하기 위해서 향응을 베풀며 비서를 통해 돈을 건네는 것이 그것이다. 비서는 돈 봉투를 건네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기생과 동침하게 해주겠다고 최 감독을 유혹한다(39회). 그러나 <최명훈>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결국 그는 <공창수>의 뜻을 거역했다 하여 그 영화를 계속 맡아 할 수 없게 된다.

“누구나구요? 하하하… 그건 당분간 비밀입니다. 그럼 택에서 그냥 기다리구 계십시오. 뭐 경찰서두 면회가실 것두 없습니다. (……)”(「빙하」, 196회)

⑥에서처럼 「빙하」에서는 <최건호>가 밀수혐의로 붙들려가자 돈을 써서 석방운동을 벌인다. 밀수혐의로 붙들려 갔는데도 몇 사람에게 돈만 ‘먹이면’ 다 나올 수 있다는 <손가>의 말은 결국 현실이 된다. 법망이라는 것도 몇 사람에게 돈을 주어 청탁하면 다 피해 갈 수 있는 1950년대 한국사회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별아 내 가슴에」에서 <홍정숙>은 밀수혐의 등으로 형사들에게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장관이라는 권력을 동원해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꾀를 쓴다. 그녀의 행태에 화가 난 형사들은 “천하만사를 사바사바로만 되는 줄 았았”느라며 뺨을 때리고 수갑까지 채워버린다(166회).

「화관의 계절」에서도 교통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고 차량이 국회의원의 것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들통나서 혼나는 장면이 나온다(5회). 무엇이든지 권력을 동원하면 다 통한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세태가 잘 드러나고 있다.

다음, 취직이나 승진에 관련된 권력동원은 「환희」, 「민주어족」 등에 나타난다.

「환희」의 <오상권>은 10위권 이내의 우수한 성적으로 법대를 졸업하게 되는 청년이다. 그런 그가 첫 번째는 아버지의 친구, 두 번째는 육촌형, 세 번째는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취직해 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좌절하고 만다. 그 이유는 든든한 배경이 없었기 때문이다. 취업 알선을 해주려던 고등학교 동창생이 “역시 ‘뺨’ 앞에서는 나는 한 개 지푸라기밖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네”라고 하자 <오상권>은 “십번 이내로 졸업할 수 있는 내가 ‘뺨’이 필요한가?”라며 탄식한다(2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배경이 없으면 취직하기 어려운 1950년대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어족」에서는 승진이 합리적인 단계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배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실이 나온다. 사세청에 근무하던 <배영환>이 은행장인 아버지의 힘으로 전매청 과장으로 영전되며, <배영환>은 또한 앞으로도 적당히 지내고 있노라면 “아버지가 적당한 시기에 또 다시 영전도 시켜 주고, 전직도 시켜 주려니 생각”한다(46회). 그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당시로서는 그런 일이 당연시될 정도로 비일비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세금감면이나 병역문제와 관련된 청탁과 권력 동원 양상도 나타나는데, 「낭만열차」나 「계절의 풍속도」가 그런 점들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낭만열차」에는

세금 감면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동원하려고 한다(21~22회). 요릿집 <최 마담>은 적당히 손만 쓰면 50만 환의 영업세를 절반 수준으로 탕감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인 <권달수>에게 청탁한다. 그의 주변에서도 80만 환의 영업세를 중간에 사람을 내세워 40만 환으로 탕감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계절의 풍속도」에는 병역과 관련된 청탁과 권력 동원의 세태가 적나라하게 제시된다(56회). 돈만 쓰고 배경만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제대하는 경우도 있고 입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수많은 고관과 권력층의 자제들이 이 뺨과 돈의 구멍으로 쭉쭉 빠져나갔”는데, 그 방법도 여러 가지다. 외국으로 나가거나 이름만 군적(軍籍)에 올랐다가 귀휴병(歸休兵)이 되거나 건강한 청년에게 등급 이하의 판정을 내리거나 갖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온통 “뺨이나 금전의 줄”을 마련하여 병역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1950년대 사회에서 뇌물과 권력을 동원하는 각종 청탁을 일삼는 현상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만연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게 뒷거래와 배경에 따라 어두운 곳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려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비합리가 일상화된 무규범성의 사회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권력과 금력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반면 이렇다할 세력이 없는 민중들은 무규범성 사회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신문소설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그런 세태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전쟁 후의 1950년대 한국사회는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물질만능주의가 횡행했다. 모든 현상이 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환가치가 지배하던 사회였다. 그 가장 대표적인 양상이 ‘계바람’이었다. 특히 1955년 1월에는 ‘광주 계 사건’이 터졌는데, 이는 계가 핑크나자 자살하거나 미친 가정주부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이혼소송도 일어나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계바람이 1950년대 사회에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을 말해준다. 당시의 신문보도⁶⁶⁾에 나타난 광주 계 사

66) “전국에 약 七천중(當局發表)의 사설계(私設契)를 사기(詐欺)의 ‘도가니’로 인식하게 한 만치 광주(光州) 사설계 사건은 중앙은 물론이요 전국적인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실정을 살피고 돌아온 광주(光州)출신 국회의원 정성태(鄭成太)씨는 九일 “혼란을 가져오게 된 주요 원인은 경찰이 ‘계’일체를 해체시키고 계주를 함부로 구속한 데서 생긴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친 사람, 죽는 사람까지 생기게 된 이 사건은 국한된 지방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되었으니 만큼 사태수습이 여의치 않으면 국회에 제의까지도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정 의원이 말하는 현지 실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광주에서 사설계가 성행하게 된 동기는 상무대(尙武臺)를 출입하는 조달(調達)상인들의 자금융자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것이 발전하여 상가(商街)는 물론이고 각 가정에까지 확대되어 시내에서의 가입자만도 약 八천명에 달하며 이 계돈 총액을 경찰에서는 약 八억환으로 보나 자기는 약 二억환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건의 전모를 보면, 광주시내에서의 계 가입자만 약 8천명에 이르고, 그 총액은 2억~6억 환이며, 8명이 자살하고, 6명이 정신이상자가 되었으며, 자살미수자가 속출하는 가 하면, 이혼소송까지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 문제는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주된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1950년대 부유층 부인들이 댄스바람과 더불어 계바람을 몰고 다녀 사회적인 과장을 일으켰음은 「생명」 등에서 잘 나타난다.

⑦ “계 때문에 도처에 소동이야. 우리 아는 아주머니 한 분 계 때문에 패물이며 집이 날라간 것은 고사하고, 남편에게 이혼당했다”

하고 혜옥이가 고개를 흔든다.

“비겁한 남자로군”

하고 정미가 입을 비죽 한다.

“아니야 비겁한 것은 여인이야. 이혼당했다고 수면젤 먹고 자살해 버렸으니”

“저런?”

정미는 비명처럼 커다랗게 소리를 질러놓고 입을 다물어 버렸으나 으쓱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간다.(「생명」 55회)

광산업체 사장인 <김한주>를 남편으로 둔 「생명」의 <허 여사>는 계주로서 계 문제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는다. 갯돈을 내놓으라는 계원들의 아우성 때문에 그녀는 중병환자처럼 되고 말았다(52회). <허 여사>의 이런 상황을 딱하게 여긴 딸 <김정님>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 <유화주>에게 돈을 빌리러 가게 된다. ⑦은 <혜옥>과

그리고 자살자 八명 미친 사람 六명에 자살미수자는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혼란을 가져오게 된 원인은 작년 六월부터 十월에 걸쳐 광주시 전반에 걸쳐 돈이 유통이 되지 않은 탓으로 계주(契主)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실정을 경찰에서는 사기 또는 횡령으로 구속하게 된 데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며 현재도 광주시내 가정부인들은 돈 받으러 다니느라고 살림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혼(離婚)소송도 튀겨져 나오는 웃지 못할 비극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이같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현지유지들은 수습찬동자 약 一천명을 포섭하여 매인당 二만원씩을 거출 이를 자금으로 해서 혼란을 막으려고 하고 있으나 경찰에서 못하게 하는 탓으로 수습도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도(道)지사는 공무원으로서 ‘계’에 가입한 자는 자진 해산에 응하지 않으면 처분한다고 경고만 내릴 뿐 수습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광주’계혼란의 파문」, 『한국일보』(1955.1.10.)).

같은 신문 같은 날짜에는 「황’마담을 기소」라는 제목 아래 서울에서 처음으로 계주가 기소되었다는 다음의 기사도 실렸다. “사기 계(契) 사건으로 구속 송청되었던 시내 명동(明洞) ‘썬데이’다방 마담 황(黃宜壽=五四) 씨는 八일 기소되었는데 이는 계 사건 관계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것이다.”

함께 <유화주>에게 가는 도중에 차 속에서 오간 대화다. <혜옥>이 아는 한 아주머니가 계로 인해 집과 패물을 모두 날리고 이혼까지 당하자 비판하여 자살했다는 것이다. <정미>는 더욱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유화주>를 만난 <정미>는 급전을 부탁해 본다. 그러나 <김한주>의 정부(情婦)인 <유화주>가 돈을 빌려줄 리 만무하였다. <김한주>는 회사가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유화주>의 꺾어 넘어가 수표를 써주면서도 정작 계 문제로 곤란한 입장에 있던 아내 <허 여사>에게는 도움을 줄 수 없었다. <허 여사>는 결국 계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만다. 흥분한 계원들로부터 돈을 돌려달라고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뇌진탕으로 입원했으나 끝내 회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계 문제는 1950년대의 물질만능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별아 내 가슴에」에는 계가 불륜의 온상이 된다는 것으로 그려진다. 계주들은 반드시 돈을 모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즐기고자 하는 의도에서 돈 많은 남자들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남편밖에 모르며 집안살림만 하던 유부녀들은 “계 모임에 나가서 동무들과 사귀는 화려한 회합도 재미나거니와, 남자 회원과 회식 때마다 춤춤으로써 자기 남편 아닌 딴 남자에게서 새로운 매력과 흥취를 가지며 재미를 붙이”게 된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암전하던 가정부인들이 계 때문에 외출이 잦아지고, 동무들과의 모임에 재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남자 회원과 더불어 처음 마주 대할 때나 처음 춤출 때는 얼굴을 붉히던 현숙한 자세가 외방남자와 자주 사귀으로써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여 종래 자기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하던 한 매력과 흥취를 가지게” 됨으로써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니 “계를 미끼로 하여 남녀가 자주 만남으로 해서 둘끼리의 밀회도 생기고 나중에는 난봉으로 발전하는 것이다.”(117회)

「형관」에서는 <정혜련>이 남편(권상구 대위) 몰래 들었던 계가 깨지는 바람에 곤혹을 겪는다. 계주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바람에 그녀는 마음고생을 무척 많이 한다. 이런 딱한 처지를 보고 의협심이 강한 <고현주>가 계주를 위협하여 결국 갯돈을 받아내지만 그때까지 그녀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다. 당국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일이니 신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동안 부었던 돈을 포기할 수도 없는 계 선의의 계 피해자들의 심정이었던 것이다(12회). 전문적인 계꾼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창」의 <이채순>도 계 바람의 피해자다. <이채순>은 교수인 남편의 책값을 마련하기 위해 계를 시작하였으나 불행히도 깨지고 만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다니다가 은행간부 <황 씨>에게 몸을 빼앗길 뻔 하는

가 하면 급기야는 죄책감으로 가출까지 하게 된다.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위기까지 갔다가 교통사고를 계기로 용서를 받는다.

이러한 계 문제 이외에도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물질만능주의의 양상을 보여주는 요소들은 많다. 출세지향의 배금주의자, 돈을 위해 몸을 파는 여자, 돈으로 공천 받아 돈으로 선거하고 돈으로 선거구도 거래하는 정치인 등 갖가지다.

「생명」에는 <오현무>가 출세지향적이며 배금주의적 성격을 가진 인물로 등장한다. 단신으로 월남하여 어렵게 대학에 다니고 있는 그는 소설 전반부에서 경제적 배경 등의 환경적 요인 때문에 <김정미>를 좋아한다. 가출한 <김정미>에게 <오현무>가 빨리 귀가하라고 설득하는 장면에서 보면 <오현무>는 자신의 야망을 펼치기 위해 <김정미>를 택했다고 노골적으로 말한다. <김정미>는 아버지가 광산업을 하는 부잣집 외동딸이었던 것이다. <김정미>가 가출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녀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현무>는 자신이 출세할 수 있도록 제발 집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한다(18~19회). <오현무>는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김정미>와 사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녀와 결혼하는 것보다는 출세를 위해서 미국유학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잘라 말한다(51회). <오현무>와 <김정미>는 관계를 더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 헤어지게 된다.

「화관의 계절」의 <민수산나>는 끊임없이 물욕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30대 중반의 영화배우인 그녀가 53살의 <허인규>에게 접근하는 것은 단지 <허인규>가 갖고 있는 16억 환의 어마어마한 재산 때문이다. <민수산나>는 돈은 힘이고 마술사라고 인식할 정도로 돈에 대하여 강하게 집착한다. 그녀는 돈이 생기면 우선 제일 좋은 차부터 사겠다고 결심한다. 그러기에 돈 많은 <허인규>가 추파를 던지는 것을 ‘황금의 찬스’로 생각하고 그녀는 그 길로 <허인규>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간다(50~53회). 다이아몬드를 선물 받은 뒤 아양을 떨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접근한 그녀는 결국 <허인규>에게 부인이자 애인이 되겠다며 몸을 바친다(82~85회). 그렇게 해서 <허인규>의 마음을 끈 다음에 그녀는 20대의 청년 <송창욱>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돈과 육체로 유혹한다. 그녀는 <허인규>로부터 돈을 빼내어 <송창욱>에게 주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송창욱>에게 자신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부탁하는데(136회), 이는 돈으로 애욕을 거래하는 물질만능주의의 한 현상이다.

「원색지대」에는 물질만능의 인식을 갖고 있는 여대생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 당시 여대생들은 금전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돈을 구하기 위하여 갖은 짓을 다한다. 비밀만 보장된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팔기까지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돈 앞에

는 여성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순결(純潔)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다.”(25회)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던 순결이데올로기마저도 물질만능주의 앞에서는 이미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실낙원의 별」의 <이애리>도 물질만능주의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대학을 중퇴하고 양조장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여성이다. 그녀는 남자들에게 ‘웃음을 판다.’ 그녀가 웃음을 파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다. 여섯 식구를 봉양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80회). 정조보다 물질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원색지대」에서와 마찬가지로 물질만능주의와 함께 1950년대 사회에서 젊은 여성들의 정조관념이 매우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⑧ 이튿날, 고 전무는 통 애리의 웃음에 호응해 오지를 앉았다. 웃음을 웃어주어도 본척 만척, 엄지손가락으로 차무린 수염만 못살게 건드리며 푸푸 담배 연기만 호기 있게 내뿜고 있었다.

그 이튿날도 그랬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랬다.

그러한 고전무가 애리에게는 다소 걱정이 되고 있었다. 웃음이 도시 팔리지가 않는다. 웃음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생사에 관한 문제라고, 단골손님을 놓친다는 것은 풋내기 장사꾼이 하는 것이다.

그런 줄을 뻗히 알고는 있으면서도 팔리지 않는 웃음을 어찌는 도리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좀더 실속 있는 상품을 만들어보려고 애리는 전에 비하여 갑절이나 짙은 웃음을 요염하게 웃어 보였다. 그래도 고 전무는 표정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애리는 하는 수 없이 고객의 범위를 확장하여 고사장에게 웃음을 발송하는 한편 고 전무에게 탄 상품을 팔아보기로 했다.

눈 하나를 감아 보이는 상품이 마침내 팔렸다. 그날 저녁 고 전무는 똑같은 아서원에서 저녁을 샀다.(「실낙원의 별」 87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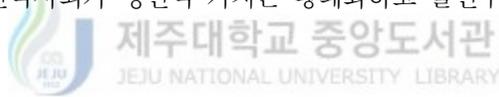
<이애리>는 웃음이라는 ‘상품’을 팔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쓰는가 하면, 부자간인 <고종국>과 <고영해>에게 동시에 웃음을 팔기까지 하고 있다. 전통적인 윤리관념에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이후 그녀는 <고종국>의 도움을 받아 댄스홀 마담이 된다. 이런 점들은 물질만능주의가 윤리 등 정신적 가치들을 약화시키고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격랑」에서 보면 정치가 돈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인식도 나타난다. 아버지가 민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두고 <최금희>는 가장 큰 문제가 돈이라고 한다. “공천을 받는 데 두 돈, 받아놓고도 돈”이 있어야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61회). 정치가들

도 돈만 많이 주면 선거구를 거래하기도 한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돈 앞에는 빈부귀천이 모두 무릎을 꿇는 게 현실이었다(136회). 물질만능주의가 얼마나 당대 사회에 만연해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여성들의 허영이나 사치풍조도 물질만능주의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다. 백금 팔찌, 다이아몬드 귀걸이, 비취 브로치, 금딱지 손목시계 등 그녀의 몸에 치장한 장신구 가격만 해도 “육칠십만 환이나 되는 지폐가 휘감겨 있는 썸”(26회)일 정도로 사치가 극심한 「흑백」의 <공미주>나, 꼭 고급택시만을 골라 타려고 하면서 왜 궁상스럽게 ‘냅아빠진’ ‘털털이 택시’를 타느냐고 불만으로 털어놓는(138~139회) 「낭만열차」의 국회의원 딸인 여대생 <권채옥> 등은 물질적 영역만을 추구하는 철저한 속물이요 배금주의자라 할 수 있다.

이렇듯 1950년대에 들어서 정신적 가치는 급속도로 황폐화되고 물질만능주의가 삶의 영역을 지배했다. ⑨와 같은 「자유부인」의 <한태석>의 발언은 당시 사회에서 물질만능주의가 절대적인 위상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는 외국인의 입을 빌려 우리 나라처럼 화폐 가치가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없다고 말한다. 그만큼 1950년대의 한국사회가 정신적 가치는 황폐화하고 물신주의가 팽배한 사회라는 것이다.



⑨ “돈이면 못할 일이 없으니, 돈이 제일이지 뭐니까? 일전에 누가 어떤 외국인더러 「인 푸레」관계로 화폐가치가 자꾸 떨어져서 큰 걱정이라고 말했더니 그 외국사람 말이, 너희 나라에서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깐, 너희 나라 화폐처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화폐가 어디 또 있느냐고 그러더라나요. 그야말로 명담(名談)이죠, 하하하”(「자유부인」 42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950년대의 물질만능주의 세대는 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신문소설에 반영되고 있다. 실제로 발생한 ‘광주 계 사건’처럼 계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신문소설에서도 그려지고 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불륜을 저지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계 문제와 더불어 여대생들이 돈 때문에 몸을 팔고, 돈을 미끼로 애욕을 추구하며, 돈으로 공천받고, 돈으로 선거구를 거래하고, 돈이라면 선악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세태, 여성들의 사치 등도 서술되어 있다.

요컨대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지도층의 부패상과 정치불신 세태, 권력동원과 뇌물청탁이 난무하는 무규범성의 사회, 물질만능주의 풍조의 형상화 등을 통해 사회

비판의식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배적 형식에 대한 대항의 양상인 것이다. 그러나 그 한계는 그런 점들이 작품에서 전면적으로 집요하게 문제 삼아 추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3) 실천적 사회재건의 계몽성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나는 사회재건 의지는 주로 청년들이 자각하거나 혹은 뜻 있는 기성세대들의 도움을 받으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주된 양상이었다. 그러한 실천은 폐허된 국토의 상황과 부패한 사회를 딛고 개척정신을 발휘하는 모습으로 구현되었다.

195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학교육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해방 당시 대학출신자가 8천여 명에 불과했는데 전쟁 중에 오히려 급증하더니 1950년대 중·후반에는 그 증가세가 정체되었다가 1960년도에는 10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유학생도 급증했다. 이리하여 1960년 현재 대학생과 대학출신자가 38만여 명에 이르렀다.⁶⁷⁾ 그러나 대학생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사회는 그들을 수용할 만한 여력도 없었고 준비태세도 되어 있지 않았다.

높은 실업률 또한 젊은이들의 희망을 박탈해버린 중요한 문제였다. 전 인구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실업자들 중 대학 졸업자는 4분의 1이 넘어서 혹자는 대학을 ‘실업양성소’라 비웃기도 하였다. 현대에 들어 가장 참혹했다고 기록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 상황과 이 무렵 우리 대학생들의 취업난을 비교 연구한 미국의 헨더슨 교수는 우리 대학생들의 졸업 후의 실업상태가 독일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실업을 도피하거나 연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였다.⁶⁸⁾ 이런 현실은 자칫 젊은이들을 좌절과 방황으로 헤매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희」에서는 <오상권>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인재이면서도 취직 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고개를 넘으면」에서는 대학원생인 <한진수>가 “사정은 긴급한데 건실한 젊은이들은 뒷전만 치구 있지 않나? 무능한 선배들은 호구지책을 위해서 그 자릴 붙잡구 죽어두 못놓지? 해마다 학원에

67) 임대식, 앞의 논문, 139~140쪽.

68) 배경식, 「‘모던 보이’에서 ‘X세대’까지」, 한국역사연구회,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2』(역사비평사, 1998), 198쪽.

서 쏟아지는 일꾼들은 갈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그러니 에너지의 소모는 말할 것도 없구 이러한 태만이 국가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느냐 말야”(152회) 라는 발언으로 고학력 취업난을 걱정한다. 대학에서는 계속 젊은이들을 대량으로 배출하는데 기성세대인 무능한 선배들은 호구지책으로 그 일자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런 현상이 우리 사회를 발전 시키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슬픈 목가」에서도 “한두 사람의 언동으로 대학생 전체를 판단할 수 없는 일이지만, 뺨이 없으면 아무리 우수한 대학 출신이라도 취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미 상식화된 문제인 상 싶 었다”(49회)며 대졸자 취업의 어려움을 진술하고 있다. 「격랑」에서 보이는 “어떤 우수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청년이 취직이 되지 않아 자살을 기도하던 무렵이었다. 취직이란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 줄을 몰랐다”(139회)는 서술은 당시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① “일곱 명이 붙었는데 백오십 명이 응모했나 봐요.”

“아이유, 거기(신문사 취직시험=인용자)두 굉장한 경쟁률이었군.”

탄성을 지르던 임동호 선생은 천천히
“이러다간 대한민국 청년남녀는 죄다 공무원과 신문기자가 되겠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겨우 십여 명이 붙는 고등고시에 삼천 명 가까이 응시하고 일곱 명 채용하는 기사시험에 백 오십명이나 지원했으니 말이지…”

“그거야 취직난이 심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야 그렇지만, 그런 것만도 아닐꺼야.”

“그건 왜요?”

“직업에 대한 신념(信念) 다시 말해, 이게 내 천직(天職)이다 하는 생각으로, 응시하거나 응모하는 게 아니라, 파스 되면 공무원이 되구, 직장에 채용되니까 욱하고 몰려드는 심리가 좋지 않다 말이지…아무 실력도 없이…”(「부교」 36회)

십여 명이 선발하는 고등고시에 삼천 명 가까이 응시하고 일곱 명 채용하는 기사 시험에 백오십 명이나 지원했다는 말에서 취직난의 심각성이 확인된다. 이런 현실에 대해 <임동호>는 사회도 문제지만 젊은이들이 신념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데서 빚 어지는 결과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의 발언에서 보듯이, 당시 상황에서 청년들에

게 요구되는 것은 모순된 현실을 타개하고 개척해 나가려는 자세다.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신념을 토대로 한 실천이 절실한 때였다.

취직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또 다른 길로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청년상이 당대 신문소설에서 제시된다. 「슬픈 목가」는 1950년대 신문소설 중에서 청년들의 개척정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소설이라 할 수 있다.⁶⁹⁾ 부패한 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가진 청년들이 황무지 개간사업을 벌여나가는 작품이다. <강병철>과 <김경호>가 그 주역이다.

<김경호>는 일류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한 스물다섯 살의 청년으로서, 아버지의 소망이기도 했던 이상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고향인 동래로 떠난다. 그는 떠나기 직전에 강병철에게 “대학을 졸업한 수만명의 고등 롬펜들이 구더기처럼 등실거리고 있는 서울 바닥에 남아있어 보았자,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인가”라면서 현실을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몸소 부딪쳐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1회).

그가 고향에 간 뒤 처음으로 보내온 서신의 내용에서는 쓸모 없이 내버려두었던 땅을 개간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특히 <김경호>가 강조하는 것은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피땀을 흘려 일해야 한다는 논리다. ‘조국 재건’을 강조하고 있는 그는 “화려한 다방에 도사리고 앉아 차를 마셔가며 예술을 말하고 철학을 논하는 서울의 인텔리들”이야말로 쌀이나 축내며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조국의 배반자’라고 역설한다(57회). <김경호>의 편지는 장황하게 이어진다. 그는 농촌사정을 알아본 결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희망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농민들이 도탄 속에서 허덕이면서도 농토에 대한 애착심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음은 황무지 개간에 관한 것이다.

② (……) 지금 우리 나라의 경작(耕作)면적은 전체 국토의 이할오부밖에 안 되네. 나머지 칠할오부의 방대한 국토를 그냥 내버려 두고, 좁다란 이할 오부만 이용해 먹으면서 죽느니 사느니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남은 토지는 임야(林野)나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험악한 산악지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토지라는 것을 나는 단언할 수 있네. 덴막(丁抹)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토질이 촉박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국토의 칠할팔부를 농토화했는데,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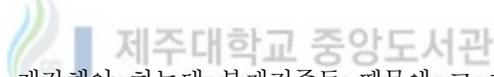
69) “東亞日報에 「슬픈 牧歌」를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에선 大學生이나 일반 讀者들에게 相當히 좋게 反映되고 있는 것 같”다는 당대의 평을 보면, 이 작품이 연재당시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김광섭 외, 「문학과 신문문화면(좌담회)」, 『자유문학』(1957.9.), 91쪽.

리는 어째서 방대한 국토를 그냥 내버려두고 굶주리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국토개간이라는 위대하고도 거룩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줄 아는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몇 사람의 부재소유주(不在所有主)들일세. 자기 땅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임야를 독차지하고 앉아서 개간도 못하게 그냥 내버려두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국가적 손실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기에 나는 농지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는 임야개혁이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네. 지금 사장(死藏)되어 있는 임야를 농민들에게 개방하여 혹은 농토로 개간하고, 혹은 목장으로 이용하고, 혹은 조림(造林)지대를 만든단 말일세. 우리들에게는 그만큼 정렬과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깐 만약 그것을 잘만 개척해 나간다면 십년 후에는 집집마다 격양가를 부를 수 있을 걸세.

병철군!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 우리 손으로 개간한 땅에 감자 이천포기를 심었으니 금년 여름에는 감자를 먹으러 꼭 한번 내려오게. 감나무 오백주와 밤나무 삼백주도 심었지만 그것은 십년 후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네. 자네도 아예 서울바닥에서 방황할 생각 말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게. 조국은 자네한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네. 텐막이 오늘날 지상 천국을 이루게 된 것은 ‘다르가스’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의 힘이었다 하거니와, 자네나 나 같은 사람도 ‘한국의 다르가스’가 못되리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슬픈 목가』 58회)



방대한 황무지를 개간해야 하는데 부재지주들 때문에 그 개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것이 <김경호>가 지적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과 당면 과제다. 개간할 땅에 감자와 감나무·밤나무 등을 심었다는 그는 ‘한국의 달가스’가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강병철>에게 ‘아예 서울바닥에서 방황할 생각 말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김경호>의 편지에 <강병철>은 상당한 자극을 받는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부재지주들의 임야를 개간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한 것이다. “멀리 남쪽나라에서 김경호군이 개척사업을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는 서울 근방에서 그 사업에 투신하여 남북이 서로 호응한다면 커다란 꿈이 전국적으로 실현될 것”(59회)으로 믿은 <강병철>은 개간사업의 결심을 굳히고 부재지주인 외삼촌에게 그 뜻을 밝힌다. 그러나 외삼촌 <현홍섭>은 임야를 개간하겠다는 <강병철>의 요구에 허튼 짓 말라고 한다. <강병철>은 <현홍섭>의 허락을 얻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실행에 옮긴다. 월남민이면서 토지와 농사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남자로서만 구성된 열세 명의 개척단원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임야에 천막을 치고 개간을 시작한다.

그런 와중에 <김경호>는 또 편지를 보내오면서 자신의 일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음을 알린다. 그 편지 내용이란 처음으로 감자 열두 가마니를 캐었고, 곧 보리타작을 할 것이며, 지난 봄에 심은 500그루의 밤나무 묘목에서 400여 그루가 살아났는가 하면, 내년 봄부터는 양계·양돈 등도 병행함으로써 본격적인 낙농생활을 해 보겠다는 것이었다(117회). <김경호>는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다. <강병철>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착실히 개척촌을 건설해 나간다.⁷⁰⁾ 개척촌 사람들의 첫 수확에 따른 기쁨을 형상화한 장면(215회)은 매우 역동적으로 그려진다. 대원들은 개척촌의 개간지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작물인 콩을 갖고 오랜만에 집에 다녀오기로 하고 마당질을 한다. 따라서 그 기쁨은 매우 컸다. 기운이 부쩍 난다며 익살스러운 농담까지 주고받는 개척촌 사람들의 모습은 생명력이 넘친다. 특히 ‘기운차게 내리죽치’, ‘벼락같이 내리죽칠 때’, ‘와스스 쏟아져’ 등의 표현을 통해 역동성을 배가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런 장면을 접하면서 희망과 위안을 느꼈을 것이다. 전후의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에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신문소설을 통해 확인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현실의 어려움을 감내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리라 여겨진다. 작가는 이처럼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현장을 작품에서 구현함으로써 사회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경중을 울리면서, 한편으로는 독자대중들에게 희망과 기대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할 수 있다.

「슬픈 목가」에서 특히 두 젊은이의 행위는 작가가 매우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다. 못쓰는 임야를 개간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으로 폐허된 국토의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창조적인 정신으로 사회재건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거친 땅을 개척하여 논밭으로 만드는 일은 황폐한 사회를 뜯어 고쳐 새 조국을 건설하자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거기에는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창」에서도 청년들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은 농촌 출신의 <한현주>라는 여대생이 어려운 생활형편 때문에 피를 팔기도 하면서 어렵게 공부를 하다가 결국 졸업하면서 귀향을 결행하는 내용이 그려진다. <한현주>

70) 「생명」에서도 「슬픈 목가」와 같은 귀농(歸農)과 개간 관련 화소가 나온다. <김기철>은 “해방 전에는 이백 이십만 정보(町步)의 농토였던 것이 해방 십년에 삼십만 정보가 목전이 되었”고 “개간만 하면 훌륭한 농토가 될 수 있는 땅이 오십만 정보나 사람의 손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미개간지 오십만 정보에다 목전밭 삼십만 정보를 합하면 모두 팔십만 정보”가 된다며 “팔십만 정보가 논과 밭이 된다면 팔백만석의 추수가 들어온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땅을 일구어 양돈·양계·양봉·양토(養兔) 등을 하면서 희망을 키우자고 한다(134~135회).

의 서울생활에서는 학비를 대준다는 명목으로 무역회사 사장인 홀아비 <유창근>이 음흉하게 접근하기도 하고, 병든 아내가 있는 의사 <이인배>가 연정을 품는 가운데 진실하게 돕고자 하는가 하면, 친구의 오빠인 <황재봉>도 그녀에게 호감을 갖는다. 그녀를 둘러싼 세 남자의 접근에 따른 갈등이 작품의 흥미를 돋우는 주된 요소로 작용한다. <한현주>는 귀향을 결심하기 전까지도 늘 농촌생활에 대한 뜻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③ 시골에 가서 있는 동안 옛날 四·H 클럽의 꿈이 되살아와 준다면 몸에 배인 서울에 대한 모든 미련과 도시인으로서의 사고방식을 훌훌 털어버리고 농촌처녀가 되어도 좋지 않으나 했다.

더우기 요새 와서는 농촌문제가 빈번하니 지도자를 입에 오르내리기도 한다. 언제인들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떠들지 않은 바는 아니지마는 잡부금이 六십 몇 종이니 하며 국회에서 말썽이 되고 농림장관이 쫓겨나고 법석을 피우는 품이 이번에는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설 것 같기도 보인다. 이번 분위기에 휩쓸릴 것만도 아니지만 현주는 덴마크에 관한 책도 두어가지 사서 읽었고 불과 반세기 동안에 원시국가이던 덴마크가 현대국가로서의 면목을 갖추기까지의 경로도 뒤져보고 있던 터라 일생을 농촌에서 보내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창」 70회)



다소 농촌문제에 대한 현실인식이 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한현주>는 농촌재건에 대한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적을 통해 덴마크의 사례를 익히면서 농촌에서 일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작품의 말미에서 농촌의 재건에 힘써 보겠다고 완전히 서울을 떠난다. 그녀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황재봉>도 원칙 없는 농촌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농촌생활에 뜻을 둔 청년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한국은 농업국이니 만큼 대담하게 중농정책(重農政策)을 세워야 한다”면서 “중농정책만 선다면 토지개량 수리사업 유희지 개간(遊休地開墾) 영농(營農)자금협동조합 부업장비 중자개량 비료알선—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는 사람이 농림행정을 주관하게 된다는가 경제의 에이·씨·씨도 모르는 사람의 농업경제 운운한다고 해서 이 농촌이 재건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인다(115회).⁷¹⁾ <이인배>도 남다른 사회재건의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의사로서 피를 파는 여대생 <한현주>를 사명감을 갖고 도와주던 그는

71) 「창」의 <황재봉>의 생각처럼 이무영은 이 즈음 다른 글을 통해 농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농촌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생각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무영, 「농촌과 문화—농촌담당의 행정자(行政者)를 계몽시키라」, 『새벽』(1956.7.), 313~314쪽.

작품의 마지막에 가서는 농촌의 재건을 위해 떠나는 <한현주>와 동행한다. 작가의 식은 결국 귀향을 통한 재건의지 발현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낭만열차」에 나오는 <김창현>은 “겨울방학 동안에 혼자서 이백 명이나 한글을 깨우쳐 주었”(46회)을 정도로 대단한 열정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을 소유하고 귀향교육을 행하는 등 사회재건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민주주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격이라고 주장하”(29회)는 정치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가진 청년이기도 하다. 정치가 빈곤한 탓에 농촌이 피폐하며 곡창지대에서도 양식이 떨어진 농가가 많다고 주장하던(27회) 그는 시골에서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대학원을 중퇴하고 내려가기로 결심한다. 굶는 아이가 거의 전부이며 교원들은 뿔뿔이 흩어져버려서 폐쇄 위기에 처한 농촌의 학원을 맡아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면서 귀향교육에 힘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190회). 그는 대학 국문과를 졸업해 문교부에 근무하고 있던 <원설영>과 함께 낙향하여 그 일을 하게 된다.

「낭만열차」에 나타나는 귀향교육 화소는 「제이의 청춘」에도 나온다. 「제이의 청춘」의 <최영호>는 잡지사 편집장으로 근무하다가 시골에 내려가 학교를 경영한다.

④ ‘학교를 경영한다면 굉장한 것으로 들릴지 모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촌을 중심으로 한 인근(隣近) 여러 촌에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으나 상급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동과 청년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을 모아 놓고, 중고등학교의 기본 과정을 가르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라면 하나 변변한 교사(校舍)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방 전후부터 있던 다 낡은 양잠실습소 집을 동네 사람들의 힘을 모아 비가 새지 않을 정도로 수리해서 쓰는 것입니다. 서울의 중고등학교같이 대학입학시험을 위하여 존재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 그들이 받아들이는 능력에 따라 중고등학교 정도가 될 지식을 여러 모로 전달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설픈 짝이 없는 수업상태지마는 제가 전에 선생노릇을 얼마 동안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간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객기(客氣)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일을 시작하게 만든 것도 그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제2의 청춘」 204회)

<최영호>가 낙향하여 잡지사 사장 <윤필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국민학교(초등학교)를 졸업했으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동과 청년을 모아놓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다. 변변한 학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원도 혼자인 형편이다. 학교를 위해 투자하고 싶다는 독지가를 만나기 위해 오랜만

에 상경한 <최영호>는 연인 사이였다가 관계가 소원해진 <백은주>를 찾아간다. 그는 <백은주>에게 함께 낙향하자고 청한다. “굳세고 더욱 뜻있는 삶을 가지기 위해서는 농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265회). 결국 <백은주>는 이러한 <최영호>의 제의를 받아들여 농촌으로 향한다. 『낭만열차』에서 <김창현>의 뜻에 따라 <원설영>이 함께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상황 설정이다.

『사랑』에 등장하는 <이혁>도 사회재건의지를 잘 드러내는 인물이다. 그는 무역회사 사장인 이모부의 도움을 마다하고 대장간 일을 하며 고학으로 대학에 다닌다. <이혁>은 자신의 역사를 ‘피와 땀의 연속’이라고 인식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대장간 일을 한다. 특히 그가 운영하는 철공소라는 공간과 거기서 이루어지는 작업 양상이 주는 역동성·남성성의 이미지가 생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 점이다. ‘쨍’, ‘땅땅’, ‘불끈불끈’, ‘펼덕펼덕’, ‘툭툭’, ‘팍팍’ 등의 의성어·의태어를 통해 ‘창조의 신비성’, ‘창조의 정열’, ‘창조의 능력’을 힘차게 표출해낸다(135회). 이런 힘찬 일터를 갖는 것이야말로 전화의 폐허 속에 침체해 있던 대중들의 소박한 꿈이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작가는 대중들의 꿈을 허구 속에서나마 실현시키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불러일으키려고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혁>은 작품의 말미에서 자신의 방탕했던 삶을 뉘우치는 이모부 <황 사장>의 요청으로 진분공장을 맡아 경영하게 된다. 그는 일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터를 마련해 주고 싶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장차 부지런히 일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재단을 건립하겠다는 꿈도 키운다(268~269회).

『민주어족』은 사회재건의지를 잘 드러낸 작품이다.⁷²⁾ 이 작품의 <홍병선>은 일본

72) 『민주어족』 연재를 앞두고 작가는 애국심에 불타는 몇 사람이 사회개혁을 실천하는 노력을 그려보겠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팔일오와 동시에 우리 나라도 민주해방이 되었다. 민주주의란 모든 사회기구가, 인민을 위하여, 인민에 의하여 운영되어 나가는 인민의 정치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실로 다시없이 좋은 정치체제라고 생각된다. (……) 그런데, 우리 나라가 민주해방을 맞이한 지 이미 십년이 경과한 오늘날, 아직도 민주주의에 이상 있다는 소리를 간간히 듣게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거기에는 필연코 무슨 곡절이 있기 때문이리라. 민주해방도 일종의 사회개혁임에는 틀림이 없다. 사회개혁인 이상에는 새로운 사회의 구현을 위한 국민각자의 실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각자가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각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의무와 권리가 짝서 있게 수행될 때 비로소 참된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이므로 국민각자의 그에 대한 노력은 그것이 바로 애국심이기도 한 것이다. 나는 이번 소설에서 애국심에 불타는 몇 사람의 그러한 노력을 그려볼까 한다. 내가 그려보려는 것은 몇 사람의 사생활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국민 전체의 공통된 행동 목표가 될 수 있다면 작자로서는 양외의 광영이겠다.(……)”(『한국일보』(1954.12.4))

와세다대학 공학부를 졸업하고 민생알루미늄제작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26살의 청년이다. 택시도 한 번 안 타본 그는 통일 전까지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 그는 지도층이 썩어 있으면서 말로만 백성들에게 이래라저래라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의견을 표명한다(91회). 그는 밤을 밝혀 원서를 읽는 등 알루미늄제작소 연구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며 <박재하> 사장이 모함으로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에는 갖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회사를 살리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화관의 계절」에서는 신문기자 <송창욱>이 깡패 소탕 사업을 벌인다. 일거리를 장만해 주고, 좋은 샴을 주고, 두둑하게 밥을 먹여 주고, 저녁이면 그럴듯한 교육영화를 무료로 구경시켜 주고, 운동을 시켜주면 깡패가 근절된다는 생각을 갖는다(196회). <송창욱>의 깡패 소탕 사업은 다소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측면이 보이지만, 소설 속에서의 그의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력 있게 진행된다. 개인의 영달보다는 사회적 실천에 힘쓰는 청년상이 강조되고 있다.

「고개를 넘으면」의 「바인클럽」 회원들의 경우 개혁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대학원생 또는 대학생들이다. <한진수>는 부족한 전력(電力)에 따른 발전(發電)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며(13회), <윤형빈>은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라의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120회), <박철규>는 나병에 관한 연구에 진력하고 있음을 밝힌다(225회).

「형관」의 주인공 <고현주>의 의협심도 당대 젊은이들의 개척정신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도둑을 붙잡아도 도둑의 처지가 딱하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넘기지 않고 오히려 돈을 주어 도와주며, 양공주 <최복희>의 딱한 처지를 도와주다가 살인까지 하게 되기도 하며, 계 문제 등으로 곤경에 처한 친구부인인 <정혜련>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초혼가」의 신문기자 <박성인>과 교사 <현일엽>, 「푸른 날개」의 교사 <권상오> 등도 사회재건과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인물이다.

이렇듯 1950년대 신문소설 중에서는 취업난 등의 문제에 굴하지 않고 새 농촌 건설, 귀향 교육, 비리 척결 등에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서 행동하는 젊은이들의 사회재건 의지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 적지 않다.

아울러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뜻 있는 기성세대들이 모범적인 실천을 통해 청년들의 귀감이 되거나 청년들과 함께 행동함으로써 그들의 재건활동을 돕는 경우가 적잖이 드러난다.

「민주어족」에서 <박재하> 사장의 경우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권위를 배격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추구한다. 사장실이라 하여 특별히 치장하지도 않고 점퍼를 입고

다니며 ‘義務는 忠實히, 權利는 正當하게!’라는 라는 구호를 강조하는 인물이다. 그는 여사원인 <강영란>을 당시 통레처럼 ‘미스강’이라 하지 않고 ‘강군’이라 부르며, 자신에게도 ‘사장님’이라 하지 말고 ‘사장’이라고만 부르라 한다(5회). 그리고 그는 연구원 <홍변선>에게 마음대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자금을 제공한다(34회). 그러니 그의 공장은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산현장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⑤ 직공들은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기계를 상대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어떤 기계 앞에는 세수대야가 쌓이고, 어떤 기계 앞에는 땀비가 쌓여갔다.

“직공들 표정이 모두 이상하게 엄숙해 보이죠?... 지금 저 기계들은 일초 동안에 몇 천 회전(回轉)이라는 맹렬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죠. 따라서 직공들이 조금만 부주의하다가는 언제 어디서 어떤 부상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주의와,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대한 열성이 한데 뭉쳐서, 저절로 이런 표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유. 말하자면 필사적인 표정이죠!”

박재하 사장의 설명이었다.

(.....)

“공장을 돌아보고 나니가 어쩐지 인생의 동맥(動脈)을 구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란은 견학한 감상을 솔직히 말하였다.(『민주어족』 32회)

『민주어족』에 나타나는 ‘민생(民生)알루미늄제조소’의 활기찬 모습이다. 직공들의 모습을 ‘진지’하고 ‘엄숙’하며 ‘필사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입사원 <강영란>은 직공들의 열성적인 작업 장면을 보면서 ‘인생의 동맥’과 같음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인생의 동맥은 나아가 사회 전체의 동맥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모습들이야말로 사회를 진정 살아 꿈틀거리게 하고 힘차게 전진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무언하에 오직 실천이 있을 뿐’인 공장은 <강영란>이 이제껏 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전연 별개의 세상’이었다. <강영란>은 민생알루미늄제조소에서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느낀 것이다(34회). 시간 엄수, 보건에 대한 관심과 배려, 도시락 지참 등을 통해 매우 생산적이고 활기찬 회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서술도 있다. 즉, 출근시간을 엄수하는 대신에 퇴근시간만 되면 사장이 남아 있거나 맡거나 그날 업무만 보고하고 퇴근하는가 하면, 점심시간에 모든 직원이 함께 체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돼지고기를 무상 제공하는 등 보건에 힘쓰며, 직원이 모두 도시락을 지참하고 다담으로써 각종 청탁이나 근무태만 등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 이 회사의 특색이다(35회). 당시로서는 이런 점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양상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일이었다. 폐허를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1950년대에서 그런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백성을 살리는[民生] 길임을 작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박재하>는 이 사회를 혼란스럽고 부패한 사회라고 전제한다. 그러기에 사회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 맞서 투쟁하는 방식에 대해 사회 현실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개인적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싸워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다. 현실도피는 패배사상이며 현실을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62회). 실제로 그는 정계 요인과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데도 굴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그들의 모함으로 경찰에 붙들려 가기까지 한다. 『민주어족』의 민주적인 회사운영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된다. <박재하> 사장은 모함으로 끌려가 형무소 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직후 사원들에게 획기적인 회사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⑥ “(……)이왕부터 그런 생각을 못해온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기회에 내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이 민생‘알미늬’는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이만한 기초를 닦게 된 것도 여러분의 힘이었고, 앞으로 발전이 있다면 그것 역시 여러분의 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기회에 우리 공장을 주식회사로 조직하되, 종주권의 절반은 창설당시부터 공로자 여러분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 반부는 종업원 여러분에게 적절히 분배하여, 민생‘알미늬’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강구하겠습니다.(……)”(『민주어족』 226회)

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창립 멤버에게 절반의 주권을 주고, 나머지는 종업원에게 배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회사가 종업원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영원히 발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적인 삶을 몸소 실천하는 인물이 아닐 수 없다. 전후 사회의 복구와 재건을 위해서는 이런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작가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슬픈 목가』의 <최홍섭> 판사는 청렴결백을 몸소 실천하는 법조인이다. <강병철>은 고향 선배인 <최 판사>의 집을 방문했다가 조반을 함께 먹게 된다. <최 판사>의 독촉을 열 번이나 받은 후에 그의 부인이 주저하면서 갖다 놓는 밥상의 초라함은 <강병철>을 놀라게 한다. 콩보리밥에 된장찌개 하나만으로 식사하는 사법관의 모습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강병철>은 “우리 민족의 양심은 살아 있구나!”라며 감격한다(46회). <최 판사>는 예비역 중위 <강병철>에게 젊은이로서 참된 길을 걸어가라

고 일깨워 준다. <최 판사>는 “우리 나라는 모든 방면이 아직 황무지 그대로”라고 진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재건에 힘써주길 바란다. 그는 “고고한 지사형(志士型)의 인물이 되기보다는 대중 속에 뛰어들어, 대중과 더불어 생활하고 대중과 함께 진진하는 인물”, 즉 “행동성 있는 참된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강조한다(46회). <강병철>은 이런 최 판사의 말에 감동하고 용기를 얻어 훗날 임야를 개간하며 개척촌 건설에 나서게 된다.

「슬픈 목가」의 <염창훈> 영감은 이북에 있을 때 독농가로서 명성이 높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강병철과 함께 개간 사업을 지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맞부딪치는 갖가지 난관을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영웅적 존재로 부각되어 나타난다. 개척촌 일행이 개간 작업 일주일만에 양식이 떨어지게 되자 인근 농가에 모내기 품팔이를 하게 하여 위기를 극복케 한다. 두 번째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는 개척단을 해산하는 문제까지 거론되는데 그때에도 개간 작업 시에 파낸 돌을 읍내에 내다 팔자며 보통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발상으로 당면한 위기를 넘기도록 한다. 그는 <강병철>이 애정문제로 <이선옥>과 <한도숙>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에도 빨리 일을 매듭짓도록 하는 등 <강병철>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그는 ‘백절불굴하는 정신적 강인성’을 발휘하고 있다. <강병철>의 개척정신은 <최홍섭>과 <염창훈>의 지도와 실천으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망인」의 <화숙모친(회장마님)>의 경우도 선각자적 실천을 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금성 전물미망인 원호회 회장’으로서 직업소개 등 전쟁미망인들을 돕는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그녀는 총각인 <홍식>과 미망인인 <명신>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녀는 막무가내로 반대하던 <홍식부친>을 설득하여 전쟁미망인 명신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한다. 그녀는 얼키고설킨 사건들의 실타래를 일거에 푸는 해결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부교」의 <임동호>도 모범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의사이며 수필가이자 음악평론가인 그는 노년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김남주>의 애정갈등, <최금희>의 방황 등을 수습하는 데에도 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다. 그에게서도 해결사적 면모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뜻 있는 기성세대의 지도와 실천은 청년들의 개척정신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들은 작품 속에서 해결사적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대개 지식인들이지만 <염창훈>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950년대 신문소설의 사회재건 의지는 청년들의 개척정신이 스스로 혹은 경륜 있는 일부 기성세대들의 선도적 자세와 만나 역동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생산적인 면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당시 신문소설이 계몽적이고 계도적인 성격을 나름대로 견지하였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사회의 부패상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비판의식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사회부패상의 고발 양상은 정치인들을 비롯한 지도층에 대한 불신, 각종 청탁이 난무하고 권력동원이 만연한 무규범성의 사회에 대한 성토, ‘계 바람’과 같은 물질만능주의 풍조 비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사회부패상의 고발은 당시의 통치 세력 등 지배적 형식에 대한 ‘대항’의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사회재건에 대한 의지의 발현으로 이어진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1950년대는 그 복구와 재건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거기에는 뜻 있는 젊은이들의 개척정신과 경륜 있는 중·장년 기성세대의 실천적 자세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대한 문학적 반영이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형상화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1950년대 신문소설이 여러 부면에서 사회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점은 사회재건 의지가 표출되는 현상과 함께 1950년대 신문소설의 건강성을 나름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IV. 1950년대 신문소설의 통속성과 소설사적 의의

1. 통속성의 양상과 그 의미

일반적으로 대중문학에서 미학적 근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통속성의 요소로는 해학성·관능성·야만성·환상성·감상성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발견되는 통속성의 요소로는 관능성·감상성·야만성을 꼽을 수 있다. 다른 통속성의 요소인 ‘환상성’은 당대 현실을 시간적 배경으로 깔고 있는 신문소설들이기에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해학성’도 일부 작품에서 가벼운 위트나 유머의 형태로 산견되지만 특징적인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1950년대 신문소설의 ‘관능성’과 ‘야만성’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상당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감상성’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눈물·이별·한의 정서를 당대 상황에 맞게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통속성의 양상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1950년대 신문소설의 대중문학적 성격을 좀더 명징하게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첫째, 관능성은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출되는 통속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대중문학의 관능성은 금지된 장면들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독자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한다.¹⁾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본성적으로 성적 행위나 노출된 육체 등의 성과 관련된 행동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써 성적 쾌감을 얻는 ‘관음증(voyeurism)’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 관능성은 바로 이러한 독자들의 관음증을 자극하는 것이다. 즉, 훑쳐보기의 욕구를 소설의 언어를 통해 자극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관능성은 특히 미국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미국영화 속에 비춰진 에로틱한 장면들은 한국의 관객들에게 상당한 문화적 충격을 주었을 것이며, 신문소설에서는 그런 영상적인 감각을 살리면서 성의 관능성을 표출하고자 노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 사회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은 급기야 윤리논쟁 등으로 이어진다.

그 신호탄격인 소설이 「자유부인」이다. 「별아 내 가슴에」에서는 「자유부인」 논쟁이

1)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동연, 1995), 337쪽.

2) David a. Statt, *The Concise Dictionary of Psychology*, 정태연 옮김, 『심리학 용어 사전』(콜리오, 1999), 19쪽 참조.

소설 내용 중에 원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당시에 신문소설과 에로티시즘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① “전선에서 침략자 중공군을 한 명이라도 죽이기로 돼 있는데, 그 중공군의 오십만 명에 해당하는 조국의 적이라 했으니 오십만 번 죽여도 시원하지 않다는 일종의 살인 데몬스트레이션이 아니냐고 그 에는 해설을 붙이면서, 대체 작자가 번번이 ‘무서운 허영심이다’하고 혼시해 가면서, 그리하여 나중에는 탈선하려던 작중인물들이 자기의 바른 길을 건도록 만든 수신교과서 같은 소설을 에로작품이라고 하여 필요이상의 흥분을 하니 그 교수가 로렌스의 「차타레 부인의 연애」나, 또는 대학교수가 유부녀와 정거장에서 연애하는 영화 「종착역」을 보고는 왜 발매금지, 또는 상영금지의 항의서를 발표하지 않느냐고 경멸의 웃음을 웃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애가 또 하는 말이 뻑이 없고 불쌍한 대학교수를 왜 하필 취급했느냐고 비굴한 호소를 했다고 하면서 뻑이 없어야 지계꾼이 더 없지, (……) 대체 그런 너절한 소리가 어디 있어, 하고 마구 공박하는 것 아니겠어요.”(「별아 내 가슴에」 10~11회)

①은 <이미혜>가 <현암>에게 친구 <문은심>이 매우 당찬 여대생임을 설명하는 내용 중의 일부다. 여기서 ‘어느 소설가의 소설’은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모 대학의 모 교수’는 서울법대 황산덕 교수를 각각 말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문은심>은 황산덕 교수의 발언에 문제가 많으면서 작가(정비석)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그녀는 그 교수가 ‘로렌스의 「차타레 부인의 연애」나, 또는 대학교수가 유부녀와 정거장에서 연애하는 영화 「종착역」을 보고는 왜 발매금지, 또는 상영금지의 항의서를 발표하지 않느냐고 경멸하듯이 말했다는 것이다. 1950년대에 외국의 소설이나 영화가 우리 나라 대중들에게 많이 읽히거나 관람되었고 거기에 나오는 관능적 표현 등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이무영의 「창」에는 신문소설의 관능성에 관한 서술이 나타난다.

② 그러나 번역한다는 서류는 내어 보이지도 않고서 시적시적 말을 붙이기만 하는데 눈치 빠르게 굉장한 교자상이 들어오던 것이다. 현주가 놀라서 발뚱 일어서니까 유창근은 सू제 손을 툇 잡아당기며

“시장하실 텐데 조금만 잡숫고 가십시다. 나두 아침 한술 뜨군 여태 공복이래서 상이 들어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참니다.”

요새 소설에 흔히 나오는 수단이었다.

이쯤 알고 나면 그만이었다. 음식에 손이 가질 리가 없다. 유창근은 권하다 못하니까 손

수 술을 따라서 쪽 들이키고는, 슬쩍 현주의 허리에 팔을 감으려 든다. 모두가 신문소설에서 본 그대로다. 현주가 획 팔을 뿌리치면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어느새 왼팔이 허리를 감아 부쩍 당기는 통에 현주는 외마디 소리를 치고 쓰러졌다. 그 쓰러지는 현주를 사나이는 가슴으로 척 받아서 무섭게 날쌌 숨쉴로 한 손으로는 목을 껴안고 한 손으로는 허리를 감으며 입을 갖다 부벼댄다.(『창』 34회)

홀아비 <유창근>이 번역일을 핑계로 대학생 <한현주>를 불러내어 그녀의 육체를 범하려고 하는 장면이다. <유창근>의 수작을 보면서 ‘요새 소설에 흔히 나오는 수단이었다’느니 ‘모두가 신문소설에서 본 그대로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시 신문소설들이 성관계 장면을 많이 다루면서 관능적인 성 묘사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자유부인』에서도 작품 곳곳에서 관능성이 드러난다. 이는 『자유부인』이 통속소설로 취급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며, 『졸곡제(卒哭祭)』(1936)·『성황당』(1937) 이래 정비석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특징이기도 하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③ 신춘호는 왼손으로 오 여사의 손을 붙잡으며 다른 팔로 오 여사의 허리를 둘러 안았다. 오선영 여사는 허리를 껴안기우자, 기분이 이상야릇하게 흥분되었다. 남편 아닌 이성의 품에 안겨보기가 처음이기 때문이었다.

(……)

오선영 여사는 신춘호의 품에 안기자, 자신의 비애와 고독을 새삼스러이 깨달았다. 그러기에 이성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 더한층 신비로웠다.(……)

신춘호의 시선은— 호소하는 듯, 애원하는 듯, 감격에 사무치는 정열의 시선이었다. 무언의 시선이건만, 무척 많은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는 듯이 신비로운 시선이기도 하였다.

오선영 여사도 무심중에 신춘호의 시선을 마주보았다. 다섯치의 거리를 두고 무언의 시선이 오고가는 동안에 오 여사의 시선에도 신비의 빛이 점점 넘쳐났다.

(……)

오 여사는 호흡이 자꾸만 급박해와서 대답 대신 눈으로 반문하였다. 그러자 그 순간, 허리에 감겨있던 사나이의 팔이 서서히 몸을 조이며 얼굴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다음 순간, 입술을 고요히 ‘텃취’하였다.(『자유부인』 31~32회)

④ 바로 그때였다. 영화의 화면 위에서 한 쌍의 남녀가 열렬한 포옹을 하였다. 그와 동시에 여태까지 죽은 듯이 고요히 앉아 있던 박은미가 문득 가벼운 한숨을 쉬며 몸을 약간 움직거렸다. 몸을 움직거리면서 손을 팔걸이 위에 슬쩍 걸쳐놓았다. 그 바람에 은미의 새끼손

가락 끝이 장교수의 손등에 약간 접촉되었다. 살과 살이 접촉된 부분은 극히 미미한 면적에 불과하다. 그러나 은미의 손가락이 자기 피부에 접촉되었다고 깨닫는 순간, 장태연 교수는 전신이 찌르르해오도록 강렬한 감전(感電)을 느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영화의 화면조차 눈에 보이지 않았다.(『자유부인』 47회)

위에서 보는 것처럼 정비석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성적인 묘사에 아주 능란하다. ③은 <오선영>이 처음으로 <신춘호>의 방에 댄스를 배우러 갔을 때 포옹하며 입맞추는 장면인데, 그 상황에서의 관능적인 표현이 2회분에 걸쳐 연재되고 있다. ④는 <장태연>이 <박은미>와 영화관에 앉았을 때의 상황으로, 새끼손가락과 손등의 미세한 접촉을 영화의 뜨거운 화면과 연관시키면서 아주 자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울러 장면전환이 매우 빠른 것이 신문소설의 특성인데도 작가는 이러한 성적인 묘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서술속도를 매우 지연시키고 있다.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오락적인 장치다. 정비석은 『자유부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작품에서도 관능성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킨다.

『슬픈 목가』에 나타나는 애정구도는 <강병철>을 사이에 두고 <이선옥>과 <한도숙>이 사랑의 갈등을 보이는 전형적인 삼각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두 여인은 매우 대조적이다. <이선옥>은 현숙한 여성으로 나오는 반면, 소매치기 두목인 <한도숙>은 노골적으로 <강병철>을 유혹하곤 한다. <한도숙>과 <강병철>이 이불을 깔고 동침하는 단계까지의 장면이 모두 4회(77~80회), <강병철>이 <이선옥>과 키스하는 장면만 3회(172~174회)에 걸쳐 연재되는 등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장면이 지연되면서 오랫동안 이어진다.

『유혹의 강』은 납치미망인 <최선애>가 처녀시절 혼담이 오갔던 <유만호>와 십수년 만에 재회하여 애정의 갈등을 보이는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하여, 유부남 <오영환>이 여러 미망인들을 상대로 하여 벌이는 플레이보이적 행각이 독자의 흥미를 부르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이 작품은 미망인들이 성적 욕망을 어떻게 표출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능적인 요소가 수반되고 있다. 특히 <최선애>가 의사 <유만호>에게 진찰을 받는 장면(4~5회)은 그 대표적인 부분이다. 그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외간 남자에게 유방을 내보이는 것이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오른다. 수치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흥분의 감정이 더 컸으며 유혹을 당하고 싶은 욕망까지 솟아오른다. “앞가슴이 볼록 솟아오르며 청진기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전신이 이상야릇하게 간지럽”고 “이성의 손길이 앞가슴 위에서 어물거리는 동

안, 호흡이 거칠어”지는데, 그것은 ‘쾌락에 가까운 흥분’이었던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을 성적인 면에 결부시키면서 남편 없이 사는 여자의 심리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명」·「화관의 계절」·「환희」 등 김말봉의 작품들도 관능성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다. 「생명」은 <유화주>를 중심으로 성의 관능적 표현이 전개된다. <설병국>을 누드모델로 삼아 <유화주>가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라든지, <김기철>이 <유화주>를 겁탈하려는 장면이라든지, 잦은 남녀간의 입맞춤 장면과 정사 장면 등은 관능성을 드러내는 것들이다. 「화관의 계절」에는 알몸과 다름없는 <민수산나>를 <금별>이 안고 유희를 벌이는 장면이 묘사되기도 하고, <민수산나>가 <송창욱>과 <허인규>에게 육탄공세를 벌이는 장면도 그려진다. 「환희」에서는 영화배우 <옥설란>이 관능미를 과시하는 존재로 등장하여 노골적으로 남자들을 유혹한다.

⑤ 마을을 지나 산비탈길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미혜의 몸은 흠뻑 젖었다. 머리와 얼굴에서도 빗물이 팔팔 흘러내렸거니와, 뿌라우스와 스카-트는 몸에 찰딱 달라붙어서 육체의 윤곽을 그대로 노정(露呈)시키고 있었다. 가슴에 솟은 두 개의 유방(乳房)은 그대로 그 형체를 드러내 놓았거니와, 허리며 궁둥이며 허벅다리도 모두 그 태(態)를 숨기지 못했다.(「별아 내 가슴에」 1회)

⑥ 현암은 머리를 돌리려다가 악보 놓는 피아노의 율나는 검은 판에 비쳐지는 미혜의 자태를 바라보았다. 몸에 찰딱 달라붙은 옷, 유난히 드러난 육체의 온갖 곡선, 부풀어오른 두 개의 가슴의 구릉(丘陵). 싱싱한 육체요, 만발(滿發)한 청춘이었다.(「별아 내 가슴에」 4회)

이처럼 「별아 내 가슴에」에서는 소설의 첫 회(⑤)부터 빗물에 젖어 윤곽이 드러나는 여체를 형상화하고 있다. 독자의 관음증을 자극하는 다분히 의도적인 상황설정이 라고 볼 수 있다. ⑥은 남성의 눈으로 보는 여인의 젖은 몸이 그려지고 있다. 비에 흠뻑 젖어 옷이 몸에 달라붙으면서 드러나는 자태를 ‘유난히 드러난 육체의 온갖 곡선, 부풀어오른 두 개의 가슴의 구릉’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관능미를 드러내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애정화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눈길을 끈다.

⑦ 영숙은 삼면경 앞에서 화장을 손보고 양복장 아랫간의 설합을 열었다.

맨 먼저 판티이를 갈아입어야 한다. 그는 나들이를 갈 때면 반드시 판티이를 갈아입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색깔도 가지각색이었다. 유종섭이와 처음으로 비밀한 관계

를 땀을 때는 흰 팬티를 입은 날이었고, 호텔에서 황원태의 청을 들어주던 날은 확실히 청색(靑色)이었다고 기억된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을 입어볼까? 옐로우와 블랙 두 가지 색깔 중에서 오늘은 유독 짙은색이 마음에 들었다. 이 짙은 색깔의 중심부에 샤넬·넘버·파이브를 한 방울...다음은 그 손끝으로 컷볼을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외출복을 골라본다. (『애정화원』 167회)

<허영숙>은 팬티 색깔, 팬티와 관련된 일 등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면서 외출을 앞두고 갈아입을 팬티를 고르고 있다. 여성이 팬티를 갈아입는 광경을 장면제시의 기법으로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다분히 관능성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흑백』과 『장미의 침실』 등 김광주의 작품들도 관능성이 통속성의 요소로 작용한다. 『흑백』은 열아홉 살 여배우 <공미주>를 중심으로 관능성을 표출한다. 『장미의 침실』에서도 연극배우 <주리에>가 수영복을 입고 출연하는 것이 화제가 된다. 『흑백』에는 <공미주>의 영화 촬영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그것들이 모두 러브신을 연기하는 상황임은 작가가 관능성을 자극하는 장치로 그런 장면들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흑백』에서 <손춘호>가 <공미주>를 강제로 추행하는 장면을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묘사하며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관능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로서(80~84회), 야만성과 더불어 관능성을 표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관능성은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비중 있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대중예술의 관능성은 삶의 확장으로서의 도피주의적 성격을 갖게 되”³⁾는 바, 독자들은 신문소설에서 접하는 관능성으로 인해 전쟁 직후의 암울한 상황에서 삶의 도피적 체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시의 독자들은 관능성에 접하면서 육체의 욕망을 허구 속에서 해소시킴으로써 현실에 위안을 삼았을 것이다.

둘째, 감상성은 한국의 대중문학에서 전통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통속성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바,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도 독자를 자극하는 주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대중문학의 감상성은 독자가 일상의 무미건조한 모든 비감상적인 것들 사이에서 늘 가슴에 품고 싶은 가치들을 암시적으로 자극하여 오래 묵은 감정을 건드리는 형태로 드러난다.⁴⁾ 작품을 통해 감상성을 느끼게 되는 것은 주로

3) 박성봉, 앞의 책, 339쪽.

4) 위의 책, 360~361쪽.

독자들의 체험에서 비롯된다. 독자 자신이 작중의 주인공과 같은 어려움이나 오해의 상황에 빠졌다가, 작중의 주인공과 같은 실연의 상처를 지니고 있다거나 하는 정서적 체험에서 감상은 비롯되고 극대화된다.⁵⁾

「애인」은 감상을 통해 독자를 붙들어두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남녀주인공의 애절한 사랑이 독자들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키면서 눈물을 짜내고 있는 작품이다. 소설의 전반부에서는 두 남녀가 만나지 못하는 데 따른 그리움의 눈물이 주류를 이루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재회한 뒤에 사회적 도덕률의 장애로 인해 사랑 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안타까움의 눈물을 자아낸다. 결국 그들이 함께 죽음의 길로 들어서면서 영혼으로나마 불멸의 사랑을 이루겠다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 감상이 극에 달한다. 사랑과 죽음 사이에서 독자들은 인간의 무력함을 의식하며 더욱 감상적으로 되어 간다.

⑧ “오늘이야 오셨군요!……왜 그 동안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까?……제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었던가요?…”

비쭉비쭉, 지운의 입술이 서너 번 경련을 일으키다가 마침내 어린애처럼 이그러지고 말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 모양을 보자, 영심은 두 손으로 획 덮어버린 얼굴을 벗어나며 탁 기대며
“아이유—”

하고, 비참한 신음소리를 냈다.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감정이 너무도 억해서 영심은 그만 장소도 가릴 바 없이 와락 소리를 내서 느껴 울었다.(「애인」 180회)

⑧은 <임지운>과 <오영심>이 10년만에 재회하는 장면이다. 서로를 너무도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분단 상황 등의 요인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상황이 악화된 시점이었다. <임지운>은 결혼 직후 이혼한 시점이었고 <오영심>은 약혼한 상태였으니 기구한 운명에 눈물이 북받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오영심>은 <허정욱>과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그런데 <임지운>은 뜻하지 않게 <오영심>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는 처지가 된다. 그가 평소 알고 지내던 <허정욱>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인데 알고 보니 공교롭게도 신부가 <오영심>이

5) 강옥희, 「1930년대 후반 대중소설 연구」(상명대학교 박사논문, 1999), 212쪽.

었던 것이다. 그는 예식이 끝난 후 충격 속에 어머니와 함께 피로연에 참석하는 상황을 맞는다. 거기서 그는 신랑 친구들이 남의 속도 모르고 노래를 시키는 바람에 사랑하는 사람의 결혼식 피로연장에서 노래까지 부르는 신세가 된다. 그런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어머니는 아들의 구슬픈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게 되며(203회), 그것은 독자들의 눈물을 끌어내는 작용을 한다.

⑨ (……) 영심은 무한히 슬프고 안타깝고 괴롭기만 하다. (……)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끌아가면서 해야만 하는 오늘의 운명이 그지없이 서글퍼지는 것이다.

(……)

“자기 이외의 그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이야말로 참되고 위대한 사랑이지요. 지운 씨가 만일 저를 참되게 생각해 주신다면 지운 씨의 소아를 버려주세요. (……)”

영심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씻었다.

지운도 울고 있었다. 신앙을 말하고 대아를 말하며 두 사람의 운명을 개척해 보려는 영심의 그 극심한 노력이 지운은 눈물겨워 견딜 수가 없었다.

“영심 씨의 이야기는 잘 알았습니다. (……) 그렇지만 내 인격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보려고 애를 써도 되지가 않는 걸 어떻게니까—(……)”

(……)

지운은 돌연 영심의 손길 하나를 부여잡고 머리를 꼭 수그리며 손등에 이마를 가만히 갖다댔다. 눈물이 철철 손등을 적시었다.(「에인」 231회)

<오영심>은 <허정욱>과 결혼했으나 <임지운>을 잊을 수 없었다. <임지운>도 마찬가지로 <오영심>에게 만나주기를 간청한다. 결국 그들은 너무도 서로가 그리운 나머지 다시 만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이다. <오영심>은 그것이 본심은 아니지만 <임지운>에게 소아를 버려달라고 말한다. <임지운>도 그래야만 도리인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성적으로는 결혼한 <오영심>에게서 떠나는 것이 마땅한 줄 알면서도 사랑의 감정은 더욱 타오르고 있으니 눈물만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영심>은 사랑한다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지 못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말만 <임지운>에게 전하고 귀가해서 흐느낀다(234회). 사랑의 감정이 절실히 표출되면서 감상성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그들의 사랑은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로 만난다. 그리고는 서로를 돌려보내려고 하다가 삼각산에 함께 가게 된다. 눈이 많이 쌓여 위험하다는 가넷집 여인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달이 뜬 후에도 삼각산의 눈길을 계속 올

라간다. 봄날 창경원의 벚나무에서 꽃이 핀 사랑은 10년 후 겨울날 삼각산의 하얀 눈 속에서 승화되고 있다. 그들의 사랑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길을 택함으로써 열매를 맺고 있다. 이처럼 「애인」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화소를 통해 감상성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작품이다.

「실낙원의 별」에는 <강석운>이 <고영림>과 애정의 도피여행을 떠남에 따라 그의 아내 <김옥영>이 가출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감상성이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가출한 <김옥영>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남편 <강석운>과의 사랑의 맹세를 떠올리며 흐느끼기도 한다. “울어서는 안 된다고, 울어댔자 별 수 있느냐고, 자기 불행의 증언(證言)과도 같은 눈물이기에 아무도 보지 않는 잠자리에서까지 기를 쓰고 막아온 눈물이었”지만, 그래서 피가 나도록 입술을 꼭 깨물어보지만 눈물은 자꾸만 조수처럼 밀려나온다(246회). 남편의 사랑이 식은 이상 가정이 무의미하다며 가출한 그녀는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점차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런 상태의 그녀를 자극하여 귀가를 결심하게 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 돌아오시라—작가 강석운 씨의 장녀 경숙양의 절실한 호소문」이라는 제목 아래 K신문에 실린 큰딸의 편지다(250~251회). “아이들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았고 그러다가는 씨무룩해서 벽을 향하여 슬며시 돌아누워서 소리 없이 읊니다”라는 대목이나 “아버지 없는 가정이지만 우리 사남매는 열심히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라는 부분 등은 <김옥영>의 모성애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물론 당시의 여성독자들도 대부분 <김옥영>의 모성애에 공감했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집으로 가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 이 순간 많은 여성독자들은 남편의 외도 등으로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결국 아이들만은 잘 보살펴야 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부지불식간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다.

「자유부인」에서 감상성은 작품의 후반부에 치우쳐 드러난다.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댄스바람 등에 놀아나다가 집에서 쫓겨난 후 <오선영>이 누우치는 부분이 그것이다.

⑩ 오선영 여사는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 어쩌다 잠을 들게 되면 으레 꿈을 꾸는데, 그 꿈이라는 것은, 반드시 남편이나 아이들을 만나는 꿈이거니와 하였다. 남편과 아이들을 만나 한참 즐겁게 지내다가 문득 깨어보면 꿈이었던 것이다. 그런 때면 오 여사는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다.(「자유부인」 205회)

⑩ 오 여사는 그들의 뒤를 꾸준히 따라가면서 자꾸만 눈물을 삼켰다.

‘저기 끼일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스러울까!’

아이들의 학교 마중을 아버지가 오게 되었다는 것도 슬픈 일이거니와, 반드시 그들 속에 끼여 있어야 할 자기가 아내와 어머니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은 뼈가 저리도록 슬픈 일이었다.

설움을 삼키며 정신없이 쫓아가는 사이에 어느덧 집 앞에 이르렀다. 남편과 아이들은 서슴지 않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나 오 여사는 거기까지 따라 들어갈 신체는 못 되기에 눈물을 삼키며 돌아서는 수밖에 없었다. 걸음걸음에 가슴이 쓰라리고 눈물이 앞을 가려 길을 걸을 수가 없었다.(『자유부인』 205회)

⑩은 <오선영>이 꿈을 꿀 때마다 남편과 아이들을 만나는 장면이고, ⑪은 아이들이 보고 싶어 아이들 학교 앞에 갔으나 뿔뿔하게 나서서 만나지 못하고 뒤에 따라가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장면이다. 다분히 독자의 감상적인 측면에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다. 214회 연재분에서 <오선영>이 국회 공청회장의 방청석에 앉아 <장태연>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감상이 표출된 장면이다. 이런 것들은 소설이 진행되는 동안 <오선영>의 일련의 행위에 못마땅해하던 독자들에게도 일말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장면들이다. 작가가 모성애와 귀소 본능 등을 자극함으로써 독자들의 감상을 돋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자들의 감상은 결국 독자 자신의 감정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 독자들의 경우에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즐기려 했던 <오선영>을 내심 부러워했을 가능성이 있다. “작가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결국 가정의 혼란과 사회의 타락성을 부추길 뿐이라는 점을 암시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진출을 봉쇄하려 했으나, 여성독자들은 거꾸로 이 소설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렷이 확인”⁶⁾함으로써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대리인격인 <오선영>이 어쩔 수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현실에 눈물을 공유했을 법하다. “감상의 체험은 그 대상과 사건이 아주 오래 전에 그리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⁷⁾이기 때문이다.

6) 김창식, 「한국신문소설의 대중성과 그 즐거움에 대한 연구」, 『우암어문론집』 제7집(부산외국어대 국어국문학과, 1997), 65쪽. 이처럼 『자유부인』에서는 작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전편에서 여성들의 자기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창식의 같은 글 71~75쪽에서 적절히 논의되고 있다.

「유혹의 강」에서는 마흔 살의 주부 <권숙경>이 남편 <윤만호>의 외도에 비판하여 흐느끼는 장면 등에서 감상성을 자극한다. 한 이불에 누웠어도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남편 때문에 <권숙경>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버림을 받으면 자식들이 불쌍해요. 죄 없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256회』)라는 그녀의 호소가 많은 여성독자들을 감상적으로 유도한다. 납치미망인 <최선애>가 옛날에 혼담이 오갔던 <윤만호>와 사랑을 느끼고 있음에 따라 그 둘이 결합하기를 내심 원하던 독자들도 <윤만호>의 부인 <권숙경>의 딱한 처지를 보고는 그녀에게 연민과 동정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박화성의 「고개를 넘으면」은 기구한 운명과 사랑을 토대로 감상성에 호소하는 소설이다. 빗속에 우연히 우산을 함께 썼던 주인공 <한설희>와 <박철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한설희>의 어머니 <유금지>와 <박철규>의 아버지 <박장훈>도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런데 <박장훈>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서 비극은 시작된다. <박장훈>이 결혼한 후 <유금지>도 부잣집 삼취로 들어가 산다. 그러던 중 <박장훈>이 일시적으로 외도하여 낳은 아이를 <유금지>가 맡아 기르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한설희>였다. <한설희>와 <박철규>는 배다른 오누이였던 것이다. 열렬히 사랑하던 남녀가 오누이 사이로 밝혀졌으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던 그들의 절망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처럼 <한설희>의 출생 비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들은 <한설희>와 그 주변인물들의 눈물과 함께 독자들의 눈물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별아 내 가슴에」는 후반부에서 감상성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소설에서 <현암>과 <현선일>은 부자지간이지만 <현암>의 임종 직전까지는 서로 그 관계를 알지 못한다. 다만 <현선일>의 어머니인 <선월이>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독자들은 그 둘이 서로 부자지간임을 확인하는 시점이 언제일까 하고 가슴을 졸이게 된다. 그러나 <선월이>가 그 사실을 밝히게 되는 것은 <현암>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임종을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였다. <현선일>은 임종하는 아버지의 모습만을 볼 수 있었고 <현암>은 자신에게 아들이 있음을 확인하자마자 운명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고 말았다. 이런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독자들의 눈물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에서는 “아아, 그는 이미 자기의 이름만 부르면서 가고 말았으니 이 간절한 소회를 언제나 누구에게 풀 것이라”(227회) 하는 신파조의 눈물 짜내기 양상이 드러나기도 한다.

7) 박성봉, 앞의 책, 359쪽.

이상에서 감상성은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독자들에게 호소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것들은 주로 기구한 사랑, 모성애, 죄책감, 서러움 등에 따른 눈물이었다. 이는 전통적인 한과 눈물의 정서와 연결되어 한국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1930년대 대중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진 통속성의 요소였다. 이러한 감상성은 대중의 현실인식을 마비시키는 싸구려 눈물이라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어려운 현실에서 대중의 카타르시스를 유도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야만성은 한국대중소설에서 이전에는 두드러진 요소가 아니었으나 1950년대 들어서 특징적으로 부각된 통속성의 요소다. 야만성이란 주로 폭력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간의 사디즘(sadism)이나 마조히즘(masochism)을 자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들은 화재사고나 싸움 등을 실제상황에서 구경할 때 아주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인간의 일상 삶이 자의든 타의든 인간 내부의 폭력성을 억압하기 때문에 대중예술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대리체험을 한다는 것이다.⁸⁾

야만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1950년대 신문소설은 「장미의 침실」이다. 그것은 이 작품의 주요 작중인물의 한 사람인 <술개미>가 ‘어깨(깡패)’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미의 침실」에서는 68회부터 71회까지 4회 연재분에 걸쳐 싸움 장면이 묘사되기도 한다. 특히 ⑫를 보면 폭력을 흥미 위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⑫ ‘백싱·링’을 에워싼 관중처럼 몰려든 사람들의 울타리가 그제야 가까스로 뚫개진다.

‘링’ 안은 백열전(白熱戰)의 고비를 넘어서 승패가 결정되려는 마지막 판이다.

아직도 빨(角)이 꺼떡없다는 듯, 황소처럼 씨근거리며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술개미’.

‘××국장’이라는 신사는 몸을 사려서 공연히 옆에서 덧붙이로 허둥댈 뿐이요, ‘김 비서’(金秘書)는 힘이 워낙 부치는 데다가 ‘어퍼·퀄’ 한 대를 눈에서 불이 번쩍 나도록 얻어맞고는, 제 앞가림도 아니할 수 없어서 공연히 ‘술개미’의 등덜미로 돌면서 마지못해 짹짹 정도.

마지막까지 버티는 것은, 그래도 일행 중에서 제일 힘깨나 쓴다는 축구선수 ‘경리과장’(經理課長)이다.

코피가 건히지도 않은 얼굴을 그대로 들고, 다시 덤벼들어 ‘술개미’의 멱살을 움켜잡고 마지막 대결(對決)을 해보자는 비장한 자세를 보인다.

“이걸, 이걸 그래두 놓지 못해! 이걸 못 놓아!”

‘술개미’의 두 팔도 힘이 빠진 모양이다. 그러나 최후의 한 수(手)가 남아있는 것이다.

8) 위의 책, 339~348쪽.

머리로 우지끈하는 찰나에 상대방의 면상을 닥치는 대로 받아버리는 것. ‘술개미’는 주먹 따짐이 셀 뿐만 아니라, 이 ‘헤딩’이야말로 단번에 상대방을 ‘넋·아온’시키는 무서운 장기다.

잡힌 먹살을 획 뿌리치며 ‘술개미’의 머리가 주춤하고 서너치(寸)쯤 꾸부러졌다가, ‘정리과장’의 면상을 향해서 육박해 들어가려는 바로 그 위기일발의 찰나.〔장미의 침실, 71회〕

한강변에서 <술개미>와 우일방직 직원들간에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다. 마치 액션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서술이다. 특히 여기서는 싸움을 권투에 비유해서 ‘링·주먹·어퍼컷’ 등의 권투용어를 동원하며 흥미 거리로 다루고 있다. 독자들에게 스포츠처럼 싸움을 즐기게 한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이처럼 주먹만을 쓰는 게 아니라 이후에는 총으로 위협하거나 쏘는가 하면 단도를 휘두르는 장면을 묘사하기도 한다.

『흑백』에서도 도처에서 야만성이 드러난다. 특히 <손춘호>가 호텔방에서 <공미주(남예성)>를 겁탈하려는 위기의 순간에 바로 옆방에 묵었던 영화감독 <최명훈>이 소리를 듣고 창문을 통해 들어가서 <손춘호>를 때리면서 싸움이 벌어진 상황은 그 대표적인 예다. 친동생개가 치며 비바람이 부는 한밤중에 의자를 던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아수라장의 싸움이 선정적으로 그려진다. 특히 87회 연재분에서 보면 “피가 튀기 시작했다”, “(피가) 어지러운 무늬를 만들고 뿌려진다”, “피! 피! 피!” 등으로 싸움의 양상을 서술하고 있는 점은 폭력이 흥미위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광주가 이처럼 야만성의 표현에 능란한 것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가 무협지를 번역·번안·집필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슬픈 목가』도 야만성이 여러 군데에서 표출되는 작품이다. <강병철>이 <한도숙>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보고 그녀의 정부 <황현태>가 ‘어깨’들을 동원하여 시비를 걸어온다. 결국 싸움이 벌어져 <강병철>이 여러 명을 상대로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데 군중들은 “사정없이 갈겨라”면서 그 싸움을 즐긴다(125~126회). 독자들의 심리도 작품 속 군중들의 입장과 그다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한도숙>을 <강병철>에게 빼앗긴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양심을 품은 <황현태>가 칼을 휘두르자 <한도숙>이 그 칼을 가로막고 그와 동시에 <충남이>가 방망이로 <황현태>를 때려눕히는 장면도 서술된다(238회). 칼, 방망이와 함께 ‘아가리 닥쳐’, ‘개잡놈아’ 등의 폭언까지 수반되며 야만성을 드러내고 있다.

『유혹의 강』은 미망인 여성끼리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싸움을 벌이는 것을 흥미

위주로 다루고 있다.

⑬ “이 개잡년아! 뭐 어찌구 어찌”

욕설을 퍼붓기와 동시에 강 마담은 눈앞의 요리접시를 번쩍 들어, 맞은 편에 앉아있는 유옥분을 사정없이 휘갈겼다.

(……) 이번에는 유옥분이가 가만있지 않았다.

그도 역시 요리접시를 집어 갈기며

“이 빌어먹은 화냥년아! 네넨은 뭐가 잘났다고 이 지랄이냐!”

하고 마구 대들었다.

그러자 강 마담은 벌떡 튕겨 일어나더니, 미친 사람처럼 유옥분에게 달려가 머리를 움켜잡았다.

“이 욕시를 할 개잡년! 너 같이 우라질 년은 아예 죽어버려야 해!”

“뭐? 어찌구 어찌 이 거지발싸개 같은 년아!”

머리채와 머리채를 서로 움켜잡고 욕박전이 벌어지는 바람에, 방안은 완전히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유혹의 강』 98회)

⑬에서는 유부남 <오영환>을 놓고 <강귀순>과 <유옥분>이 시앗끼리 싸움을 벌이고 있다. 머리채와 머리채를 서로 움켜잡고 욕박전이 벌어지자 여럿이 총동원으로 뜰어 말렸으나 쌍방이 모두 독이 올라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개잡년아’, ‘빌어먹을 화냥년아’, ‘지랄이냐’, ‘욕시를 할’, ‘우라질 년’, ‘거지발싸개 같은 년’ 등 온갖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인 언어의 사용은 야만성을 더욱 강화한다. <강귀순>이 <이경혜>와 싸움을 벌이는 장면(171회)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두 여인이 벌이는 싸움이 ‘우라질 개잡년’, ‘지랄’, ‘욕시를 할 년’ 등의 폭언과 함께 흥미를 끄는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서 폭언·욕설·비어·속어 등의 잦은 사용은 대중문학의 특징이기도 하다.⁹⁾ 아울러 여기에는 야만성의 부각과 함께 대상을 희화화하는 측면도 강하다고 본다. 독자들은 한 남자 때문에 두 여자가 시앗 싸움

9) 이와 관련하여 조남현은 우리 나라의 1970년대 소설에서 소설 속의 말씨가 속어, 비어 등으로 더럽혀진 점은 우르스 예기가 오락문학의 특성(I장 각주 31 참조)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언어의 인습적 사용’의 징후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았다(조남현 『소설원론』(고려원, 1988), 44쪽). 권영민도 소설의 대중성을 통속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경우는 소설의 대중적 기반을 이루는 일상성의 질서에 대한 변형에서도 확인된다고 하며, 그 예를 소설적 언어의 감각화 현상과 비속화 현상으로 들었다. 특히 그는 언어의 비속화와 관련하여 「인간시장」을 예로 들면서 “잡스러운 저질의 언어를 거의 다 동원하고 있는 「인간시장」은 오염된 언어의 쓰레기장처럼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권영민, 「대중문화의 확대와 소설의 통속화 문제」, 『한국 민족문학론 연구』(민음사, 1988), 511~512쪽.)

을 벌이는 이런 장면을 접하면서 조소(嘲笑)를 금치 못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야만성도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독자를 끄는 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광주와 정비석은 그러한 야만성을 잘 활용한 작가다. 1930년대의 신문소설(혹은 대중소설)에서는 그다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요소였던 야만성이 1950년대 소설에서 두드러진 것은 전쟁이라는 엄청난 폭력적 상황을 경험한 것과 관련됨은 물론이요, 할리우드 액션영화나 서부극¹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관능성·감상성·야만성 등은 1950년대의 주된 통속적 요소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에서 관능성과 감상성은 1930년대에도 두드러진 요소였으며, 야만성은 1950년대에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에 가장 핵심적인 통속성의 요소가 감상성이었다면 1950년대에서는 관능성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통속성의 요소들은 이후 우리 나라의 대중문학에 계속 이어져서 1960년대의 대중소설 성행으로 나타난다. 김광주가 무협소설 「정협지(情俠誌)」를 1960년에 『경향신문』에 번역 연재한 것을 계기로 무협지 시대를 열었는가 하면,¹¹⁾ 1969년에 가서는 인기추리작가 김성중이 등단하는 등 추리소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¹²⁾는 사실은 1960년대의 대중문학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다. 특히 1960년대에 무협지가 유행한 사실은 우리 대중

10) 백철은 서부극이 1950년대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西部活劇榮華가 한국에서 사회적인 風潮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마치 그것이 미국내의 사회풍조에 끼친 악영향 특히 少年犯罪의인 사건의 激增 등과 類似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소위 ‘억개(어깨=인용자 주)의 橫行은 解放과 政界의 混亂과도 관련되어 한국도시가 暗黑街로 變換한 感이 농후했으며 運動界 學園에서까지 소위 ‘깡패’가 행세를 하게 되고 또한 소년의 모험적인 범죄사실이 빈발하게 된 것도 해방 뒤에 생긴 새로운 사회현상이라면 이런 폭력적인 모든 사회현상이 어데다 기초를 둔 것인가 할 때에 그 주로 표본으로 된 것이 미국의 西部活劇이라고 생각한다.”(백철, 「오인된 미국문화—부박과 퇴폐가 과장되다」, 『신대양』 1958년 9월호, 199쪽.)

11) 한국에 소개된 최초의 중국무협소설은 위지문의 「검해고흥」을 번안한 「정협지」(1961.6.15.~1963.11.23.)였다. 김광주는 이어 「비호」, 「사자후」,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등을 신문에 번역 연재해 무협소설을 국내에 확실히 접목시켰다. 1968년에는 와룡생(臥龍生)의 「군협지(群俠誌)」의 번역출판을 계기로 무협소설은 더욱 인기를 끌게 된다. 박영창, 「읽어버린 협객 찾는 성인들의 동화」, 허문영 엮음, 『우리 시대의 대중문화』(한나래, 1996), 198쪽.

12) 1930년대에 김내성에 의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추리소설은 1950년대에 동면기에 들어갔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외국의 추리작품들이 속속 번역 소개되면서 독자층이 형성되었으며, 1969년에는 김성중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어느 창녀의 죽음」이라는 작품으로 등단하면서 현제훈(1933~1991)과 함께 한국추리문학의 꽃을 다시금 피우기에 이른다. 박상하, 『추리소설 창작 노트』(집문당, 1998), 14쪽; 박광규, 「한국 추리문학계의 현황」, 허문영 엮음, 위의 책, 176쪽.

문학에서 야만성과 관능성이라는 요소가 더욱 부각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1950년대 신문소설의 소설사적 의의

1950년대 신문소설이 상업성의 추구 등 부정적인 면모를 보인 점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대 신문소설의 소설사적 의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1950년대 소설에 대한 평가는 전쟁문학의 면모, 이념적 경직성, 전후 인간성의 황폐화, 실존주의의 영향 등의 차원에서 주로 검토되어 왔으나,¹³⁾ 신문소설을 그 논의의 영역에 포함시켜 검토한다면, 그것들과 분명히 다른 면모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신문소설이 지니고 있는 소설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50년대 신문소설은 세태소설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세태소설은 작중인물의 내면 세계를 심리주의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대신, 소설의 사건과 풍속 세태적인 사실에서 진실을 구하는 문학형식이다.”¹⁴⁾ 한국소설사에서는 특히 1930년대에 임화·최재서 등을 중심으로 세태소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채만식의 「탁류」, 박태원의 「천변풍경」 등이 1930년대의 대표적인 세태소설로 꼽힌다.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세태소설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서사적 형식을 통해 그 사회적 흐름 속에서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도록 강제되었던 격변기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충실하게 그려낸 것으로 평가된다.¹⁾

1950년대 신문소설도 그런 점들을 이어받아 전후 사회를 살아가던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나름대로 충실히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댄스바람, 깃바람, 너물청탁과 권력동원, 성 문란 등 당시의 세태가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한숙이 1950년대의 대표적 신문소설인 「자유부인」을 ‘세태 풍속소설(世態風俗小說)’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廉想涉의 「두 破産」을 비롯한 「電話」, 「밥」, 「一代의 遺業」, 「글레」 등 일련의 短篇小說이나, 李泰俊, 朴泰遠, 蔡萬植 등 많

13) 1950년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전후’라는 시기와 ‘실존주의’라는 다소 막연한 수준에서 결합시킴으로써 동어반복의 경향을 보인다. 손종업, 『1950년대 한국 장편소설 연구—전후의 근대성과 언어형식』(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8), 6쪽.

0) 한승옥, 「장편소설의 특질」, 한국현대소설연구회, 『현대소설론』(평민사, 1994), 268쪽.

1) 김경수, 「한국 세태소설 연구—개화기에서 해방전까지」(서강대학교 박사논문, 1992), 182쪽.

은 작가들”²⁾의 작품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1950년대의 상황에서는 전쟁문학적인 면모나 분단상황에 따른 정치적·이념적 문제 등도 물론 당시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문화의 급속한 유입 등에 따른 사회·문화적 충격과 가치관의 혼란 역시 당시 사회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모습이였다. 그런 사회·문화적 충격과 혼돈의 와중에서 살아가는 전후의 인간군상을 세태소설의 양식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1950년대 신문소설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1950년대 신문소설은 대중사회가 도래하는 가운데 대중소설을 본격적으로 발달음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³⁾ 한국소설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중소설이 성행하기 시작한 1930년대보다 두 가지 점에서 더 진전된 위상을 확보한 것이 1950년대의 대중소설이라고 본다. 우선, 작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1930년대에는 김말봉·박계주·김내성·방인근 등의 작가들이 「쫄레꽃」·「순애보」·「마인」·「마도의 향불」 등과 같은 대중소설로 인기를 끌었다. 그 작가들 대부분은 1950년대 들어 중견작가로서 그 역량을 과시한 데다가 「자유부인」을 계기로 폭발적 인기를 누린 정비석을 비롯해 김광주·최인옥·정한숙 등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는 등 대중소설의 작가층이 훨씬 두터워졌다. 다음, 1930년대에는 매체가 제한되고 대중사회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지만 1950년대에는 영화·대중가요 등 대중문화의 급격한 확산과 더불어 신문지면의 증가 등으로 그 토양이 훨씬 달라졌던 것이다. 아직은 텔레비전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신문소설은 오늘날 텔레비전 연속극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대중들에게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들어 산업화의 전개와 텔레비전의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대중문학의 주변상황이 달라진 점과도 구분되는 확실한 위상을 갖는 것이 1950년대의 신문소설이었다.

일반적으로 대중문화는 서민의 경험과 욕망을 드러내주면서 그것을 보수적이고 체제순응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1950년대 신문소설 역시 전후의 황폐한 사회에서 대중들의 경험과 욕망을 드러내주는 가운데 대중독자들에게 보수적이고 체제순응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문학을 통해 저항

2) 정한숙, 『현대한국소설론』(고려대학교 출판부, 1977), 143쪽.

3) 물론 1950년대 신문소설이 모두 대중소설이라고 단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신문소설이라는 대중매체에 실려 있는 작품들이고, 당시 신문에서 상업주의가 강화되면서 신문소설들도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중소설들로 접근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실제 작품을 통독해 보더라도 대부분 대중소설의 특성을 드러내는 작품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적 즐거움을 얻는 한편 문학을 오락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문학으로 위안을 삼게 되면서 대중들이 문학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1950년대 신문소설은 그런 면에서도 대중소설적인 면모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사회적 여건으로 보면 1950년대의 제반 상황은 대중소설이 득세할 만한 환경이었다. 여러 면에서 1930년대 상황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는 신문의 상업주의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제의 카프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이념적 논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때 작가들은 리얼리즘적 창작방법에서 눈을 돌려 모더니즘으로 선회하거나, 대중소설, 역사소설 등에 관심을 보였다. 1950년대에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전후 반공이데올로기가 더욱 고착화되면서 이념적 성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승만 정권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아래 리얼리즘 경향의 소설은 발을 붙이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 시기에도 역시 모더니즘 소설, 대중소설, 역사소설이 자연히 주도적 위치를 점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대중소설과 역사소설의 상당수는 신문을 통해 발표되었으니 신문소설의 대중문화적 성격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시대적 상황이 어려워질 때 독자에 대한 위안으로서의 기능에 치중한 대중소설이 등장·확산되는 현상은 “일정한 시기마다 반복 재생되는 하나의 문학사회학적 현상”⁵⁾이라 할 수 있다.

셋째, 1950년대 신문소설은 비판의식을 표출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현실의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파악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으로나마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현실 폭로성을 보여준 작품이 적지 않다. 특히 1950년대 신문소설은 시사성 있는 제재를 많이 다루는 신문소설의 특성을 토대로 왜곡된 현실의 단면을 비교적 잘 포착함으로써 다소 미흡한 상태로나마 정치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4) 백철은 대중소설이 득세하게 된 1930년대의 문학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체로 通俗小説은 現代의 商業主義的인 저널리즘을 背景하고 胎生된 近代正統文學의 一 崩壞過程의 表現이었는데 따라서 그것이 정말 通俗小説인 때는 그 땅의 저널리즘이 그만큼 商業主義 成熟 위에 形成된 것이어야 할텐데 이 땅의 新聞 위에 그 商業主義가 겨우 一 形態를 갖추게 된 것이 一九三五年 以後라는 것이다.(……)”

그러나 一九三五年 이후에 通俗小説이 登場한 또 하나의 重要한 原因은 이 時代의 現實이 이처럼 暗黑해서 그 前과 같이 傾向的으로 나갈 길이 막혀버린 때문에 通俗小説로 흐르게 된 事實을 重視해야 할 것이다. 一部分의 作家가 世態小説 身邊小説을 쓴 것이다. 또 一部分의 作家들이 歷史小説을 쓰게 된 事實과 參照해 볼 때에 이 時代의 文學이 가장 無難하게 이 時代를 通過하려는 傾向으로 表現된 것이 通俗小説의 登場이던 것이다.” 백철, 『신문학사조사』(민중서관, 1963), 342~343.

5) 강옥희, 앞의 논문, 3쪽.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이러한 사회비판을 수행한 것은 전후의 어려운 현실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지니고 있던 대중독자들에게 카타르시스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실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정치인이나 고위관리, 부유층 등 사회지도층의 비리와 타락한 행태에 대해 고발하고 비꼬며 독설을 퍼붓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현실적으로 소외되고 결여된 존재인 대중들에게 허구의 세계에서나마 지도층을 마음껏 공격하는 형식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불만을 해소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당시에 사회적 경직성 때문에 거의 자리를 잡지 못했던 리얼리즘문학의 대안적 역할을 일정 정도 수행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비판적 사유의 통로가 부족했던 당시 상황에서 신문소설은 한계 속에서도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던 것이다. 자유당정권의 부패와 타락에 따른 민중들의 변혁의지를 신문소설이 나름대로 수용하여 형상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는 당시 신문 구독자들이 야당 성향의 신문을 선호했던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1960년대의 신문소설이 “그 발생초기와는 달리 어떤 문제의식을 추구하는 문학작품의 한 분야로서의 기능은 전혀 도외시하고 독자대중들의 저급한 취향에나 영합하는 단순한 大衆 娯樂物로서의 구실만을 해왔다”⁶⁾는 것에 비한다면 1950년대의 신문소설은 비교적 건강성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1950년대 신문소설은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사회질서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그 성격을 고정화시켜 나가던 당시의 전반적인 문학의 양상에서 하나의 축을 분명히 담당하였다. 특히 소설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세태소설 양식을 계승하였다는 점, 비판의식을 표출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점, 대중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대중소설이 본격적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 등은 1950년대 신문소설의 두드러진 위상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1950년대 신문소설이 한국현대소설사의 영역을 한층 확장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6) 최영, 「대중문화로서의 한국 신문소설 분석 연구—1960년부터 1969년까지 동아·조선 양일간지 신문소설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71), 66쪽. 물론 1960년대 신문소설이 단순한 대중오락물에 불과했다는 최영의 연구결과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이는 1960년대 신문소설에서 애정소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영이 내린 결론인데, 거기에는 애정소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연구자의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1950년대에 비해서 1960년대의 신문소설에서 오락성과 상업성이 더욱 강조된 것만은 틀림없다고 본다.

V. 결론

이 연구는 아직까지 일부 작품에 한정되어 단편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던 1950년대 신문소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일단 실증적인 자료의 검토와 정리 작업을 중시하는 가운데 문학사회학적, 수용미학적 방법을 주로 원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소설사와 대중문학적 성격을 의식하면서 인간상과 사회인식의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1950년대 신문소설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영화·대중가요 등 대중문화의 양상, 신문의 성격과 상업주의 경향, 독자들의 인식과 참여 양상 등 1950년대 신문소설의 성장배경과 독서환경을 고찰하는 작업을 선행하였다. 아울러 작중인물의 사회적 위상을 분석하고 그것에 나타난 의미를 파악하여 보았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인물의 양상은 당시 신문소설의 사회인식을 살피는 데 유용한 논거가 되었다. 소설 내용의 분석에서는 신문소설의 특성인 시사성에 주목하여 1950년대 신문소설이 당대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반영해내고 있는지를 주로 논의하였다. 대중문학적 성격에 대해서는 사회인식의 태도에서 부분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통속성의 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1950년대 신문소설의 소설사적 의의도 추출해 보았다. 본론에서 논의한 바를 결론 삼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50년대 신문소설을 고찰하기 위한 첫 단계로 그 배경적인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시기의 영화와 대중가요 등 대중문화가 미국지향성을 띠었고 그것은 강한 대중진과력을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중문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신문소설이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신문의 성격으로는 신문 지면이 늘어나고 독자층이 증가한 점, 상업주의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점 등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신문사 측에서는 소설연재를 판매전략과 연계시키려 하였고, 작가들은 그것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작가들은 노골적으로 신문사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고,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통속성의 요소를 활용하는 데 힘쓰기도 하였다. 또한 독자들의 참여에 따라 작품 내용에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1950년대 신문소설 전반에 나타난 주요 작중인물들의 사회적 위상을 점검함

으로써 그러한 작중인물 설정에 따른 의미(사회성)를 포착하였다. 주요 작중인물들을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여자, 연령별로는 20대,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직업별로는 대학생·주부·사업가·교직 등의 분포가 많았다. 이런 현상들은 여성문제를 부각시킨 점이라든가 애정의 양상 등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대부분 상류층 인물들로 설정된 것은 대중들의 계층상승욕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하층민의 삶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형상화하는 작업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여성의 소설적 기능이 강화된 것은 전통적 가족제도가 해체되고 사회가 재편되는 시대적 징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플레이션에서는 외래지향성, 퇴폐·향락주의, 정치불신 양상 등이 반영되고 있다.

셋째,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친미이데올로기와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순응’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친미이데올로기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편협하게 받아들인 미국식 자유주의가 범람하고 퇴폐·향락주의가 만연한 당시 사회상을 신문소설에서는 반영하고 있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친미이데올로기를 노골적으로 표출한 작품이 적지 않고(김말봉의 「생명」, 정비석의 「자유부인」 등), 미국 문화의 영향으로 댄스바람을 비롯한 퇴폐·향락풍조가 상당히 많은 소설에서 그려지고 있다(정비석의 「자유부인」·「연가」, 박화성의 「사랑」, 김광주의 「장미의 침실」·「흑백」, 안수길의 「제이의 청춘」 등). 1950년대를 지배하던 또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였던 반공이데올로기는 1950년대 소설에서 노골화된 경우가 많았다. 개중에는 매카시즘에 대한 폐해를 형상화함으로써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한 경우도 있었지만(정비석의 「슬픈 목가」·「민주어족」 등), 대개 맹목적인 차원에서 반공의 논리를 작품 속에서 펴는 경향으로 나타났다(이무영의 「계절의 풍속도」·「창」, 박영준의 「형관」, 박계주의 「별아 내 가슴에」, 정비석의 「낭만열차」 등).

넷째,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어진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은 ‘타협’으로 나타난다. 전쟁으로 급증한 미망인문제를 형상화한 작품들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는가 하면 그들의 성적 욕망과 관련된 문제를 형상화하기도 한다(염상섭의 「미망인」, 정비석의 「유혹의 강」 등). 유한부인과 여대생들이 탈선과 허영을 일삼는 양상도 여러 작품에 반영되었다(정비석의 「자유부인」·「연가」, 박계주의 「별아 내 가슴에」, 박화성의 「사랑」, 유혜준의 「초혼가」, 최인욱의 「애정화원」 등). 1950년대 소설에서는 여성의식의 자각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양면성을 띠었다. 즉, 남녀평등을 주장하되, 과립치한 남성에게 대한 반감의 차원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김내성의 「애인」·「실낙원의 별」, 김말봉의 「푸른 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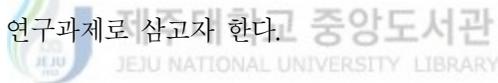
정한숙의 「여인의 생태」, 김영수의 「빙하」), 남녀평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작품들도 있다(정비석의 「민주어족」·「연가」 등). 특히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남녀평등의식을 가진 여성이 행복하게 되거나 긍정적인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도하면서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타협하고 마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다섯째,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사회부패상에 대한 인식은 ‘대항’의 양상으로 표출된다. 정치인·고급관료 등 지도층의 부패상과 정치불신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경우가 많고(정비석의 「낭만열차」·「민주어족」·「자유부인」·「슬픈 목가」, 장덕조의 「격랑」, 김말봉의 「생명」 등), 이른바 뇌물청탁과 권력동원이 난무하는 무구범성의 세태도 반영되고 있으며(최인옥의 「애정화원」, 장덕조의 「격랑」, 유해준의 「초혼가」, 박계주의 「별아 내 가슴에」, 김영수의 「빙하」 등), 깃바람·출세지상주의·사치 등 물질만능주의 풍조가 만연했음도 나타난다(박계주의 「별아 내 가슴에」, 박영준의 「형관」, 김말봉의 「생명」·「화관의 계절」, 김내성의 「실낙원의 별」 등). 이러한 사회비판은 사회재건 의지의 발현으로 이어진다. 1950년대 신문소설의 사회재건 의지는 청년들의 개척정신이 스스로 혹은 뜻 있는 기성세대들의 선도적 역할과 어우러져서 새 농촌 건설, 귀향교육, 민주적 회사운영, 비리척결 등을 실천하는 양상으로 생산·재건 현장에서 역동성 있게 발현되고 있다(정비석의 「슬픈 목가」·「민주어족」, 박화성의 「사랑」, 이무영의 「창」, 안수길의 「제이의 청춘」 등). 이처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는 현장을 포착하여 형상화함으로써 생산적인 면을 부각시킨 것은 당시 신문소설이 계몽적이고 계도적인 기능을 나름대로 수행하였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대중예술의 미학으로 취급되는 통속성의 요소 중에서 ‘관능성’·‘감상성’·‘야만성’이 주로 활용되었다. 할리우드 영화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관능성은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독자를 끌어들이는 가장 비중이 큰 요소로 작용했으며, 전쟁 직후 암울한 상황에 처했던 당시의 독자들에게 삶의 도피적 체험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로 기구한 사랑, 모성에, 죄책감, 서러움 등에 따른 눈물로 나타난 1950년대 신문소설의 감상성은 대중의 현실인식을 마비시키는 싸구려 눈물이라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지만, 대중의 카타르시스를 유도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 점도 있다. 이전의 신문소설에서는 그다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요소인 야만성이 1950년대 소설에서 두드러진 것은 전쟁이라는 엄청난 폭력적 상황을 경험한 것과 관련됨은 물론이요, 할리우드 액션영화나 서부극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이런 분석들을 종합하여 1950년대 신문소설의 소설사적 의의를 찾아보면, 1930년대에 주로 창작된 세태소설 양식을 계승했다는 점, 1930년대 후반기의 활성을 뛰어넘어 대중소설이 본격적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 제한적으로나마 현실비판의식을 표출함으로써 당시에 정치적 경직성 때문에 자리잡기 어려웠던 리얼리즘문학의 대안적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즉, 대중문화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1960년대의 텔레비전 보급을 앞두고 활자매체로서 ‘생활의 오락’의 기능을 최대로 누리면서도 나름대로 건강성을 유지한 것이 바로 1950년대 신문소설이라고 그 위상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방대한 분량이라 할 수 있는 34편의 장편소설을 텍스트로 삼음에 따라 개별 작품에 대한 논의나 작가에 대한 접근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아울러 사회성의 규명에 주된 관심을 둬서 문학적 자체적인 미학의 탐구가 소홀했다는 점, 대중문학으로서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다만 그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불모지나 다름 없이 버려져왔던 1950년대 신문소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을 통해 논의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연구의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경향신문』(김광주 「장미의 침실」, 김내성 「애인」·「실낙원의 별」, 박화성 「내일의 태양」, 유해준 「초혼가」, 이무영 「창」, 장덕조 「격랑」).
- 『동아일보』(박영준 「형관」, 안수길 「부교」, 이무영 「계절의 풍속도」, 정비석 「슬픈 목가」).
- 『서울신문』(김광주 「흑백」, 박계주 「별아 내 가슴에」, 박영준 「태풍지대」, 장덕조 「원색지대」, 정비석 「자유부인」·「유혹의 강」·「연가」, 최인욱 「애정화원」).
- 『조선일보』(김말봉 「푸른 날개」·「생명」·「환희」, 김영수 「병하」, 안수길 「제이의 청춘」, 임옥인 「젊은 설계도」, 정한숙 「여인의 생태」)
- 『한국일보』(김말봉 「화관의 계절」, 박화성 「고개를 넘으면」·「사랑」, 손소희 「태양의 시」, 염상섭 「미망인」, 정비석 「민주어족」·「낭만열차」, 한무숙 「빛의 계단」).

<단행본>

- 강준만. 『대중문화의 길과 속』. 한샘출판사, 1997.
- 강현두 편. 『한국의 대중문화』. 나남출판, 1991.
- 권영민. 『한국 민족문화론 연구』. 민음사, 1988.
- _____. 『한국 근대 문인 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0.
- _____. 『한국 현대 문인 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1.
- _____. 『한국현대문학사(1945~1990)』. 민음사, 1993.
-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 김병철. 『한국현대번역문학사연구·상』. 을유문화사, 1998.
- 김병택. 『한국현대시인론』. 국학자료원, 1995.
- 김영화. 『현대한국소설의 구조』. 태광문화사, 1977.
- _____. 『현대작가론』. 문장, 1983.
- 김주연 편. 『대중문학과 민중문학』. 민음사, 1980.
- 김창식. 『한국현대소설의 재인식』. 삼지원, 1995.
- 김 현. 『문학사회학』. 민음사, 1996.
- 대중문학연구회.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1995.
- _____.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6.

- _____.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 _____.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8.
- 문학과교육연구소. 『문학의 이해』. 삼지원, 1999.
- _____. 『한국현대소설사』. 삼지원, 1999.
- 박상하. 『추리소설 창작 노트』. 집문당, 1998.
-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 _____ 편역. 『대중예술의 이론들』. 동연, 1994.
- 백 철. 『신문학사조사』. 민중서관, 1963.
- 서광운. 『한국신문소설사』. 해돋이, 1993.
- 서영채. 『소설의 운명』. 문학동네, 1996.
- 손세일 편. 『한국논쟁사—문학·어학편』. 청람문화사, 1976.
- 양 평. 『베스트셀러 이야기』. 우석, 1985.
- 역사문제연구소.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 열화당영상자료실 엮음. 『궁핍한 시대의 희망, 영화—1950년대 우리 잡지에 실린 영화광고』. 열화당, 1998.
-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 1919~1989 작품색인』. 1990.
- 원용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한나래, 1997.
- 유지나 외 9인. 『멜로드라마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9.
- 이영미. 『한국 대중가요사』. 시공사, 1998.
- 이임자. 『한국출판과 베스트셀러』. 경인문화사, 1998.
- 이종오 외 8인.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1991.
- 이효재. 『한국의 여성운동—어제와 오늘』. 정우사, 1989.
- _____ 엮음.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비평사, 1994.
- 임성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태학사, 1995.
- _____ 외 6인. 『대중문학의 이해』. 청예원, 1999.
- 임영호 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한나래, 1996.
- 임현영. 『창조와 변혁』. 형성사, 1985.
- 전기철. 『한국전후문학비평자료집』. 학고방, 1989.
- 정문길. 『소외론 연구』. 문학과지성사, 1979.
- 정비석. 『소설작법』. 문성당, 1957.
- 정중화. 『자료로 본 한국영화사·2』. 열화당, 1997.

- 정하은 편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6.
- 정한숙. 『현대한국소설론』. 고려대학교출판부, 1977.
- _____.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6.
- 조남현. 『문학과 정신사적 자취』. 이우출판사, 1984.
- _____. 『소설원론』. 고려원, 1988.
- _____. 『삶과 문학적 인식』. 문학과지성사, 1988.
- _____. 『한국현대소설의 해부』. 문예출판사, 1993.
- _____. 『한국 현대소설 유형론 연구』. 집문당, 1999.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1988.
- 조성면 편저. 『한국근대대중소설비평론』. 태학사, 1997.
- 진덕규 외 10인.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 최정호 외 2인. 『매스미디어와 사회』. 나남, 1990.
- 한국사회사학회. 『한국현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지성사, 1997.
- 한국역사연구회.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1·2』. 역사비평사, 1998.
- 한국현대소설연구회. 『현대소설론』. 평민사, 1994.
- 『한국현대소설이론 자료집(4차)』. 국학자료원, 1990.
- 한무숙재단 편. 『한무숙 문학 연구』. 을유문화사, 1996.
-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 한원형. 『한국 개화기 신문연재소설 연구』. 일지사, 1990.
- _____. 『한국 근대 신문연재소설 연구』. 이회, 1996.
- 허문영 엮음. 『우리 시대의 대중문화』. 한나래, 1996.
- 현길언. 『소설 쓰기의 이론과 실제』. 한길사, 1994.
- 鶴見俊輔. 『戦後日本の大衆文化史』; 김문환 옮김. 『전후 일본의 대중문화(1945~1980)』. 소화, 1996.
- Abrams, M.H..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최상규 옮김. 『문학용어사전』. 대방출판사, 1985.
- Statt, David a.. *The Concise Dictionary of Psychology*; 정태연 옮김. 『심리학 용어사전』. 클리오, 1999.

<논문·평론>

- 강옥희. 「1930년대 후반 대중소설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논문, 1999.

- 고인덕. 「신문소설에 나타난 가치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80.
- 권선아. 「1930년대 대중소설의 양상 연구」—『짚레꽃』의 구조와 의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94.
- 김강호. 「1930년대 한국통속소설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1994.
- 김경수. 「한국 세태소설 연구—개화기에서 해방전까지」.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1992.
- 김동윤. 「1950년대 소설의 이데올로기 수용 양상—‘구세대’의 작품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1993.
- _____. 「1950년대 신문소설의 한 양상—정비석의 「자유부인」론」. 『국문학보』 제14집. 제주대학교국어국문학과, 1997.
- 김영덕. 「신문소설과 윤리」. 『자유문학』, 1957.7.
- 김창식. 「한국신문소설의 대중성과 그 즐거움에 대한 연구—해방 이후 작품을 중심으로」. 『우암어문론집』 제7집.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 김한식. 「1930년대 후반기 장편소설론 연구—통속소설론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 남상권. 「「자유부인」 시론」. 『국어국문학연구』 제25집.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 도춘길. 「춘원의 신문소설과 그 가치—「그 여자의 일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77.
- 문성숙. 「한국 대중문학론의 전개 과정 연구」. 『한국문학연구』 제20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8.
- 민병덕. 「한국 근대 신문연재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87.
- 박철우.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6.
- 박휘중.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1996.
- 백운주. 「1930년대 대중소설의 독자공감요소에 관한 연구—「흙」, 「상록수」, 「짚레꽃」, 「순애보」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1996.
- 백 철. 「농민문학을 제안—민족문학의 제재를 넓힌다?」. 『자유문학』, 1956.7.
- 변신원. 「박화성 소설 연구—사회 의식과 여성 의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95.
- 손종업. 「1950년대 한국장편소설 연구—전후의 근대성과 언어형식」.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8.
- 송경섭. 「일제하 한국신문연재소설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73.
- 신혜은. 「개화기 신문소설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1982.
- 안성수.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플롯연구 시론—「배따라기」, 「광염소나타」, 「운수좋은

- 날, 「날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89.
- 양영길. 「한국 근대문학사의 서술양상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논문, 1998.
- 양찬수. 「1930년대의 한국 신문연재소설의 성격에 관한 연구—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1977.
- 여홍상.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문학비평」. 『소설과 사상』, 1999.봄.
- 원우현. 「한국언론체도의 구조에 관한 서술적 고찰」. 『신문학보』 제14호. 한국신문학회, 1981.
- 유선영. 「한국대중문화의 근대적 구성과정에 관한 연구—조선후기에서 일제시대까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2.
- 유임하. 「전후소설과 대중문화의 상호 연관」. 『한국문학연구』 제20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8.
- 이종욱. 「일제하 신문연재소설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6.
- 이종호. 「1930년대 통속소설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1995.
- 정원근. 「일제하 신문소설에 나타난 민족의식에 관한 연구—동아일보의 「상록수」와 매일신보의 「향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988.
- 정세영. 「김내성 소설론」.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91.
- 정태용. 「신문소설의 새로운 영역」. 『사상계』, 1960.4.
- 조연현. 「간통문학론—새로운 성도덕 추구의 유형과 그 방향」. 『현대』, 1958.1.
- 최소영. 「이태준 신문연재소설 연구—독자공감요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5.
- 최영석. 「1950년대 한국신문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89.
- 추은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1997.
- 한명환. 「1930년대 신문소설 연구—소설론 및 소설의 ‘통속’ 수용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1996.

<신문기사·기타>

- 곽종원. 「신문소설의 공과」. 『동아일보』, 1958.5.28.
- 「광주계 혼란의 파문」. 『한국일보』, 1955.1.10.
- 김광섭 외. 「문학과 신문문화면(좌담)」. 『자유문학』, 1957.9.
- 김남천. 「조선적 장편소설의 일고찰」. 『동아일보』, 1937.10.21.
- 김문혜. 「『실낙원의 별』을 끝맺으며」. 『경향신문』, 1957.4.23.
- 김우중. 「신문소설의 사회적 영향—작가의 태도가 문제」. 『동아일보』, 1959.8.1.

김팔봉. 「서울신문'과 집필 거부와 나」. 『신세계』, 1957.1.
 「대학 4학년생 신문구독실태」. 『리쿠르트 Times』, 1997.4.7.
 「돌봐주어야 할 50만 미망인」. 『서울신문』, 1958.2.10.
 백 철.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자유부인」 논의와 관련해서」. 『대학신문』, 1954.3.29.
 _____. 「오인된 미국문화—부박과 퇴폐가 과장되다」. 『신태양』, 1958.9.
 「사찰 경내 풍기 단속」. 『서울신문』, 1955.4.1.
 안수길. 「창작 여담—「제이의 청춘」을 쓰고 나서」. 『신문예』, 1958.8.
 이무영. 「농촌과 문화—농촌담당의 행정자를 계몽시키라」. 『새벽』, 1956.7.
 이정선. 「「마스·메디아」로서의 한국영화—영화 기획의 방향과 우리의 반성」. 『자유세계』, 1958.4.
 「전국에 사창 오만(五萬)」. 『한국일보』, 1954.7.15.
 정비석. 「탈선적 시비를 박함」. 『서울신문』, 1954.3.11.
 _____. 「박인수의 경우」. 『전망』, 1958.10.
 _____. 「작가의 말」. 『자유부인』1. 고려원, 1996.
 「'황'마담을 기소」. 『한국일보』, 1955.1.10.
 황산덕. 「「자유부인」 작가에게 드리는 말」. 『대학신문』, 1954.3.1.
 _____. 「다시 「자유부인」 작가에게」. 『서울신문』, 1954.3.14.
 홍순엽. 「「자유부인」 작가를 변호함」. 『서울신문』 1954.3.21.
 기타 신문소설 연재예고 및 독자평.

<Summary>

A Study of the 1950's Novels Serialized in Newspapers

This thesis has emerged with the necessity of the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1950's novels serialized in newspapers which have been partly discussed within the limit of only a few works. Thus we develop the discussion by espousing literature-sociological, acceptance-esthetic methods, analyzing and studying the positive materials. Especially with the consciousness of the characters of the history of novels and popular novels, we put emphasis on reestablishing the phase of the 1950's novels serialized in newspapers by considering the phases of human beings and social cognition. Excerpt:

First, we examine the background as the first step to study the 1950's novels serialized in newspapers. As a result, we can know the fact that such popular culture during the period, as the movie and the popular music was America-inclined, and that it had a strong circulation. It means that the advent of the popular culture had affected the novels. The characters which we grasp are that the papers had increased their pages and readers, and that commercialism had been initiated. Newspaper companies had serial stories linked to a sales strategy, and the writers could not help but being exposed by its influences. The writers often promoted the companies, and used a popular factor to attract the readers' attention. Also, the stories could be changed by the readers.

Second, we grasp the meaning(sociality) of the setting by examining their social phase in the 1950's. The result is that the main characters were mostly women, people in their 20's, graduates in scholarly attainments, students, housewives, industrialists, and educators in profession. These phenomena are related to the women's problem or the aspect of love. And the reason why the characters of the higher classes were set is that it reflected the level-up desire of the masses. This shows that it is far from realizing the people of the lower classes. At the same time, the reason the novelistic function of women was strengthened is that the family system was dissolving and society was being reformed. Exoticism, decadence-epicureanism, and political distrust are reflected in appellation.

Third, pro-American ideology and anti-communism were generally hegemonic-dominant in the 1950's. When pro-American ideology was strong, newspaper novels reflected the phases of social life inundated with an American style of liberalism and decadence-epicureanism. many works represented pro-American ideology straightforwardly(*Life* by Kim Mal-bong, etc.). And pleasure-seeking boosted by American culture ethos like undesirable dancing trends was described in a considerable number of novels(*Free Woman* by Jung Bee-suk, *Love* by Park Hwa-sung, and *Black and White* by Kim Kwang-joo, etc.). Anti-communistic ideology which was the other absolute value dominating the 1950s became salient in the novels. It is true that some of them took a passive resistance by representing evil influences on McCarthyism(*A Sad Pastoral Song* by Jung Bee-suk, etc.), but most used anti-communist logic recklessly in their works(*A Genre Picture of Season* by Lee Mu-young, *A Crown of Thorns* by Park Young-jun, and *Stars, to My Heart* by Park Kea-ju, etc.).

Fourth, the perception of women's problems which was dealt in the 1950's appears as a negotiated-corporation. The works which visualized the widows' problems increased by war urged society to pay its attention to them, or often realized the problems concerned with their sexual desire(*A Widow* by Yum Sang-sup and *A River of Temptation* by Jung Bee-suk, etc.). Many works reflected the vanity of leisured women and female college students(*Free Woman* by Jung Bee-suk and *A Garden of Affection* by Choi In-ook, etc.). The novels took on a double-faced attribute that shows both limitation and perception of women's consciousness. In other words, the way they asserted the equality of the sexes is that they raised the problem by antagonizing shameless men(*Stars in Lost Paradise* by Kim Nae-sung, *Blue Wings* by Kim Mal-bong, *The Mode of Life of Women* by Jung Han-sook, and *A Glacier* by Kim young-soo), and there are also other works which maintain a negative view about the equality of the sexes(*A Gigolo's Song* by Jung Bee-suk, etc.). In the 1950's, the newspaper novels depicted women with ideals of the equality of the sexes scarcely became happy, nor did the novels end with happy endings. They raise the problem of sexual discrimination, but at the same time they compromise with patriarchy.

Fifth, the consciousness of the social corruption is represented as the phase of the opposition in the 1950's newspaper novels. Political distrust against politicians and high-level officials with their corruption is strongly raised in the novels(*The Romantic Train* and *A Sad Pastoral Song* by Jung Bee-suk, and *Raging Waves* by Jang Duck-jo, etc.), and so-called bribes-and-abusing-power-rampant normlessness is reflected(*A Garden of Affection* by Choi In-ook, *Raging Waves* by Jang Duck-jo, and *A Song to Invoke the Spirits of the Dead* by You Hae-jun, etc.), and rampant money-oriented ethos is also represented(*Stars, to My Heart* by Park Kea-ju, *A Crown of Thorns* by Park Young-jun, *Life* and *The Season of the Corolla* by Kim Mal-bong, etc.). These social critics are followed by the revelation of the willing to restructure society. That the novels performed the enlightening and leading functions is shown by the fact that they captured the sites of overcoming the ruins from war and gave spotlights to production by visualizing them.

Sixth, the erotic, the sentimental, and the barbaric among popular factors known as esthetics of popular art have been mainly espoused. The erotic which is considered to be influenced by Hollywood movies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attracting readers, and letting them be exposed to the experience of a life of escape from their gloomy situation right after the war. We cannot exclude the point that it is a 'cheap tear' which paralyzes their awareness of reality, but it conducted a social function which gives them catharsis. The reason the barbaric is prominent which was not before is that they experienced enormous violence called war, and that it is greatly influenced by Hollywood action movies or Westerns.

Seventh, we can find the novel-historical meaning of the 1950's newspaper novels by synthesizing the analysis: they succeeded to the patterns of the novels of manners created mainly in the 1930's, they paved the way to serious popular novels by leaping activation in the late 1930's, they partly played an alternative role of realism literature by presenting, though it is limited, reality-criticism which was hard to settle due to an ossified political system. That is, it is the 1950's newspaper novels that exerted their function of 'entertainment of life,' and maintained the soundness facing the 1960's distribution of TV sets during the period of popular culture's advent.

작가/작품	주요인물	성	연령	혼인관계	직업	학력
<부록 I> 정비석 「자유부인」	1950년대 신문소설의 주요 인물 일람					
	장태연	남	35	기혼	주부/양품점	대졸(여전)
	신춘호	남	42	기혼	교수/한글학자	대학원졸?
	한태석	남	20대	미혼	대학생	대재(영문과)
	최윤주	남	40대초반	기혼	사장	
	오병현	여	30대	기혼→이혼	주부→사업준비	대졸(여전)
	박은미	남	50대	기혼	[교원→]국회의원	대졸?
	백광진	여	25~26	미혼	미군부대타이피스트	
	원효삼	남	35~36	기혼	사기꾼	
	원효삼	남	20대	미혼	대학생	대재(국문과 4)
	오명옥	여	20대	미혼	대학생	대재(4)
이월선	여	40?	기혼	양품점 경영		
김말봉 「푸른날개」	권상오	남	20대	홀아비	여고 역사교사	대졸
	추백련	여	20대	미혼	무직?	대졸(가사과)
	윤지순	여	29	남치미망인	스탠드바 마담→간호원	간호학교 졸
	박경래	여	40대	기혼	토건회사 사장	대졸(일본 상과)
	박창현	남	22	미혼	대학생	대재(국문과 2)
	미스현	여	30대초반	이혼	양품점 주인	대졸(일본 전문)
	한영실	여	20대	미혼	피아니스트	대졸?
	송현숙	여	20대초반	미혼	은행원	여상 졸업
	김상국	남	27	미혼	선장(밀수꾼)	대퇴(수산대학)
	송예준	남	20대	미혼	해군 대위	
염상섭 「미망인」	명식	여	23	전쟁미망인	피복공장 종업원 등	여중 2년 중퇴
	명신모친	여	50?	미망인	식모/다방 허드렛일	
	신홍식	남	26	미혼	대학생→방직회사	대재→졸업
	홍식부친	남	50대	기혼	피복공장 사장	
	조씨부인	여	45?	미망인	재봉일	
	김금선	여	30대초반	미망인	미군부대근무(양공주?)	대퇴(일본 전문)
	박창규	남	30대초반	기혼	다방겸 요릿집 경영	
	인임	여	21	미혼	대학생	대재(의대)
	인웅	남	24	미혼→결혼	대학생→	대재(공대)→졸업
회장마담	여	40대	미망인	전물미망인원호회장	대졸(일본)	
김내성 「애인」	임지운	남	30	미→결→이	소설가	대졸
	오영심	여	25	미혼→결혼	[교사→]무직	대졸(영문과)
	이석란	여	23	미→결→이	대학생	대재(정치외교과)
	유민호	남	32~33	이혼→등거	변호사/상사사장	대졸(법전)
	채정주	여	20대	미혼	대학생/가정교사	대재(의대)
	박준모	남	20대	미혼(약혼)	무직(유학준비)	대졸(정치외교과)
	허정옥	남	30대	미혼→결혼	현역중령	대퇴(일본 대학)
	박미경	여	20대	미혼	타이피스트	
	정임	여	20대	미혼(약혼)	대학생	대재(2)
	마담로즈	여	40대	미망인	음식점(술집) 마담	

작가/작품	주요인물	성	연령	혼인관계	직업	학력
박계주 「별아 내가슴에」	이미혜	여	22~23	미혼	대학생	대재(음악과)
	현암	남	49	홀아비	소설가	대졸
	현선일	남	24	미혼	시나리오작가	대졸
	홍정숙	여	40대	남치미망인	주부	
	문은심	여	20대	미혼	대학생	대재(영문과)
	선월이	여	40대	미혼(미혼모)	[기생→]구멍가게	
	허영희	여	40대	기혼	주부?	여학교졸 이상
	최철	남	40~50대	기혼	영화사 사장	소학교 졸업
정비석 「민주어족」	강영관	여	23	미혼	회사원	대졸
	강영희	여	26	미망인	주부→모자아파트관리	여학교졸 이상
	배영환	남	25	미혼	공무원(사세청→전매청)	대졸
	박재하	남	40	홀아비	알미눔제작소사장	대졸(공대)
	홍병선	남	26	미혼	알미눔제작소연구원	대졸(일본)
	오창준	남	32	기혼→이혼	변호사	대졸
	김은애	여	20대후반	기혼→이혼	주부	여학교졸 이상
	고순례	여	23	미혼	공무원(타이피스트)	고녀 졸업
	장현옥	여	20대	미혼	공무원(전매청사무원)	
	박화성 「고개를 넘으면」	한설희	여	22	미혼	대학생
박철규		남	24	미혼	대학원생	대학원재(의대)
한진수		남	24?	미혼	대학원생/조교	대학원재(공대)
김영옥		여	22	미혼	대학생	대재(영문과)
윤형빈		남	24	미혼	대학원생	대학원재(법대)
한혜순		여	22	미혼	대학생	대재(정외과)
박장훈		남	44	기혼	병원장	대졸(의학전문)
유금지		여	41	미망인	주부?	여고보 졸업
김상배		남	43	기혼	사장(버스회사)	대졸(상과)
심정희		여	46	기혼	주부	여고보 졸업
박영준 「형관」	고현주	남	20대	미혼	체대군인→대학생	대재
	고한주	남	30대	기혼	검사	대졸
	홍광윤	남	20대	미혼	다방에 커피납품	대졸?
	홍종아	여	20대	미혼	수예	
	권상구	남	20대	기혼	현역대위	
	민경옥	여	32	미혼	국민학교 교사	사범학교?
	정혜련	여	20대	기혼	털웃 장사꾼	
	최복희	여	20대	미혼	양공주	대퇴(여대)
	정홍서	남	20대	미혼	토건업자	대졸
	노영애	여	20대	미혼	기생	
이무영 「창」	한현주	여	24	미혼	대학생	대재(4)
	이인배	남	30대	기혼	의사	대졸
	유창근	남	34	홀아비	무역회사 사장	대졸
	황재봉	남	30	미혼	교과서회사 근무	대졸
	이채순	여	40	기혼	주부	
	장태수	남	40대후반	기혼	교수	대학원졸/박사
	김영자	여	40대초반	미혼?	요정마담	
서정혜	여	30대초반	이혼	무직?	대졸	

작가/작품	주요인물	성	연령	혼인관계	직업	학력
유해준 「초혼가」	박성인	남	20대후반	미혼	신문기자	대퇴
	김태섭	남	20대후반	미혼	회사원	대졸
	성인모친	여	40대후반	미망인	[교사→]학교매점운영	대졸?
	현일엽	여	25	미혼	여학교국어교사	대졸
	강선영	여	39	미혼(첩)	무직	
	장주애	여	20대	미혼	댄스홀가수	대졸
정한숙 「여인의 생태」	결란	여	30대	기혼	주부→양품점 경영	사범학교 졸
	옥순	여	30대	기혼	주부	여고 이상
	혜숙	여	30대	기혼	국민학교 교원	사범학교 졸?
	윤순옥	여	33	월북미망인	다방마담	여고 이상
	정혜	여	34	기혼	주부	여고 이상
	김씨	남	43	기혼	포목도매업자	
	윤난희	여	20대초반	미혼	대학생	대재(영문1)
	문창수	남	20대초반	미혼	대학생	대재(영문1)
미스티고	남	30대	기혼	사장	고졸?	
정비석 「낭만열차」	원낙영	남	50대	기혼	물리학 교수	대학원졸?
	권달수	남	50대	기혼	[교원→]국회의원	대졸
	박난심	여	33~34	이혼	요정마담	대퇴
	김정옥	여	33	남치미망인	쌈바느질	
	원설영	여	24	미혼	공무원(문교부)	대졸(국문과)
	원동준	남	20대초반	미혼	대학생	대재(법대)
	권채옥	여	20대	미혼	대학생	대재(정치과)
	김장현	남	20대	미혼	대학원생	대학원재
김내성 「실낙원의 별」	강석운	남	43	기혼	소설가	대졸(일본)
	김옥영	여	38	기혼	주부	여학교졸 이상
	강학선	남	70	기혼	교수(총장 역임)	대학원졸?
	고종국	남	61	기혼	양조장 사장	대졸(법과)
	고영해	남	35~36	기혼	양조장 전무	대졸
	고영립	여	23	미혼	대학생	대재(영문과4)
	한혜련	여	32	기혼	주부	대졸(가사과)
	송준오	남	20대	미혼	무직(유학 준비)	대졸(법과)
	이애리	여	23	미혼	사무원→댄스홀개업	대퇴(미술과2)
	유현자	여	23?	미혼	양조장 사무원	
	황산옥	여	30대후반	미혼(첩)	[화류계→]무직?	
박화성 「사랑」	김민우	남	25	미혼	대학원생/교과강사	대학원재
	김찬애	여	21	미혼	은행원→가정교사→은행원	고졸
	정남철	남	29	미혼	대학생/출선생	대재(상대)
	강희봉	여	20	미혼	사범고등학교생	사범고등재학
	홍유옥	여	23	미혼	대학생	대재(가사과)
	홍인식	남	21	미혼	대학생	대재
	신종숙	여	46	미망인	바느질	여고3년중퇴
	장계선	여	51	기혼	[화류계→]주부	
	황사장	남	50대?	기혼	무역회사 사장	
	홍관수	남	50대	기혼(재혼)	은행과장→부장	상업학교졸
	이혁	남	20대중반	미혼	대학생(고학)	대재

작가/작품	주요인물	성	연령	혼인관계	직업	학력
김말봉 「생명」	전장님	여	22	미혼	대학생	대재
	설병국	남	25	미혼	중학교 교사	대졸(영문과)
	김정미	여	22	미혼	대학생	대재
	유화주	여	32~33	이혼	미술가/밀수업자	대졸(일본 미대)
	김한주	남	52	기혼	사장(광산업)	
	오현무	남	20대	미혼	대학생/가정교사	대재
	허여사	여	50?	기혼	주부	
	혜옥	여	20대	미혼	대학생	대재
	김기철	남	20대	미혼	대학생	대재(정경과2)
최인욱 「애정화원」	유종섭	남	20대후반	미혼	신문기자→영화감독	대졸
	허영숙	여	24?	미혼	대학생→영화제작	대재
	송진욱	여	24	미혼	대학생(직장인)→고아원	대재
	황원태	남	44	기혼	사장	
	하은주	여	23	미혼	대학생/댄서→배우	대재
	길명선	남	30대	기혼	여대영문과교수	대학원졸?
권영목	남	32~33	미혼	은행저축과장	대졸(미국)	
김광주 「장미의 침실」	주리애	여	35	남치미망인	배우	대졸(음악과)
	솔개미	남	33	미혼	건달→국회의원출마	
	박한일	남	40대초반	기혼	연출가/극작가	
	왕우일	남	45~46	기혼	방직회사사장→국회출마	
	왕우이	남	40대	홀아비	[군인(대위)]→사무직	대퇴(일본)
	강명옥	여	39	미혼(첩)	[기생]→무척	
	강복자	여	17	미혼	창녀→극장매표원	여학교2년 중퇴
소란	여	25	미혼	시립병원 간호원	고졸	
박영준 「태풍지대」	손창우	남	20대후반	미혼	은행원	대졸
	명권숙	여	24?	미혼	무직?	대졸?
	조치구	남	34	기혼	고교 교사	대졸
	주미림	여	20대	미혼	약장수→	여고졸
	손명규	남	40~50	기혼	극장지배인	
	손애령	여	24	미혼	무직→극장아나운서	대졸?
	최상희	여	42	기혼	주부→당구장	
	선우영	여	24	미혼	무역회사타이피스트	대졸
	유길추	남	40대?	기혼	의사	대졸
	강삼모	남	20대후반	기혼	극장직원	
	옥순	여	42	기혼	주부	
임천식	남	20~30대	미혼	군인(육군소령)		
안수길 「제이의 청춘」	엄택균	남	49	기혼→홀아비	월간잡지사 사장	대졸(일본)
	김성희	여	24~25	미혼	맹아학교 음악교사	대졸(음악과)
	유자애	여	40	기→이→재	주부?	여학교졸 이상
	윤필구	남	25~26	미혼	대학원생/강사/기자	대학원재(공대)
	최영호	남	29	미혼	잡지사편집장→학교경영	대졸?
	신현우	남	42~43	홀아비→재혼	[기자]→증권회사과장	고졸 이상
	김종모	남	40~50대	기혼→이혼	사장	
	백은주	여	25	미혼	증권회사 사무원	
	이경희	여	40?	기혼	주부(계주)	여학교졸 이상

작가/작품	주요인물	성	연령	혼인관계	직업	학력
정비석 「슬픈 목가」	강병철	남	27	미혼	예비역중위→농업	대졸?
	김경호	남	25	미혼→결혼	농업	대졸(사회과)
	이선옥	여	23~24	미혼	대학병원간호원	간호학교졸?
	한도숙	여	28	기혼(동거)	소매치기 두목	
	염창훈	남	50대후반	기혼	지계꾼→농업	
	충남	남	14	미혼	소매치기	
	현홍섭	남	51	기혼	공무원(국장→차관)	
	황현태	남	47~48	미혼(동거)	[선원→]건달	
	김상원	남	27	미혼	소매치기 부두목	
최홍섭	남	50대	기혼	판사	대졸?	
김말봉 「화관의 계절」	강유애	여	22	미혼	대학생	대재(국문과3)
	송창욱	남	28	미혼	신문기자	대졸
	민수산나	여	36	미혼	영화배우	유학(무용,미학)
	금별	남	24?	미혼	영화배우	대졸
	허인규	남	53	미혼	[무역업→]무직	중학교 중퇴
	송명희	여	30	미혼	공예사 주인	대졸(미술과)
함정관	남	48	기혼	영화사 사장		
장덕조 「격랑」	한은주	여	20대	미혼	대학생(야학교사)→교사	대재→졸업
	한은영	여	19	미혼	고교생	여고재학→졸업
	유준식	남	20대	미혼	대학생/야간교실운영	대재
	최금희	여	20대	미혼	회사원(외국인상사)	고졸
	김옥	남	30대?	미혼	은행 업무부장	
	박장렬	남	38~40	미혼	대학강사	대학원졸
추련	여	30대	전쟁미망인	조각가	대졸(일본)	
정비석 「유혹의 강」	최선애	여	37	남치미망인	주부	여학교 졸업
	윤만호	남	45	기혼	의사	대학원(의학박사)
	장귀순	여	37	남치미망인	다방 마담	여학교 졸업
	오영환	남	40	기혼	토건회사 사장	대졸
	순이엄마	여	27	전쟁미망→결	식모	
	홍순주	여	35	전쟁미망인	달러장수	
	이경혜	여	33	”→후처	화장품장수	
	장길녀	여	29	전쟁미망인	미군PX점원	
	김진옥	여	29	남치미망인	교사	대졸
	황희숙	여	36	”→제혼	주부	
	유옥분	여	32~33	전쟁미망인	주부?	
	권숙경	여	40	기혼	주부	
	송진국	남	62	기혼	사장	
	장치순	남	30대초반	미혼	교사	대졸
이중섭	남	62	홀아비→제혼	양조회사 사장		
송태섭	남	14~15	미혼	중학생	중학재학	

작가/작품	주요인물	성	연령	혼인관계	직업	학력
박화성 「내일의 태양」	남희과	여	27	이혼	[PX근무→]다방출납계	여고졸업
	남희숙	여	22	미혼	대학생	대재(정치과3)
	윤형진	남	25	미혼	은행원	대졸(상대)
	선우억	남	27	미혼	방직회사 사원	대졸(공대)
	윤혜경	여	22	미혼	은행원	대재(야간대)
	윤형옥	여	30대?	기혼	주부	
	을순	여	21	미혼	농업?	
	윤현수	남	50대	기혼	농업?	
	이복주	여	21	미혼	다방 레지	
임옥인 「젊은 설계도」	강난실	여	27?	[동거→미혼]	양재사/양장점경영	대졸
	민석호	남	30대초반	미혼	의사	대학원졸(박사)
	민석영	여	30대	미혼	무직	대퇴(국문과3)
	민석구	남	20대	미혼	무직	대졸(유학포기)
	고혁	남	20~30대	[동거→미혼]	소설가/잡지사주간	대퇴(학병)
	윤정애	여	25?	기혼	미장원경영	여학교졸
	황근희	여	20대	[동거→미혼]	양장점근무	대퇴(사회사업과)
	진영숙	여	20대	미혼	대학생	대재(정외과4)
	추익태	남	20~30대	기혼	강패	
	김경희(K)	여	27	미혼→결혼	디자이너	대졸
신형근	남	47	홀아비→미혼	실내장식가		
장덕조 「원색지대」	남광미	여	21	미혼	대학생	대재(불문과 2)
	최준환	남	50	기혼	제당회사 사장	대졸(일본)
	김옥정	여	20대	미혼	비서→카바레→가수	
	명유라	여	21	미혼	대학생	대재(불문과 2)
	박사일	남	27~28	미혼	비서장	
	최혜경	여	20대	미혼	대학생	대재(4)
	로무로	남	20~30대	미혼	가수	
	미스케리	여	20대	미혼	카바레 여급	대퇴(4)
이무영 「계철의 풍속도」	송자옥	여	40?	월북미망인	주부?	대졸(전문)
	안태식	남	40대후반	기혼	교수/세균학자	대학원졸/박사
	안지숙	여	23	미혼	대학생	대재(국문과4)
	양미리	여	26~27	미혼	유학생	유학(프랑스)
	박철웅	남	40대후반	기혼	[국회의원→]간첩	대졸(법과)
	우경희	여	40대초반	남치미망인	주부?	대졸?(전문)
	박현수	남	30대후반?	미혼	무직?	대졸(상과)
	윤주옥	여	25	미혼	대학생	대재(음악과4)
	한애련	여	20대	미혼	대학생	대재(4)
	안상훈	남	20대	미혼	대학원생	대학원재
	박은덕	여	61	미혼	자선사업가	대졸?
박진국	남	14	미혼	국민학생	국민학교6	

작가/작품	주요인물	성	연령	혼인관계	직업	학력
김말봉 「환희」	오상권	남	24	미혼	대학생→영화사사무	대재(4)
	김순영	여	23	미혼	대학생→비서→영화사	대재(가사과3)
	박찬애	여	23?	미혼	대학생→	대퇴
	김인희	남	24?	미혼	대학생	대재(4)
	장순실	여	44~45	미혼(첩)	[기생→]요릿집→사장	여중 중퇴
	옥설란	여	26	미혼	[간호원→]영화배우	여고졸
	김태석(청하)	남	33	미혼	관리인	국졸 이상
김찬국	남	51	기혼	사장	고졸?	
김광주 「흑백」	공미주	여	19	미혼	신인여배우	고졸
	최명훈	남	35	미혼	신인영화감독	대졸(야간문과)
	공창수	남	40대후반	기혼	무역회사 사장	
	공부인	여	45	기혼	주부	
	최선숙	여	20	미혼	간호사	간호기술고등졸
	이일성	남	27~28	미혼	무직(출선생)	대퇴(數物과4)
	안수인	남	34~36	미혼	성악가	대졸(성악과)
	손춘호	남	27~28	미혼	건달	
	손갑성	남	48	기혼	홍행조합이사장	
손소희 「태양의 시」	주윤희	여	20대	미혼	대학생	대재(국문과4)
	숙의	여	20대	미혼	대학생	대재(국문과4)
	민식	남	20대	미혼→약혼	시인	대졸?
	민우	남	35?	미혼	변호사	대졸
	하련	여	20대	미혼→약혼	무직	대퇴(연극영화과)
	남도일	남	20대	미혼	대학생?	대재?
	김훈구	남	20대?	미혼	학자	대졸(응용과학과)
이필우	남	30대?	미혼	미술강사	대학원졸?	
안수길 「부교」	김남주	여	24	미혼→약혼	피아니스트	대졸(음악과)
	임동호	남	40대후반	기혼	의사/음악평론가/수필가	대학원졸/박사
	이정순	여	40대	기혼	주부	여학교졸
	노금희	여	29	기혼	[간호원→]주부	간호학교졸?
	윤태섭	남	30대	기혼	운동구·악기점경영	고졸?
	최지애	여	24	미혼	신문기자	대퇴
	강득수	남	25	미혼	무직→출판사	대졸(문학)
	임용기	남	26	미혼	군인→전역	대학휴학
	강치규	남	73	홀아비	[군수/사업가→]무직	관립고교졸
	정선비	여	46	미망인	요정마담→유치원보모	보육학교졸
	김춘배	남	40대?	기혼	제분회사 사장	
박기택	남	29	미혼→약혼	교사/성악가	대졸(음대)	
김영수 「빙하」	정경애	여	40대	기혼	주부	여학교졸 이상
	최건호	남	49	기혼	사장/밀수업자	
	최난주	여	20대	미혼	잡지사기자	대퇴(국문과3)
	김창수	남	35~36	홀아비	잡지사기자	
	주마담	여	32~33	미혼(첩)	무직?	
	최옥	남	10대후반	미혼	고교생	고교3
	채진구	남	27	미혼	군인	대졸(농과)
	채근희	여	20대	미혼	대학생	대재(불문과3)
	손가	남	40대?	기혼?	[토건업→]무직	
	차보배	여	40대	[동거→]미혼	유치원 원장	여학교졸 이상
윤여창	남	20대	미혼	군인	대졸?	

작가/작품	주요인물	성	연령	혼인관계	직업	학력
정비석 「연가」	방준길	남	36	홀아버	변호사	대졸
	이숙경	여	26	미혼	변호사사무실사무원	대졸(법문학부)
	김정옥	여	27	미혼	무직?	대졸(영문과)
	임보희	여	27	미혼→결혼	무직?	대졸(영문과)
	구영희	여	40	기혼→이혼	주부?	
	안건식	남	40대	기혼→이혼	토건회사 사장	
	채순실	여	34	미혼	요릿집 마담	
	유혜연	여	31	미혼	요릿집 마담	
	박미심	여	25	미혼→첩	요릿집 기생	
	문기만	남	38	기혼	여학교 교감	대졸
방준숙	여	27	미혼→약혼	무직	대학원졸	
한동욱	남	29	미혼→약혼	공무원(외무부여권과)	대졸	
한무숙 「빛의 계단」	임형인	남	38	미혼	사장	대졸(일본)
	윤경진	여	26	미망인	주부→박물관	고졸?
	서병규	남	62	기혼	[은행장→]무직	대졸(일본)
	서정식	남	38	기혼	의사	대학원졸/박사
	서정원	여	21	미혼	대학생	대재(의대)
	서정해	남	31	미혼	박물관 근무	대졸(사학과)
	미스윤	여	21	미혼	홀 여급	고졸?
	난희	여	21	미혼	대학생	대재(의대)



<부록 II> 1950년대 신문소설의 작품별 개요

1. 정비석 「自由夫人」

- ① 花交會(1~11회): 오선영은 화교회 가는 길에 옆집 대학생 신준호를 만나 대화를 나눈다. 화교회에 참석하여 회원들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본 오선영은 집안에만 박혀 사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 ② 그리운 世界(12~21회): 오빠 오병현 집에 들렀다가 한태석 아내의 화장품점 경영을 맡기로 하고 나오던 길에 오선영은 조카 명옥과 신준호의 키스 장면을 본다. 신준호와 함께 귀가하던 오선영은 그에게 댄스를 배우기로 한다.
- ③ 平和革命(22~32회): 장태연은 한글철자법 강습을 구실로 박은미를 만날 계기를 만들게 되고, 오선영은 신준호의 방에서 댄스를 배우기 시작한다.
- ④ 職業戰線(33~43회): 오선영은 과리양행에 근무하게 된다. 손님이었던 백광진의 사업제의를 받게되는가 하면 한태석을 만나게 되는 선영은 한 사장의 말에 따라 양장을 살 궁리를 한다.
- ⑤ 幻想交響樂(44~54회): 장태연은 박은미를 만나 영화를 함께 보고 식사한 후 다방에 들어가려다가 오병현을 만난다. 오병현은 선거구인 고향에 신설하는 중학교 교장을 맡아달라고 제의하지만 장태연은 거절한다. 오선영은 신준호의 방에서 춤추다가 포용과 키스까지 하기에 이른다.
- ⑥ 魚心·水心(55~65회): 남편이 바람난 최윤주는 이혼한다. 오선영은 백광진과 만나지 못해 하던 중 한태수를 만나 화교회 댄스 파트너가 돼 달라고 청한다.
- ⑦ 神聖可侵(66~75회): 오선영은 자기집 안방으로 신준호를 불러다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는데, 결국 장태연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
- ⑧ 時代風潮(76~85회): 오선영이 신준호와 해군장교구락부에서 춤추던 중 오명옥을 만난다. 장태연은 박은미로부터 원효삼의 점수를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지만 거절한다.
- ⑨ 領域侵犯(86~95회): 이월선의 감시를 받는 가운데 오선영은 백광진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판다. 그녀는 보증수

표를 받고 남편 몰래 원효삼의 점수를 높여주면서 그 수표로 양장을 사기로 결심한다.

- ⑩ 人生勝負(96~106회): 백광진과 관계를 맺던 최윤주는 그의 사기에 넘어간다. 오선영은 선거비용을 빌려달라는 울케의 요구를 거절하고 한태석과 식사하러 가던 도중 이월선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앙심을 품는다.
- ⑪ 心理波紋(107~117회): 장태연은 강습 후 박은미를 바래다 주면서 묘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신춘호 방에서 춤을 배우던 오선영은 춘호의 피입에 넘어가 몸을 허락하려던 찰나 때맞춰 찾아온 아이들 때문에 빠져나온다.
- ⑫ 虛榮無限(118~127회): 오선영은 백광진에게 속아 가져수표를 거슬러준다. 그녀는 나이롱 한복을 해입고 최윤주가 주도하는 계모임에서 대낮에 술 마시며 즐긴다.
- ⑬ 混沌天地(128~138회): 당선만 생각하는 오병현의 태도를 못마땅해하던 장태연은 아내의 사생활에 대한 익명의 편지를 받고 고민한다. 그는 오선영이 양복을 맞춰 입은 걸 보고 언쟁을 벌인다.
- ⑭ 有名無實(139~150회): 오선영은 백광진을 못만나 하던 중 오명옥과 함께 미국 간다는 신춘호와 점심을 먹고 밤에 또 만나기로 한다. 그녀는 한태석에게 돈 빌리기로 한 후, 신춘호를 기다리던 중 남편을 만나 귀가한다.
- ⑮ 遠浦歸帆(151~161회): 장태연은 강습 수료식이 끝나 박은미와 귀가하던 중 그녀가 원효삼과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상념에 빠졌다가 아이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며 자신을 반성한다.
- ⑯ 收支不計(162~171회): 오선영은 신춘호에게 실연당하는 한편 백광진도 최윤주와 주말여행 갔음을 알게 되자 견책을 수 없는 패배감에 빠진다.
- ⑰ 百尺竿頭(172~181회): 오선영은 남편을 무시하고 댄스파티에 한태석과 함께 가기로 결심을 굳힌다.
- ⑱ 更進一步(182~193회): 오선영은 한태석과 댄스파티에서 춤추고 나와 호텔에 들어갔는데, 결정적인 순간 이월선이 나타나 정신없이 도망 나온다.
- ⑲ 四面楚歌(194~203회): 통금에 걸려 파출소에서 밤을 보낸 뒤 친정에 들렀다가 귀가한 오선영은 장태연에게 혼나 뒤흔쳐 나온다.
- ⑳ 溫故知新(204~215회): 파리양행 점원인 미스윤 집에 머물며 누우치던 오선영은 낙태 후유증으로 입원한 최윤주를 보며 괴로워 한다. 그녀는 국회 공청회에서 장태연의 자랑스런 모습을 방청한 후 용서받고 귀가한다.

2. 김말봉 「푸른 날개」

- ① 젊은이들(1~12회): 교사 권상오는 퇴근길에 박경래 사당으로부터 딸의 보결입학을 부탁받았으나 거절한다. 그 후 추백련 집에 방문했는데, 마침 정혜진(애련母)의 생신이어서 손님들이 들이닥친다.
- ② 미풍(13~34회): 미스현은 권상오에게 애정을 느끼나 권상오가 한영실을 좋아하자 적개심을 갖는다. 추백련과 박창현의 집안 사이엔 혼담이 오가지만, 박창현은 한영실에게 호감을 갖는다.
- ③ 정신위생(35~51회): 한영실에게 호감을 갖는 권상오를 송현숙, 미스현, 추백련이 모두 좋아하며 송예준은 미스현을 좋아한다. 귀가한 권상오에게 미스현이 방문하여 노골적 육탄공세를 벌이지만 권상오는 넘어가지 않는다.
- ④ 꿀벌과 바다와(52~62회): 스텐드바 '지혜'의 마담 윤지순은 권상오에게 연정을 느낀다. 그곳에서 추백련과 권상오가 만나는데 때마침 들어온 미스현이 추백련과 언쟁을 벌인다.
- ⑤ 공기의 생리(63~88회): 한영실은 약혼 예정자라며 김상국을 소개시킨다. 한영실은 권상오가 이복에 처 탄실을 두고 온 사실 때문에 그와 거리를 두려고 한다. 미스현은 김상국에게 파혼을 요구하나, 김상국은 거절한다. 미스현은 김상국의 정체를 추백련과 한영실 등에게 모두 말해버린다.
- ⑥ 사랑의 범주(89~109회): 권상오는 한영실에게 파혼하라고 한다. 한영실은 김상국에게 갔다가 미스현이 함께 있는 걸 본다. 미스현은 권상오 하숙방에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상오는 취해서 윤지순 방에서 밤을 지낸다. 다음날 지순을 방문한 미스현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자, 상오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 ⑦ 탈피(110~121회): 권상오는 부인을 포함한 식구 모두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상오는 지순과 결혼을 약속한다. 한편 정여사집에 강도가 침입하자 상오는 김상국을 의심한다.
- ⑧ 이마와 이마(122~138회): 결혼식 직전 미스현의 계략으로 김상국의 속임수와 정체를 알게 된 한영실은 식장을 도망쳐 나온다. 권상오는 여고 체육관건립비로 돈을 받고 백련과 약혼한다. 이튿날 파티장에서 김상국이 미스현에게 행패를 부리자, 권상오는 상국의 속임수를 폭로한다.
- ⑨ 대결(139~161회): 미스현의 고발로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김상국은 그녀 얼굴에 상처를 입힌다. 미스현은 얼굴 상처와 패배감 때문에 철로에서 자살한다. 탄실은 미스현을 병원으로 수송하면서 우연히 권상오의 청첩장을 본다. 권상오는 결혼식장에 찾아온 탄실과 함께 고향아주머리를 찾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 탄실은 죽고, 상오는 다리 하나를 잃게 된다. 그 모습을 본 백련이 실망해 떠나자 한영실이 그와 새출발을 다짐한다.

3. 염상섭 「未亡人」

- ① 명신이의 환도(1~9회): 서울행 기차표를 구하려던 명신모녀는 명신남편 친구의 동생 홍식을 우연히 만나 그의 배려로 좌석을 얻고 상경한다. 명신모녀는 홍식네 집에서 며칠 묵으면서 취직도 부탁해 볼까 했으나 홍식부친 등의 눈치 때문에 그 집에서 나오고 만다.
- ② 조씨부인의 경우(9~14회): 명신모친의 이종아우인 조씨부인 집에 갔더니 생각보다 반갑게 맞아 주었다. 명신의 취직문제 등에 대해 알아본다.
- ③ 첫 취직(15~24회): 홍식부자의 배려로 명신네는 과부 김금선 집에 살면서 모친은 그 집 식모로 일하고 명신은 피복공장에 들어간다. 명신네가 이사하던 날 홍식이 이불을 갖고 가자, 금선은 지나친 친절을 베푼다.
- ④ 새 환경(25~31회): 일본에서 전쟁중에 남편이 죽거나 헤어졌으며 해방직후 미군을 따라 귀국했다는 금선은 미군차를 타고 출근한다. 한편 홍식은 사무실에서 편의를 봐주는 등 명신에게 호의를 베푼다.
- ⑤ 교제(32~37회): 금선은 미국 가기 전에 대학 다니겠다고 홍식에게 알아봐 달라고 한다. 그 일로 금선을 만난 홍식은 그녀에 이끌려 다방에 갔다가 주인인 창규를 만나 셋이서 댄스홀에 가지만 못마땅하기만 하다. 금선은 창규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춤추며 논다.
- ⑥ 간선(38~44회): 홍식은 창규와 금선이 명신을 다방으로 끌어들여 하는 것을 말리고, 명신은 홍식에게 금선과 가까이 말라고 한다. 조씨부인이 인웅·인임과 함께 명신 모녀를 방문하니, 금선이 홍식과 인웅을 이층으로 이끌고 가서 춤춘다. 인임은 자신을 홍식에게 선행해 온 사실을 알고 최명식을 의심한다.
- ⑦ 중매(45~52회): 창규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명신에게 다방에서 일하라 하자 홍식은 만류한다. 명신모친은 홍식과 인임의 중매를 서지만 홍식은 명신을, 인임은 명식을 각각 마음에 두고 있다. 성탄절 이브를 맞아 인웅네 집에 인임, 진호, 명식, 홍식 등이 모인다.
- ⑧ 반발(53~62회): 조씨부인은 명식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홍식은 명신네가 금선의 다방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 사실을 알고 명신모녀의 새 거처를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한다. 그러던 중 명신모친은 다방으로 가고 명신과 딸은 안암동으로 일단 옮겼는데, 조씨부인은 홍식이 명신과 다니는 걸 보고 실망한다.
- ⑨ 또 바뀐 환경(63~73회): 명신 모녀는 홍식의 배려로 이사한다. 그러나 홍식이 아버지 회사돈을 빼돌린 것을 알고 명신모녀가 부담스러워하는데, 홍식이 명신과 결혼하겠다고 한다.
- ⑩ 혼란(74~82회): 명신과 결혼하겠다고 홍식과 그의 모친 사이에 언쟁을 벌인다. 명신의 집 주인은 남자가 자주 드나든다는 핑계로 집을 비워달라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홍식은 이사가자고 한다. 홍식이 부친에게 보증금 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부친은 명신에게 가서 홍식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한다. 결국 명신네는 그 집에서 나온다.
- ⑪ 새 각도에서(82~91회): 홍식은 카메라를 판 돈으로 조씨부인 집 부근에 방을 빌려준다. 다방에 들른 홍식은 명신이 새웃임고 머리단장한 걸 보고 불쾌해 하며 그녀를 데리고 나와서 외투 등을 사주고 포옹한다.
- ⑫ 혼인(92~97회): 인웅과 화숙의 결혼식 때문에 명신모친, 명신, 홍식 모두가 바쁘다. 이삼일간의 떠돌이 생활의 와중에서 명신과 홍식은 사랑을 키워간다.
- ⑬ 부자(98~107회): 홍식부친은 인임과 홍식의 결혼을 추진하지만, 홍식은 명신과 결혼하겠다고 한다. 명신은 홍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다방에 출근한다. 창규가 싫다는 명신과 양요리집에서 식사하고 택시로 바래다준다. 이를 안 홍식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홍식부친이 다방에 들러 명신모친을 통해 홍식과 인임의 결혼을 서두른다. 홍식은 며칠 후에 나타나 명신모친에게 인임네집에 가는 사주단자를 내놓으라고 한다.
- ⑭ 사주단자(108~111회): 명신모친은 사주단자를 갖고 인임네에게 찾아가고, 인임은 홍식이 명신네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홍식·명신과 얘기를 나눈다.
- ⑮ 집 한 채(112~115회): 금선을 내보냈으며 이층방의 주인이 됨은 물론 다방 근처에 집을 구해줄테니 거기서 살라는 창규의 말에 화난 명신은 다방에 가지 않는다. 홍식은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명신에게 부탁한다.
- ⑯ 어머니의 마음(116~123회): 이튿날 명신은 하루만이라도 다방에 있으라는 모친의 말에 따라 늦게까지 남아 있는데 홍식이 찾아온다. 창규와 손님들이 술마시며 수작하는 걸 본 홍식은 불안한 마음에 명신을 데리고 그녀집으로 간다. 그걸 본 명신모친은 안타까운 마음에 다음날 홍식부친에게 인임과의 택일 이야기를 전하면서 명신과 홍식이 좋아하는 사이라고 말한다. 그날 귀가한 홍식은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는다.
- ⑰ 두 갈래 길(124~134회): 홍식은 명신과 함께 갈 생각으로 부산의 방직회사에 취직하게 된다. 그러나 부산으로 함께 가자는 홍식의 요청을 명신모녀는 당장 받아들이지 못한다. 일단 홍식 혼자 먼저 갔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기로 했는데, 그동안 창규가 세를 내준 집으로 이사하니 그가 자꾸 드나들며 술상을 차리게 하는가 하면 옆방에서 잠자기도 한다. 참다못한 명신은 혼자 부산에 다녀오기로 한다.
- ⑱ 새 살림(135~146회): 명신은 부산의 홍식에게 찾아가 열흘을 함께 지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가 아

이가 걱정돼 귀경했는데 창규가 다시 추근낸다. 명신은 고민 끝에 회장마님(화숙모친)에게 의논하니, 자기가 나서본다며 일단 자기집에서 지내라고 한다.

- ⑫ 答판(147~151회): 홍식은 귀경하여 회장마님의 도움을 청한다. 그녀는 우선 조씨부인을 만나 사주단자를 되돌려받고는 홍식부친을 설득한다. 홍식모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남편을 설득해보지만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홍식이 부산으로 떠나기로 한 이틀 전 날, 홍식부친이 회장마님을 찾아와 결혼을 수락하는 말을 전한다.

4. 김내성 「愛人」

- ⑬ 戀愛講座(1~7회): 임학준 교수의 M여대 통속연애강좌 첫시간이 성황리에 진행된다. 진실한 연애를 하라고 강조한 임교수는 특히 이석란, 채정주, 오영심 등에 주목한다.
- ⑭ 自然教室(8~13회): 강의 후 교정에서 석란이 친구들과 임교수 강의 등에 대해 얘기하던 중 지나가던 정주에게 말을 붙여보지만 외면당한다. 잠시 후 임교수가 나타나자 석란 등이 장난을 건다.
- ⑮ 人生黃昏(14~19회): 인생의 황혼이 다가옴을 느끼며 버스에 오른 임교수는 석란의 배려로 좌석에 앉는다. 함께 내린 석란은 임교수에게 이틀 후 다시 만나 저녁을 함께하자며 꽃다발까지 선물한다.
- ⑯ 離別도 아름답게(20~24회): 채정주는 임지운을 만나 석란과의 결혼을 축하한다 말하고 헤어진다.
- ⑰ 結婚問答(25~31회): 지운이 귀가하여 부친(임교수)이 석란과 만난 사실을 알자, 그녀와 결혼할 생각을 밝힌다.
- ⑱ 戀慕의 書(32~41회): 지운은 편지를 태우며 사연을 떠올린다. 1945년 봄 중학졸업반이던 그는 일요일마다 창경원에서 마주치던 여학생을 연모해 그녀가 앉는 벤치 앞 벗어나 '에인'이란 글귀를 새겨 고백하니, 그녀도 편지로 화답한다. 그러나 그후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지운은 문학의 길을 걸다가 전쟁중 부산으로 피난간다.
- ⑲ 結婚의 條件(42~55회): 환도 후 지운은 정릉에 놀러갔다가 석란의 요청으로 그녀와 포옹하고 나서 결혼을 약속했다. 회상을 끝낸 지운은 타지 않은 편지와 손수건을 책 사이에 끼워둔다.
- ⑳ 運命의 女人(56~62회): 약혼자 유민호와 저녁 먹고 귀가한 오영심은 부친(오진국)에게 임교수를 주례로 모시겠다고 한다.
- ㉑ 사과는 한 알인데(63~66회): 허정옥은 영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고 민호와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며, 민호가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썼던 옛일을 돌이켜보라고 한다.
- ㉒ 마음의 초록별(67~72회): 영심은 1945년 봄 서울 외숙집에 살던 중 지운을 만나, 어머니 병환으로 평양에 돌아갔다가 장례까지 치른다. 그 와중에 삼팔선이 막혔는데, 정옥의 도움으로 49년 봄 월남한다. 부산에서 민호의 원조로 대학 다니다가, 1년 후 서울로 이사하자 5년만에 창경원을 찾아가 본다.
- ㉓ 動亂의 거리(73~77회): 영심이 민호와 정옥의 청혼에 대해 거절하고 있던 중, 전쟁이 일어난다. 전장으로 떠나는 정옥은 영심에게 기다려달라 하지만, 결국 영심은 환도 무렵 민호의 끈질긴 청혼을 승낙한다.
- ㉔ 마담과 哲學者(78~85회): 연애강좌가 끝나 석란이 임교수와 함께 약속장소로 간다. 지운어머니는 석란어머니(마담로즈)가 술을 강권하는 등 교양없이 굴자 불쾌했지만 당사자만 좋으면 그만이라 말한다.
- ㉕ 結婚前夜(86~94회): 영심이 임교수집을 방문해 아버지 편지를 전하며 주례를 부탁한다. 영심이 돌아갈 때 마침 집에 들어오던 지운과 스쳐지나지만 서로 알아채지 못한다. 정옥의 편지를 본 지운은 그가 사랑하는 여인의 결혼식에 참석해 신랑의 위선을 밝히려던 기억을 떠올린다.
- ㉖ 惡魔의 領域(95~103회): 민호는 부하직원의 부인과 동침한 뒤 3년째 동거중인 김옥영을 찾아가, 자신은 정복욕으로 영심과 결혼하는 것이라 한다. 이튿날 그는 회사에 나갔다가 여직원 박미경이 임신했다고 하자 산부인과 소개장을 써주며 적당히 처리하라 한 뒤 마담로즈를 찾아가는다.
- ㉗ 處女(104~113회): 민호는 마담이 보여준 사진에서 전처가 어떤 남자와 포즈를 취한 것을 본다. 귀가한 그는 정주에게 은사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서 결혼하는 것이라며, 약혼자에게 줄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순금목걸이를 선물한다. 그는 정주가 받아주기만 하면 영심과 파혼하겠다고 한다.
- ㉘ 戀敵(114~121회): 홍신소에서 민호 행적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은 정옥은 민호를 찾아가 결혼을 단념하라고 하지만 그는 태연하다. 박미경이 오진국을 찾아가 민호아이를 임신했음을 알리고 간 뒤 민호와 정옥이 방문한다. 2층의 영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고 내려온 민호에게 오진국은 파혼하자고 한다.
- ㉙ 人生의 曲藝師(122~127회): 민호가 모략이라며 둘러대는 걸 보고 정옥이 그의 행적을 낱알이 밝혀지 시비가 벌어진다. 그때 들어온 영심은 목걸이와 반지를 내놓는데, 케이스 속에 목걸이를 되돌려준다는 정주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민호는 반지를 던져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그 집에서 빠져나온다.
- ㉚ 幸福問答(128~132회): 민호가 떠난 뒤 정옥과 영심은 손을 잡는다. 오진국은 영심에게 파혼 뒤 정옥과 결혼할 것을 권하고, 영심도 동의한다. 이틀 후 지운과 석란의 결혼식이 진행된다.

- ①⑨ 新婚旅行(133~139회): 지운과 석란은 신혼여행차 부산행열차를 탄다. 살다가 싫어지면 어쩌냐는 등의 석란의 말에 지운은 다소 불안해진다. 이튿날 아침 부산의 호텔에 도착한다.
- ②⑩ 感情의 氣象圖(140~148회): 목욕차 아래층에 갔던 석란은 예쁘다고 칭찬하는 주인 딸 정임의 약혼남 박준모에게 관심을 갖는데, 석란이 빈혈로 쓰러지자 준모가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입맞춘다. 준모는 지운 앞에서 석란에게 춤추러 가자 청하기도 한다. 지운은 불쾌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초야를 치른다.
- ③⑪ 아내의 自由(149~156회): 다음날 지운, 석란, 준모, 정임이 함께 놀러간다. 준모가 피를 내어 석란을 껴안고 입맞추는데 정임이 목격한다. 그후 키스장면을 사진찍자며 안기던 석란을 지운이 떠민다. 머리를 다쳐 준모 부축을 받은 채 따지는 석란을 보며 묘한 분위기를 느낀 지운은 준모한테 병원에 데려가게 한다.
- ④⑫ 남편이 걷는 길(157~164회): 지운은 정임으로부터 준모와 석란이 포옹과 키스를 했다는 말을 듣고, 호텔에 들러 부인의 자유를 위해 떠난다는 편지를 써놓고 역으로 떠났다가 되돌아간다.
- ⑤⑬ 暴力의 愛情(165~171회): 석란이 지운의 편지를 보며 이혼하겠다고 하자 준모가 청혼한다. 호텔에 돌아간 지운은 파티장에서 준모와 춤추던 석란을 끌고 가 아내의 참다운 자유를 가르쳐주겠다고 뺨을 친다.
- ⑥⑭ 第二의 運命(172~177회): 지운과 석란은 남성본위의 사회 등에 대한 언쟁을 벌인다.
- ⑦⑮ 幸福의 正體(178~185회): 다음날 지운과 석란은 상경 직후 갈라선다. 지운은 그때부터 자전적 소설 「애인」을 집필하던 중 성탄절 오후 창경원에 들렀다가 영심과 만난다. 영심은 결혼전 마지막으로 나와 본 것이라며 이름과 주소도 알려주지 않은 채 황급히 떠난다.
- ⑧⑯ 흔들리는 五色燈(186~192회): 석란을 만나 이혼 사실을 들은 정주는 민호가 마련한 성탄절 파티에 참석하여 그를 택할까 생각한다. 그때 민호는 반지와 목걸이를 주며 정주를 범하려고 하다가 뜻을 못 이룬다.
- ⑨⑰ 悲劇의 門(193~198회): 마침내 지운은 「애인」을 탈고한다. 영심과 정옥의 결혼식에서 임교수의 주례에 이어, 지운이 축사를 하는 순간 신부가 흔들린다.
- ⑩⑱ 丹心童心(199~202회): 영심은 축사하는 사람이 지운임을 알아 현기증을 일으키며, 행진하는 신부 모습을 마침내 정면에서 보게 된 지운은 그녀를 알아보고 충격을 받는다.
- ⑪⑲ 出版記念會(203~212회): 『애인』이 출간되자 책과 초대장을 갖고 영심을 방문한 지운은 창경원에서 만나자고 한다. 영심은 소설이 자신들의 이야기임을 알고 괴로워하면서도 창경원에 나가지 않는다. 영심과 함께 출판기념식에 참석한 정옥이 소설 여주인공의 태도에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고 평하니, 지운이 반박한다. 행사 후 지운은 영심에게 창경원에서 계속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 ⑫⑳ 아담과 이브의 結婚(213~219회): 석란이 준모와 춤을 추던 댄스홀에 마담로즈와 민호가 들어온다. 준모는 마담을 유혹하면서도 석란을 자기한테 달라고 말한다. 석란에게 수작 부리던 민호는 그녀가 정주와 친하다며 영심과의 파혼사유를 묻자 당황해한다.
- ⑬㉑ 不運의 辯(220~225회): 이튿날 민호가 마련한 정주 생일파티에 석란이 정주와 함께 나타나 그의 비도덕성을 폭로하며 반지와 목걸이를 돌려주고 간다. 핫김에 술에 취한 민호는 전처가 새남편과 그 식당에 있는 걸 본다. 결국 민호와 새 남편간에 싸움이 일어나, 민호가 쓰러졌는데도 전처는 외면한다.
- ⑭㉒ 密會(226~233회): 영심은 나홀만에 창경원에 나가 지운을 만난다. 영심은 대아를 위해 소아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며 운다. 지운도 눈물 흘린다. 그만 만나자는 영심의 말에 지운은 하루만 더 만나자고 간청한다.
- ⑮㉓ 離別의 曲(234~240회): 다음날, 그만 만나자는 영심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지운이 말하자, 포옹하여 흐느끼다가 영심이 노력하다 안 되면 상대방을 찾자고 한다. 이 장면은 민호에게 목격된다.
- ⑯㉔ 火焰 속에서(241~247회): 고민하던 영심이 아버지에게 사실을 털어놓는다. 이튿날 정옥은 민호의 밀고편지를 받고 영심에게 사실확인을 하고나서 민호에게 입다물라고 한 뒤 지운을 찾아간다. 시비끝에 정옥은 결투를 청한다. 지운은 죽기로 결심하여 권총으로 결투하자고 한다.
- ⑰㉕ 決闘記(248~254회): 임교수를 통해 결투 사실을 알게된 영심이 한동안 실신한다. 지운과 정옥은 각기 유서를 써놓고 결투의 순간을 맞이한다. 그러다 정옥은 지운이 죽기 위해 결투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한다.
- ⑱㉖ 愛戀無限(255~265회): 정옥이 일선으로 떠난 직후 영심의 유서가 발견된다. 창경원을 지나던 지운은 영심을 만나 결투가 중단됐음을 말한다. 둘은 각기 상대방을 돌려보내고 자신만 죽으려던 생각으로 택시에 동승했다가 눈썹인 삼각산을 보고 그곳에 함께 간다. 눈길이라 위험하다는 가넷집 마누라의 만류를 무릅쓰고 그들은 영혼은 불멸이니 영원히 함께 살자고 다짐하면서 달밤에 계속 산을 오른다.

5. 박계주 「별아 내 가슴에」

- ① 비내리는 山莊(1~7회): 음대생 미혜는 비가 몹시 쏟아지는 날 비맞으며 산장의 현암선생을 찾아간다. 비를 흠뻑 맞은 미혜는 현암의 잠옷으로 갈아입는다. 미혜는 1950년 홀로 월남하여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 있다가 아버지 체자인 소설가 현암을 찾아 부산으로 가서, 그의 도움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것이다.
- ② 라스트 나이트(8~15회): 현암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미혜가 노래 부르다가 그리운 얼굴들이 떠올라 눈물 흘린다. 현암은 시나리오 때문에 부산에 가 있게 됐는데, 현선일이 그 일을 도울 것이라 한다. 그런데 그 청년은 현암이 젊었을 때 평양에서 관계를 맺은 기생 선월이가 낳아 그녀 혼자 구멍가게 하면서 대학까지 보낸 현암의 아들이었다. 선월은 먼 발치서 그를 지켜보면서 「ラスト 나이트」란 노래를 부르며 눈물 흘린 날이 많았다.
- ③ 별에 사는 사람(16~21회): 선월이는 선일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별나라에 있다고 했었다. 선일은 어머니가 현암의 글을 모두 열심히 읽는 걸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일이 현암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선월이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시냇물이 불어 산장에 머물게 된 미혜는 사랑에는 연령이 없다고 말한다.
- ④ 不安한 밤(22~28회): 현암은 혼자 야캠프마을에서 술 마시고 온다. 술집씩시는 그를 쫓아갔다가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오해하고 돌아간다. 현암은 미혜에게 침대에 자라 한 뒤 그녀가 원하면 미국유학을 보낼 결심을 한다.
- ⑤ 戀愛라는 것(29~39회): 이튿날 은심과 영란이 방문했다가 미혜와 현암의 관계를 잠시 오해한다. 선일이 찾아와 함께 대화한다. 현암과 선일이 닳았다고 여기던 은심은 귀가하면서 선일을 1·4후퇴 때 봤던 기억을 더듬어낸다.
- ⑥ 黑薔薇(40~48회): 일주일 후 부산행 발열차에 탄 현암은 홍정숙을 차간에서 만난다. 그녀는 은심 어머니였으나 현암은 그 사실을 모른다. 홍정숙은 해운대까지 동행해 같은 호텔에 묵는다.
- ⑦ 零號肉體(49~58회): 홍정숙은 현암에게 접근하여 맥주를 함께 마신다. 그녀는 숙소도 현암의 옆방으로 정한다. 그녀는 영화사 사장 최철과 만나서 춤을 춘 뒤 관계를 맺는다.
- ⑧ 惡의 花園(59~70회): 최철 부인 허영희 여사는 현선일을 불러내 양복을 맞춰주고는 요릿집에 함께 간다. 그녀는 덤덤하며 걸옷을 벗은 뒤 선일과 춤을 춘다. 허영사 제의로 선일이 목욕하는데 창밖에 그녀 상반신이 어른거린다.
- ⑨ 지이 걸스(71~79회): 이튿날 조반 뒤 현암이 원고를 쓰려는데 홍여사가 찾아와 함께 해수욕가자고 한다. 현암은 할 수 없이 그녀와 수영하며 논다.
- ⑩ 青春頌歌(80~89회): 우연히 같은 버스에 탄 허영란과 함께 산장에 가던 선일은 이틀전 목욕도중 허여사가 들어오자 빠져나온 일을 생각하며 미소짓는다. 산장에는 은심과 미혜가 있었는데 이틀후 함께 등산하기로 한다. 귀가한 선일은 모친에게 영화구경 가져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게 자신의 상황과 닮았음을 안 그녀는 당황한다.
- ⑪ 欲情 비토(90~99회): 현암에게 춤추러 가자 청했다가 거절당한 홍여사는 그날 밤 만취상태로 잠자는 그 옆에 누워 동침한 것으로 꾸민다. 새벽에 깬 현암이 왜 같이 자느냐 묻자 그녀는 잡아갈 땐 언제고 시치미떼느냐며 화낸다.
- ⑫ 젊음은 구름과 함께(100~106회): 선일, 미혜, 은심, 영란이 등산을 한다. 선일은 전날 영화관에서 눈물흘리던 모친에게 무슨 비밀이 있겠거니 생각한다.
- ⑬ 즐거운 孤獨(107~113회): 현암은 상경해 집에 갔으나 미혜와 은심을 깨우지 않으려고 여관에 가다가 주막에 들른다. 술집여자가 자고 가라고 말하자 나와 버린다. 그는 이튿날부터 다시 소설을 집필한다.
- ⑭ 女體육손(114~119회): 어느 토요일, 허여사와 홍여사가 최철사장을 비롯한 고위층 인사들과 골프장에서 만난다. 요정에 간 그들은 도박과 퇴폐적인 유희를 벌인다.
- ⑮ 銷夏의 세레나데(120~131회): 현암이 미혜에게 선일을 연결시켜 주러 하는데, 미혜는 선일은 은심이 좋아하는 남자라며 자신은 언제나 현암 곁에 있겠다고 한다. 선일은 은심의 사랑고백을 듣자 포옹으로써 화답한다. 이틀 후 그들은 영란의 결혼식에 참석한다.
- ⑯ 廢墟의 달(132~138회): 현암이 소설을 끝마치자 미혜가 교정자 읽어본 후 소설의 제목을 「별아 내 가슴에」로 하는 게 어머니는 의견을 내놓자 현암이 동의한다.
- ⑰ 愛慾波動(139~149회): 3개월 후 영화촬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사장 집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파티가 열린다. 현암은 파티에 참석했다가 뜻밖에 홍여사를 만나는데, 그녀는 현암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다음날 저녁 집에 들러 달라고 한다. 이튿날 저녁 미혜가 은심의 편지를 전하기 위해 홍여사 집에 갔다가 홍여사가 현암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우연히 듣고 충격을 받는다. 현암이 가고 나서 미혜가 홍여사에게 편지를 건네니, 홍여사는 은심에게 직접 오라고 전해달라 한다. 이튿날 저녁 은심이 집에 가서 홍여사를 기다리는데 그녀가 선일과 함께 들어오는 걸 보고 숨는다. 선일이 허여사와 잤다는 말이 들리는가 하면 춤을 추던 홍여사가 선일의 입을 맞추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은심이 춤을 꺼낸다.
- ⑱ 날개 잃은 天使(150~155회): 현암을 방문한 미혜는 아이를 낳으면 딸아 키우겠다고 홍여사와는 결혼하지 말라고 한 뒤 기숙사로 돌아간다. 뒤이어 기숙사로 돌아온 은심은 흐느끼기만 한다. 이틀후 미혜가 학교 갔다가 서둘

러 돌아와 보니, 권총을 모친에게 전해달라는 편지를 남기고 은심이 사라지고 없다. 은심은 고아원 보모일을 하며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간다. 선일은 홍여사가 미혜모친이라는 사실을 알고나서 사태를 대강 짐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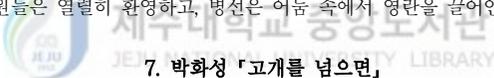
- ⑲ 끝없는 戀歌(156~172회): 이주 후 현암은 낙태하지 말라는 말을 전하려고 홍여사를 찾아갔는데 그녀는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은 뒤였다. 현암은 자신을 살인자라 자책하며 걷다가 트럭에 치인다. 수술받고 중태인 그를 미혜가 밤새워 간호하는데 이튿날 새벽 신문을 본 선일 모자가 급히 달려온다. 한편 그 시각 퇴원하던 홍여사는 밀수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들려간다. 임종이 다가왔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은 선일은 24년전의 일에 대해 말하며 선일이 현암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현암과 선일은 서로 눈물을 흘리고, 현암은 자기 책의 판권을 선일위와 미혜가 나눠가지라 유언하고 숨을 거두니, 사흘 뒤 선일이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른다.
- ⑳ 에필로그(173~176회): 현암의 뜻에 따라 선일 모자는 고아원 사업을 하기로 한다. 한편 허여사는 남편이 잡혀간 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매소부로 전락한다. 형무소로 홍여사를 찾아가던 미혜가 은심의 행방불명과 현암의 죽음을 알리니, 홍여사는 모든 걸 털어놓고 흐느낀다. 그 이튿날 미국 갈 준비를 하던 미혜에게 선일이 찾아와 군입대한다는 얘기를 하자 미혜는 선일이 제대할 때까지 선일어머니와 함께 고아원 일을 하기로 한다.

6. 정비석 「民主魚族」

- ① 人間信任狀(1~8회): 강영란은 민생알미눔제작소 박재하 사장을 찾아가 덕암 선생 소개로 왔다가 취직을 부탁했더니 이삼일내로 출근하라고 한다. 박사장은 연구소 담당 홍병선을 소개해준다.
- ② 等外貴族(9~19회): 오장준 변호사를 찾아가던 영란은 그의 옛 애인인 언니 영희의 취직을 부탁한다. 약속시간이 되어 배영환을 만나 청혼을 받지만 영란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한다. 함께 영화구경하고 나오는데 오변호사 부인 김은애가 미스터김이라는 젊은 남자와 함께 있으면서 아는 척 한다.
- ③ 哀愁의 뜰(20~29회): 집 팔기로 했으니 친정에 들어가 살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영희는 서글퍼하던 차에 영란이 찾아와 취직을 권한다. 이튿날 찾아온 오변호사는 영희의 취직자리를 마련해줬다고 한다.
- ④ 人生動脈(30~40회): 공장을 둘러본 영란은 인생의 동맥을 구경한 듯 놀란다. 연구에 열중한 병선도 호감가는 청년이다. 특히 박사장의 정열적이고 민주적인 회사운영과 정치계 요인들의 압력을 당당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영란은 그를 존경하게 된다. 박사장은 영란의 일 솜씨를 칭찬한다.
- ⑤ 處世二重奏(41~50회): 배영호는 사무실 타이피스트 고순례에게 머물러 선물을 주면서 접근한다. 그는 영란에게 전화하지만 웬지 쌀쌀한 감정을 느낀다.
- ⑥ 幸福의 방향(51~60회): 영환은 댄스홀에서 다시 청혼하지만 영란은 그냥 교재만 하자고 한다. 집이 팔렸다면 아들 창훈을 데리고 친정에 들어간 영희는 영란과 함께 오변호사를 만나고서 母子아파트 관리를 맡기로 한다.
- ⑦ 感情流域(61~73회): 박사장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가는 가운데 영란은 어느날 허름한 옷차림으로 연구실에서 영어원서를 읽고 있는 병선을 보고 마음이 끌린다. 성탄절 전날, 퇴근하려던 그녀는 박사장의 구슬픈 노랫소리를 듣는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고 그와 함께 정다운 시간을 보내며 애정을 느낀다.
- ⑧ 世紀末 風景(74~86회): 성탄절 이틀 전, 영환은 고순례를 유인해 요릿집에서 키스를 한 뒤 귀가했더니 김은애 여사로부터 부산에 함께 가자는 전화를 받는다. 다음날 그들은 부산의 호텔에서 성관계를 갖는다. 이튿날 껌돈을 타러 간다며 외출한 김여사가 이틀동안 돌아오지 않자 화가난 영환은 혼자 귀경한다.
- ⑨ 隱花植物(87~97회): 업무와 관련하여 질책하는 박사장에게 영란이 불만을 토로했다가 사과한 후 병선과 함께 퇴근한다. 집 앞에서 영희가 오변호사와 헤어지며 흐느끼는 장면을 본 영란은 이튿날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자 오변호사를 찾아갔는데 부부가 언쟁 중이었다. 오변호사는 영희가 출근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괴로워한다.
- ⑩ 마음의 肖像(98~109회): 새해 연휴, 박사장은 영란을 잊으려고 요릿집에서 술을 마신다. 스탠드마 가는 길에 영란을 만난 그는 함께 술 마시고 만취한다. 박사장을 숙소로 데려간 영란은 통금에 걸려 옆에 앉아 밤을 새던 중 그가 자신을 그리워했음을 안다. 새벽에 깨어 영란을 포옹하려던 박사장은 냉정을 되찾고 그녀를 귀가시킨다.
- ⑪ 愛情 偽裝(110~122회): 영희는 오변호사의 설득으로 다시 출근한다. 영환은 오랜만에 영란을 만나 영화를 보고 화장품세트를 선물한다. 그리고 순례를 만나 같은 화장품세트를 선물하고 요릿집에 가서 순례를 댔다.
- ⑫ 마음의 弱點(123~135회): 박사장은 영란과 영화를 함께 본 후 사랑에는 자신이 봉건적이라며 그녀와 거리를 두고자 한다. 영란은 병선과 함께 남산공원에 가서 대화하다가 돌아오면서 병선이 진실한 사람임을 느낀다.
- ⑬ 自己鬭爭(136~145회): 댄스파티장소가 변경됐음을 외출중인 아내에게 전해달라는 어떤 사내의 전화를 받은 오변호사는 화가 난다. 그는 모자아파트에 갔다가 영희를 만나 애정을 느끼지만 아내를 위해 참기로 하고 귀가한다. 그러나 김여사가 통금에 걸려 경찰서에 있다가 들어오자, 부부싸움 끝에 이혼기로 한다.
- ⑭ 誘惑無限(146~156회): 두달 동안 순례와 관계를 맺어온 영환은 갖가지 구실로 순례의 청혼을 거절한다. 그는

전매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 장현옥을 유혹해 남한산성의 어느 음식점에서 성관계를 맺는다.

- ⑮ 多忙 속에서(157~170회): 삼월 들어 새 공장 건설 준비에 박사장은 몹시 바쁘다. 영란은 영환을 만나 그의 끈질긴 청혼을 거부한 후, 언니에게 이혼한 오변호사와의 결혼을 권한다. 영란은 고열로 앓아 누운 박사장을 밤새 병선과 함께 간호한다. 깨어난 박사장은 반드시 난관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 ⑯ 斷乎한 措置(171~181회): 박사장은 영란의 애정을 확인하면서도 냉담한 태도를 보이던 박사장은 손님접대 후 숙소에 돌아와 보니 영란이 꿀을 타놓고 편지를 남기고 갔기에 감동하여 자신도 솔직히 애정을 표현키로 결심한다. 그러나 다음날 늦잠으로 고관과의 약속을 못 지킨 박사장은 여자 때문에 그랬다며 숙소에서 다림질하고 있는 영란에게 나가라 한다. 영란이 청혼하지만 박사장은 끝내 거절하면서 회사에도 나오지 말라 한다.
- ⑰ 青春 煩惱(182~193회): 사월 어느날 영란에게 병선이 찾아와 월급과 퇴직금을 전달한다. 영란은 그와 함께 외출하여 거닐기도 하고 차도 마셔 보지만 그가 결혼상대자가 못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한편 영희는 오변호사로부터 청혼을 받고 고민하던 차에 시어머니가 창훈이를 데려가 버리자 실의에 빠진다.
- ⑱ 突發事故(194~205회): 무료하게 지내던 영란은 어느날 다시 영환의 청혼을 받고 약간 마음이 동한다. 다음날 병선이 급한 일이 생겼다가에 함께 갔더니 박사장이 모함으로 경찰에 붙들려 갔다는 것이다. 병선이 앞장서 직원들을 둘러하는 등 의욕적으로 회사살리기에 나서며, 영란도 회사일을 돕는다. 한편 영희는 경찰에 붙들려 간 오변호사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시장도 보며 아이들을 돌보며, 아이들은 함께 살자고 한다. 밤늦게 풀려나 귀가한 오변호사는 다시 영희에게 청혼하고 영희는 거부하지 않는다.
- ⑲ 自力鬭爭(206~215회): 박사장의 석방이 늦어지자 병선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의기소침한 사원들을 설득하는가 하면 빚쟁이들을 배정으로 상대하여 돌려보내는 등 회사살리기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는 가운데 영란은 병선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고 그의 애정을 확인한다. 한편 고순례는 영란을 찾아와 영환이 결혼을 병자하여 자신을 농락하고는 만나주지 않는다며 호느낀다.
- ⑳ 幸福에의 길(216~228회): 회사가 질서를 되찾아가자 영란은 병선이 점점 영웅적으로 느껴지면서도 자신에게 냉정함에 서운하여 회사를 그만둔다는 편지를 써놓고 퇴근한다. 퇴근길에 오변호사집에 들러 영희가 행복한 모습으로 청소하는 모습을 본다. 자존심 때문에 출근하지 않던 영란은 병선이 데리러 오자 함께 회사로 간다. 박사장이 석방되자 사원들은 열렬히 환영하고, 병선은 어둠 속에서 영란을 끌어안고 청혼하며 입을 맞춘다.



7. 박화성 「고개를 넘으면」

- ① 침입자(1~3회): 한설희가 친구 김영옥의 집에서 놀다가 우산을 빌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한 남학생이 우산속으로 뛰어들어 동행하게 된다. 그날밤 자리에 누운 설희는 그 우산 속 침입자를 생각한다.
- ② 푸른 아침(4~9회): 다음날 설희는 전날의 남학생을 생각하는데, 사촌인 한진수와 한혜순이 방문하여 영옥의 생일파티에 함께 참석키로 한다. 오후 들어 외가에 갔는데 외할머니가 어서 결혼해야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 ③ 젊음의 饗宴(10~21회): 영옥의 생일파티에 혜순, 설희, 진수, 윤희빈, 박철규 등이 참석하여 대화를 나누고 춤을 춘다. 다음 토요일에 또 만난 그들은 '파인 클럽'으로 모임 이름을 정하고 한달에 두번 모임을 갖기로 한다.
- ④ 뷔너스의 溪谷(22~33회): 대홍사로 놀러간 파인클럽 일행은 산행을 하는데, 도중에 혜순이 다리를 빼어 형빈과 먼저 하산하고 나머지는 등산을 마친다. 형빈과 철규는 우연히 영옥과 설희가 계곡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본다.
- ⑤ 파초 그늘에서(34~43회): 설희는 어머니 유금지에게 편지를 쓴다. 혜순의 짜증을 본 설희는 밤에 혼자 약을 구해 오던 중 빗속에서 철규를 만나 그가 유월의 비오는 날 우산을 함께 썼던 청년임을 알게 된다.
- ⑥ 아쉬운 年輪(44~52회): 박장훈에게 친구 김상배(영옥 아버지)가 찾아와 영옥과 철규 사이가 별로인 것 같다고 얘기하고 나간다. 다시 찾은 상배에게 장훈이 뭔가 얘기하려는데 상배가 급한 전화를 받고 나가버린다.
- ⑦ 아롱진 回想(53~62회): 대홍사에서 찍은 사진에서 철규 얼굴을 본 금지가 깜짝 놀라고, 20년전 일을 생각한다. 금지와 장훈은 사랑하고 있었는데, 장훈이 심변호사 딸 정희와 결혼하고, 때때워 금지도 삼취로 결혼했다.
- ⑧ 바이루스의 存在(63~65회): 바이루스에 대해 얘기하던 철규는 바이루스적 인간을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하자 모두 공감한다. 설희는 외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어머니와 함께 외할머니댁에 간다.
- ⑨ 꽃다운 奈落(66~76회): 외할머니는 설희에게 뭔가 유언하다가 임종한다. 설희는 금지로부터 장훈이 외할머니댁에 주워다놓은 아이라는 말을 듣고 괴로워한다. 금지는 철규가 장훈, 영옥이 상배의 자식임을 알게 된다.
- ⑩ 구름처럼(77~86회): 설희가 집나가 돌아오지 않자 모두 걱정한다. 진수는 설희가 양주의 한창근 산소에 갔음을 알고 찾아가 귀가를 권한다. 설득이 먹히지 않자 그는 철규에게 설희를 설득해 달라 부탁한다.
- ⑪ 새벽이 되면(87~93회): 철규의 끈질긴 설득으로 설희가 마음을 돌이켜, 새벽에 함께 떠나기로 약속한다. 함께 밤을 지새던 중 포옹과 키스를 한다.

- ⑫ 찢어진 月桂冠(94~100회): 학생의 날 기념식장에서 표창을 받은 장훈과 상배는 장훈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광주학생운동을 회고한다. 그러던 중 금지와 어린애의 이야기가 나오자, 상배가 그들을 찾아보자고 한다.
- ⑬ 별과 나비(101~106회): 설희가 철규와 함께 밤을 지냈다는 걸 안 진수는 착잡한 심정에 설희 집으로 간다. 설희가 철규의 부축을 받으면서 집으로 들어가고, 진수는 한층 외로워짐을 느낀다.
- ⑭ 小春(107~118회): 그후 철규는 이들에 한번 설희집에 들러 모녀에게 주사를 바준다. 영옥과 철규는 상배가 보낸 돌의 결혼에 대한 편지를 받고 각각 진수와 설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혜순과 형빈은 함께 미국갈 계획을 하며 사랑을 키워간다.
- ⑮ 뽕인클립(119~125회): 한달만에 모인 뽕인클립 회원들은 전력사정과 국제법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형빈, 혜순, 진수는 차를 타고 귀가하고, 철규와 설희는 다정하게 거닌다.
- ⑯ 눈 속의 장미(126~132회): 장훈과 상배는 옛 하숙집을 찾아갔다가 장훈의 구두가 보관돼 있는 걸 보고 놀란다. 금지에게 가던 중 상배가 급한 일로 빠지게 되어 장훈만 금지와 상면하고 설희의 인사를 받는다. 설희는 장훈을 아버지라 부르고 셋이 함께 점심을 먹는다.
- ⑰ 어여쁜 악마(133~142회): 사진을 찍은 세 사람은 덕수궁에서 국화구경을 하고, 남산 산책을 거쳐, 저녁을 먹고 헤어진다. 한편 어머니 병환 때문에 고향에 간 철규는 영옥이 보여준 설희모녀와 장훈이 찍은 사진을 보고 저간의 사연을 듣고는 왜 아버지나 설희어머니가 그 사실을 숨겼는지 의구심을 품는다.
- ⑱ 一世들(143~151회): 영옥은 상배에게 사진을 내놓으며 사실대로 말해주길 원하나 상배가 피한다. 정희는 사진을 보이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고 그걸 본 철규도 사실을 밝혀달라고 하지만 장훈은 흔쾌히 대답하지 않는다. 한편 설희가 어머니에게 사연을 물던 차에 진수가 찾아온다.
- ⑲ 交叉點(152~163회): 진수는 설희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단단히 약속을 받고 돌아간다. 철규는 설희와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지만 장훈이 만류한다. 영옥은 진수와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아버지에게 밝힌다.
- ⑳ 십자가(164~172회): 철규는 아버지가 싫어서 설도 쇠기 전에 상경하고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 다음날 설희의 초청으로 설희 생일파티에 간 철규는 생일상을 먹고 나갔다가 저녁이 되어 모친사탕소식을 갖고 설희 집에 찾아간다. 때마침 전보가 오자 설희 모녀는 자신들도 광주에 가겠다고 한다.
- ㉑ 亂影(173~184회): 설희 모녀는 장례식에 참석하고 광주에서 하룻밤 묵는다. 자식들을 결혼시키자는 금지의 요청을 장훈은 거절한다. 금지는 죽은 남편이 노히는 꿈을 꾸다가 깬데, 진수가 광주에 왔다는 전화가 걸려온다.
- ㉒ 쌍무지개(185~192회): 진수는 광주에 와서 영옥 부모와 대면한 다음 설희모녀와 함께 기차로 귀경한다. 진수와 설희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자리로 돌아오던 중 기차가 흔들려 돌이 꺼안게 된다.
- ㉓ 검은 바람(193~204회): 어느날 학회차 상경했다며 설희집에 찾아온 철규는 몹시 아파 설희의 간호를 받게 된다. 설희가 밤샘간호를 하다가 한이불 속에서 잠이 든다. 그걸 본 금지는 오해하며 장훈에게 그 사실을 말하며 약혼시키자고 한다. 장훈은 설희·철규·금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 ㉔ 꽃은 떨어지고(205~212회): 20년전 장훈은 유금지가 결혼하게 되고 그녀와 떨어지게 되어 낙담하던 차에 간 호학교 다니던 이향실을 만나 가까이 지내다가 그만 임신하게 된다. 그녀는 딸을 낳고 세시간만에 죽었고, 그 아이가 금지에게 맡겨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설희와 철규는 괴로워하고 금지는 배신감을 느낀다.
- ㉕ 어머니와 딸(213~217회): 설희는 음전네를 통해 생모 산소가 망우리에 있다는 사실도 알고 사진으로 생모의 모습도 확인한다. 한편 금지는 결코 설희를 뺏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설희는 장훈을 원망한다.
- ㉖ 사랑의 형태(218~230회): 괴로워하던 철규는 현실을 인정하자고 설희에게 말한다. 상념에 잠긴 설희는 진수가 사랑한다고 한 말 등을 회상한다. 광주에 들르라는 철규의 연락을 받고 가다가 대홍사에 간 설희는 그곳에 머물면서 철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다. 그러던 차에 진수의 편지가 온다.
- ㉗ 푸른 아지랑이(231~238회): 상배는 철규와 영옥이 결혼할 것이라 전하며, 설희에게 진수와의 결혼을 권한다. 진수는 충주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아내의 내조가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둘은 한몸이 되고, 진수가 먼저 떠난다.
- ㉘ 고개를 넘어(239~245회): 철규는 진수가 양자로 가고, 설희는 장훈의 딸로 호적을 옮기게 된다. 설희는 진수의 절실한 사랑을 느껴 다음날 광주로 가려는데 진수와 영옥이 절까지 마중나온다. 설희는 진수, 철규, 영옥과 함께 광주로 가서 할아버지 산소에 있던 장훈을 찾아가자, 장훈은 감격해 한다.

8. 박영준 「荊冠」

- ① 勝利의 荊冠(1~8회): 집에 든 도둑 홍광윤을 잡은 고현주는 사흘 굶었다며 선처를 요구하는 도둑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집에 데려가는데 그가 갑자기 도망쳐버린다. 수소문하여 그의 집에 가봤더니 그는 누워있고 여동생 종아가 기운없이 앉아있기에 돈주고 나온다. 검사 고한주는 옛 여자가 나타났나 말하고는 양복값을 현주에게 준다.

- ② 花園의 生理(1~16회): 현주는 양복 찾으러 가다가 권상구 대위의 부탁이 생각나 그의 부인 정혜련을 만난다. 그녀가 남편 몰래 들었던 계가 깨져 고생하고 있음을 보고 계주를 만나 열흘 후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 ③ 하얀 얼굴(17~25회): 광운 남매를 찾아간 현주는 그들에게 용기를 내라며 3만환을 준다. 귀가했던 현주는 다시 외출하다가 웬 여자로부터 집까지 차태워다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양공주라는 그녀(최복희)는 동생이 보이자 피하던 중이었다며 칠순의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봐달라고 부탁한다.
- ④ 형님의 경우(26~35회): 현주는 친구 홍서를 만나 보증수표 5만환을 빌린다. 홍서는 동생 대학입학 부탁조로 S에게 10만환을 썼는데 동생이 대학에 떨어졌다고 불평한다. 한주는 해방전 민경옥과 사귀다가 삼팔선이 막혀 헤어졌는데 최근 그녀를 닮은 얼굴을 가진 기생 영애를 만났다.
- ⑤ 부채의 生理(36~44회): 현주가 혜련과 함께 냉면집에 갔는데 그녀는 연신 부채를 부쳐준다. 한강에 나가 뱃놀이하던 중 배의 중심이 흔들리자 혜련이 현주에게 안기기도 한다. 그 이후 이삼일 동안 집안에 박혀 있는데 광운과 종아가 찾아온다. 종아는 손수 수놓은 방석을 선물한다.
- ⑥ 顯正破邪(45~58회): 현주가 혼자 술마시고 댄스홀에 갔는데 미군과 동행한 최복희를 만난다. 그녀와 춤추며 술 마신 뒤 그녀집에 간 그는 그녀를 꺼안다가 잠들어버린다. 며칠 후 현주는 복희 부친을 찾아가 그녀를 거둘 것을 부탁하나 최노인은 요지부동이다. 최노인의 후처가 전제산을 달라고 하는 걸 현주가 말린다.
- ⑦ 새로운 상흔(59~68회): 다음날 현주는 계주 황부인을 위협해서 돈을 받아낸다. 혜련을 찾아가 돈을 전하니, 그녀는 권대위와 결혼전에 혼담 오갔던 남자가 최근 그가 나타나 이혼하고 자기와 살자고 괴롭힌다고 전하곤다.
- ⑧ 混線의 混線(69~78회): 현주가 복희를 만나 최노인 찾아갔던 얘기를 하는데 그녀는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한다. 그 후 현주는 혜련과 혼담 오갔던 남자를 만나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한다. 한편 한주는 민경옥이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를 죽인 죄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신문보도를 보았다며 영애를 찾아가 호느낀다. 그는 영애와 하룻밤 지내면서도 육체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튿날 광운이 종아 덕에 토건회사에 취직될 것 같다고 한다.
- ⑨ 하나의 對決(79~91회): 현주는 복희와의 관계를 오해하는 종아에게 자초지종을 말한다. 그 후 종아는 홍서를 만나는데, 홍서는 그녀를 요릿집 방에 데리고 가서 수표를 주며 욕보이려 한다. 종아가 도망쳐 나와 개천을 건너던 도중 발이 뻘다. 그를 따돌리고 귀가해 혼자 울고 있던 종아는 광운이 들어오자 현주를 불러달라 한다.
- ⑩ 波動以後(92~99회): 그 사실을 안 현주는 홍서에 대한 분노가 치민다. 외박한 한주는 아내와 다툰다. 이튿날 복희를 만난 현주는 그녀가 각혈했음을 안다.
- ⑪ 푸른 동산(100~106회): 현주는 복희와 놀러갔다 와서 그녀집에서 하룻밤 잔다. 이튿날 우연히 홍서를 만나자 종아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말한다. 현주는 권대위로부터 혜련이 오해를 받아 자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 ⑫ 刑囚의 거울(107~116회): 한주가 경찰서를 찾아가 경옥을 면회한다. 경옥은 한주 찾으러 다니던 중 만난 그 남자의 얘길 듣고 한주가 죽은 줄 알았으며 자기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살려달라 한다. 한주는 영애를 만났으나 경옥 때문에 심란하여 오래있지 못하고 나온다.
- ⑬ 별들의 이야기(117~125회): 형사가 광운에 대해 조사하고 가자 종아는 홍서가 투서한 것으로 짐작한다. 이튿날 종아는 현주를 찾아갔으나 부계중이어서 한주에게 홍서가 준 수표와 시계를 동생에게 전해달라 부탁한다. 다음날 종아를 찾아가 현주는 시계와 수표를 그냥 가지라 한다. 종아는 홍서가 투서한 것 같다는 말을 전한다.
- ⑭ 터진 噴火口(126~136회): 현주는 홍서를 찾아가 비굴한 것 말라고 엄포놓는다. 어느덧 가을이 되어 현주는 대학에 복학해 공부에 열중한다. 한편 경옥이 초소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공고됨에도 한주가 재심의 담당검사가 돼 괴로워한다. 요양간 복희는 현주에게 마지막으로 보고싶다는 편지를 보내온다. 현주는 서산에 찾아가 복희 옆에서 하룻밤 보내며 그녀에게 부친에게 돌아갈 것을 권한다. 이튿날 상경해 최노인을 찾아가 현주는 최노인과 후처의 싸움을 말린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쓰러졌는데, 이튿날 가보니 그녀가 죽어 있었다.
- ⑮ 가시 면류관(137~152회): 한주가 자수를 권하나 현주는 집나간 뒤 들어오지 않는다. 괴로운 마음으로 경옥을 심문한 한주는 남자와 공모해 본처를 죽인 게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종아네 집에서 목다가 혜련 무덤에 다녀온 현주는 종아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자수한다. 경찰에서는 불구속이니 귀가해 있으라고 한다. 그 후 현주는 호출장과 함께 복희가 죽었으니 시체를 태워달라는 편지를 받고는 마침 찾아온 광운에게 복희건을 부탁한다. 경옥의 범죄사실을 확인한 한주는 영애에게 갔다가 곧 살림 차린다는 말을 듣고 전처럼 서로 거꾸로 누워 밤을 보낸다. 한주는 경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첫 공판 뒤 법복을 벗는다. 그 시각 현주는 광운·종아와 함께 복희 무덤앞에 있었다. 왜 왔느냐는 현주의 말에 종아는 현주의 슬픔이 자기 슬픔이기 때문이라며 미소짓는다.

9. 이무영 「窓」

- ① 明暗點描(1~7회): 한현주가 체형소에서 피를 팔고 나오는데 이인배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자신의 실비

- 병원에 데리고 가서 주사를 놓고 한숨 자게 한다. 현주가 깨자 인배는 몸이 약해 보여 그랬다고 한다.
- ② 4H클럽(8~17회): 몇년 전 경심의 제의로 4H클럽 결성해 현주네 동네에서 농촌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 현주오빠 현철과 경심이 가깝게 지냈으나 경심의 배신으로 병이 덧난 현철이 세상을 떠나고 현주네 집도 기울 어갔다. 당시일을 회고하던 현주는 을지로에서 인숙을 만나 경심·미송이 탄 차에 동승하는데, 차안에는 돈을 대주며 현주에게 접근하는 유창근도 있었다. 댄스홀 앞에서 주저하던 차에 황재봉이 누이 인숙을 데려간다.
 - ③ 男子三型(18~26회): 이튿날 현주는 인배를 찾아가 고마움을 표할까 하다가 그만둔다. 장박사 부인 이채순이 현주에게 편지 남기고 종적을 감춘 뒤 유창근은 돈 갚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위협한다. 인숙이가 오빠 재봉이 보냈다고 방문한다. 인숙은 창근이 최근에 경심과 약혼했는데 미송에게도 관심 보인다고 한다. 그때 재봉이가 인숙이 혹시 딴 데로 새지 않았나 해서 찾아온다.
 - ④ 네모난 三角形(27~37회): 인배는 스탠드바에서 여대생을 공부시켜 준다는 창근을 만나는데, 인배는 그의 정체도 모르면서 고마워한다. 재봉은 댄스홀에 안 들어가려는 현주를 본 뒤부터 그녀가 좋아지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래서 재봉은 라디오를 팔아 현주 등록금을 내주려고 학교 갔는데, 그녀 오빠가 이미 냈다는 말을 듣는다. 현주는 재봉이 등록금을 내준 걸로 안다.
 - ⑤ 그림자(38~44회): 현주와 인숙이 꽃구경을 하는데 인배가 뒤에 따라다닌다. 현주가 모른 척 하자 인배는 등록금 대신 내줬는데 약속하다고 여긴다. 인배는 창근을 찾아가 그녀를 도와달라 부탁하고 나오면서 그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 ⑥ 파랑대문집(45~53회): 남편의 책값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계를 시작한 이채순은 계가 깨지자 파랑대문집 김영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 ⑦ 二人三角(59~69회): 현주는 재봉에게 호감을 갖던 중 인배의 편지를 받는다. 학비는 자기가 대줬는데, 앞으로 대학원에 간다면 그 학비를 대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다. 그가 어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현주가 인배를 찾아가던 중 우연히 재봉을 만나 식당에 들어간다. 인배가 그 장면을 본다.
 - ⑧ 또 하나의 그림자(70~83회): 현주는 장교수집을 방문해 이여사가 한달째 가출상태임을 안다. 이튿날 그녀는 인배를 통해 자기를 도와주려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창근임을 알고 뛰쳐나온다. 현주는 고향에 가서 이여사를 만난다. 이여사는 김영자의 소개로 돈 빌려준다는 은행간부 황씨를 만나 봉변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던 중 남편과 친분이 있는 기자와 창근이 그녀를 보았다고 현주모친에게 말하며 흐느낀다.
 - ⑨ 서울손님(84~94회): 현주어머니의 끈질긴 설득으로 이여사는 귀경한다. 그 며칠 후 현주는 인배의 편지를 받는데, 그 내용은 현주가 미모를 미끼로 횡령을 일삼는 여자라며 창근과 자기의 돈을 갚지 않으면 신문과 학교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분개한 현주가 어머니와 함께 돈을 마련하고 있노라니 인배가 찾아온다. 현주가 만나주지 않아 여관에 간 인배는 인편에 사과한다는 편지와 함께 창근의 사기행각이 보도된 신문을 동봉해 보냈다. 현주가 여관으로 달려가 봤으나 이미 떠난 뒤였다.
 - ⑩ 또 하나의 女人(95~107회): 망설이다가 귀가한 이여사는 장교수가 입원중임을 안다. 이여사는 급히 병원으로 갔으나 서정혜라는 여자가 장교수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면회가 안된다고 한다. 이튿날 이여사는 다시 병원에 갔는데 정혜는 부정한 아내가 나타나면 환자가 위험하다며 또다시 면회를 막는다.
 - ⑪ 두 갈래 길(108~118): 그동안 재봉이 인숙과 함께 현주집에 왔다가 농촌생활에 대해 무척 관심을 보인다. 현주는 인배 부인이 발작 때문에 아들을 죽이고 자살했다는 신문보도를 접하고 2월 중순 상경한다. 인배를 찾아가다가 못만나자 재봉에게 간다. 재봉과 함께 고궁 등을 거닐며 손을 잡는 현주는 인배와 재봉 사이에서 갈등한다. 장교수도 이여사와 재정혜 사이에서 갈등한다.
 - ⑫ 窓(119~122회): 병원에 드나드는 이여사에게 장교수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던 장교수는 이여사 몰래 정혜와 퇴원한다. 낙담하여 눈오는 거리를 헤매던 이여사는 재봉아버지 황태수의 차에 치여 교통사고로 입원한다. 사고 소식을 듣고 장교수는 이여사에게 돌아오고, 현주는 졸업식이 끝나 낙향하려고 기차를 타는데 인배가 동승한다.

10. 유해준 「招魂歌」

- ① 夜間特急(1~8회): 야간열차를 탄 박성인 기자는 침대칸을 찾는 친구 김태섭과 그의 정부 강선영을 만나 자기의 침대칸을 양보한 뒤, 술 취해 주정하는 신사에게 조리있게 대처한다. 침대칸에 누운 선영은 이번 여행에서 태섭과의 관계를 청산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불안하다.
- ② 母子像(9~15회): 성인은 서울 도착하자마자 신문에 실려 기사와 사진을 넘기고 어머니가 일하는 여학교 매점에 갔다가 주인집 딸 현일엽을 만나 셋이 함께 그릴로 간다. 식사 후 눈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귀가한다. 성인과 일엽은 키맞춘다며 입맞춘다.

- ③ 一線記者(16~24회): 이튿날 성인은 사회부장으로 부터 취재 지시를 받고 요정 '녹정'에 간다. 기생 석향을 만나 구일상사 등과 부정거래가 있음을 들던 중 박상무가 찾아와 10만원 수표를 준다. 유도질문을 던져서 흑막거래가 있다는 확증을 잡은 성인은 수표를 돌려주며 나온다.
- ④ 青春無限(35~45회): 구일상사 장원명사장이 부정대부문제를 기자가 취재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당황해 하자 태섭은 걱정말라며 성인에게 전화해 만나기로 한다. 태섭이 선영과 함께 성인을 만나 자리를 옮기려고 차를 탔는데 사장 딸 주애와 동승하게 됐다. 요정에 간 태섭은 성인에게 기사건을 부탁한 뒤 주애 만나러 일어선다. 성인은 선영과 술 마신 뒤 그녀 요청으로 춤추러 갔는데, 거기에서 태섭이 주애와 춤추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형사가 태섭을 연행한다. 성인은 경찰서에 가서 확인취재하고 신문사에 와서 기사를 작성한다.
- ⑤ 怨情(36~45회): 박상무가 장사장에게 무담보로 5천만원 부정대부한 사실에 대해 성인이 기사를 쓴다. 기사에 자기에 관한 내용이 나온 걸 본 선영이 성인 만나러 신문사 갔다가 주애와 다방에 함께 있는 걸 본다. 따지는 선영에게 성인은 사실대로 썼을 뿐이라고 한다. 주애는 선영과 다음날 경찰서 앞에서 만나 면회하기로 하고 귀가한다. 자신의 다그침 때문에 어머니가 양젓물을 마시자 주애는 의사를 데려온 뒤 죄책감을 느낀다.
- ⑥ 遠謫(46~54회): 주애는 성인의 도움으로 아버지에게 사식을 넣어준다. 주애가 신문사로 성인을 찾아가니, 그는 점심을 사주며 돕겠다는 한다. 일엽이 성인을 만나러 갔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간다. 사흘 후 집을 비워야 할 형편인 선영이 시름에 잠기던 차에 태섭이 석방돼 방문한다. 태섭은 밤늦게 주애를 방문한다. 태섭은 걱정하는 체 하며 식모까지 셋이 한방에서 자다가 주애를 더듬자 그녀가 뿌리치고 나간다.
- ⑦ 浮沈(55~62회): 태섭이 선영 집에 있던 차에 집비위달라는 여자가 찾아 오니 태섭은 돈이 필요하다고 선영의 반지를 갖고나가 2만원에 판다. 태섭은 그 여인을 속여 집비우는 문제를 잠시 유보키로 한다. 그리고 주애를 찾아가 태섭은 병문안하고 나오던 성인을 만나 시비를 벌인다. 태섭은 실의에 빠진 주애를 데리고 춤추고 나서 취한 주애를 호텔로 데리고 가 끈질긴 구애 끝에 결국 동침한다.
- ⑧ 輪轉(63~72회): 이월 어느날 일엽의 행실이 불량하다는 투서가 교장과 일엽아버지 황교수에게 날아든다. 귀가해 자초지종을 들은 성인은 태섭의 소행이라 여긴다. 이튿날 태섭의 주선으로 댄스홀에서 일하는 주애를 성인이 찾아가 태섭은 주애 돈의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다. 성인이 태섭과 투서문제로 다툰다. 성인이 주애에게 좀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게 어떠냐고 하자 그녀는 울며 거부한다.
- ⑨ 雪淵(73~81회): 교장은 일엽에게 학교를 쉬라 하고 성인모친에게는 매점운영을 그만두라고 한다. 현교수는 일엽의 문제로 교장을 찾아가다가 눈길교통사고로 사망한다. 폭설로 성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른다.
- ⑩ 深淵(82~92회): 태섭은 선영을 집에서 내보내주겠다며 빗쟁이로부터 20만원을 받는다. 태섭은 선영집에 찾아가다가 그녀로부터 방을 빌렸다는 말을 듣는다. 뒤늦게 귀경하여 현교수 사망 소식을 듣고 귀가했는데 어머니에게 학교장의 처사 등에 대해 듣고 분노한다. 여중생들이 신문사를 방문하여 학교장의 부정에 대해 제보하고 간다. 정인은 태섭과 함께 다니던 사나이를 만나 투서건에 관한 정보를 알아본다.
- ⑪ 惡數(93~102회): 태섭은 선영을 피어 성인을 괴롭힐 음모를 꾸민다. 선영은 성인에게 태섭과 화해를 시켜주다며 요청으로 그를 데려간다. 한편 일엽은 성인의 방탕한 짓을 확인하라는 태섭의 편지를 받고 나가 성인이 선영과 요정에 들어가는 걸 본다. 선영은 수면제 탄 술을 먹어 잠들게 한 후 옷을 벗기다가 성인의 아랫배에 난 흉칙한 상처를 보고 놀라며 자기의 행동을 후회한다.
- ⑫ 燈心(103~115회): 일엽이 가출해 들어오지 않자 성인은 그녀 아버지 산소에서 그녀를 찾아내고 그녀를 포옹하며 아무 일 없었으니 믿어달라 한다. 선영집에 갔다가 주애를 찾아가던 태섭은 그녀가 산부인과에 가는 걸 본다. 주애가 임신했음을 말하니 태섭은 낙태를 요구한다.
- ⑬ 幻滅(116~126회): 배회하던 주애가 길거리에서 성인을 만나 태섭집 약도를 그려주던 중 쓰러지니, 성인이 그녀 집으로 데려간다. 닷새 후 태섭은 주애를 만나 왜 성인에게 집을 알려줬냐고 추궁하다가 누구 애인지도 모르잖냐는 말까지 한다. 밤이 되어 선영집에 찾아가 주애는 태섭과 선영의 동침현장을 목격한다. 이튿날 태섭을 만나 언쟁하다가 나간 주애는 그날밤 호텔에서 음독한다. 뒤이어 찾아가 태섭은 겁에 질려 도망친다.
- ⑭ 暴風(127~140회): 시경에 들렸다가 주애 음독사실을 들은 성인은 병원에 가서 죽는 것은 어리석다고 그녀를 설득한 후 태섭을 찾아나선다. 그는 선영집에서 태섭을 만나 그가 꾸민 흉계를 확인하고 그를 구타한 뒤 병원에 데려간다. 혼자 술을 마시고 사회부장을 만나 기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데, 부장은 사표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일엽은 자기 때문에 그만두지 말라며 자신도 이제 궁지를 갖고 다시 학교에 나가겠다고 한다.
- ⑮ 花信(141~151회): 일엽이 다시 학교에 출근하기 시작하는데 성인은 경찰이 수사중인 교장의 수뢰사실 등을 취재한다. 태섭과 주애는 함께 여행을 떠난다. 이튿날 경찰서에 들렸더니 교장 등이 연행되어 있고 천여만원의 부정사실이 드러난다. 그날 저녁 성인과 일엽은 안양에 함께 가기로 약속한다.

11. 정한숙 「女人의 生態」

- ① 토끼의 生理(1~7회): 토끼장의 토끼를 보며 자신의 신세와 닮았다는 생각을 하던 경란은 실직해서 집에 틀어박혀 있던 남편이 정장차림으로 나가는 것을 보며 불안감을 느낀다.
- ② 昆蟲의 世界(8~17회): 옥순은 남편(미스터고)의 잦은 외박으로 괴로워한다. 큰동서에게 가서 하소연해보도 참고 지내라고만 하고, 댄스홀에 가봐도 기분이 나아지질 않는다. 집에 찾아온 경란에게 쇠똥구리처럼 남편가 평등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 ③ 나비의 對話(18~27회): 옥순과 경란은 포엠타방에서 혜숙을 만나 함께 얘기한다. 경란이 귀가해보니 아들이 학교서 돌아와 대문앞에 있었다. 수토키가 죽은 것을 보며 상념에 젖어 있던 차에 남편이 만취해 들어와서는 취직한 듯 말한다.
- ④ 蛤(28~37회): 옥순과 혜숙은 윤순옥을 만나 함께 저녁식사하며 술을 마신다. 그녀들은 우연히 만난 김씨 일행과 합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혜숙과 옥순이 빠져나온다. 대문을 두드리던 옥순의 뒤에서 남편이 부른다.
- ⑤ 거미의 抱擁(38~48회): 옥순은 남편과 연쟁을 벌인다. 출장 간다던 남편은 옥련의 요청에 갔던 것이다. 한편 윤순옥은 통금에 걸려 김씨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 몸을 허락한다. 다음날 순옥이 깨어 보니 김씨가 편지를 남기고 떠난 상태였다.
- ⑥ 蟹(49~63회): 혜숙은 동료교사와 학부모들의 불건전한 행태를 보면서 불쾌해진다. 그녀는 뚝섬 봉은사에 남편과 함께 놀러가서 교사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음을 남편에게 얘기한다.
- ⑦ 吸盤(64~77회): 순옥은 김씨의 사업자금을 대느라 다방을 처분하고 빚도 갚지 않은 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고 있다. 아들 동근이 그린 낙지의 흡반을 보며 김씨 생각을 하던 순옥은 김씨와 결혼할 뜻을 비쳤으나 동근은 싫다고 한다. 김씨가 찾아와 따로 자게된 동근은 서글퍼지고, 순옥은 김씨와 정사를 벌인 뒤 상념에 잠긴다.
- ⑧ 猫族(78~90회): 양품점 동업을 시작한 경란은 우연히 옥순을 만나 이야기하다가 남편이 걱정되어 먼저 일어난다. 옥순은 젊은 대학교수를 소개해준다고 하여 정혜를 만나기로 했으나 그녀가 늦어지자 다방 밖에서 서성이던 옥순은 정혜를 만나 함께 샷플보드를 치고 나오려는데 옆의 남자들이 같이 하자고 제의했으나 거절한다.
- ⑨ 비둘기(91~105회): 남편이 미국에 나가 있어 혼자 지내는 정혜는 다양한 비둘기들을 보며 외로움을 느낀다. 시누이 윤난희는 정혜가 비둘기처럼 제멋밖에 모른다고 핀잔이다. 남자친구 문창수를 기다리다가 약속시간이 지나자 난희가 나가버린다. 늦게 찾아온 정혜는 창수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맥주 마시러 얼음집에 들어간다.
- ⑩ 幼蟲時代(106~116회): 난희가 있어 합석하여 분위기를 맞춰주던 정혜는 먼저 나와 거닐다가 귀가한다. 열한시쯤에 대문에서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난희와 창수가 키스를 하고 있었다.
- ⑪ 螢光(117~126회): 순옥은 청구부역 민사장을 만나 세금을 덜 내도록 해준 데 대한 대가를 받아내고 정혜를 만나 1~2일 후에 대천해수욕장에서 만나기로 한다.
- ⑫ 颶風豫告(127~136회): 창수와 대천해수욕장에 놀러간 난희는 낯선 사내가 사진을 찍어주며 접근하자 호응한다. 그것을 본 창수는 화가 나서 혼자 술을 마신다.
- ⑬ 颶風一號(137~146회): 남편 회사에 찾아간 옥순은 요정마담 옥란이 사장실에서 한참동안 놀다가 나중에 절에 같이 가지고 약속하며 나가는 것을 보고 분통을 참지 못해 남편에게 몇마디 하고 나온다. 정혜를 찾아갈때 대천해수욕장에 함께 가자고 한다.
- ⑭ 갈리리의 海岸(147~156회): 옥순과 정혜는 대천해수욕장에 가서 민박을 정한다. 정혜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창수 일행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고, 방안에 있던 옥순을 남편에게 편지를 쓴다. 편지부치려고 나갔던 옥순은 가족과 함께 피서를 마치고 돌아가는 경란을 만난 후 언덕에 올라 사랑의 하소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 ⑮ 颶風七號(157~165회): 난희와 창수가 연쟁을 벌이다가 난희가 밖으로 나가자 창수가 따라나선다. 높은 파도에도 불구하고 어항마을 쪽으로 같이 가자고 난희가 고집을 피운다. 도중에 난희가 파도에 휩쓸렸다가 빠져나왔는데, 난희는 창수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비겁하다며 그를 거부한다.
- ⑯ 視線(166~180회): 옥순은 남편이 자기를 찾아 온 사실을 알고 찾아가는다. 남편은 옥순에게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다. 옥순이 매력에 느끼던 시선의 주인공은 남편친구였는데 그는 옥순이 친구부인인 것을 알고 떠나간다.
- ⑰ 臀과 脚의 誤解(181~190회): 창수의 천막에 갔다가 아무도 없어서 메모를 남기고 혼자 해변을 거닐던 정혜는 바닷물에 뛰어들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옥순이 짐까지 싸들고 간 걸 알고 불쾌해 한다. 창수는 난희의 오해에 우울해져 정혜의 숙소에 찾아간다. 그녀가 몸이 쭉신다는 말에 안마를 해준다.
- ⑱ 별은 총총하건만(191~201회): 난희는 혼자 어항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천막으로 돌아왔다. 천막에서 정혜의 메모를 읽고 창수를 찾으러 정혜 숙소에 갔는데, 창수와 정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소리치려고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다. 창수가 뒤따라 바닷물에 들어가 그녀를 구해낸다. 창수에게 난희를 천막

으로 데려가라고 말한 정혜는 홀로 해변을 거닐면서 남편에게 달려가고픈 충동을 느낀다.

12. 정비석 「낭만열차」

- ① 一枝春心(1~11회): 퇴근한 원낙영 교수는 권달수 의원과 우연히 만나 함께 호수장요정에 가게 된다. 그곳에서 제자인 가오마담 박난심을 만난 원교수는 그녀를 택시로 집까지 바래다주고 귀가하면서 아찔한 감정에 빠진다.
- ② 家庭煩惱(12~20회): 귀가한 원교수는 아내 김정숙과 아들 동근·동준, 딸 설영이 모두 대학교수가 뇌물받는 걸 당연시하는 걸 보고 개탄한다. 그는 남편에게 무감각한 아내를 보며 난심의 모습을 떠올린다.
- ③ 東奔西走(21~32회): 권의원은 난심이 돌아오지 않자 최마담과 술을 마시는데, 최마담은 영업세 탕감을 부탁한다. 다음날 아침 귀가한 권의원은 선거구의 군수와 노인, 취업청탁자 등에 이어 김창현을 만나는데, 창현은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만을 말한다. 오후에 국회에 나갔던 권의원은 파초다방 마담에게 김정옥을 소개받고는 후심을 품고 함께 사업하자고 유혹한다.
- ④ 生理의 差(33~44회): 원교수는 난심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악어로 변한 마누라가 달려드는 꿈을 꾸다. 원교수는 동준이 권달수 딸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는데 아내는 잘됐다고 한다.
- ⑤ 千里와 咫尺(45~56회): 창현이 집으로 설영을 찾아왔는데 서로 사귀는 눈치다. 원교수는 성실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만 외모가 남루하다고 싫어하는 아내에게 거리감을 느낀다. 집을 나선 원교수는 난심의 집에 찾아가 대화하고 나오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 ⑥ 可能的 生態(57~70회): 수업 빼먹고 동준과 약속한 다방으로 간 채옥은 창현을 보고 인사하지만 외면당한다. 채옥은 동준과 중국집에 가서 포옹과 키스를 한 후, 영화 보고 저녁식사를 한다. 그리고 춤을 추면서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채옥에게 동준은 남녀간의 육체적 접촉은 시인하냐고 묻는다. 그들이 호텔로 향하던 중 지나던 권달수가 채옥을 데려 간다.
- ⑦ 人生政談(71~84회): 김정옥이 사업관계로 그는 집으로 그녀를 찾아가 감언이설로 편다. 호수장에 가서 난심과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권의원은 그녀가 집으로 가버리자 크게 분개한다.
- ⑧ 吉凶禍福(85~97회): 정옥언니(김여사)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한다. 정옥이 돌아간 뒤 창현이 설영에게 보낸 편지를 본 김여사는 격정되어 설영의 사주를 보러 갔는데 남편이 바랍났다는 점괘를 듣는다.
- ⑨ 마음의 所在(98~107회): 원교수는 얼마전 난심의 생일에 초대받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을 더듬는다. 다시 난심을 찾아가던 그가 부산에서 하기 교양대학강좌를 맡게 됐다고 하니 그녀는 역에 전송나가겠다고 한다. 마침 호수장에서 사환이 와서 권의원이 부른다고 했으나 난심은 단호히 거절한다.
- ⑩ 多事多難(108~118회): 김여사는 동준이 국회의원 딸과 사귀는 걸 알고 흠족해 한다. 동준은 최근 채옥과 몇번 성관계를 가졌다. 한편 원교수는 호수장에 들렀다가 난심을 집까지 바래다주고 귀가한다. 김여사가 점괘를 들이대며 추궁하니 원교수는 시치미때며 아내 손목을 잡으면서도 난심을 그리워한다.
- ⑪ 懷鄉曲(119~129회): 북에 간 남편 이틈을 적십자본부에 올리고 귀가한 정옥은 외로워 운다. 그녀는 동창의 제 혼 소식까지 들어서 더욱 서글펐다. 그때 술마신 권의원이 찾아와 사업문제는 걱정말라며 정옥을 끌어안는다.
- ⑫ 日曜派人生(130~142회): 채옥은 권의원을 만나러 온 창현에게 추파를 보내지만 외면당한다. 그녀는 동준과 만나 고급택시를 타서 인천까지 다녀온다.
- ⑬ 즐거운 旅情(143~159회): 뜻밖에 권의원과 한 열차를 타게 됐음을 알자, 난심은 귀경할 때 같은 열차를 타겠다고 도중에 내린다. 강의 마치고 부산에서 난심을 만난 원교수는 함께 '낭만열차'로 경주에 간다. 불국사 등을 구경하고 호텔로 갔는데 난심이 고열로 앓는다. 그들은 경주에서 닷새나 한 방에 잤지만 성관계는 갖지 않는다.
- ⑭ 強者の 辯(160~171회): 지방의원 선거 지원유세차 고향에 도착한 권의원은 유지와 당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열변을 토한다. 그러나 서민들의 반응이 결과는 달리 냉담함을 그는 모른다. 여드레만에 귀경한 권의원은 정옥에게 들러 하룻밤 자면서 빌당불하관계로 또 돈을 뜯어낸다.
- ⑮ 病든 薔薇(172~180회): 경주 다녀온 후 누워있으면서 원교수를 그리워하던 난심에게 최마담이 찾아와 세금·외상값 때문에 폐업했다며, 세금 탕감은커녕 외상값도 갚지 않은 권의원을 욕한다. 산부인과에서 진찰한 결과 자궁암임이 밝혀졌는데도 난심은 입원을 거부하고 귀가해서는 원교수를 꺼안고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한다.
- ⑯ 風化作用(181~197회): 채옥이 임신하자 동준과 유산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서로 이용당했음을 알고 사이가 틀어진다. 한편 창현은 원교수에게 찾아가 함께 시골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으니 설영과 약혼시켜 달라고 청한다. 정옥은 권의원에게 속았음을 알고 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나, 그는 오히려 호통을 친다.
- ⑰ 永遠한 꿈(198~213회): 난심은 스스로 수의를 짓고 수면제를 마련하는 등 죽음을 준비한다. 10월로 접어들어 창현의 요청에 따라 설영을 시골로 보낸 뒤 들국화를 사들고 난심을 찾아가던 원교수는 저녁을 함께 먹고 돌아

온다. 그날 들국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 원교수는 새벽에 난심을 찾아갔으나 그녀는 수의를 입은 채 누워 있었다. 난심의 편지를 읽은 원교수가 통곡하지만 쓸쓸한 시체는 말이 없었다.

13. 김내성 「失樂園의 별」

- ① 十八年の貞操(1~9회): 김옥영과 강석운이 한밤중에 가정, 외도, 연애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 ② 수수께끼의 女人(10~16회): 석운이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한 여학생을 우연히 만나 출판사까지 동행하며 대화한 뒤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진다.
- ③ 王者意識(17회~24회): 출판계약을 마치고 나와 우연히 길가에서 아내를 본 석운은 아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고 의심하며 뒤쫓아간다. 시부모를 만나는 중이라는 옥영은 남편이 자기를 의심한 것을 슬퍼한다.
- ④ 姜教授와 高社長(25~32회): 석운 내외, 강교수 내외, 고사장 내외가 함께 식사하고 헤어진다. 석운은 아내를 의심했던 것을 후회하며 옥영을 위해 화분을 사서 맡겨두고 여학생을 만나러 간다.
- ⑤ 女人二態(33~39회): 고영림은 송준오와의 약속을 깨고 귀가했다가 올케(한혜련)에게 가서 애정관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 ⑥ 칸나의 意慾(40~46회): 영림은 자작 「칸나의 의욕」을 작년에 석운에게 보낸 바 있고, 석운은 독후감을 보내 주었다. 혜련이 석운과의 과거를 술회하기 시작한다. 혜련이 석운을 안 건 여학교 1년인 14살 때, 그때 석운은 동경 W대 재학생이었다.
- ⑦ 鳳仙花의 哀愁(47~57회): 혜련이 19년전(1938년) 원산의 송도원해수욕장에서 석운은 혜련에게 봉선화 전설을 들려주는데, 그는 그때 옥영과 약혼한 상태였다.
- ⑧ 人生問答(58~65회): 석운은 영림이 「칸나의 의욕」을 쓴 여학생임을 알고 함께 맥주를 마시며 강한 정신적 흔들림을 느낀다. 영림은 석운에게 혜련의 이야기를 전하며 한번 만나주길 청하지만 석운이 주저한다.
- ⑨ 危險地帶(66~73회): 유혹하고 싶다는 영림의 말에 석운은 강한 심적 동요를 느끼며 훗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아내를 위해 사뎀된 화분을 찾아 귀가한다.
- ⑩ 安全地帶(74~78회): 석운은 처자식에게 선물을 한 후 술잔잔 하면서 옥영에게 영림에 관한 얘기를 일부만 털어놓고 일부는 비밀로 남겨둔다.
- ⑪ 愛情散賣業(79~84회): 영림과 만나지 못한 준오가 이애리와 함께 식사하며 입술을 요구한다. 이애리는 고영해 돈 때문에 만나는 것이며 준오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준오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애정행위를 요구하자 뺨을 치고 방을 나간다.
- ⑫ 肉體派群像(85~92회): 고사장은 이애리에게 흑심을 품고, 고전무는 이애리와 유현자에게 추파를 보낸다.
- ⑬ 愛慾과 金慾(93~101회): 고영해는 혜련과의 이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자는 영림의 요구를 거절하고, 애리와 함께 그림에서 술마시고 식사하며 애육과 금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애리는 고전무의 제의로 댄스홀을 시작해 보기로 한다.
- ⑭ 칸나의 抵抗(102~111회): 한달간 「칸나의 저항」을 쓰면서 강석운을 그리워하면서도 만나기를 자제하던 영림은 준오를 전화로 불러 만나는데 우연히 전차에 탄 석운을 본다. 식사하며 술마시던 중 준오가 영림에게 석운을 좋아하느냐고 묻는다. 준오를 보낸 영림은 혼자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린다.
- ⑮ 青春의 終着驛(112~117회): 늘 영림을 그리워하고 있던 석운은 출판기념회에 다녀오는 길에 애리를 만난다.
- ⑯ 밤의 浪漫(118~122회): 애리와 석운이 술도 마시고 거리를 팔짱끼 채 거닐면서 대화를 나눈다. 애리는 이년전 계부에게 겁탈당했을 때 석운의 조언을 들었던 인연이 있다.
- ⑰ 不幸한 밤(125~130회): 유현자와 안 좋은 감정으로 헤어져 귀가한 고영해는 영림의 원고를 통해 혜련의 과거와 영림이 석운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게 모두 일러바친다.
- ⑱ 男子라는 이름의 動物(131~136회): 다음날 아침 영해는 처가에 가서 자기가 안 사실을 모두 말하고, 영림과 언쟁을 벌인다. 혜련은 비탄에 빠진다.
- ⑲ 人間の 探求(137~143회): 고종국사장은 황산옥과 있던 중 전갈을 받고 급히 집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듣는다. 영해와 영림이 크게 언쟁을 벌이던 중 영림의 머리에서 피가 난다.
- ⑳ 칸나의 解放(144~154회): 영림은 석운의 집을 찾아가 옥영과 석운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석운과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속여 석운과 밖으로 나가자 옥영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긴장한다. 석운에게 8년전부터 매년 생신과 성탄절에 꽃봉투를 보내는 독자가 있다는 말을 옥영에게서 들은 영림은 그것이 혜련임을 알아챈다.
- ㉑ 誘惑의 江(155~168회): 소나무숲에서 대화를 나누던 석운과 영림은 포옹과 키스를 하며 행복감에 빠진다.

- ㉔ 犯罪意識(169~176회): 석운은 영림과 헤어져 혼자 술 마시고 귀가한다. 그는 한달 가까이 영림 생각에 소설 집필도 잘 안 되던 중 애리로부터 댄스홀 개업 초대장을 받는다.
- ㉕ 祝賀 파티(177~183회): 댄스홀 개업식장에서 석운과 영림은 다시 만나는데, 영림은 석운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자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다.
- ㉖ 불나비(184~192회): 석운과 영림이 몰래 빠져나와 다방에서 만난 뒤 호텔로 들어가서 격렬한 포옹을 한다.
- ㉗ 金玉影 女史(193~199회): 옥영이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영해로부터 자초지종을 듣는다. 석운은 용서를 구하면서도 영림을 잊기 힘들다고 한다. 한편 영해는 석운이 귀가했다는 전갈을 접하고 그를 만나러 간다.
- ㉘ 人間 姜石雲(200~209회): 석운은 영해에게 영림의 처소를 말해주지 않아 얻어맞는다. 옥영에게 용서를 빌다가 영림을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며 호텔로 간 석운은 어떤 청년이 뒤쫓는 것을 눈치채고 다른 호텔로 옮기던 차에 집에 다녀온다던 생각도 꺾이고 만다.
- ㉙ 失樂園(210~216회): 영해는 옥영의 집에서 석운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귀가하던 석운이 송찬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듣고 다시 호텔로 향한다. 석운은 영림과 도피할 계획을 세우며, 딸에게 피아노를 사주기로 했던 인세를 도피자금으로 마련한다.
- ㉚ 아내의 抗議(217~224회): 옥영은 시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애정이 식은 결혼생활은 계속할 수 없다면 시부모·남편·딸에게 각각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가고, 석운과 영림은 경부선열차를 탄다.
- ㉛ 久遠의 幸福(225~233회): 혜련은 남편의 경제적 도움을 끊은 후로 기력을 점차 회복해 가고, 옥영은 선배 집에 머물렀다가 우연히 혜련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 점차 그간의 의문점들을 알게된다.
- ㉜ 愛慾의 行路(234~244회): 강교수 내외는 석운집에서 지내고 아이들은 부모를 원망한다. 석운은 영림과 불국사 등지에서 도피행각을 벌이던 중 잠시 옥영을 생각한다.
- ㉝ 女性的 宿命(245~253회): 옥영은 혜련이 석운을 연모했음을 안 가운데 오선영여사의 방문과 신문에 실린 딸의 편지를 계기로 귀가하여 아이들을 만난다.
- ㉞ 愛情의 姿勢(254~265회): 석운도 딸의 편지를 읽고 괴로워한다. 울릉도로 가려고 포항에 머물던 중 영림이 석운의 괴로움을 눈치채고 몰래 편지와 돈을 놓고 떠난다.
- ㉟ 孤獨의 位置(266~273회): 서울에 도착한 영림은 혜련을 방문해 그간의 얘기를 나눈다. 준오는 미국 가기전 인사차 왔다가 귀가한 영림을 만나보고 냉정한 태도를 보인다. 영림은 고독을 느낀다.
- ㊱ 失樂園의 別(274~284회): 석운이 서울에 와서 방향하다가 결국 집에 들어가 아내의 용서를 구하고 포옹한다.

14. 박화성 「사랑」

- ① 성묘(1~7회): 유옥 남매의 전승을 받으며 고향에 온 민우는 누이 찬애에게 남철을 가까이하지 말라며 서울 갈 준비를 하라고 이른다. 그는 추석날 식구들과 함께 성묘를 하면서 해방직후 피살된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하고, 혼자 강희석의 묘소에 가서 흐느낀다.
- ② 들국화의 노래(8~12회): 민우를 기다리며 방을 치우던 희봉은 민우가 들국화를 꺾고 들어오자 반갑게 맞는다. 민우는 희봉에게 보고싶었다며 포옹과 키스를 한다. 우연히 유옥이 민우에게 준 꺾과 편지를 본 희봉은 둘의 관계에 대해 다소 불안해진다.
- ③ 강강수월래(13~18회): 이튿날 강강수월래 경연 행사에서 사범고등학교 여학생팀과 선소리꾼 희봉이 일등을 한다. 그 행사의 심사위원인 신종숙(민우모친)은 어렵게 살아온 세월을 회고하다가 19살이던 이십여년전 추석 개항기념행사에서 강강수월래 경연의 선소리를 했던 일을 생각한다.
- ④ 달은 지고(19~23회): 그녀는 그날밤 불량배들로부터 보호해준 김청년과 결혼했던 것이다. 찬애는 작년 여름 남철로부터 댄스교습을 받으면서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됐으나, 민우가 교제를 반대하자 의아해 한다. 희봉은 민우 생각으로 밤을 지낸다.
- ⑤ 시들은 향기(24~30회): 장계선은 남철이 찾아오자 전축을 틀어놓고 함께 춤을 추며 놀다가 점심상에 맥주가 나오자 마신다. 그녀는 남철이 자신을 시든 꽃이라 하면서 신종숙을 추켜세우자 핀잔을 준다. 그러자 발끈한 남철은 장여사 뺨을 때려 난장판된다.
- ⑥ 또하나의 진리(31~38회): 마침 유옥 남매가 들어오자 남철은 몰래 빠져나간다. 장여사는 식모를 통해 과일 선물과 편지를 남철에게 전한다. 식모는 남철이 편지를 보지도 않고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쥐버리더라는 얘기를 전한다. 그 다음날 남철이 놀러오지 않자, 남철집에 찾아가 기다리다 잠이 든다. 밤늦게 들어온 남철이 나가라고 하자 장여사가 돈 오만환을 내놓으니 남철이 반색하는 가운데 통금사이렌이 울린다.
- ⑦ 빛을 그리며(39~59회): 민우가 찬애를 서울에 데려오자 장계선은 못마땅한 눈치다. 인식은 찬애를 향한 감정

이 예사롭지 않다. 유옥은 찬애의 말을 통해 민우와 희봉의 관계를 확인하고 흐느낀다. 이튿날 남철이 찾아와 찬애에게 오후에 만나자는 내용의 편지를 전하고 장여사와 함께 나가자, 이상한 느낌을 받은 찬애는 나가지 않는다. 그날 오후 민우·찬애·유옥·인식이 광릉에 놀러갔는데, 유옥은 민우에게 어머니와 남철의 문제 때문에 괴롭다며 자신의 빛이 왜 달라고 한다.

- ⑧ 노래 잇은 카나리아(60~66회): 찬애는 장여사 친구인 황부인의 딸 애주의 가정교사로 들어간다.
- ⑨ 눈사람(67~73회): 일주일 후 황부인이 계모임에 나간 후 이혁(황부인 조카)이라는 청년이 찾아와 돈을 맡기고 가는데, 찬애는 그에게 매력을 느낀다. 나중에 보니 돈 한푼치가 없어졌다.
- ⑩ 그림자(74~89회): 돈은 식모 과천택이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판명된다. 이튿날 황부인이 외출한 사이 황사장이 차를 보내 찬애를 나오게 하고는 돈 십만원을 주자 찬애는 거절하다가 얼떨결에 받는다. 그녀는 우연히 남철을 만나 그의 하숙집에 가게 된다. 남철은 양말 선물을 주며 찬애를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는 함께 춤을 춘다. 잠깐 남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장계선이 남철에게 보낸 편지를 읽는다. 민우 만나러 갔다가 식모와 애기를 하던 중 자신이 남철에게 보낸 선물을 장여사가 시기하여 모두 불태워버렸음을 안다. 밖으로 나오는데 남철이 차에 태우며 선물을 주자 찬애는 선물과 장여사 편지를 남철에게 되돌려주며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
- ⑪ 대결(90~102회): 민우와 중국집에서 만난 유옥은 그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다고 한다. 민우는 둘다 사랑하고 싶다는 말로 달랜다. 민우는 남철이 장여사와의 관계를 끊지않고 있음을 알고는 그를 찾아가 반성을 촉구한다.
- ⑫ 오탁이(103~120회): 남철이 집까지 쫓아와 일요일에 만나자고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간다. 찬애는 일요일이 되자 고민 끝에 남철을 만나러 갔으나 장계선이 나타나자 혼자 귀가한다. 찬애가 서울 온 지 한달째 되는 토요일, 과천택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황사장부부가 함께 외출했는데, 밤이 되어 혼자 돌아온 황사장이 찬애를 검탈하려 하자 찬애가 반항하다가 비수로 그의 손을 찌른다. 그 이틀 후 찬애가 홍과장을 찾아가 취직자리를 부탁하고 나오는데 인식과 만난다.
- ⑬ 삶의 형태(121~140회): 인식이 찬애 생일선물로 스웨터를 사주는 등 둘은 좋은 시간을 보낸다. 찬애는 황사장집에서 나오겠다는 말을 민우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찬애는 황부인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월급을 받고 그중 절반은 어머니에게 부친다. 찬애는 민우로부터 취직 소식을 듣고는 그의 친구가 사는 집에 거처를 알아봤다며 함께 갔는데, 그 친구는 이혁이었다. 찬애는 결국 이혁의 옆방에 살기로 결정한다.
- ⑭ 봄은 멀고(141~160회): 민우는 희봉의 다투리 섞인 편지를 받고 시골에 갈 결심을 한다. 한편 희봉은 유옥의 방문을 받고 민우를 포기해달라는 말을 듣는다. 희봉은 민우가 둘 다 사랑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했음을 전해 듣고 생각해 보겠다며 유옥을 위로해 보낸다. 그후 괴로워하던 희봉은 민우와 유옥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러다가 어느 토요일 오후 민우가 찾아오자 희봉은 유옥에게 한 말이 헛소리였는지 묻는다.
- ⑮ 악인은 지옥으로(161~180회): 민우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 복수에 대한 다짐을 듣고는 다음날 함께 병원에 갔는데 위암의 우려가 있다는 진찰결과를 접하고는 우울한 기분으로 상경한다. 민우는 남철과 장여사의 만남이 인식 부자에게 목격됐는데, 그날 밤 오히려 장여사가 이혼을 요구하자 시비끝에 장여사가 팔을 다친 사실을 안다. 홍과장은 민우에게 사위가 돼 주길 원하지만 민우는 희봉과 결혼할 예정이라고 답한다.
- ⑯ 극락의 길(181~205회): 민우가 유옥이 낙심하여 수원에 간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운데 장계선은 남철을 피내 유성 은천장에 함께 가서 하룻밤을 즐긴다. 이튿날 찬애의 일로 시비하다가 남철은 장여사를 건어차고 만다. 한편 그 순간 이들을 찾아 나섰던 민우와 홍과장이 그 현장을 목격한다. 홍과장은 장계선과 남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장여사는 내출혈로 숨을 거두고 만다.
- ⑰ 짐을 부리고(206~225회): 민우는 남철을 데리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간단한 처치를 받게한 후 그를 여관에 눕힌다. 홍과장은 마침 찾아온 인식과 함께 장여사를 화장한 후 상경한다. 그 후 민우는 남철을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니 뇌출혈이라 한다. 남철은 태식이 민우아버지를 죽였고 지금 동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후 자신이 태식에게 복수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를 용서하라며 숨을 거둔다.
- ⑱ 여파(226~246회): 이혁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찬애는 남철의 죽음에 흐느낀다. 남철 동생 남순이 오자 화장을 끝낸 민우 남매는 서울로 향하고 이혁은 뒷처리를 맡는다. 민우는 망설임끝에 찬애에게 태식이 아버지를 죽인 범인임을 말한다. 두 남매는 친절히 대해주는 홍과장 식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난감해한다.
- ⑳ 반사경(247~261회): 귀경한 이혁은 남철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남순과 희봉을 만났는가 하면, 민우동생들 이랑 희봉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말한다. 민우가 혁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사연을 말하자, 혁은 민우와 의논한 뒤 홍과장과 인식에게 그 사실을 전한다. 홍과장은 혁에게 협조자가 돼 달라고 부탁한다.
- ㉑ 사랑의 立體像(262~289회): 찬애는 손목이 잘린 황사장을 용서하게 되고, 이혁은 황사장 제분공장을 맡아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살게되며, 남순은 애주의 입주가정교사가 된다. 민우와 찬애는 홍과장집 식구들에게 원한

의 감정을 갖지 않기로 했으며, 민우는 인식을 데리고 고향에 가서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얘기하고는 용서하라고 설득하면서 찬애와 인식의 혼담까지 꺼낸다. 이에 크게 흥분하던 신여사는 민우의 끈질긴 설득과 찬애의 편지 등으로 복수의 감정을 추스리고 결국 인식을 받아들여기로 한다.

15. 김말봉 「生命」

- ① 抗辯(1~23회): 피를 뽑아 팔고 집에 간 전창님은 동생 창수가 생활고와 정학 등을 비판해 유서를 남기고 없어졌음을 알고 찾아다닌다. 이튿날 창수 담임 실병국이 찾아와 용서를 구하지만 창수는 시체로 발견된다. 창님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학교에 갔다가 김정미와 인쟁하던 중 쓰러진다. 학교병원에 누웠다가 귀가한 창님이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병국이 만류한다. 한편 정미는 아버지 김한주가 어머니 허여사와 부부싸움 끝에 쓰지 못할 딸자식 때문에 젊은 여자와 논다고 하는 것을 듣고 가출해 오현무를 만났다가 귀가한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기 뒤통을 달라고 요구하여, 추후 부동산과 현금 1천만원을 받기로 한다.
- ② 代價(24~44회): 정미 등 학생들이 돈을 모아 창님의 등록금을 내어준다. 창님집에서 밤늦게까지 놀던 병국이 귀가하려고 차를 탔는데 그의 반 학생 유근삼의 어머니와 동승하게 된다. 이튿날 그녀는 병국의 퇴근 무렵 찾아와 자기집으로 데려간다. 화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국화주를 내온다. 돈 버는 비방을 알려 달라고 하자 화주는 하루 1시간에 만환씩 주겠다고 병국을 누드모델 삼아 그림을 그린다. 그때 손님이 찾아오자 벌거벗은 채로 병국이 병풍뒤에 숨는데, 방문객은 김한주였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1천만원 용자건으로 인강도장을 요구한 화주는 김한주가 거부하자 드러눕는다. 의사가 다녀간 후 김한주도 돌아가자 병국은 그제서야 옷을 입고 나가려는데 화주가 돈을 준다. 이튿날 피를 팔고 귀가한 창님에게 병국은 피 파는 건 죄악이라고 흥분한다.
- ③ 傾斜(45~76회): 병국은 화주에게 받은 심만환을 창님에게 주고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는데 정미가 현무와 함께 들어오자 서로 인사하고 헤어진다. 정미가 집에 들어간 사실을 모르는 현무는 그녀와의 사랑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한다. 귀가한 정미는 둘 사이가 아직 약혼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선언하는 편지를 현무에게 보낸다. 어머니가 쫓은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본 정미는 혜옥을 통해 화주에게 돈을 빌려보려 하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김한주는 어려운 회사사정에도 불구하고 화주에게 1천만원짜리 수표를 써준다. 귀가한 그는 아내가 쫓은 때문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그녀에게 1천만원짜리 수표를 써주고 화주에게 가서 수표를 돌려달라 하지만 이미 예금해버린 뒤였다. 부도위기에 직면한 걸 안 허여사는 우선 회사부터 살리라며 수표를 되돌려준다. 이튿날 아침 계륵들이 물려와 흥분 끝에 허여사를 쓰러뜨려 그녀가 뇌진탕으로 입원하게 된다.
- ④ 虛實(77~104회): 현무는 화주의 소개로 혜옥을 만나던 도중 정미와 마주친다. 화주는 병국을 자기집으로 데리고 가서 돈으로 유혹하나 넘어가지 않는다. 한편 창님은 김기철이란 청년이 찾아와 구혼하자 거절하는데, 기철은 병국이 나타나자 그와 인쟁하다가 화주로부터 돈을 얻어 나간다. 화주도 돌아간 뒤 병국은 화주와의 관계를 털어놓으며 믿어달라고 한다. 창님이 눈물 흘리고 둘이 포옹하는데 갑자기 불이 나는 바람에 급히 뛰쳐나온 뒤 통금시각이어서 함께 여관에 들게 된다. 병국이 육체관계를 요구하지만 창님은 거절한다.
- ⑤ 四重奏(105~132회): 이튿날 병국을 만난 창님은 화주와 합성한 것을 계기로 그녀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다. 화주는 은근히 자기의 세간 등을 보여주며 과시하자 창님은 급히 밥을 먹고 나간다. 다시 화주의 집에서 30만환을 선금으로 받고 누드가 되어 포즈를 취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 때 김한주가 찾아온다. 영겁결에 보자기를 뒤집에 썼던 병국은 김한주가 눈치채자 도망친다. 김한주는 거기서 밥을 보내고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아내가 죽어 있었다. 한편 병국은 창님에게 전셋방을 빌려주고 내년 2월에 결혼하자고 말한다. 병국이 밤늦게까지 놀다가 나간 직후 창님을 방문한 기철은 칼로 위협까지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담을 넘어간다.
- ⑥ 望遠鏡(133~177회): 창님을 포기하기로 한 기철은 친구 이진에게 고향 가서 농사 지으며 살자고 한다. 한밤중 팔촌형 택시의 조수석에 기철이 타게 되는데, 수상한 손님이 화주의 집에서 내리면서 차비 때문에 시비가 벌어지고 화주가 그들을 집으로 끌어들인다. 기철은 화주와 육체관계를 맺으려다 실패하고 가방 속의 물건을 구실로 추후 1백만환을 받기로 하고 나간다. 이튿날 병국이 창님과 약혼한다며 화주를 식사에 초대하자, 핫김에 술에 취한 화주는 선물만 주고 온다. 다음날 화주의 핏에 걸려 병국이 흥분계를 마시고 성행위를 하려는 순간 손님이 찾아오자 다이아몬드만 받고 나온다. 흥분이 가시지 않은 병국은 창님에게 찾아가 거의 억지로 그녀를 범한다. 그후 화주가 계속 결혼준비에 도움을 주자 창님은 결혼 전날 고마움을 표하려고 그녀집에 방문했다가 그녀와 병국이 키스하는 장면을 보고 반지를 빼 던지며 뛰쳐나간다. 결국 결혼식이 거행되지 못하자 비판한 병국은 화주집을 방문하여 그녀에게 사직원을 쓰게 한 뒤 발가벗고 성행위를 하려는데 김한주가 방문하자 바지도 입지 못하고 도망친다. 그후 외국으로 도망가려던 화주는 공항에서 밀수혐의로 경찰에 붙잡힌다.
- ⑦ 流轉(178~201회): 병국이 창님을 못 만나다가 기철과 함께 있는 그녀를 보지만 외면당한다. 피로움에 혼자 걷

던 병국은 정미의 차에 타게 됐는데 김한주가 맹장염으로 입원했음을 알고 자신의 피를 제공한다. 정미가 병국의 방을 찾게 되고 거기서 포옹과 키스를 하며 가까워진다. 병국과 정미는 미국에 함께 가기로 한다. 한편 창님은 병문안 갔다가 병국이 거기 있음을 보고 간다. 창님은 기름장수 할머니를 간호하게 됐는데 병실에서 예전에 차를 얻어탄 인연이 있는 외국인 여자를 만나게 된다. 병국은 현금 1천만환을 갖고 가 광산인부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김한주의 부탁을 받는다.

- ⑧ 飛躍(202~212회): 병국은 현금수송도중 운전수가 강도로 돌변하자 그를 때려눕히나 머리를 크게 다쳐 지나던 미군트럭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 입원한다. 창님은 같은 병원에 그가 입원했음을 알고 쾌유를 빌면서도 이제 정미와의 길을 걷는 것에 착잡해 한다. 얼마후 퇴원한 병국은 김한주가 마련해준 집에서 살게 된다. 창님은 안더슨 부인의 추천으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는데, 비행기 속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다.
- ⑨ 생명(213~265회): 김한주의 제의로 병국이 정미와 약혼하게 됐는데, 화주가 나타나 병국을 만나자고 하나 거절당한다. 화난 화주가 정미를 찾아가 병국에게 비밀애인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김한주에게 매맞고 쫓겨난다. 김한주는 화주와의 관계가 타노날 것이 두려워 병국과 정미의 미국행을 서두른다. 화주가 갖가지 협박으로 기철을 통해 김한주에게 돈을 받아내는데 기철이 돈 시비 끝에 그녀를 밀치고 가자, 화주는 핫김에 폭주를 하여 죽는다. 한편 미국에 도착한 창님은 뉴욕대학에서 수강하는 가운데 미혼모 보호사업하는 허드슨 부인의 일을 적극 거들며 신임을 얻어 생활하던 중, 기말시험이 끝나 썬아넷과 함께 영화관에 갔는데 병국의 뒷모습을 보게 된다. 얼마간 코오렌스 부인의 집에 있게 된 창님은 썬아넷으로부터 정미가 미국에 있음을 듣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코오렌스 부인의 초청으로 동양계 학생들이 방문하는데, 거기서 병국과 정미가 창님과 마주치게 된다. 당황한 정미는 결혼을 서두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창님이 교통사고로 임신사실이 알려지고, 창님이 썬아넷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다. 정미와 병국이 뉴욕에서 결혼식 올린다는 사실을 안 창님과 썬아넷은 식 전날 그들 앞에 나타나서 창님이 병국의 아이를 임신중이란 사실을 말하나, 정미는 강행할 뜻을 밝힌다. 다음날 결혼식장에 신부가 나타나지 않고 창님이 신부가 된다. 식을 마치고 차속에서 병국이 창님을 포옹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 시각 정미는 행복하길 바란다는 편지를 병국에게 써 놓고 유럽행 비행기를 예약하러 간다.

16. 최인옥 「愛情花園」

- ① 파랑새의 꿈(1~18회): 성탄전야를 함께 거닐던 유종섭과 허영숙은 여관에 들어간다. 작년 성탄전야에 파티에서 영숙을 만난 종섭은 올 가을에 그녀와 진옥, 황원태 사장과 함께 설악산에 다녀왔는데, 그 이후 영숙은 종섭과 진옥의 관계를 의심하고, 종섭은 영숙과 황사장의 관계를 의심한다. 이를 후 종섭은 진옥과의 관계를 끊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는다. 길명섭 교수의 원고를 받으러 간 종섭은 그 집에 있던 진옥을 만난다. 진옥은 어렵사리 종섭에게 베틀타이를 선물하고 행복감에 젖는다.
- ② 戀情은 불같이(19~32회): 진옥은 목욕탕에서 영숙을 만나 그녀에게 종섭과 사랑하는 사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날 영숙은 황사장을 불러 자금을 마련할 테니 영화제작사업을 하자고 종섭에게 제안하나, 종섭은 그럴 믿을 수 없다며 밖으로 나온다. 진옥을 만난 종섭은 사랑을 확인하며 포옹과 키스를 한다. 그들은 길교수와 만나게 되어 그를 따라 덴스홀에 간다. 길교수는 은주라는 학생덴서와 춤을 춘 뒤 그녀에게 수업료라며 돈을 준다.
- ③ 肉體와 돈(33~46회): 영숙은 종섭을 유혹하려다 실패한 후 황사장을 만난다. 호텔로 그녀를 데리고 간 황사장은 몸을 요구하는데 그녀는 영화사업에 필요한 2천만환을 달라고 한다. 황사장은 우선 1천만환짜리 통장을 만들되 도장은 자기가 보관하겠다고 한다. 영숙은 추후 모시겠다고 빠져나가 버린다. 화난 황사장은 돈을 주고 여자를 부르는데 불려온 여자는 은주였다.
- ④ 진옥이 생일날(47~63회): 종섭과 진옥은 함께 등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황사장 일행을 만난다. 진옥 생일날 종섭 등이 초대돼 왔는데, 진옥 부모는 종섭을 의심히 살펴본다. 파티가 끝나 영숙은 종섭을 스탠드바로 데려가서 1천만원이 든 통장을 내놓으며 함께 영화사업하자고 한다. 종섭이 술에 취하자 영숙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몸을 섞는다. 한편 파티 끝난 후 진옥은 아버지로부터 종섭의 의지가 약해 보이니 조심하라는 말을 듣는다. 이튿날 출근한 진옥은 영숙의 부탁으로 그녀집에 찾아갔다가 누워 있는 종섭을 보고 놀란다.
- ⑤ 밤에 피는 꽃(64~74회): 길교수는 은주를 만나 춤춘 뒤 함께 스탠드바로 이동해 술을 마신다. 둘은 은주가 아는 어느 노파의 집에 들어가 포옹과 키스를 한다. 은주는 길교수에게 사랑한다고 한다. 귀가한 길교수는 부정입학을 부탁받은 학과장이 보내온 돈을 돌려주라고 호통치면서도 은주에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 ⑥ 十字路(75~86회): 종섭은 진옥을 찾아가 사과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영숙의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고 두번이나 진옥의 집에 찾아갔다가 헛걸음한 종섭은 술 취해 다니다가 영숙을 만난다. 함께 호텔에 들어간 그들은 영화제작에 관해 의논한다. 이튿날 종섭이 길교수를 찾아가 신문사에 사표내고 영화제작을 시작할 뜻을

밝히니 길교수는 은주를 주원으로 써달라고 부탁한다.

- ⑦ 마음의 등불(87~100회): 진옥은 영숙이 종섭과 함께 온천장에 묵으며 영화제작한다는 얘길 듣고 낙담하여 혼자 음악실에 갔다가 황사장을 만난다. 그녀는 그와 식사 후 영화를 구경하고 요정까지 갔다가 황사장이 꺼안으려 하자 빠져나와 지나던 차에 탄다. 그런데 그 차에 타 있던 청년이 진옥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기원에 놓고간 파이프라며 전해주라고 한다. 그는 그녀에게 혼담을 걸어온 권영목이었다.
- ⑧ 기다려지는 日曜日(101~115회): 진옥은 회사를 그만 둔 일주일 후 오빠 진도가 경영하는 고아원에서 일하기로 한다. 진도는 심정애를 소개받았으며 사진을 보여준다. 진옥은 돌아오는 길에 은주를 만나니 그녀는 사정도 모르고 배우선발에 종섭에게 잘 얘기해달라고 부탁한다. 진옥은 선처를 바란다는 편지를 써주고 원작소설도 빌려주는 등의 호의를 베푼다. 은주는 영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우로 선발된다. 어느 일요일 진옥은 말타고 가던 권영목을 만나는데, 그가 일요일마다 승마하러 온다고 하자 그 일요일이 기다려진다.
- ⑨ 비오는 밤의 抒情(116~129회): 종섭은 은주에게 출연료 선금을 준다. 한편 영숙은 황사장을 만나 호텔에 가는데, 결국 돈 때문에 몸을 허락한다. 종섭은 진옥의 집 앞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진옥을 그리워한다.
- ⑩ 乘馬 루우트(130~141회): 진옥은 영목이 말타고 나타나 인사하고 지나가자 자전거로 쫓아간다. 둘은 영목의 별장에 함께 가서 끼안고 입맞춘다. 자전거 타고 되돌아오던 진옥은 지나던 차에 탄 종섭과 영숙을 보는 순간 쓰러진다. 영목이 진옥을 대학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킨다. 은주편에 종섭의 편지를 받은 진옥은 그것을 불태워버리고 영목과 포옹하며 사랑을 확인한다.
- ⑪ 무너지는 城(142~156회): 황사장은 영화제작비를 제대로 대주지 않으면서 사흘 후에 돈을 준다며 또 영숙을 범한다. 사흘 후 황사장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통장의 잔액이라도 찾으려던 영숙과 종섭은 한푼도 남아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영숙은 급한 김에 어머니에게 돈을 구하러 갔으나, 어머니는 석달전에 그에게 7백만환을 빌려줘 못받았다고 한다. 모녀가 회사로 찾아가 보니 부정대출 등의 혐의로 수배됐다는 것이다.
- ⑫ 第三의 사나이(157~169회): 졸업식날 최근 영숙에게 도움 주고 있는 오택근이 그녀를 축하하러 찾아온다. 진옥은 정애에게 오빠와 결혼해 달라고 청한다. 은주는 진옥에게 종섭의 꽃다발을 전하며 영화제작이 중단됐음을 말한다. 사무실에 돌아온 영숙이 제작비를 구해오겠다고 하자 종섭은 제2의 황사장을 만들었으며 그녀가 황사장과 산장에 들어가 잠자는 걸 봤다고 한다. 영숙은 택근과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 ⑬ 생각하는 갈대(170~182회): 은주가 다시 댄스홀에 나가보겠다고 하자 길교수가 만류한다. 길교수는 우연히 진옥을 만나 영화제작 중단으로 은주가 딱하게 됐다고 걱정한다. 진옥은 영목에게 1천만원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나서 오빠 약혼식에 참석한다. 5일후 진옥을 찾아온 영목은 돈을 빌려주는 한편 홍콩으로 발령나 며칠 뒤에 떠난다며 칭훈한다. 돈으로 환심사는 게 아님을 확인한 진옥은 홍콩 가는 날 공항에서 담하기로 한다.
- ⑭ 惡夜(183~189회): 택근과 놀아나던 영숙은 그의 소개로 영화에 투자할 외국인을 만나기로 한다. 숨어있던 황사장으로부터 약속한 돈을 주겠다는 편지를 받은 영숙은 그를 만난다. 황사장은 총을 꺼내보이며 함께 밀항하자고 위협한다. 그때 사람들이 습격하자 황사장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순간 영숙은 총소리를 듣고 기절한다.
- ⑮ 運命의 날(190~194회): 길교수는 종섭에게 1천만환을 빌려주며 영화사업을 재개하라고 한다. 이틀후 부름받고 다시 길교수를 방문한 종섭은 그 돈이 진옥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안다. 한편 진옥은 길교수의 연락을 받고 갔다가 종섭을 만난다. 종섭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만 진옥은 그에게 영화에 정진하라고 한다. 행복을 빈다는 종섭의 말을 뒤로 하며 진옥은 영목의 칭훈을 허락하는 말을 전하러 공항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17. 정비석 「슬픈 牧歌」

- ① 서울驛前에서(1~14회): 제대군인 강병철은 대학을 졸업하고 귀향하는 김경호를 전송하러 역에 나왔다가 어떤 여자의 핸드백 소매치기사건에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그녀에게 호감을 갖는다. 그녀와 헤어진 후 한도숙이라는 '쓰리대장'은 부하가 훔친 병철의 지갑을 돌려준다. 도숙은 여자의 핸드백도 돌려주겠다고 한다.
- ② 天國과 地獄(15~28회): 병철은 X청 국장인 외삼촌 현홍섭과 외숙모 박정임의 행각을 보며 지도층의 부패상을 개탄한다. 그는 뭔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 정거장에서 그녀를 만나고 싶어한다.
- ③ 장글地帶의 生態(29~44회): 한도숙은 전쟁 때 배신감 때문에 남편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서 자살을 기도했으나 뱃사람 황현태에게 구출된 후 그와 동거하고 있다. 백만환만 주면 사라져주겠다는 그에게 염증을 느끼던 한도숙은 새 생활을 모색하며 병철을 떠올린다.
- ④ 꿈을 더듬어(45~61회): 병철은 고향선배인 최홍섭판사를 찾아갔는데 대중 속에서 호흡하는 지식인이 돼라는 말과 그의 청렴한 생활태도에 교훈을 얻는다. 최판사집서 나와 우연히 고향사람 염창훈 영감을 만나는데, 땅이 없으니 살기 힘들다는 말을 듣는다. 뺨소니차에 치인 학생을 대학병원에 옮겨준 병철은 역앞에서 소매치기

당했던 여인 이선옥을 만난다. 대학병원 간호사인 그녀는 혼자 월남해 기숙사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귀가해보니 경호와 도숙으로부터 편지가 와 있었다. 임야를 개간해 감자와 과수묘목 등을 심었으며 한국의 달가스가 되고 싶다는 경호의 편지에서 많은 걸 느낀다. 도숙은 새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전해온다. 그래서 병철은 외삼촌에게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의 임야 심판평을 개간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 ⑤ 마음의 窓門(62~80회): 병철은 염창훈 영감에게 개간사업을 함께 할 사람을 모아달라고 부탁한 후, 도숙을 만나 술을 마시며 도숙도 소매치기를 그만두면 개간사업에 동참키로 한다. 취한 병철이 돌아가려는데 도숙이 자고가라며 동침을 요구하자 결국 성관계를 맺는다.
- ⑥ 愛情孕胎(81~95회): 소매치기 일원인 충남이도 도숙을 따라 가겠다고 밝힌다. 통금시간이 지나 술취해 들어온 황현태는 도숙에게 남자가 생겼느냐며 그 남자한테 가면 둘다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 ⑦ 大地(96~112회): 6월 하순, 남자 13명으로 구성된 개척단원이 개간지에 도착해 천막을 치고 개간하는 대로 콩을 심는다. 그러나 닷새째 되는 날 경관이 찾아와 그들을 연행하고, 병철이 빨갱이로 몰리는데, 병철이 외삼촌 이름을 대어 풀려난다. 그 이틀 후 식량이 떨어져 인근 농가의 모내기 품팔이를 나가게 되고 1명이 이탈한다.
- ⑧ 愛慕와 葛藤(113~131회): 서울에 간 병철은 대원들의 가족을 돌아보고 외삼촌집에 들렀다가 편지를 본다. 경호는 농사소식과 함께 약혼소식을 전해왔으며, 도숙은 개간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병원에 찾아가 병철은 선옥과 포옹을 한다. 그 후 병철은 도숙을 만나러 갔다가 황현태가 데려온 장패들과 싸움을 벌이던 중 다친 그는 선옥의 배려로 입원하여 그녀의 극진한 간호를 받고 사흘 만에 퇴원한다.
- ⑨ 生活革命(132~150회): 소매치기 생활 청산 준비를 하던 도숙은 병철이 맞아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으로 그를 찾으러 다니지만 허사였다. 다방에서 병철의 편지를 본 그녀는 주소를 보고 병철을 찾아가기로 한다. 김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새 두목에 선출된다.
- ⑩ 가시덤불(151~163회): 개척촌에 두 번째 양식이 떨어져 개간 중 나온 돌을 팔고 인근 공사에서 일하여 식량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두명의 이탈자가 발생한다. 병철이 돌아온 며칠 후 경호가 감자 열가마니를 갖고와 격려하자, 모처럼 대원들의 분위기가 좋아진다.
- ⑪ 사랑의 交叉路(164~181회): 선옥은 개척촌에 찾아가 저녁밥을 짓고 청소까지 하여 대원들의 호감을 산다. 하룻밤 묵게 될 곳으로 병철이 선옥을 데려다주며 포옹과 입맞춤을 한다. 병철이 약혼을 제의하자 선옥은 따르겠다고 한다. 이튿날 선옥은 숙소가 제대로 마련되면 합류하기로 하고 서울로 간다.
- ⑫ 明滅하는 希望(182~198회): 9월 초 도숙이 충남과 함께 개척촌에 찾아온다. 그녀가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병철은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도 애정표현은 하지 않는다. 도숙은 병철과 선옥과의 관계를 알고나서도 사랑을 단념하지 않는다. 집이 지어지자 도숙과 충남이 개척촌으로 숙소를 옮긴 후, 선옥이 온다는 편지가 온다.
- ⑬ 進退兩難(199~212회): 선옥이 찾아오자 도숙은 자신의 개척촌에서의 위상을 과시하려 하며, 선옥도 경쟁의식이 발동한다. 그러던 어느날 도숙이 병철의 바지를 바느질하는 것을 보고 선옥은 사랑을 빼앗긴 느낌이 들어 밖에 나와 흐느낀다. 이를 본 염영감은 병철에게 애정문제를 빨리 매듭지을 것을 종용한다.
- ⑭ 女人의 抵抗(219~227회): 12월에 접어들자 개척촌 사람들은 교대로 집에 다녀오기로 한다. 그래서 수확한 콩을 나누는데, 선옥이 내년 농사기금으로 기부하자 시샘난 도숙도 따라한다. 며칠 후 병철은 선옥이 외로이 있는 걸 보고 다가가서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데 그걸 목격한 도숙은 집에 불을 지르고 선옥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다. 그날 저녁 충남이가 도숙을 찾으러 간다고 울먹이자 염영감과 선옥의 권유로 병철이 동행키로 한다.
- ⑮ 목숨을 걸고(228~241회): 개척촌에 함께 가자고 요청하며 이틀째 도숙을 방문하던 병철은 마침 황현태와 맞닥뜨린다. 시비 끝에 황현태가 병철을 찌르려고 하자 도숙이 몸으로 막는 순간 충남이가 뒤에서 방망이로 때리니 그만 죽고만다. 이에 도숙은 자기가 정당방위로 죽인 것으로 자수하겠다고 경찰서로 향하면서 선옥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한다.
- ⑯ 봄의 悲曲(242~257회): 도숙은 재판을 받게 된자 병철은 최판사를 만나 충남이가 죽었다고 사실대로 말한다. 도숙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최판사는 병철에게 인도일에 충남이를 데려오라고 한다. 이윽고 인도일에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충남이는 자신이 죽었다고 울먹인다. 긴급구속된 충남은 나이가 어려 석방되고, 도숙도 풀려난다. 형무소에서 나와 다시 개척촌에 간 도숙이 전보다 의욕없는 생활을 하던 중 선옥으로부터 병철과 결혼하라는 권고를 받아, 동정심의 발로로 여겨 비애감에 자살한다. 사흘 후 무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병철이 쓴 묘비명이 세워진 가운데 대원들은 다시 개척사업에 열중한다.

18. 김광주 「薔薇의 寢室」

- ① 肉體派 女優(1~10회): 소녀버스차장에게 요금 제대로 안내는 남자를 혼내준 뒤 사창가 뒷골목으로 간 술개미

- 는 열일곱살 소녀(강복자)를 다그치는 포주에게 돈을 뜯어낸다. 극단 '예협'의 연극공연이 흥행에 실패하고 수영복 입고 출연한 주리애에게도 관객들이 혹평한다. 솔개미는 장미꽃을 사들고 극장 화장실(분장실)로 간다.
- ② 紳士淑女의 娛樂殿堂(11~20회): 주리애는 자신이 관중의 조롱거리가 됐다면 연출가 박한일에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솔개미가 나타나 주리애 꽃병에 장미꽃을 꽂아놓는다. 그때 한성극장 지배인이 공연을 중지하라고 하여 시비가 붙는다. 그 후 빠졌고에 들어간 솔개미는 옆손님들이 주리애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경계한다.
 - ③ '헤리퀸터'에 美人을 신고(21~30회): 왕우일 사장이 김비서와 함께 자가용 헬기를 타고 수원 별장으로 강명옥을 만나러 갔는데, 그녀는 없고 동생 왕우이가 있었다. 왕사장은 동생과 말다툼 끝에 권총을 꺼낸다.
 - ④ 微笑하는 百合(31~40회): 왕우이는 총을 보자 발광하듯 하고 김비서가 만류한다. 그때 강명옥이 들어와 총을 뺐는다. 강명옥은 왕우이가 간밤에 들어와서 돈을 내놓으라 하는가 하면 자기방에 침입하기까지 했다고 왕사장에게 말한다. 마침 주리애가 극단에 도움을 준 데 대해 고맙다는 전화를 걸어오자 마음이 다소 누그러진 왕사장은 수표를 준다. 강명옥은 당분간 서울에서 지내겠다고 한다.
 - ⑤ 裸體舞(41~50회): 주리애는 왕사장과 통화해 놓고도 그의 도움을 받은 게 몹시 언짢다고 언니 변마담에게 말한다. 형부 변국태는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주리애는 솔개미가 전화로 만나자기에 다방에 나간다. 솔개미는 50만환짜리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 중 십만원으로 사창가의 강복자를 빼낸다. 솔개미는 복자의 극장 취직에 주리애의 신원보증을 부탁한다. 한달 뒤 주리애는 단원들과 함께 한강변에 놀러간다.
 - ⑥ 江畔盛夏(51~60회): 지방공연을 앞둔 주리애는 박한일이 몇달간 미국가는 게 몹시 서운하여 한층 외로움을 느낀다. 솔개미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주리애와 결혼하겠다고라는 말을 들은 단원들은 모두 웃는다. 한편 그때 왕사장이 김비서 등과 헬기를 타고 한강변으로 놀러온다.
 - ⑦ 白沙場의 決闘(61~70회): 복자와 솔개미동생 소란이 수영복차림으로 솔개미를 기다리는데 그 옆의 우일방직 텐트에 있던 경리과장과 인사과장이 그녀들에게 농을 지껄인다. 참지 못한 소란이 그들과 싸움을 벌인다. 그때 솔개미가 나타나 그들을 혼내준다.
 - ⑧ 無人列車(71~80회): 주리애가 말려 싸움은 끝난다. 왕사장이 주리애와 인사하면서 그녀가 부산에 공연간다는 사실을 알고 대전까지 동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틀 후 역에 주리애는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왕사장과 김비서만 기차를 탔는데 차간을 둘러보던 김비서는 왕우이가 소란과 함께 승차한 사실을 안다. 병원에서 만난 왕우이와 소란은 결혼기로 하고 동래온천에 가는 길이었다. 왕사장은 동생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천안에서 내린다.
 - ⑨ 女男同權(81~90회): 부산행을 의도적으로 하루 연기한 주리애는 다음날 아침 박한일의 전승을 받으며 단원들과 함께 부산행 기차를 탄다. 이때 왕사장을 뒤쫓아왔던 강명옥이 박한일을 따라가 택시에 합승한다. 그녀는 박한일을 붙잡고 배우가 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한다.
 - ⑩ '루주'의 惡戯(91~100회): 이틀날 아침 취기로 어지러움을 느끼며 일어난 박한일은 루주자국이 찍힌 걸 보고 간밤의 일을 회상한다. 그녀에게 끌려가가지피 동행하여 카바레에 가서 술마시고 춤을 추었다. 그리고 거기서 솔개미를 만나 그가 왕사장이 출마하는 곳에서 자기도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말하는 것도 듣는다. 그의 부인은 양복주머니에 그녀가 보낸 편지와 일백만원짜리 수표가 있다고 비아냥거린다.
 - ⑪ 高層建物の 女人(101~110회): 박한일은 그녀가 반도호텔에 묵고 있다는 말을 기억해내고 그곳으로 향하던 도중 솔개미를 만난다. 솔개미는 그녀가 왕사장의 둘째부인 강명옥이며 술취한 박한일을 억지로 차에 태우는 걸 자기가 구했다고 한다. 수표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솔개미를 뒤로 하고 박한일은 그녀 방에 들어간다.
 - ⑫ 人生演技(111~120회): 강명옥이 박한일에게 매달리며 키스해달라고 하자 한일은 그녀의 뺨을 때리며 수표를 던진다. 그때 박한일을 따라온 솔개미와 객실에 숨어있던 경리과장이 나타난다. 솔개미가 수표를 줌는데 왕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통화중에 왕사장이 부산에 있음을 안 솔개미가 뛰어나간다. 강명옥은 경리과장에게 왕사장이 극장 짓는 동기를 바로 말하라고 추궁한다.
 - ⑬ 憎惡의 美(121~130회): 경리과장은 1억 마련해 달라니 별장 팔아달라니 하는 강명옥의 요구를 거절한다. 이삼일후 주리애가 박한일에게 편지를 보내온다. 그 내용은 서울서 흥행 실패한 「해풍」을 다시 공연케 됐다는 점, 주리애의 수영복 차림을 지나치게 확대한 포스터 때문에 시비가 있었다는 점, 왕우일이 거기에 나타났기에 점잖게 구슬려서 보냈다는 점 등에 관한 것이었다.
 - ⑭ 妖艷한 反抗(131~147회): 왕사장은 항도극장 지배인을 통해 주리애를 만나려고 한다. 지배인은 주리애를 택시에 태우자 왕사장의 택시가 따라간다. 얼마 후 공연시간이 되어 극장에 허겁지겁 돌아온 주리애는 무대에 안 서겠다고 공연을 끝내자고 한다. 지배인은 뒤늦게 극장에 돌아와 그 사실을 알고 주리애를 설득해 보지만 통하지 않는다. 결국 공연은 무기한 연기된다.
 - ⑮ 群聖亂飛(148~160회): 주리애는 단원들을 먼저 보내고 호텔에 혼자 남는다. 주리애에게 뺨맞고 호텔로 돌아간

왕사장은 극장지배인으로부터 그녀가 호텔에 볼모로 잡혀있다는 말을 듣는다. 주리에는 왕사장이 지난번 빌려준 70만환을 갚지 않으면 꼼짝 못하게 한다더라는 극장지배인의 말을 듣고 왕사장을 만나러 간다. 한편 부산에 온 술개미는 주리애와 왕사장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알고 주리애가 머무는 호텔로 향한다. 그때 왕우이와 소란도 그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 ⑫ 紅球·白球(161~170회): 왕우이와 소란이 카바레에 있는데 왕사장이 나타나자 왕우이는 소란을 그에게 인사시키며 결혼비용을 대달라고 한다. 듣기 싫다며 밖으로 나온 왕사장은 찾아온 주리애를 만나 호텔방으로 간다. 그들이 시비하고 있을 때 동생 소란을 찾던 술개미는 투숙객 명단에서 왕우임을 확인하고 객실로 찾아간다. 술개미에 이어 왕우이도 객실에 나타난다. 화난 왕사장이 권총을 꺼내자 술개미가 단도를 꺼내는데 주리애가 술개미를 가로막다가 다리에 총을 맞는다.
- ⑬ 落葉(171~176회): 병원에 입원한 주리애는 박한일이 미국가는데 전송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한다. 며칠 후 주리애는 왕우이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본다.
- ⑭ 聖誕頌(177~181회): 성탄절 이브의 눈오는 밤에 다리불구가 된 주리애가 언니의 권유로 파티에 참석한다. 그녀는 석방된 왕사장이 속죄의 뜻으로 극단을 세워 주리애에게 맡기고 싶어하니 그를 만나러 가자는 언니의 제의를 거절한다.
- ⑮ 春風落花(182~183회): 이듬해 오월, 주리애는 왕우이와 소란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술개미와 강복자 등을 만난다. 얼마후, 국회의원선거 개표를 하는데,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한 술개미에게 왕우일이 따라가지 못하고, 다른 선거구의 변국태는 낙선이 확실하다. 귀국한 박한일은 주리애에게 다리다친 여인을 그린 작품에 출연해 달라 한다. 얼마후 왕사장을 후원해주던 장관의 사표에 따라 왕사장이 일거에 몰락한다. 한편 「장미의 침실」 공연이 성황리에 끝나고 주리애는 연극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19. 박영준 「颶風地帶」

- ① 異端의 집(1~11회): 창우가 권숙과 호텔에서 잔 뒤 귀가해 보니 아버지(명규)가 집안풀이 뛰냐고 호통친다. 어머니(상희)도 애령도 외박한 것이다. 조반 먹는 중에 어머니가 들어와서는 동무 친정어머니가 죽어 밤샘했다는 데 아버지는 폭력을 휘두른다. 이때 애령이도 들어온다. 애령은 남자친구와 스트립쇼를 보다가 그의 집에서 자고 왔다고 태연하게 말한다. 이튿날 창우가 애령이 선우영과 함께 은행에 찾아와 그녀 아버지의 대출을 부탁한다. 창우는 그녀에게 호감을 갖는다. 명규는 상희와 이혼할 뜻을 밝히나, 창우는 협조할 수 없다고 말한다.
- ② 사슴의 습합(12~22회): 창우는 권숙과 만나 카바레에 갔다가 애령과 조치구를 만난다. 애령과 권숙은 아는 사이였는데, 애령은 권숙 전애인이 자살했다고 전해준다. 그리고 자신은 치구집에서 잠갔지만 별일 없었다고 말한다. 카바레에서 나와 권숙이 호텔에 가자고 하자 창우는 뺨을 때리고 나서 귀가한다. 상희가 아버지 직원 강삼모에게 미행까지 당해 모욕감을 느낀다고 하자, 이튿날 창우가 삼모에게 돈을 주자 협조할 뜻을 밝힌다. 창우는 선우영과 함께 영화관에 갔다가 치구와 권숙이 손목을 붙잡고 앉아 있는 걸 보고 놀란다.
- ③ 去勢된 슬픔(23~32회): 상희는 1년전부터 옥순남편 유길추를 만날 때마다 죄의식이 느껴진다. 성심의원으로 가서 안체의 옥순에게 병문안하다가 길추를 따라 나선다. 미행하던 강삼모가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간다. 정릉의 식당에 가서 길추와 상희는 서로 거세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길추는 술을 급히 들이키는 상희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아내가 곧 죽을 터이니 이혼하라며 상희를 끌어안다가 잠든다.
- ④ 地獄의 試鍊(33~40회): 상희가 길추를 깨워 데려다 주고 귀가한다. 창식이 가위눌린 듯 울어대며 아버지가 때렸다고 울어댄다. 그때 명규가 들어와 왜 늦었냐고 소리친다. 이튿날 영완에게 들러 옥순이가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한 후, 백화점으로 가서 길추의 남방셔츠와 부채를 사들고 건다가 창우를 만난다. 창우는 다방으로 상희를 데려가서는 명규의 작은딸 윤송화와 만나는 것을 보게 한다.
- ⑤ 星座의 혼선(41~52회): 창우는 권숙의 제의로 2박3일간 불국사 여행을 가기로 한다. 귀가해 여행짐을 챙기노라니 애령이 약장수 무리에서 노래부르던 주미림을 봤다고 한다. 그때 상희가 옥순이 위독하여 못들어온다는 편지를 보내온다. 다음날 창우는 미림을 찾으러 다녀보지만 허탕이었다. 퇴근후 권숙과 함께 불국사에 간다.
- ⑥ 佛國寺의 밤(53~62회): 불국사 구경을 하는데 권숙이 어떤 군인에게 지나친 친밀감을 표하자 창우는 불쾌감을 느낀다. 창우가 권숙에게 무심하자 권숙은 밖으로 나온다. 창우는 그녀가 군인을 만나는가 싶어 뒤따라갔으나 그런 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호텔방으로 데리고 와서 춤을 추다가 성관계를 갖는다. 이튿날 군인이 깨워줘서 그의 지프를 타고 석굴암을 함께 갔는데, 그는 자신을 임천식 소령이라고 소개한다.
- ⑦ 꽃다발의 辯(63~74회): 지프차 타고 대구로 이동해 대구에서 함께 점심 먹고 임소령과 헤어져 귀경한다. 귀가 했더니 어머니가 옥순 장례식 때문에 못들어온다고 애령이 말한다. 창우가 선우영에 관해 애령에게 묻자 공부

때문에 당분간 결혼하기 힘들 것이라 한다. 이튿날 강삼모가 은행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두고보라며 돌아간다. 퇴근 후 선우영을 만나니 그녀는 독신주의자는 아니라며 협조자만 있다면 빨리 결혼할 수도 있음을 밝힌다. 함께 호텔스카이라운지에 갔는데 누가 선우영을 부른다.

- ⑧ 颯風前夜(75~86회): 중국인 사장이 선우영을 부르자 그녀는 창우를 약혼자라 말한다. 사장을 의식해 창우가 빨리 그곳에서 나오자 선우영이 따라나온다. 창우는 그녀에게 더욱 호감을 느낀다. 선우영에게 편지쓰다 그만 두고는 그녀와 결혼할 생각을 한다. 한편 애령은 치구와 덴스홀에 갔다가 그의 하숙에 함께 갔는데 통금에 걸려 자고 오게 된다. 치구가 그녀의 육체를 범하려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며칠 후 시골에 함께 가자는 친구에게 애령은 나중에 전화하라고 말하고는 귀가한다. 얼마 후 명규가 들어와서는 상희에게 이혼도장 찍으라고 야단이다.
- ⑨ 마음의 換節器(87~99회): 명규는 결국 이혼도장을 받지 못하고 나간다. 이튿날 출근한 창우는 선우영에게 대부금을 전해주고 나서 사례금을 주려고 토요일에 하이킹 가기로 약속한다. 그날 권숙과의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귀가했더니 아무도 없는 집에 창식이 혼자 있었다. 사흘 후 명규가 들어와서 창우를 시켜 작은택을 만나게 했으며 상희의 따귀를 때리면서 나가라고 하자, 그녀는 영완집으로 간다. 다음날 유길추가 그녀를 찾아가 만난다.
- ⑩ 슬픈 犧牲者(100~112회): 다음날 상희가 길추 집으로 가려는데 창우가 달려와 애령이 교통사고 당해 다리를 절단케 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급히 대학병원에 들어가던 상희는 명규와 윤송화를 봤으나 외면하고 병실로 들어가 딸의 상태를 확인한다. 그전에 애령은 농촌사업문제로 조치구와 함께 그의 고향에 가던 중 여관에서 몸을 허락한다. 이튿날 치구 고향에 가서 그의 포부와 이혼할 뜻이 없다는 등의 말을 들은 애령은 그가 자기의 육체를 노려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행동했다고 여긴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사고를 당한 것이다.
- ⑪ 질투라는 것(113~124회): 애령이 다리를 못자르겠다고 하는데 강삼모가 명규가 졌다는 수표를 갖고 병원에 찾아오자 창우가 침을 뱉는다. 창우는 다방에서 임소령과 함께 있는 권숙을 만난다. 이틀전 선우영과 남한산성에 함께 갔던 창우는 의도적으로 막차를 놓치고는 여관에 갔는데, 선우영은 따로 방을 잡는다. 우울해 있는 창우에게 선우영이 찾아가 함께 화투놀이를 하다가 산보를 하는데, 산보도중 뼈꾸기를 보다가 창우가 갑자기 키스한다. 그들은 다시 여관에 들어가 선우영이 창우에게 이별의 노래를 가르쳐주다가 자기 방으로 가버렸던 일이 있다. 그후 권숙, 임소령과 만난 창우는 권숙의 발등을 짓밟는가 하면 임소령 눈에 보이도록 그녀에게 키스한다.
- ⑫ 午後の 病室(125~133): 애령은 다리를 절단했으나 의족을 안 하겠다고 고집이다. 조치구가 병원으로 찾아오자 애령은 나가달라고 한다. 얼마 후 찾아온 권숙이 치구는 이중인격자라며 골탕먹여주겠다고 말하며 나간다음 창식이 들러 자기와 누나는 앞으로 결혼 못한다고 하더라기에 애령이 달란다. 잠시후 강삼모에게 맞았다며 머리에 붕대를 감은 모습으로 들어온 창우는 애령의 퇴원때 어머니를 집에 오도록 하자고 말한다.
- ⑬ 하얀 百合(134~144회): 창우는 거리에서 약장수 앞에서 노래부르던 미림을 보고 명함을 전한다. 퇴근 무렵 선우영에게서 전화와서 만났더니 중국인 사장이 노골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을 전한다. 창우는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나 선우영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대꾸하던 끝에 언짢은 감정으로 헤어진다.
- ⑭ 敗北의 連續(145~154회): 창우는 스탠드바에서 술을 마신 뒤 권숙의 집에 갔는데 집 앞에서 조치구와 함께 있는 그녀를 만난다. 권숙은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는 창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차갑게 대한다. 며칠 후 미림이 앞으로 창우 눈에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온다. 선우영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통명스럽게 대하자 그녀가 전화를 끊는다. 창우는 급히 선우영을 만나러 회사를 거쳐 집으로 찾아가 키스하려다가 거부당한다. 창우는 애령으로부터 선우영과 연애하려면 이해력이 풍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그리고 어머니가 영완과 당구장을 개업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 ⑮ 흐려진 焦點(155~164회): 길추로부터 돈을 빌린 상희는 어느날 사업진행상황을 얘기하려고 병원에 들른다. 길추는 미국인 은사가 부부동반으로 집에 오기로 했는데 그때 아내역할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래서 그가 선물한 화장품을 바르고 아내 것으로 장만해 뒀었다는 한복을 입고 아내역할하며 접대한다. 접대가 끝나 손님이 돌아간 뒤 길추가 포옹한다.
- ⑯ 流星과 같이(165~175회): 선우영은 창우와 만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그러던 차에 권숙은 임소령이 보낸 사모의 편지를 보여준 뒤 스페인 유학간다는 사실을 말한다. 창우는 송별회 하자며 그녀와 함께 카바레에서 춤추고 술마신다. 권숙은 치구를 골탕먹인 사실에 대해 말하고는 창우의 호텔가자는 제의를 거절한다. 이튿날 미림을 찾아다니다 선우영을 만난 창우는 그녀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말을 듣는다. 취직 자리 알아봐준다는 것도 거절하고 결혼할 의사를 묻는 데도 단전을 피우자 창우는 화를 내며 나가버린다. 그리

- 희와 영호가 다방에 갔는데 은주가 나타나 성희에게 시비를 건다. 이에 영호가 은주의 뺨을 때리게 되고 성희는 급히 나가 차를 타고는 영호와 찍은 사진을 찢어버린다.
- ⑨ 倦怠어 안녕(93~108회): 현우와 자애는 경주여행을 떠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부산까지 간 자애는 이혼을 요구하려고 남편회사에 갔는데 남편이 급한 일로 서울에 갔다고 한다. 한편 자애와 현우가 동시에 행방이 묘연해진 걸 알고 찾아다닌다. 자애는 귀가하여 이혼을 선언한다.
- ⑩ 샘(109~121회): 성희는 은주에게서 영호와 교제를 끊어달라는 협박성 편지를 받고 기분이 상한다. 그녀가 영호를 만나서 오해 않도록 해달라고 하니 영호는 은주는 멀어진 여자라며 성희를 좋아한다고 한다. 성희는 둘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단호하게 말한다. 그들을 쫓아온 필구는 성희와 영호의 관계를 오해하고 가버린다. 성희는 두 청년에게 모두 실망감을 느끼던 차에 택규를 만나자 덕수궁에 함께 간다. 택규는 성희와 즐겁게 놀다가 병원의 아내에게 가는데, 아내를 보자 미안한 생각이 들어 앞으로 성희를 안 만나겠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 ⑪ 初戀夫人(122~138회): 합의이혼하여 현우와 새살림을 차린 자애는 문패를 함께 달며 즐거워한다. 현우는 증권회사 총무과장으로 취직했는데 뜻밖에도 은주가 근무하는 회사였다. 현우는 퇴근길에 은주에게 떠밀리다시피하여 남산으로 드라이브를 간다. 현우는 댄스홀에 가자는 등 집요하게 유혹을 해대는 은주를 간신히 뿌리치고 귀가한다. 자애는 자축의 뜻으로 저녁상을 푸짐하게 차리고 양주도 준비해 있었다. 자애가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지 알아보겠다고 말하는데도 현우는 자꾸만 은주가 생각한다.
- ⑫ 遠心·求心(139~148회): 맹아학교 학예회날, 노래극을 준비하는데 택규가 무대 뒤에 가서 성희에게 인사하자 그걸 본 필구는 의아하게 여긴다. 공연이 성황리에 끝나고 성희는 택규의 제의로 중국집에 가서 요리를 시켜 놓고 술을 마신다. 술 기운에 성희가 비틀거리자 택규가 그녀를 부축하고 나오는데 정혜가 그 장면을 목격한다. 밖으로 나오니 눈이 오고 있어 팔짱을 끼고 거닐다가 택규가 성희를 집까지 바래다 준다.
- ⑬ 京仁街道(149~166회): 산부인과에서 치료 잘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판정을 받은 자애는 성희를 만나 영호와의 혼담을 꺼내니 성희가 거절한다. 며칠 후 찾아온 성희에게 자애가 중국집에서의 일에 대해 들었다고 얘기하니 성희는 자존심이 상한다. 성희는 택규를 만나서 함께 인천에 간다. 성희가 어항에서 하이힐 뒤꿈치가 부러지면서 물에 빠지자 어부에 의해 구조된다. 택규가 호텔로 그녀를 데리고 가니, 성희는 목욕하고 택규가 사은 내의로 갈아입고 왕진환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세탁소에 맡긴 옷과 구두 때문에 결국 하룻밤 목고 가게 되자 각기 다른 방에서 자고 이튿날 귀경한다.
- ⑭ 對價(167~175회): 귀가한 택규에게 아내는 자기가 죽으면 좋은 부인 만나 잘 살라고 말한다. 의사가 일주일밖에 견디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 택규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나간다. 그런데 성희가 찾아와 인천에서 물에 빠졌던 일이 신문 가십기사로 났다며 격분하고는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 필구를 만난 성희는 그로부터 곧 미국유학 가는데 어머니가 최소한 약혼이라도 하고 가란다는 말을 듣는 도중 갑자기 열이 오른다. 필구는 병원에 들른 뒤 집에 바래다주고 돌아가면서 다시 의사를 왕진토록 조치하는데, 성희는 그에게서 섬세하고 부드러운 면이 있음을 느낀다.
- ⑮ 誘惑이란 무기(176~191회): 회사돈을 돌려쓰느라 총무과장인 현우를 이용하기 위해 은주는 댄스 등으로 그를 유혹한다. 그녀는 어떤 청년의 취직을 부탁하는가 하면 함께 여행가자고 한다. 귀가한 현우에게 자애는 온양 온천에 가자고 한다. 옷을 정리하던 자애는 극장표 두장을 보고 의심하여 다음날 현우에게 물으니 친구와 다녀온 것이라며 이따 퇴근 후에 같이 영화보자며 출근한다. 그러나 그 뒤에 와이셔츠에 여자의 입술자국이 찍힌 것을 보고 다시 놀라게 된다. 그때 경희가 찾아와서는 현우와 은주가 같이 근무하고 있다며 떠도는 소문들을 전해준다. 호느껴 울던 자애가 현주를 만나러 갔는데 그와 함께 나타난 은주가 인사를 하고 나가니 몹시 불쾌해진다. 둘이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다시 은주가 나타나 은근히 현우에게 같이 가자는 추파를 보내기도 한다. 자애는 은주가 가정을 파괴하는 마귀 같으며 와이셔츠 등을 제시하며 추궁한다.
- ⑯ 젊음의 勝利(192~209회): 필구의 청혼 편지를 받고 고민하던 성희는 택규로부터 부인의 49제에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이튿날 절에 가서 49제를 지켜본 성희는 택규로부터 청혼을 받는다. 사실상의 첫사랑이라 말하며 그가 꺼안자 성희는 뿌리치고 뛰어간다. 택규가 그녀를 따라가는데 마침 절 앞의 교수집에 가던 필구가 그 장면을 목격한다. 교수를 만난 뒤 회사로 간 필구는 영호로부터 온 편지를 보는데, 그가 농촌에서 조그만 학교를 경영한다는 사실과 함께 학예회날 택규와 성희의 행위를 본 게 서울을 떠난 이유임을 알게 된다. 필구는 택규를 위선자로 판단하여 성희를 찾아가 그와의 교제를 끊으라고 말한다. 그리고 택규를 찾아가 사표를 제출하며 성희와의 교제를 끊으라고 흥분하자, 택규는 사표를 반려하면서 돌려보낸다. 택규집을 나오던 필구는 집앞에 있던 성희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한다. 그걸 본 택규는 성희를 잊겠다고 결심한다.
- ⑰ 생각하는 갈대(210~231): 현우는 자애를 속이고 은주와 온양온천에 간다. 택규도 우연히 같은 호텔에 묵으며

마음을 달랜다. 그런데 은주는 현우를 슬슬 피하더니 밤에 다른 방에 가버린다. 화난 현우는 혼자 만취해서 잔다. 이튿날 현우가 아내와 이혼하겠으니 당장 결혼하자고 말하며 꺼안고 입을 맞추려는 순간 자애가 들이닥친다. 자애가 분개하면서 뺨을 때리니 은주는 결혼을 승낙한다는 말을 남기고 나간다. 옥신각신하던 자애와 현우는 귀경한다. 그 후 은주는 현우에게 이혼하면 결혼하겠다며 만나자는 속달편지를 보내는데, 그걸 본 자애가 따지던 중 이혼해서 결혼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절망한다. 자애는 코코아에 수면제를 타서 함께 먹고는 동반자살을 피한다. 병원으로 옮겨져 무사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간다.

- ⑬ 마음의 愛人(232~241회): 성희는 자애와 현우의 사건이 보도된 신문을 보고 필규와 택규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한다. 이튿날 성희는 병원에 갔다가 택규를 만난다. 택규가 필규를 훌륭한 청년이라고 말한 다음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자 성희도 감정을 풀어놓는다. 경찰은 자애를 교살혐의로 연행해 간다.
- ⑭ 法과 사랑(242~256회): 은주는 자애가 경찰에 연행됐음을 알고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계장에게 그간의 일을 털어놓으며 죄는 자신에게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다. 각계 증언이 자애에게 유리하게 되고 현우도 탄원서를 내는 등 적극 노력한 덕에 자애는 기소유예로 석방된다. 형무소에서 나오는 자애를 현우와 경희가 맞아준다.
- ⑮ 地上에 맺다(257~270회): 영호는 학교문제로 고민하던 차에 필규로부터 성희와 약혼하고 곧 유학간다는 편지를 받는다. 그 뒤 자애 부부의 기사를 보며 은주가 타락한 원인이 자기의 절교선인 때문이라 여긴다. 영호는 은주를 포옹하며 함께 시골에 가자고 한다. 이틀 후 남궁씨로부터 회사를 승낙받은 영호는 외국 가는 필규를 전송한 뒤 은주를 만나러 갔으나 집에 없었다. 그래서 저녁때 만나자는 내용과 다음날 떠나는 열차시간 등을 메모해 놓고 왔으나 그녀는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은주는 영호에게 곧 시골로 간다는 편지를 보낸다. 한편 자애와 현우는 전에 여행갔던 경주의 호텔에 묵은 뒤 새벽에 일어나 토함산 일출을 보며 새출발을 다짐한다.

21. 김달봉 「花冠의 季節」

- ① 별들의 향연(1~56회): 고아원의 재정을 위해 미인대회에 출전해 예선통과한 강윤애는 최종심사장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다. 때마침 지나던 송창욱 기자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하는데, 창욱은 그녀가 미인대회 선에서 가장 인기있었던 여성임을 알게 된다. 창욱은 사고차량의 소유주 태양영화사 합점관 사장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무용가 민수산나를 만나 윤애의 병실에 함께 가게 된다. 수산나는 합사장의 소개로 남자배우 금별의 춤을 가르쳐주기로 했다가 그의 건방진 태도 때문에 거부한다. 그 이틀 후 창욱이 수산나에게 찾아가 윤애에게 무용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 그런데 허인규라는 50대의 독지가가 나타나 고아원을 도와주는 대가로 윤애와 결혼할 뜻을 비춘다. 최여사 내 여사는 고아원을 살리기 위해 윤애에게 허인규와의 결혼을 권하지만 윤애는 거절한다. 해외에서 15억환 모았다는 허인규는 윤애부친이 죽기 직전 절반을 가족에게 전해달라며 건네받은 보석을 바탕으로 부자가 된 것이다. 허인규를 알게 된 수산나는 돈을 뜯어낼 욕심으로 그의 숙소인 호텔방까지 찾아가 노골적으로 접근한다.
- ② 投影(57~97회): 수산나가 허인규를 데리고 집으로 갔는데 마침 금별이 와 있다. 서로 대화 끝에 허인규와 금별이 부자의 연을 맺기로 하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한다. 윤애가 퇴원하자 창욱은 일단 자기집에서 묵으며 누나 명희의 점포에서 일하도록 한다. 그날 허인규가 금별을 데리고 방문해 그를 아들이라 소개하자 창욱이 놀라고, 명희는 금별에게 호감을 갖고 입술성형수술까지 하게 된다. 명희가 수술 때문에 입원하여 창욱과 윤애 둘이서만 한 집에 자게 됐는데, 윤애가 천둥 번개 때문에 놀라자 자다 말고 대화를 나누다 새벽에야 각기 잠든다. 이튿날 금별이 공예사에 방문하여 도자기를 사려는데 그걸 꺼내던 윤애가 실수로 깨뜨리자 금별은 그 값을 대신 치러준다. 수산나는 허인규를 유혹해 동침한다. 한편 윤애는 고아원에 가서 옷가지를 챙겨오려고 했으나 최여사의 냉대로 되돌아오던 중 금별을 만난다. 윤애는 금별에게 돈을 빌려 의류 등을 구입한 후, 함께 고아원에 들러 과자를 준 다음 금별의 집에 간다. 마침 찾아온 합사장은 윤애에게 배우가 되길 권한다. 금별이 춘향가를 틀어놓고 윤애와 춤을 추다 그녀를 바라다주었는데, 그걸 본 창욱은 어두운 표정을 짓는다.
- ③ 波濤(98~126회): 창욱은 금별에게 빌린 돈을 갚자고 하나 윤애는 누구에게 빌린든 마찬가지로 아니냐는 태도다. 그 시각 호텔방에서 수산나는 허인규에게 극장세우는 데 필요한 돈을 대주겠다는 약속을 받는다. 금별은 귀가한 허인규에게 윤애의 사정을 말하자 데려오라 하고, 그녀를 기다리는데 창욱이 대신 나타나 그녀가 못온다는 사실을 전한다. 그러자 그는 바로 고아원에 갔는데 역시 윤애가 거기 있었다. 뒤이어 창욱도 등장한다. 윤애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결혼할 수 있다는 뜻을 창욱에게 밝힌다. 송명희는 금별의 호의가 윤애 때문임을 알아채고 불쾌하던 중, 윤애가 금별의 주선으로 허인규에게 한달 십만원씩 지원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녀를 집에서 나가게 한다. 윤애는 보따리를 싸들고 금별에게 갔다가 수산나를 만나 그녀집에서 살기로 한다. 수산나

는 허인규에게 한달에 5만원만 윤애에게 지원하라며 그것도 자기 손을 통해 주겠다고 말한다. 이튿날 수산나는 10만원 중 5만원은 함께 불란서 갈 때 쓰기 위해 자신에게 예금하도록 한 뒤, 그녀를 합사장 집에 데리고 가 거기에 하숙을 맡기며 딸 가정교사로 쓰면서 한달 5천환씩만 주라고 한다.

- ④ 갈등(127~168회): 창옥을 만난 수산나는 부탁을 들어주면 윤애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며 함께 드라이브를 간다. 식당방으로 그를 데리고 간 그녀는 그에게 1억환을 줄 수 있다며 사랑고백과 함께 육탄공세를 벌인다. 창옥이 거기서 빠져나와 버스를 기다리는데 지나던 택시에 윤애와 합사장이 함께 타 있는 걸 본다. 그날 밤 합사장은 잠자는 윤애의 얼굴에 반해 한참 들여다보는데 숙자가 쓰아보자 그녀의 뺨을 때린다. 이튿날 그 사실을 전해들은 윤애는 짐을 싸서 수산나 집으로 간다. 수산나는 사흘 후 있을 무용공연에 금별을 포함하여 세 사람이 함께 나가자고 한다. 한편 허인규는 우연히 만난 창옥의 권고로 병원에 갔는데 암 판정을 받는다. 귀가한 허인규가 자신의 병을 수산나에게 알리고 금별에게는 윤애와 결혼하라고 한다. 몇 시간 후 무용교습소 개관식장에서 수산나, 윤애, 금별이 공연하는데, 명희는 금별에게 더욱 반한다. 공연이 끝나 출을 추진 중 합사장은 싫다는 윤애에게 추근댄다. 그러던 사이 정전이 되고 합정관이 윤애를 괴롭히는데 다시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창옥에게 발각된다. 창옥이 윤애를 데리고 나가자 금별이 따라가려는 걸 수산나가 말린다.
- ⑤ 바다와 고향(169~197회): 명희와 함께 중국집으로 간 금별은 술에 취해 그녀에게 육체관계를 요구한다. 명희가 호텔로 가져와 하여 나왔다가 금별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준다. 다음날 수산나로부터 허인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금별이 윤애와 함께 찾아가 둘이 결혼할 뜻을 밝힌다. 허인규가 약혼 반지를 사라고 돈을 주자, 그들은 반지를 산 후 중국집에 갔는데, 하필이면 전날 명희와 함께 갔던 방이다. 명희는 그들이 거기에 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 시비 끝에 금별의 뺨까지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간다. 결국 금별이 어젯밤 일을 실토하자, 윤애는 현재가 중요하므로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말라며 이해한다. 귀가한 금별을 데리고 수산나는 H총장집에 집계약하러 갔다가 거기서 중개역을 맡은 창옥을 만나 금별과 윤애의 약혼사실을 듣는다. 창옥은 윤애에 대해 분한 마음을 가지면서 허인규에게 강패일소를 위한 사회사업을 하겠다고 1억환 지원을 요청한다.
- ⑥ 花冠(198~226회): 그 시각 금별은 레스토랑에서 술에 취해 수산나와 포옹과 키스를 한다. 둘이 함께 허인규집으로 갔는데 허인규가 수산나에게 창옥의 사회사업에 1억환 주라고 하자 그녀가 무시한다. 윤애는 금별에게 금주 약속을 하나절도 지키지 못했다며 역성을 낸 뒤, 손에 끼었던 반지를 빼내 가방에 넣는다. 허인규의 부탁으로 윤애가 창옥에게 찾아가 그와 함께 강패소탕훈련장으로 가는 도중 강패를 만났으나 창옥이 물리친다. 그 와중에서 반지를 넣어둔 윤애의 가방이 없어지자, 그녀는 금별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창옥은 H총장집에 부름을 받고 갔는데 수산나가 있어 집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귀갓길에 수산나가 또 유혹하자 창옥은 몇가지 조건을 들어주면 결혼하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수산나는 그것이 윤애를 위해 자기와 금별을 떼어 놓기 위한 수작이라며 밝힌다. 이튿날 금별을 만나러 갔던 창옥은 수산나와 시비 끝에 뺨을 때리며 분개하고, 윤애는 금별에게 파혼선언을 한다. 괴로워하는 금별을 데리고 나온 수산나는 그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집으로 데려와 알몸과 다름없는 상태로 유희를 벌인다. 때마침 찾아갔던 허인규와 윤애가 그 장면을 목격한다. 이튿날 변호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허인규는 재산의 절반을 윤애에게, 나머지 절반은 창옥의 사회사업에 쓰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둔다. 봄이 되어 윤애와 창옥이 고아원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윤애는 원아가 화관을 씌워주자 눈물을 흘린다.

22. 장덕조 「激浪」

- ① 淡粧(1~15회): 한은주는 최금희의 제의로 함께 추련의 아틀리에 낙성 파티에 참석한다. 파티장에서 추련여사에 인사하니 그녀는 은주를 데리고 다니며 여러 사람에게 인사시킨다. 은주는 파티장 분위기가 싫어지고 야간 교실 아이들이 떠올라 밖으로 나와 빗속을 걸어가는데 불란서에서 미학을 전공한 박창렬이 파티장에서 나와 차로 바래다준다. 창렬은 은주의 담담함이 자기를 감동시켰다고 말한다. 은주가 야간학교에 도착하니 유준식이 수업을 끝낸다. 동생 은영은 준식을 좋아하는 눈치를 보인다. 은주는 준식으로부터 사랑고백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
- ② 友情・戀情(16~24회): 창렬이 귀가하니 기다리던 추련이 파티 때 어떻게 먼저 갔냐고 따진다. 추련은 창렬을 유혹하려고 그와 함께 특수요정에 차를 타고 가던 중 김옥과 금희가 함께 가는 걸 본다. 옥이 추련의 애인이 아니냐는 창렬의 물음에 그녀는 부인하며 창렬을 끌어안고 입맞춘다. 이에 창렬은 지킬 것은 지키라며 차를 돌려 그녀집에서 내리게 하자 그녀는 뺨을 때리고 간다.
- ③ 男子의 마음(25~39회): 금희가 김옥을 꼬여 다이아반지를 사러 가던 중 거지가 돈을 요구하자 금희가 뿌리친다. 그 직후 금희는 난로 보러 다닌다는 은주를 본다. 은주는 쓰러져 다친 거지를 병원으로 데리고가 치료받

게 한다. 이튿날은 크리스마스이브였다. 은주가 야간교실에 나가 있는데 금희 이름으로 난로가 들어왔다. 선달 그믐날 창렬이 야간학교로 선물을 들고 찾아오자 난로도 그가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 창렬은 그 후로도 아이들을 꾸준히 도와준다. 시골 내려간 준식이 올라오지 않는 동안에 은주는 창렬과 영화구경도 다닌다.

- ④ 暗雲(40~51회): 은주가 창렬과 영화보러 간 사이 준식이 은주에게 보낸 정보를 본 은영이 서울역에 마중나가서 은주가 야간교실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과 영화보러 갔다고 전한다. 그후 은주를 만난 준식은 약수를 거절한다. 준식은 물질로 아이들을 매수하려느냐며 도움받은 것 모두 돌려주라면서 나가버린다. 은영은 은주에게 준식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때부터 준식은 야간교실에 찾아오지 않는다. 며칠후 창렬이 야간교실에 들르자 은주가 도움받은 걸 돌려준다고 말하는데 창렬은 사랑한다며 그녀를 껴안고 입을 맞춘다.
- ⑤ 作戰(52~60회): 추련은 창렬이 야간교실을 도와주고 있으며 금희도 그 일과 관계 있음을 알게 된다. 금희는 일식집에서 김옥을 만나 1천만원 부정대출을 부탁하는데 김옥이 난색을 표하자 노골적인 유혹으로 수락을 얻어낸다. 그들은 은행 중역을 불러내 추련집에서 파티를 열기로 의논한 뒤 호텔로 향한다.
- ⑥ 協商(61~70회): 이튿날 금희가 추련을 방문해서 파티장소로 집을 빌리기로 한다. 추련은 금희에게 야간교실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한다. 금희는 은주집에 갔으나 그녀를 못만나자 은영의 학교로 가던중 준식과 함께 가는 은영을 만난다. 은영에게 야간교실 있는 곳을 물어본 뒤 준식에게 호감을 갖는다.
- ⑦ 女子의 마음(71~84회): 준식은 야간교실 옆을 지나며 은주를 그리워한다. 한편 은주는 아이들이 준식을 뵈는 말을 듣고 나가 그를 찾던 중 창렬이 차를 대차 반도호텔로 간다. 그때 은주는 준식이 차를 쫓아오는 걸 보지만 끝내 만나지 못한다. 창렬은 호텔 커피숍에 이어 중국집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식사하고 나오면서 포옹과 키스를 한다. 은주는 준식을 은영에게 양보하고 창렬과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한편 금희는 준식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⑧ 火焔같이(85~94회): 추련은 야간교실로 찾아가 창렬이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가끔 거기에 들른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은주를 만난 창렬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자, 은주는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약혼을 신청하라고 한다. 그래서 창렬이 은주어머니를 찾아가 약혼신청을 했는데 그날 추련은 금희에게 부탁해 은행간부들이 모이는 파티에 창렬을 참석케 한다.
- ⑨ 事件(95~104회): 추련은 파티석상에서 가루약을 탄 물을 창렬에게 먹이고 어지러워하는 그를 금희와 함께 방으로 데려가 눕힌다. 그때 창렬이 은주의 이름을 부르니 추련은 그가 은주를 찾는 모양이라며 금희에게 은주 앞으로 편지를 쓰게하여 운전수편에 보낸다. 편지받은 은주가 급히 추련집에 와서 안내하는 대로 방문을 여니 추련과 창렬이 함께 침대에 누워있어 정신없이 밖으로 나간다. 은주는 이튿날 아침까지 병자처럼 누웠다가 창렬에게 속았다고 어머니에게 말한다.
- ⑩ 現代的(105~114회): 이튿날 금희는 준식을 찾아가 함께 창경원에 가서 결혼하자고 말한다. 귀가해보니 은영이 기다리고 있다가 은주의 실연 소식을 전한 뒤, 준식에게 다른 여자와 연애하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야간교실에 나오라며 입맞춤을 청한다.
- ⑪ 葛藤(115~125회): 은주가 만나주지 않자 창렬은 계속 편지를 보내지만 은주는 그것을 모두 태워버린다. 은주네 식구는 살림이 힘들어도 창렬이 보내주는 돈을 매번 돌려보낸다. 그러던 중 은주는 4월초 충청도 P읍의 여학교 교사로 부임한다.
- ⑫ 情獄(126~136회): 추련은 금희와 만나 창렬이 은영을 통해 그녀와 어머니에게 물질적 도움을 준다고 확인한다. 금희는 준식을 사랑하게 됐으면서 이제 세상보는 눈이 달라졌으나 과거 때문에 결혼을 주저한다고 말한다.
- ⑬ 後援者(137~147회): 창렬은 은영과 만나서 은주와 은영의 선물을 사준다. 은영은 준식과 결혼하려는데 그에게서 분명한 대답이 없다고 한다. 금희가 준식을 만나러 자주 야간교실에 들른다는 말도 전한다.
- ⑭ 第二의 陰謀(148~163회): 창렬은 은영을 도와주려고 금희에게 만나자고 한다. 금희는 창렬과 만나기 전에 추련을 만나 또 음모를 꾸민다. 금희는 은주와 준식이 사랑했었다는 말, 자신이 준식과 결혼하고 싶다는 말 등을 창렬에게 한다. 식사를 마치고 창렬은 금희가 준 냉수를 마시는데 얼마후 어지러워진다. 그러자 금희가 호텔방에 가서 쉬게하는데 추련이 거기 있다가 옷을 벗기고 자기 옷도 벗어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춘다.
- ⑮ 검은 눈동자(164~172회): 이튿날 창렬이 두통을 느끼며 일어났는데 추련은 어젯밤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라며 웃고 나가려는 그에게 육탄공세를 취한다. 그는 속임수에 걸렸음을 느끼면서 그곳을 나와 차를 타고 은주가 사는 곳으로 차를 몬다. 어지러워지며 운전을 계속하던 그는 눈이 감기면서 어린이를 피하려다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 ⑯ 激浪은 차고(173~181회): 이튿날 신문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추련은 금희와 함께 병원으로 가는데, 둘다 잘못했다며 자신들을 피해자로 규정한다. 병원에 도착하자 창렬은 중태상태였고 가끔 은주의 이름을 부른다. 잠시

의식이 회복되자 자기 전재산을 은주에게 두되, 거기서 은영 결혼비용과 야간교실 운영비를 지출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은주를 만나 행복했다면서, 추련에게는 예술에 전념하라는 점, 금희에게 준식과의 결혼을 단념하라는 점 등을 부탁하고 숨을 거둔다. 장렬이 운명한 후 도착한 은주는 흐느낀다.

23. 정비석 「誘惑의 江」

- ① 속아 사는 歲月(1~11회): 납치미망인 최선에는 오랜만에 외출하여 병원에 들렀는데, 그 병원 윤만호 박사가 자신과 혼담이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된다. 병원에서 나온 최선에는 학교동창 강귀순을 만나 이따가 그녀가 경영하는 '상봉각'다방에 들르기로 한다. 최선에는 백화점에서 화장품과 남자스웨터를 사갔고 나오면서 환영에 사로잡혔음을 느껴 한숨을 쉰다.
- ② 八銜會의 女人들(12~30회): 상봉각에 들른 최선에는 마침 열리는 미망인들의 '팔령회' 모임에 합석하여, 홍순주, 이경혜, 장길녀, 김진옥 등을 소개받는다. 그런데 회원이던 황희숙이 재혼한다는 편지를 보내오자 모두가 그를 비난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러워한다. 급기야 술이 오가고 다음부터는 한명씩 돌아가며 남자를 데려오기로 한다. 귀가한 최선에는 잠자리에서 밤의 고독을 느낀다.
- ③ 來日이면 늦으니(31~49회): 퇴근한 윤만호가 무감각한 아내 권숙경을 보며 최선애를 생각하던 차에 후배 오영환이 찾아와 그를 청진동 뒷골목 집으로 데려간다. 강귀순과 이경혜가 합석하자, 윤만호는 강귀순을 통해 최선애가 납치미망인임을 안다. 오영환과 강귀순이 먼저 가고 이경혜와 택시에 탑승한 윤만호는 그녀의 유혹을 물리치고 귀가했는데, 아내가 너무 무심하여 불쾌해진다.
- ④ 孤獨의 窓(50~67회): 최선애는 황희숙이 노인과 결혼하여 옆집에 이사왔음을 안다. 생활비 타러 시집에 들른 최선애는 시어머니의 꾸중을 듣고 서러워진다. 그녀는 우연히 김진옥과 장길녀를 만났는데, 그녀들이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눈치다. 강귀순에게 들렀더니 그녀가 윤만호를 만난 사실을 전하며 잘 사귀어 보라고 한다. 우연히 시아버지가 홍순주와 함께 택시타고 가는 걸 보고 의아해 하면서 집에 왔는데, 옆집 황희숙 부부의 노골적 애정행각에 기분이 상한다. 여자친구들과 영화구경 다녀온 데 대해 최선애로부터 꾸중들은 태섭은 건넌 방에서 자다가 감기에 걸린다.
- ⑤ 愛情 雙曲線(68~84회): 이경혜가 시골노파환자를 통해 연서에 가까운 소개장을 보내자 윤만호는 상당한 호의를 베푼다. 다음날 이경혜와 만난 윤만호는 그녀가 안내하는 곳에서 식사와 술을 하고는 포옹과 키스를 한다. 그는 이튿날 왕진을 요청하는 최선애의 전화를 받는다.
- ⑥ 人生 曲藝師(85~104회): 강귀순을 통해 팔령회 모임에 간 오영환은 신입회원 유옥분과 친한 척 하며 강귀순의 질투를 유도한다. 결국 강귀순과 호텔에서 동침하더니 다음날은 유옥분을 만나 추후 부산에 놀러가겠다고 꽃을 선물한다.
- ⑦ 꽃피는 季節(105~123회): 윤만호의 병원에 입원한 태섭의 병세가 호전되는 가운데 윤박사는 최선애를 사모하는 심경을 드러낸다. 최선애는 열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윤만호의 살림집이 보이자 야릇한 감정에 빠진다. 이튿날 김진옥이 찾아와 동료교사 장치순이 청혼했음을 전한다. 이경혜는 윤박사를 유혹하여 드라이브를 한 뒤 댄스홀에 들르고 나서 이경혜집에 가서 성관계를 맺는다.
- ⑧ 愛怨境(124~142회): 다음날 아침 귀가한 윤만호는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돼, 성당에 가서 회개한다. 그러나 병원에 나가니 마음이 달라져 퇴원하려는 태섭을 건강진단 핑계차 이틀간 입원연장시키며 최선애에게 고백할 기회를 모색한다. 그러던 중 아내가 성당 일로 밤샘하게 되자 밤늦게 최선애를 만나 고백한다. 최선애는 윤만호를 사모하는 마음이 절절하면서도 그에게 아내가 있는 현실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피로워한다.
- ⑨ 生活의 周邊(143~162회): 이튿날 최선애는 윤만호에게 제라늄 화분을 선물하고 퇴원수속을 마쳐 귀가했는데, 마당에 권서방의 빨래가 걸려 있었다. 이날 밤 옆집에서 들려오는 음반소리에 잠 못 들다가 겨우 눈을 붙였는데, 권서방이 순이엄마를 만나러 오는 소리에 잠을 깬다. 며칠 후 최선애는 시아버지와 홍순주가 정신적 사랑을 나누고 있음을 안다. 한편 납치됐던 김진옥의 사촌오빠 김광호가 갑자기 찾아와 그녀 남편의 사망소식을 전한다.
- ⑩ 그 밤이 다시 오면(163~180회): 칠월초순 제라늄 꽃말이 다시 만나자는 것임을 안 윤만호는 마침 전화로 청해은 이경혜의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한다. 그 직후 그는 오영환이 찾아와 요릿집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강귀순과 이경혜를 만난다. 그 두 여자가 오영환을 놓고 싸우자 밖으로 나온 윤만호는 최선애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한 채 귀가한다. 권숙경은 최선애의 편지를 들이대며 추궁하지만 윤만호는 이리저리 둘러댄다.
- ⑪ 十字路에서(181~199회): 짝 잃은 카나리아가 처량하게 우는 걸 보고 수놓을 사러 다녀온 최선애는 다정한 순이엄마와 권서방을 보고 부러워진다. 최선애는 윤만호의 편지를 받고 고민하다가 결국 함께 도봉산에 갔는데, 숲속을 거닐며 행복감에 빠지면서도 그와의 사랑에 한계를 느낀다. 오륙일 후 김진옥의 죽은 남편을 위한

미사에 참석했다가 장치순도 거기 있는 걸 본다.

- ⑫ 原罪의 열매(200~218회): 강귀순은 이경혜와 오영환이 함께 호텔방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소문을 들은 후 자신의 임신사실을 알고 오영환을 찾아가 책임지라고 요구하지만 거절당한다. 화집에 이경애를 찾아가 강귀순은 임신했음을 알리며 오영환을 단념하라고 한다. 이에 흥분하던 이경애는 집을 마련해 줄테니 함께 살림을 차리자는 오영환의 말에 감격해 한다.
- ⑬ 菊花의 季節(219~235회): 윤만호는 최선애에게 편지를 쓰다가 오영환이 찾아오자 저녁식사하러 간다. 외출에서 들어온 권숙경은 남편이 최선애에게 쓰던 편지를 발견하고는 분개한다. 며칠 후 남편을 미행하던 권숙경은 미행에 실패하자 최선애집에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한다.
- ⑭ 끝없는 旅路(236~252회): 권서방과 곧 결혼하게 되리라는 순이엄마의 말을 들으며 고민 끝에 서울역에서 윤만호를 만난 최선애는 함께 유원지에 간다. 윤만호가 포옹과 키스를 해오자 최선애는 자신에게 이성의 한 부분이 살아있음을 깨달으면서도 둘 관계의 한계를 또 느낀다. 윤만호가 다음 만날 약속을 정하지만 최선애는 안 나간다면 귀가했는데, 태석으로부터 그의 친구 누나가 자신을 서울역에서 봤다는 말을 듣는다. 이튿날 진옥이 강귀순의 임신소식을 전하면서 장치순과의 결혼문제를 상의하자 최선애는 재혼을 적극 권한다. 최선애는 주변의 미망인들이 다 짝을 이루는데 자신만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윤만호를 만날 결심을 한다.
- ⑮ 荊棘의 榮冠(253~271회): 권숙경은 자신에게 후심한 남편을 보며 최선애를 만나보기로 한다. 윤만호와 만나기로 약속한 하루 전날 최선애에게 시아버지가 용돈을 주고 집도 수리해주겠다고 다녀간 뒤, 권숙경이 다녀간다. 이튿날 김진옥이 찾아와 장길너는 미국남자를 따라 미국으로 가고, 이경혜는 오영환과 살림을 차렸으며, 자신은 장치순과 약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전한다. 최선애는 한참 망설이다가 윤만호를 만나러 가려고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에는 이경혜와 오영환이 타고 있었다. 그들에게 강귀순이 중절수술 후유증으로 죽었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 따라 갔다가 귀가한 최선애는 옆집 노인이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한다. 최선애가 복잡한 생각으로 누워 있던 차에 태석이 들어와 그녀를 일으키는 순간 그녀는 아들 얼굴이 남편 얼굴처럼 느껴진다.

24. 박화성 「내일의 太陽」

- ① 꿈의 序曲(1~9회): 백궁다방 카운터 남희라는 어머니 고여사, 동생 희숙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며칠전부터 다방에서 그녀를 주시하던 청년은 매번 '꿈의 궁전'을 틀어달라고 한다. 함께 근무하는 레지 북주도 그 청년에게 관심많은 눈치다. 그녀는 윤혜경의 제의로 다음날(일요일) 안양에 함께 놀러가기로 약속한다.
- ② 신록과 젊음과(10~19회): 다음날 그녀들은 버스타고 안양으로 간다. 혜경은 의외로 일행과 만나기로 했던 것인데, 그 의외씨는 매일 백궁다방에 찾아와 희라를 주시하던 청년 윤형진이었으며, 그와 동행한 친구는 선우역이었다. 서로 인사한 후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 ③ 上流(20~30회): 귀갓길에 형진이 만나자고 간청하여 이튿날 북주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갔는데 형진은 사랑고백을 한다. 북주가 형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희라가 말하자, 형진은 일요일 셋이서 함께 만나겠다고 한다. 형진은 귀가 도중 백합을 선물한다.
- ④ 中流(31~46회): 이튿날 희라가 감기로 출근하지 못하자 저녁때 북주가 찾아와서는 형진이 일요일에 셋이 함께 만나자는 메모를 놓고 갔다고 전한다. 희숙은 음악회에서 우연히 만난 형진과 억이 보였다는 과일을 들고 들어온다. 그 이튿날 희라가 퇴근하는데 마담이 형진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야기 도중 밖에서 누가 불러나간 희라는 심중령의 함께 가자는 요구를 거절하고 먼저간다. 희라가 일요일 약속장소에 나가지 않고 이튿날 다방에 출근했더니, 다음 일요일에 만나자는 쪽지를 북주가 전해 준다. 일요일 덕수궁 약속장소에 나가자 형진이 왜 피하냐고 묻지만, 희라는 대답하지 않는다. 형진은 다음 일요일 안양 하숙집에 찾아와 달라고 말한다.
- ⑤ 下流(47~66회): 희숙이 자신이 쓴 논문을 읽어주는데 희라는 그녀의 주장이 매우 당당하게 느껴진다. 일요일이 되자 희라는 망설이던 끝에 형진 하숙집을 방문한다. 희라는 전쟁 때 아버지를 도와준 심중령과 결혼했었으나 그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던 중 본체가 월남하여 나타나는 바람에 임신중이던 딸을 낳아 맡겨 놓은 후 헤어졌다며 자기를 잊어달라고 말한다. 그러나 형진은 과거는 문제가 없다며 강한 포옹과 키스를 퍼부은 끝에 결혼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 희라가 귀가하여 희숙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희숙은 새출발을 격려한다.
- ⑥ 바다로 가는 길(67~81회): 형진은 누나 형옥을 방문하여 희라와 결혼할 뜻을 밝히면서도 그녀의 과거를 숨기고 나이도 동갑이라고 속인다. 다음날 다방에서 희라를 보고 간 형옥은 직장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혼사를 반대한다. 그러나 형진은 희라에게 잘 싸워 이겨내자고 말한다. 일요일 창경원에서 희라 큰아버지 남변호사, 어머니 고여사, 희숙이 함께 형진을 만난다.
- ⑦ 銀河의 다리(82~97회): 형진이 즉석에서 혼사의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남변호사와 고여사 모두 승

낙한다. 그들은 희숙과 선우역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변호사와 고여사는 선우역의 고향이 심중령과 같은 평북 영변인 것이 마음에 걸린다. 한편 형욱과 형진으로부터 혼담에 관한 편지를 받은 형진어머니 오여사는 사주를 들고 상경하기에 이른다. 이에 형욱의 요구로 희라가 다방을 그만둔다.

- ⑧ 기러기 오는 날(98~122회): 7월 14일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 날짜는 10월 5일로 결정된다. 10월 1일, 윤현수가 독감으로 아팠다지만 예정대로 결혼식을 하기로 한다. 그래서 예식 전날인 4일, 희라는 형진과 오여사 등을 만나기는 했으나 그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희라가 슬픔에 젖어 귀가했는데 혜경이 찾아와 중국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간다. 거기에는 형진 일가가 와 있었는데, 오여사 등이 희라 과거를 안 이상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한다. 형진의 존장이 집에 가서 어른을 모셔오라기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 말을 들은 희숙이 식당에 찾아가서 조목조목 당당하게 따지고 나온다. 한편 결혼식 참석차 형 집에 들른 선우역은 형과 심중령이 친구사이 이기에 비롯된 그간의 사정을 듣고 걱정한다.
- ⑨ 녹슬은 세월(123~144회): 결혼예정일에 희라가 혼수상태로 누워 있는데, 밤에 형진이 찾아오자 고여사는 서로 관계를 끊으라고 말한다. 형진은 희라에게 용서를 구하고 뜨거운 포옹과 키스를 한 후, 통금 사이렌이 울리자 함께 나가자고 제의하지만 거절당한다. 이튿날 형진을 찾아다니던 선우역은 그가 여관에서 술취해 쓰러져 있음을 알게 되고, 고여사 만류로 못하는 희라 대신 희숙을 데리고 간다. 여관에 누워있던 형진이 희숙을 희라로 착각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급기야 선우역은 그를 안양으로 데리고 가고 희숙은 언니를 꼭 보내겠다고 말한다. 한편 윤현수는 형진을 빨리 내려오게 하라고 말한다.
- ⑩ 어긋나는 평행선(145~154회): 희라는 그 이틀 후 오여사의 감시를 피해 안양에 갔으나 형진이 바로 전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시골 갔음을 알고는 그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나 희라가 네 번이나 편지를 써도 형진은 답장이 없다. 그러던 차에 덕수궁에 놀러갔던 희숙이 우연히 형진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안양에 찾아갔으나 오히려 그가 뺨을 때리자, 희라는 적반하장격이라며 화를 낸다. 그들은 결국 둘의 편지를 고여사와 을순이가 각각 빼들린 것으로 짐작한다.
- ⑪ 기러기 우는 밤에(155~164회): 형진은 아버지에게 결혼을 성사시켜 달라고 말한다. 그리고 형진은 희라와 정사를 치른 뒤 용기를 갖자고 다짐한다. 한편 희숙과 선우역은 산에 다녀오며 애정을 꽃피운다.
- ⑫ 人間修業(165~182회): 희라는 혈색이 좋아지고 적극적으로 변했다. 형진이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전보를 받았더니 시골에 간다고 하자 희라는 함께 가서 간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희라는 고여사와 남변호사에게 외가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형진집에 간다. 희숙이 반감해 맞으며 잘 따르고 윤형수도 싫지 않은 눈치였지만 오여사는 마음을 풀지 않는다. 그날 형진이 서울로 떠났는데, 을순이 함께 타러가는 소식을 듣는다.
- ⑬ 내일의 태양(183~192회): 이후 희라의 극진한 간호로 폐렴을 앓던 윤현수는 몰라보게 회복되어 갔고, 이웃과 친지들 모두 희라를 칭찬한다. 이주일만에 찾아온 형진은 희숙이 선우역과 함께 유학을 간다는 소식을 전하고, 을순이도 마음을 정리했다며 상경한다. 그러나 희라가 형진 집에 있음을 고여사가 알게되자, 희라는 떠나겠다는 뜻을 전한다. 이에 이튿날 존장 등을 중심으로 혼사에 대한 의논이 진행된다. 일요일 아침 형진과 함께 나타나 희라를 데리러 왔던 고여사와 남변호사는 오여사와 윤현수의 청으로 내년 2월초에 식을 올리기로 합의한다. 이때 밖에서 이 말을 들은 희라가 밝게 웃는다.

25. 임옥인 「젊은 設計圖」

- ① 사랑앵무(1~20회): 강난실은 민석호의 누나 석영과 동생 석구의 방문을 받는다. 미국에 있는 석호가 꼭 만나 보라 했으며 난실의 사진도 찍고 간다. 그 후 양장점으로 추억테란 사내가 찾아와 억지로 포옹하는 순간 어떤 사내가 사진을 찍고 사라진다. 난실이 종로에 미장원 개업한 윤정애를 찾아갔는데 추억테가 추근테다 나간다. 난실이 가게에 돌아오니 잡지사기자들이 원고를 청탁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옛애인 고혁이 주간을 맡는 잡지사 소속이었다. 저녁때 다방에 홀로 앉아 있는데 신행근이 가게로 와서 자기 애인이 익태의 다섯째 첩으로 남지했다며 난실에게도 조심하라고 한다. 그 후 난실이 석구로부터 연락받고 석영이 임원한 대학병원에 가봤더니 석영 옆에 정애가 누워 있었다. 석영은 석구 애인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말을 전한 뒤, 석호가 약혼했던 여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녀는 고혁과 동거녀였던 황근희였다. 고혁은 근희 이전에 난실과 동거한 남자였다. 석구와 석영은 석호에게 편지를 써 달라고 난실에게 부탁한다.
- ② 追憶의 거리(21~43회): 난실은 거리를 배회하다가 고혁을 만나자 황급히 귀가하여 추억을 더듬는다. 난실은 정애와 부산에서 증기선을 탔다가 고혁을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그녀가 개업한 양장점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난실은 고혁의 자유분방한 태도 때문에 순탄치 못한 생활을 한다. 그러던 중 정애 소개로 황근희를 양장점 점원으로 들이게 되는데, 그녀는 옆방에 살면서 식사도 같이 한다. 그러는 사이 고혁과 근희가 가까워진

다. 자신의 생일날 임신을 확인한 난실은 근희의 부주의로 불이 나면서 유산하게 된다. 그 한달 후 난실은 그들의 정사장면까지 목격하자 매우 낙망하는데 고혁은 앞으로는 충실하겠다고 말한다. 그때 근희가 살림을 일부 챙겨주고 집을 나가지만 40일 후에 그녀와 고혁이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며칠후 오빠의 권고로 귀경한 난실은 귀경 한달 후 석호와 만나는데, 석호는 난실이 미혼이 아니라는 말에 실망한다.

- ③ 避暑의 季節(44~70회): 난실은 석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다가 찢어버린 후 석구가 석호의 편지를 갖고 왔는데 곧 만나러 오겠다는 내용이었다. 정애와 함께 YWCA 행사에 참가한 난실은 행사장에서 석영의 옛 애인 정을기 교수를 만난다. 그러던 중 잡지사여기자가 원고독촉하며 고혁의 편지를 건네주는데, 추익태가 난실을 꺼안은 사진을 동봉한 그 편지에는 피장파장이니 정식 결혼하자고 써어 있었다. 이튿날 난실은 석영의 병문안을 갔다가 퇴원준비하던 그녀를 따라 삼각산 별장에 간다. 난실은 그곳 계곡에서 우연히 정교수를 만난다. 그는 석영을 사랑했으나 유학가는 시점에 그녀가 앓아 누웠고 3년 유학 동안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는데 결혼 이듬해부터 아내가 앓아누웠다고 말한다. 석구도 여자친구의 죽음에 따른 괴로운 심정을 이야기한다. 귀갓길에 우연히 고혁의 차에 탄 난실은 몹시 언짢아진다.
- ④ 新裝(71~86회): 난실은 석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공항에 나갔는데 귀국하는 석호가 매우 반가워한다. 이튿날 석호를 만난 후 양장점에 돌아오니 석구가 옷 찾으러 들른 손님 진영숙을 꺼안는 등 돌발행동을 하고 나간다. 석구는 조금 뒤에 난실에게 전화하여 영숙이 죽은 애인과 닮아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한다. 그후 석호의 꾸지람을 들은 석구는 집에서 나간 후 일주일간 소식이 없다.
- ⑤ 짧은 육체(87~113회): 석구는 호텔에서 고혁과 영숙이 함께 잠간 얘기를 하며 꺼안는 걸 보고 강물에 뛰어들다. 석호가 그 사흘 뒤 신문보도 보고 병원에 갔을 때는 석구가 극약을 먹고 죽은 직후였다. 난실은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고혁과 영숙을 본다. 사흘 후 석호는 난실에게 자기를 좀 붙잡아달라고 편지를 보내오고, 경희는 형근의 나이와 과거도 모르면서 그와 결혼한다고 한다. 난실이 몸이 안 좋아 누웠는데 석호가 그녀를 돌봐주고 가며 그녀가 독신임을 확인한다. 이튿날 석호에게 고혁과 영숙이 방문하여 난실과 근희를 아느냐고 물어보고 간다. 고혁이 영숙과 헤어져 사무실에 가니 근실로부터 편지가 와 있었다. 고혁을 떠나 석호와 약혼하게 된 경위, 아이를 낳아 파혼하게 된 경위를 말한 뒤, 딸아이의 이름은 수잔이며 2년4개월 됐다고 전한다.
- ⑥ 丹楓의 언덕(114~148회): 일주일 후, 난실은 S여사의 패션쇼 준비를 도와주느라 분주한 가운데 정애는 익태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한다. 석호는 난실의 결심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온다. 이튿날 패션쇼장에서 익태는 난실에게 정애를 내놓으라며 시비끝에 난실에 대해 남편이 있는 갈보라는 등의 폭언을 한다. 사흘 후 정애가 멍든 얼굴로 난실을 찾아와 난실에 대해 왜곡된 기사가 신문에 났음을 알린다. 석호는 난실을 데리고 별장으로 가서 자기에게 모든 걸 말기라며 포옹한다. 난실이 고혁의 아기를 유산한 일 등을 털어놓으니 석호는 과거보다 현재나 미래가 중요하며 기다리게 하고는 시내에 다녀오겠다고 내려간다. 석호는 석영에게 난실과 결혼할 뜻을 밝히고 목욕과 이발을 한 뒤 별장에 갔으나 그녀가 막 내려간 뒤였다. 이튿날 다시 난실을 만난 석호는 서로의 사랑을 다짐한다. 그 후 경희와 형근의 결혼식에 참석한 난실과 석호는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 ⑦ 오가는 情(149~167회): 형근과 경희가 첫날밤을 치렀는데, 경희는 첫남자였던 반면 형근은 수십번째의 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경희보다 20살 많은 47살이었다. 한편 고혁은 난실을 뺏길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를 찾아다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고혁은 소설에 전념하기로 하고 난실에게 몇시간 멀리 다녀오겠다는 뜻을 전한다. 난실은 석호와 함께 정애가 입원한 전박사의 상담소에 들렀다가 교외로 나가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 ⑧ 大地로 가는 꽃(168~179회): 난실과 석호는 정사를 치른다. 눈내리는 아침 형근으로부터 난실이 곧 결혼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고혁이 밖으로 나오다가 영숙과 마주친다. 고혁이 가는 대로 끝까지 따라오는 영숙에게 그는 그녀의 생애를 책인질 자신이 없다고 말한다. 석영은 편지와 일기를 모두 태우고 석호에게 난실과 결혼하라고 유언하고는 숨을 거둔다. 석영의 장례가 끝나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형을 사갖고 나오던 난실은 여섯살의 수잔과 함께 가는 근희를 만난다. 그 며칠후 고혁이 정말로 사랑했었다며 이제는 애정 대신 창작에 전념하겠다는 편지를 난실에게 보낸다.
- ⑨ 오레울의 指針(180~183회): 근희는 고혁이 많이 변했음을 느끼는데, 고혁은 수잔과 셋이서 여행가자고 한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석호의 서재에서 약혼식을 겸한 파티가 열린다. 이때 형근이 석호에게는 정실보건소 설계도를, 난실에게는 생활의상연구소 설계도를 각각 선물한다. 정애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축하인사를 하고, 영숙은 고혁이 보낸 난실의 사진과 그녀가 사줬던 고혁의 시계를 석호에게 건네고 나간다.

26. 장덕초 「原色地帶」

- ① 비가 온다(1~11회): 최준환 사장은 여대생 남광미의 뜻밖의 방문을 받고 당황한다. 그녀는 그의 첫사랑 한유

옥의 딸이라 소개하더니 너무 냉담하다며 나가버린다. 그로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최사장은 광미가 자기를 아버지로 잘못 알고 있다고 짐작한다.

- ② 慕情(12~21회): 재학생 명부의 주소로 광미집을 찾아갔는데 그녀는 없고 함께 사는 친구 명유라가 그를 들어 오게 한다. 유라는 광미가 외국유학 가기 위해 최사장 허락을 받으러 갔던 것이라고 전한다. 그리고 집짓고 나서 유옥이 최사장을 초대하려 했다는 사실을 그녀가 죽은 뒤 그녀가 남긴 일기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광미가 카바레 티켓 파는 일을 구하러 다닌다는 말을 들은 최사장은 광미를 딸처럼 여겨야겠다고 생각한다.
- ③ 代役(22~32회): 귀가한 광미는 최사장이 다녔다는 말을 듣고 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사장에게 호감을 가진 유라는 그의 회사로 찾아가 저녁 먹으러 함께 가서는 좋아한다고 말한다. 놀리는 게 아닌가 여기던 최사장은 그녀와 키스한다.
- ④ 푸른 胡桃林(33~42회): 이튿날 최사장 심부름으로 박사일이 광미를 찾아가 돈을 전하니 거절하는 그녀 몰래 유라에게 맡긴다. 그 후 사일은 김옥정을 만나러 갔는데 결혼을 요구하는 그녀에게 구속하지 말라고 한다. 사일은 옥체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그녀집에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한다. 그들은 눈오는 거리에서 서로 다룬다.
- ⑤ 秘密(43~52회): 이튿날 퇴근 무렵 사무실에서 결혼해달라는 옥정의 요구를 사일이 뿌리치는 순간 들어오던 최사장 딸 혜경이 그걸 보고 황급히 나간다. 뒤쫓아간 사일은 옥정이 유혹하던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리고 중국집 구석방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더니 그녀의 손을 붙잡고 사모하고 있다며 옥정을 같은 회사에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한다. 둘은 포옹과 키스를 하고, 며칠 후 옥정은 해고당한다.
- ⑥ 深淵(55~67회): 한참 바쁜 시간에 최사장을 불러낸 유라는 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최사장이 종로에 가야 하 한다고 하자 유라는 바래다 준다며 함께 걷는다. 유라는 최사장과 헤어져 광미를 만났는데, 광미는 옥정이 댄서로 취직하기 위해 카바레에 왔었다는 말을 전한다.
- ⑦ 女人行路(68~81회): 해고당한 옥정은 임신증세를 보이자 사일에게 집에 찾아오도록 한다. 옥정에게 유산을 설득하던 사일이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하는 바람에 다룬다. 그녀는 밤을 지낸 뒤 병원에 가서 임신을 확인한다. 그 뒤 며칠 동안 집에서 그를 기다리던 옥정은 카바레의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그대로 나와 사일을 찾아갔는데 그가 냉대를 한다. 그녀는 이튿날 다시 카바레를 찾아가 여급이 되기로 한다.
- ⑧ 惡氣流 속에서(82~97회): 옥정은 동생의 등록금 마련 등을 위해 부지런히 카바레에 나가는데 며칠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외숙모는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 그날 그녀는 남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가 추근대자 뿌리치며 밖으로 나가다가 차에 치인다. 차는 뺑소니치고 지나던 남광미가 순경과 함께 병원으로 옮긴다.
- ⑨ 社會科教室(98~106회): 최사장은 유라를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를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이날도 일식집에서 한참을 기다려 그녀를 만난 뒤 포옹과 키스를 한다. 광미가 카바레에 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음에 혼자 찾아가 볼 생각이었으나 한참 동안 가지 못한다.
- ⑩ 邂逅(107~118회): 어느날 함께 카바레에 간 최사장과 사일은 댄서가 된 옥정을 만난다. 사일은 옥정과 춤을 추면서 그녀가 무척 변했음을 느낀다. 최사장은 필리핀 가수 로무로로부터 옥정이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후원자가 되겠으니 노래공부를 시켜달라면서 자신이 도운다는 사실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한편 옥정은 광미를 찾아가 사일이 찾아온 사실을 말하며 교통사고로 유산당한 일 등을 떠올린다.
- ⑪ 심는 者는 거두리라(119~129회): 옥정은 카바레를 그만두고 로무로의 지도로 노래공부를 한다. 로무로는 옥정이 피를 토할 정도로 엄격하고 헌신적으로 지도한다. 로무로 출국을 앞두고 옥정은 공연을 갖게 된다.
- ⑫ 華麗한 悲愴(130~140회):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로무로는 출국한다. 취임한 레코드가 날개돋힌 듯 팔리고, 옥정의 인기는 날로 치솟는다. 광미는 옥정의 거듭되는 요청으로 그녀의 매니저가 된다.
- ⑬ 眞實과 虛偽(141~151회): 광미가 카바레를 나와 옥정의 신변을 돌보면서 인기의 위력을 실감한다. 한편 유라는 순수한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 자궁적출 수술을 하겠다고 하며 나이 많은 유부남과 사랑하고 있음을 밝힌다.
- ⑭ 變貌(152~161회): 유라가 싫다는 광미를 데리고 카바레에 따라 갔는데 마침 옥정이 거기 있어서 자리를 함께 한다. 그때 혜경이 찾아와 옥정이 사일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됐으며 사일도 회사에서 쫓겨났고 자기는 다른 남자와 약혼한다고 말하고 간다. 광미는 유라가 사랑한 사람이 최사장임을 확인하고는 안방에 들어가 어머니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유라가 최사장을 단념할 수 없다고 하자 광미는 그녀를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
- ⑮ 검은 눈 瞳子(162~172회): 이주일만에 유라를 만난 최사장은 그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는다. 유라를 따라가던 최사장은 길거리에서 술취한 사일과 만난다. 사일은 시비를 걸어오다 최사장을 때려 눕히고 목을 조르던 중 노려보는 유라의 눈동자를 보며 옥정의 것으로 착각하여 도망치다가 트럭에 치인다.
- ⑯ 사랑의 天國과 사랑의 地獄(173~183회): 최사장과 사일은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진다. 최사장은 졸도상태였으나 사일은 두 다리를 잘리게 된다. 유라는 최사장을 면회하지 못하고 병실 주변을 배회하던 중 최사장 부인이

병실에 제계 없이 드나드는 걸 보고 패배감과 자기혐오를 느낀다. 그녀는 광미를 만나 사고에 대해 얘기하며 최사장 부인에게 모욕감을 느꼈음을 토로한다. 그는 순화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앞으로 최사장을 안 만나겠다는 조건으로 광미집에서 함께 살기로 한다.

- ⑰ 應報(184~196회): 이튿날 일찍 광미를 찾아온 옥정은 한국에 온 로무로를 통해 최사장이 도움준 사실을 들었다며 그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다. 문병을 다녀온 광미와 옥정은 최사장이 깨어났으며, 사일도 만나고 왔다고 전한다. 유라는 옥정에게 사일을 용서하라고 한다. 처음에는 부정적이던 옥정은 유라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간 듯 백화점에 가서 잠옷 등을 사서 그에게 보낸다.
- ⑱ 아름다운 黃昏(197~208회): 퇴원한 최사장이 광미, 유라, 사일 등에 원조할 계획을 밝힌다. 그러나 옥정은 혜경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최사장 원조를 절대로 못받게 하겠다고 말한다. 광미도 최사장의 요청으로 그를 만나 그의 원조를 거부하고 나오면서 그의 황혼이 아름답다고 느낀다. 한편 혜경은 사일에 대해 참성을 말라는 옥정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에게 자신이 진 걸 깨달았다고 최사장에게 말한다.
- ⑲ 고요한 終點(209~213회): 5월이 되어 사일이 옥정의 도움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있는데 어느날 로무로가 그를 찾아가서 옥정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 달라고 한다. 그의 말에 수긍한 사일은 잠이 안 온다며 조금씩 구해 모아 뒀던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고 자살한다. 그러자 옥정, 광미, 유라, 혜경 등이 화장터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혜경이 미광원이란 보도소를 경영하는 일 등에 대해 얘기하는데 검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른다.

27. 이무영 「季節의 風俗圖」

- ① 黃昏에 피는 꽃들(1~12회): 울력 구월초, 남치 미망인인 송자옥 여사는 자식들과의 약속 때문에 남부생존자명단을 확인하러 적십자사로 향한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가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 체념하고 있었다. 국회의원인 남편 박철웅은 공산주의자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가 전쟁이 터지자 숨어 있던 중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남부 생존자 명단에 있다고 여기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송여사는 많은 사내들의 관심을 모두 냉정히 뿌리치곤 했는데, 결혼전부터 안면이 있던 안태식 박사만큼은 예외였다.
- ② 安博士(13~26회): 안 박사를 만난 송 여사는 목석같은 그가 매우 변했음을 느낀다. 안박사는 제자 양미리를 프랑스 여행시 통역원으로 만나면서부터 달라졌다. 둘은 한동안 연인처럼 행동했으며, 마지막날 미리와 뜨거운 키스를 나누고 헤어졌다. 안박사는 귀국하며 그녀를 잊으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안박사는 송여사에게 사랑하는 남편간에는 길거리에서 팔짱도 끼고 포옹도 하고 키스도 해야한다고 역설한다. 둘은 양식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나오는데 송여사 동창생 우경희가 어떤 청년과 함께 있다가 아는 체 한다. 그 청년은 언젠가 안박사 딸 지숙과 함께 가던 청년이었으나 안박사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 ③ 거리의 對話(27~41회): 박현수는 돈, 우여사는 육체가 필요해서 서로를 만나고 있다. 우여사가 현수를 방문하자 그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수작부리며 그녀의 품으로 파고든다. 이튿날 현수는 음대생 윤주옥을 만나러 나방에 나갔는데, 전에 만나던 흥인애가 나타나 빌려간 돈 30만환을 갚으라고 한다. 그때 안지숙으로부터 만나자는 쪽지를 받고 그녀를 만나 정릉으로 놀러가던 중, 도중에서 내려 어머니가 위독하다며 거짓말하고 나온다. 그런데 지숙은 윤주옥이 현수에 앞서 나오는 걸 보고 그대로 가버리자 박현수가 부리나케 정릉으로 가봤으나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 ④ 競戀者(42~55회): 송여사는 안박사를 그리워하던 중 울케 박은덕 여사 생일잔치 겸 낙성식에 갔다가 그를 만난다. 행사가 끝나고 함께 남산 기슭의 왜식집에 갔는데 안박사는 송여사의 손을 어루만지며 입을 맞춘다.
- ⑤ 罪에 罰(56~71회): 한애련이 현수를 찾아가 임신 사실을 밝히나 박현수는 어떤 놈의 씨나며 되레 호통친다. 아무리 애원해도 통하지 않자 울적한 마음에 덕수궁에 갔던 애련은 지숙오빠 상훈을 만난다. 상훈은 목석같은 남자였지만 자상함도 느껴진다. 며칠 후 낙태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갔던 애련은 진단서와 1만5천환이 있어야 하며 남편 동행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다. 하숙에 돌아와 고민하며 눈물짓던 애련은 태동을 느낀다.
- ⑥ 矩形的 三角(72~96회): 안박사와 송여사는 몇번 밀회를 했지만 최후의 선은 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송여사는 박여사에게 불려 갔는데 마침 안박사도 초대되어 왔다. 거기서 안박사가 쿡수염을 깎은 게 파리 여학생 때문이라는 말을 우연히 들은 송여사는 질투를 느낀다. 박여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송여사는 파리 여학생 일을 추궁하고 안박사는 별일 아니라고 변명하는데 박여사가 그 장면을 보고 이상한 느낌을 갖는다. 그래서 박여사는 어느날 송여사네 식구들을 모두 자기집에 와서 살게 하려고 그녀를 찾아갔는데, 때마침 송여사가 이들의 중학교 진학 문제로 의논할 게 있다는 구실로 안박사를 초대해 놓고 술마시던 중이었다. 안박사가 울케 집에 있는 걸 본 박여사는 크게 놀란다. 송여사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한다. 그 순간 안박사는 동경에 와 있을 양미리 생각을 하고 있다.

- ⑦ 사랑의 挿話(97~110회): 애련은 낙태수술하러 갔다가 아이의 태동 때문에 돌아왔다며 아이를 낳았다고 지속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현수 방에서 윤주옥과 마주친 바 있는데 그녀도 같은 처지인지 모르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 ⑧ 영클어진 愛情線(111~130회): 안박사는 양미리를 마중하러 공항에 나가고, 그 사실을 안 송여사도 공항으로 간다. 송여사는 그들이 상봉하는 걸 보고 시내로 나와 배회하다가 다방에 갔는데 현수가 아는 체 한다. 현수는 우여사와 저녁약속을 했으며 함께 가자고 속여 정릉의 산장으로 간다. 현수가 안박사 얘기를 꺼내자 송여사는 피로운 듯 술을 마시고, 결국 둘은 뜨거운 포옹과 키스를 한다. 그때 송여사는 아들 진국이 소리치는 듯한 환영을 듣고 빠져나와 귀가하고는 아이들을 꺼안고 흐느낀다.
- ⑨ 挑戰(131~150회): 이튿날부터 송여사는 가정에 충실한 진국이 입학시험 치르는 날 시험장에서 양미리를 만난다. 안박사가 나타나자 송여사는 셋이 점심 먹으러 가자는데 미리가 싫다며 가버리니 안박사가 쫓아간다. 송여사는 답답한 마음에 우여사를 찾아갔는데 우여사는 미리보다 먼저 안박사를 정복하라고 충고한다. 그즈음 진국이 입시에서 떨어지자 송여사는 그것이 자신이 가정에 불충실한 탓이라 여기며 반성한다.
- ⑩ 未解決의 章(151~172회): 상훈은 애련에게 청혼하지만 애련은 동정을 배풀지 말라며 거절한다. 사흘 후 지속이 애련을 다시 찾았으나 애련은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한다. 한편 지속의 귀가가 늦어지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상훈이 애련집을 찾아갔더니, 시골서 올라온 애련어머니가 딸을 망쳤으며 흥분한다. 이튿날 애련은 딸을 낳고 지속은 애련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상훈이 아이 이름을 경미라 지어준다.
- ⑪ 흔히 있는 일(173~195회): 송여사는 아들의 중학 보결입학을 안박사에게 부탁한다. 둘이 식사하고 나와 거닐던 중 양미리가 남자친구와 함께 가는 걸 본다. 이튿날 아침 진국이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송여사는 통금때까지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소용없다. 진국이 남파간첩의 이동경로에 관심을 표명했고 현금 5만환을 갖고 나간 걸 알게 된 다음날 북의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다는 진국의 편지가 발견된다. 열흘이 지나도록 행방이 묘연하던 중 북에 갔던 남편 박철웅이 찾아온다.
- ⑫ 또 하나의 試鍊(196~222회): 박철웅은 당분간 자수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송여사는 남편을 점점 의심하게 된다. 어느날 새벽에 나간 그는 5일후 남산호텔에서 만나자고 편지를 보내와 때맞춰 나갔더니 2~3일 후 집에 들른다는 메모만 있었다. 안박사와 잠시 만나 귀가한 송여사는 부산에 간첩사건이 일어났다는 보도와 정릉에서 권총을 맞고 수색대 두명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녀는 범인 둘 중 한 명의 인상착이가 남편과 비슷하다고 여긴다. 정릉사건 사흘 뒤 찾아온 박철웅에게 송여사가 자수를 권하자 그는 자기에게 맡겨두라며 뺨을 때린다. 고민끝에 신고할 결심을 하고 경찰주임을 만나지만 주저하던 송여사는 진국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나온다. 의심간 주임은 송여사의 동태를 잘 살피라고 지시한다. 이튿날 송여사는 경찰서에 가서 외국인 라디오를 훔치다 붙잡힌 진국을 만나 데려오려는데, 진국이 아버지를 찾기 전에는 안 간다고 버틴다. 그러자 송여사는 아버지가 집에 와 있다고 달랜다. 이에 경찰에서는 더욱 의심한다.
- ⑬ 季節風(223~239회): 박철웅 등이 검거돼 온 세상이 떠들썩하다. 심장병 등으로 부인 길여사가 입원한 와중에 양미리를 만나 곧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씩씩해하던 차에 안박사는 송여사가 간첩사건에 연루돼 검거됐다는 기사를 접하고 걱정한다. 한편 현수로부터 피해 입은 윤주옥은 그를 고발한다. 신문에 온통 현수 관련기사로 떠들썩한 와중에 길여사가 사망한다.
- ⑭ 사랑의 風俗圖(240~255회): 안박사는 양미리의 작품전람회에 갔다가 그녀 약혼남을 만난다. 미리의 청첩장을 받고 나서 안박사는 상훈에게 애련과 결혼해도 좋다고 한 뒤 송여사 담당 판사를 만나 보석신청에 대해 의논한 후 귀가한다. 그날 미리가 일을 꾸며 그녀와 안박사는 여행을 함께 가게 된다. 열차를 타고 대구를 거쳐 해인사로 갔는데, 그곳의 여관에서 함께 밥을 맞는다. 저녁과 함께 술을 마시며 미리는 자기가 안박사를 사랑하는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그대로 결혼하는 건 위선이라며 육체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의 뜻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튿날 귀경하여 방에 틀어박혀 지내던 안박사는 미리의 결혼식에 잠깐 얼굴을 내밀었다가 송여사 면회를 갔는데 애련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은 상훈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현수의 면회를 온 것이라 한다. 송여사 면회를 하라는 간수의 부름에 안박사는 펑 상기된다.

28. 김말봉 「歡喜」

- ① 선물(1~30회): 졸업을 앞두고 취직 안돼 걱정하는 오상권은 주인집 딸 찬애로부터 그녀아버지가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는다. 함께 영숙네 집서 열리는 파티장에 갔는데, 찬애는 상권이 김순영에게 호감받는 걸 불쾌해 하다가 파티 중 몰래 빠져나온다. 상권이 귀가해보니 찬애식구들도 없고 가구들도 거의 치워져 있었다. 밤에 소경인 청허가 와서 모두 찬애 외가쪽으로 갔을 것이라 말하며 그집에서 자신이 살게 됐다고 한다. 이를

날 김인희가 순영의 집을 가리켜달라기에 데려다준 상권은 소매치기를 붙잡게 된다. 가방주인 여자는 영화배우 옥설란이었는데 상권에게 호감을 갖는다. 옥설란은 그를 집에 데려가서 외투를 맞춰준다며 사람을 부른다. 그 와중에 순영이 다녀간다. 상권은 옥설란에게 취직하고 싶다고 말한다.

- ② 摸索(31~61회): 잠시후 시나리오 작가 장우철이 방문하니 상권은 빠져나간다. 하숙으로 돌아간 상권은 장님 청허가 사랑하던 옥순과 서로 결혼할 수 없게 되자 연못에 빠져죽었고 그도 자해해서 눈을 못보게 됐다는 고백을 듣는다. 인희와 옥설란은 우연히 만나 술마시고 춤추다가 옥설란의 집에 가서 그녀가 나체를 보여준다. 잠시후 순영과 상권이 방문하니 화장실에 있던 인희가 나오지 못한다. 그 와중에 중년남자가 찾아와 옥설란과 키스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인희의 아버지 김찬국이였다.
- ③ 외로운 사람들(62~82회): 인희는 택시기사가 안내하는 영산 요정에 들어가 기생과 술을 마신다. 옷벗으라는 요구에 기생이 주저하자 인희는 핫김에 유리컵을 쥔다. 그때 마담이 들어와 대화하다가 그녀가 아버지 첩인 줄 안다. 마담 영산홍은 준이라는 청년을 사랑했는데 그 집안 반대로 뜻을 못이루자 학교를 그만두고 기생이 되었고, 25살에 김사장과 살림을 차렸다. 상권을 본 영산홍은 그가 준과 너무 닮았다고 느낀다. 그녀는 상권에게 취직자리 알아보겠다고며 요정으로 찾아오라고 한다. 인희는 마담을 어머니처럼 여기기로 하고 꽃다발 들고 찾아간다. 그러나 마담이 상권과 다정하게 있음을 알고 불쾌해진다. 영산홍이 청허를 냉대하는 것을 본 인희가 청허를 밥상에 내동댕이치고 가버린다.
- ④ 屈曲(83~122회): 어머니가 영양실조로 시력장애가 되자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던 순영은 인희의 소개로 김찬국의 비서로 출근한다. 상권은 옥설란이 배우가 돼보라고 권하자 주저하다가 영산홍을 만나러 간다. 상권이 들어가니 영산홍이 김사장과 함께 있었다. 그에게 일행이 있다는 말을 듣고 김사장이 밖에 나가보니 옥설란이 있기에 다소 시비가 벌어진다. 한편 찬애가 옥설란을 찾아와 배우가 되겠다고 하자, 옥설란은 당분간 함께 지내자고 한다. 옥설란이 찬애를 여배우모임에 데리고 나갔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상권과 마주치기도 한다. 상권은 옥설란 소개로 감독을 만나고 있는데 김사장의 노골적인 접근을 잠시 피해 순영과 맞닥뜨린다. 그녀가 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걸 알고 상권은 배우라도 돼야겠다고 생각한다. 김사장은 순영에게 흑심을 품고 약속한 월급이상을 선불로 준다. 찬애가 옥설란 집에 있는데 김사장이 찾아온다. 찬애가 김사장에게 배우가 되고 싶다면 리브신 등을 해보이자 그는 찬애의 육체를 탐한다. 찬애가 기지를 발휘하여 아래층으로 내려온 순간 옥설란이 귀가하자, 사연을 눈치챈 옥설란은 찬애인 척 접근하여 다이아반지를 얻어낸다. 속았음을 안 김사장은 옥설란에게 주었던 보석들을 찾아 가버린다.
- ⑤ 十字路(123~158회): 순영은 인희의 청혼을 거절한다. 옥설란은 보석 찾는 일에 협조해달라고 순영에게 부탁한다. 순영은 인희와 함께 맨스홀에 갔다가 상권과 옥설란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나와버린다. 이튿날 김사장이 다이아반지를 준다며 유혹하자 순영은 옥설란과 작전을 짠다. 옥설란은 상권을 중국집에 오게 해서 결혼하자며 육탄공세를 퍼다가 집으로 데려갔는데, 마침 찬애와 순영이 있어 뜻을 못 이룬다. 이튿날 김사장과 인천에 함께 간 순영은 김사장이 차관에 수면제 탄 걸 눈치채고 마신 뒤에 억지로 구도한다. 침실에 간 뒤 옥설란과 역할을 바꿨으나 김사장이 옥설란임을 눈치채고 가버린다. 이튿날 순영은 회사로 나가 사표를 내자 김사장이 반지를 주겠다고 꺼내다가 그것이 없어진 줄 알고 영산홍이 챙긴 것으로 짐작한다. 영산홍은 영화를 설립하여 상권에게 사무를 담당케 하고, 순영도 영화사 타이피스트로 채용하고는 그들을 짝지어주려고 한다.
- ⑥ 운명(159~182회): 순영이 순실여사(영산홍) 집에 초청돼 방문했는데 청허가 옥순의 냄새가 난다며 순영에게 관심갖는다. 순영이 귀가한 뒤에 10시가 넘어서야 상권이 방문하자 순실여사는 꾸밈은 뒤 청허와 함께 자게 한다. 잠자던 중 상권의 목을 청허가 조르고 순실여사가 말한다. 청허는 상권이 어머니의 사랑과 순영을 맞아 갔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 그 며칠 후 찬애는 배우선발시험에 응시했으나 최종심에서 떨어지고, 인희를 만나 약혼키로 한 뒤 김사장 회사에 취직하려다가 김사장의 정체를 알고 놀란다. 옥설란은 반지도 뺏지 못하고 주연도 뺏기게 되어 상심했으나 상권만은 꼭 차지하겠다고 버린다. 그녀는 용돈을 얻어내기 위해 김사장을 방문케 해 관계를 갖고 50만환을 얻는다. 상권은 그녀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녀를 만나나 결국 그녀에게 넘어가서 동침한다. 이튿날 순영이 옥설란을 방문했다가 상권을 보고 실망하여 돌아간다. 상권은 뒤늦게 출근했는데 순영자리는 비어 있었고 순실여사로부터 질책당한다.
- ⑦ 새벽(183~217회): 배회하던 순영은 인희를 만나 약혼하자며 함께 인천에 간다. 호텔에 갔으나 성관계는 갖지 않는다. 함께 귀가한 순영은 상권에게 인희와 약혼했다고 말한다. 인희는 순영이 핫김에 자기와 약혼했음을 알고 나가버린다. 상권이 용서를 구하지만 순영은 다신 안 만나겠다고 한다. 순실여사는 순영에게 딸이 돼달라며 상권과 결혼하길 권하며 상권과 결혼하면 재산을 모두 주겠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청허는 적개심을 품는다. 아버지의 폐광에서 우라늄이 발견돼 부를 소유케 된 찬애는 인희와 동침하며 결혼을 약속한다. 이튿날

옥설란이 회사에 찾아와 상권이 안 만나준다고 행패를 부리고 간 뒤 순실여사가 쓰러진다. 그날 저녁 상권은 순실여사 집에서 순영과 함께 식사한다. 뇌일혈로 판정받은 순실여사는 상권에게 순영과 결혼할 때 끼워주라며 반지를 준다. 한밤중에 불이 나자 상권이 순실여사를 안고 나온다. 불을 지른 청허는 연못에 빠져죽는다. 새벽이 되자 불길에 잡히고 순실여사는 이미 숨이 끊어진 가운데 상권이 순영에게 반지를 끼워준다.

29. 김광주 「黑白」

- ① ‘러브신’(1~10회): 주연배우 공미주가 늦게 나타나는 바람에 최명훈 감독은 화가 났다. 그렇지만 그녀 아버지 공창수의 도움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터라 꼭 참고 촬영을 진행한다. 그런데도 미주는 불손하기 그지없다. 최감독이 촬영을 멈추자 미주는 그만둔다고 한다. 그녀가 노골적으로 화를 내자 최감독이 대본으로 그녀의 어개를 내려치는데, 그녀는 마침 딸의 촬영현장을 구경은 공창수내외의 차를 타고 귀가해버린다.
- ② 내게 맡겨라(11~20회): 이튿날 오전 이층에선 공부인이 마담들과 도박을 하고 있는데 유신영화사 김성환 주임 등이 공창수를 방문한다. 김성환 등은 공창수에게 사과하면서 최감독을 교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공창수는 그럴 필요 없다며 용돈과 제작비 2차분을 주더니 최감독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다.
- ③ 夜景(21~30회): 영화사 간부들이 바에서 술마시며 최감독에게 적당히 하라고 말한다. 그 건물 3층의 무도장에는 선숙과 함께 갔다가 혼자 남은 미주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이일성과 춤을 춘다. 미주는 최감독에게 한 인간으로 자기를 대하라고 말하나 최감독은 허영을 버리라며 뿌리치고 간다.
- ④ 곰같은 사나이(31~40회): 토요일 아침 공창수는 김성환에게 전화하여 저녁 때 최감독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다. 약속장소인 청풍각에 늦게 나타난 최명훈은 유비서가 준 수표를 되돌려보내고 가버린다.
- ⑤ 보슬비(41~50회): 최감독은 보슬비 오는 거리를 걷던 중 미주를 만난다. 청풍각에서의 일을 모두 봤다는 그녀는 최감독의 가슴에 안기며 매정하게 대하지 말라고 한다. 최감독은 인생이니 사랑이니 하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라며 가버린다. 한편 공창수는 깡패두목 황룡에게 최감독을 혼내달라고 부탁한다.
- ⑥ 幽靈의 집(51~60회): 가정집에서 밤늦도록 댄스교습하다 경찰에 붙들려가 허룻밤 동안 조사받고 풀려난 이일성은 다방에 들러 공부인을 만난다. 그녀는 위로하며 돈을 준 뒤 병원에 가 있겠다며 연락하라고 한다. 한편 감독이 교체된 가운데 미주도 남예성이란 예명으로 영화촬영에 참여한다. 세트 촬영을 마친 날 미주 집에서 축하파티가 열리는데 아버지는 출장가고 어머니도 며칠째 귀가하지 않아 다소 우울해 있던 미주는 아버지가 돌아오자 즐거워진다.
- ⑦ ‘차일드 우먼’(61~70회): 최감독은 하숙집 동료 안수인과 술을 마신다. 촉망받는 테너가수였던 안수인은 전쟁 때 한쪽 눈을 잃고 얼굴에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생겼다. 최감독은 수술비를 낼 테니 성형수술을 하라고 한다. 그러던 중 최감독은 신변을 노리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정체불명의 편지를 받는다. 한편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촬영 중인 미주는 최감독이 촬영차 부산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린다.
- ⑧ 狂風怒濤(71~80회): 밤에 손춘호가 찾아와 미주를 구슬리자 그녀는 옷갈아입고 따라나선다. 춤추고 술마시며 놀다가 춘호가 입을 맞추더니 드라이브를 가자고 한다. 한편 그날 부산에 도착한 최감독은 우연히 그녀의 옆방에 묵게된다. 잠을 청하던 최감독은 미주와 사내의 목소리를 듣고 난간을 통해 건너가 엿보니 청년(춘호)이 미주를 범하려 하고 있었다.
- ⑨ 絶壁(81~90회): 최감독이 창문으로 들어가 춘호를 가격하니 둘이 결투가 벌어진다. 미주가 밖으로 나가 종업원을 부르러 간 사이 그들이 싸우면서 밖으로 나오게 되고 숨어있던 춘호 패거리에게 최감독이 얻어맞는 순간 종업원들이 올라온다. 최감독은 영화인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해서 끼어들었다고 말한 뒤 병원으로 향한다.
- ⑩ 魔力(91~100회): 공부인은 환자도 아니면서 이일성과 한 병실에서 동침한다. 공창수는 유비서에게 지금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팽선생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는다. 유비서는 부인문제의 흑백을 빨리 가리기 위해 얼마간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조언하니 공창수는 미주의 영화가 완성되면 나가겠다고 한다. 한편 전진동 감독과 미주가 최감독의 문병을 한다. 전감독은 춘호의 아버지가 부산영화계를 쥐락펴락하는 손감성임을 알고 당황해 하다가 이번 사건이 오히려 흥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김성호와 함께 흥행계획을 세운다.
- ⑪ 天惠의 女優(101~110회): 김성호는 미주에게 손감성이 개척하는 파티에 참석하라고 한다. 파티장에 손감성의 일행에 이어 영화사간부와 배우들이 등장한다. 손감성은 미주가 늦는다는 말에 다소 서운해 하며 인사말을 한다.
- ⑫ 騷亂한 埠頭(111~120회): 항도신문 오국주 사회부장은 손감성에게 미주가 호텔에서 나와 서울로 갔다고 전한다. 관계자들이 부산역으로 갔으나 끝내 그녀를 찾지 못한다. 미주는 파티에 불참하고 최감독이 입원중인 병원으로 간다. 그러나 그가 차갑게 대하자 거기서 나와 남포동의 카바레에 앉아있던 중 춘호 일행을 보고 마시던 콜라를 뿌린다.

- ⑬ 動中靜(121~130회): 미주와 춘호일행의 시비가 시작되는데 경찰이 춘호 등을 연행해 간다. 김성환이 손갑성에게 간밤의 사태를 전하자 손갑성은 영화사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테니 고소와 보도를 막아달라고 한다. 이때 숨어있던 미주가 나타나 흥행 잘해보라며 가버린다. 이튿날 석간에 그 사건이 상세히 보도된다.
- ⑭ 蕩婦의 男便(131~140회): 사요일후 최감독이 안수인의 편지를 받는다. 수인은 수술경과에 대해 말한 뒤 옆의 병실에서 남자가 정사별이는 소리를 들었는데 공부인과 어떤 청년이었다며 공씨집안이 매우 어렵다는 사정을 들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자신은 사회사업에 투신할 것이며 독창회도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한다. 한편 공창수는 고관 팽씨의 비협조로 자금난에 시달려 고전하는 현실에 절망한다.
- ⑮ 그 어머니, 그 딸(141~150회): 미주는 대천해수욕장에서 이일성과 만나 그가 어머니와 관계있음도 모르고 즐긴다. 일성과 춤추던 그녀는 밤을 함께 지내자는 말에 속소로 가버린다. 공창수는 회사사정이 점점 어려워지자 해외도피 결심을 굳히면서 유비서에게 빨리 대천에 가서 미주를 데려오라고 한다.
- ⑯ 海罰(151~160회): 이튿날 대천으로 미주를 찾으러 가던 유비서는 이일성을 찾으러가는 공부인과 우연히 동행한다. 해수욕장의 호텔을 뒤지던 중 공부인은 이일성의 객실을 확인하고 그 옆방에 숙소를 정한다. 결국 미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성을 어머니에게 소개하는데, 그날 밤 일성은 그들 몰래 호텔을 떠난다. 그가 떠난 후 미주가 일성과 함께 잔 것을 안 공부인은 모래사장으로 뛰어가다가 쓰러진다.
- ⑰ 落葉(161~170회): 달포가 지나도록 공부인의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미주와 유비서는 상경하여 해외도피하는 공창수를 전송한다. 달포가 지나도록 공부인의 소식은 모른 채 유비서집에 얹혀 살던 미주는 공부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는다. 병원에서 어머니의 실성한 모습을 확인한 미주는 뛰쳐나와 배회하던 중 자기가 주연한 영화를 보러 갔다가 관객들의 혹평을 듣다 못해 나와버린다. 그때 영화사관계자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걸 보고 빠져나와 거닐다가 춘호를 만나 스탠드바에 함께 간다.
- ⑱ 破鏡(171~180회): 중간에 수면제를 산 미주는 춘호와 술마시고 춤추다가 함께 호텔을 들어간다. 미주는 수면제 탄 맥주를 그에게 먹이고 그가 잠들자 돈을 훔쳐 나온다. 그날 밤 황룡은 맥주홀에서 행패부린다.
- ⑲ 厄運(181~190회): 최감독이 조용하라고 하다가 황룡의 주먹에 맞아 병원에 실려 갔는데 마침 최선숙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원이었다. 얼마 후 미주가 황급히 들어와 선숙에게 재워달라고 한다.
- ⑳ 離合(191~199회): 속았음을 안 춘호는 미주를 찾다다닌다. 춘호에게 병원에 있는 사실을 들리게 되자 도망갔던 미주는 그날 밤 붙잡힌다. 이튿날 안수인은 성형수술, 최감독은 영화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고, 미주는 춘호와 동거하며 딸을 낳았으나 춘호는 도박 아편 때문에 죽는다. 공창수는 1년전 귀국해 유비서집에서 누워 지낸다. 다음해 12월 최감독이 영화를 만드는데 미주를 주연으로 삼게되고, 안수인의 독창회가 성황리에 열린다. 그 이듬해 안수인과 최선숙이 결혼식을 올린다.

30. 손소희 「太陽의 詩」

- ① '상리라'의 주민들(1~13회): 율희는 학교에 다녀온 뒤 상리라 다방에 가서 숙의와 민식을 만난다. 셋이 리베라 술집에 가서 술마시다가 거기 있던 민식 형 민우를 만나 호텔 스카이라운지에 가서 대화한다. 귀가한 율희는 낮에 신문에서 본 부자가 얼어죽은 기사를 생각하며 글썽하는데, 민식이 찾아와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묻자, 친구이상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답한다. 민식이 간 후 율희는 스스로 머리를 짧게 자른다.
- ② 보헤미안의 城(14~26회): 이튿날 율희는 남장하고 외출한다. 매춘부를 만나 그녀에게 도망가게 해 주겠다고 하나 그녀가 도망가면 뭐하냐는 말을 듣고 그냥 나온다. 다음 두 거지아이를 만나 돈을 주며 왕초를 만나고 싶다고 하나 거절당한다. 이튿날도 율희는 학교 다녀온 후 남장하여 그 거지아이를 만나다가 경찰서에 연행된다. 경찰은 율희가 여자임을 알고 더욱 의심하여 그녀를 유치장에 가두고 하숙집 수색을 하고는 숙의에게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한다. 이에 숙의는 민우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뜻밖에 민우는 변호사였다.
- ③ 花信(27~39회): 율희는 거지소굴을 고아원 만드는 데 도움주고 싶었다고 진술하고 석방된다. 이튿날 율희와 숙의가 다방에 갔더니 민식은 하편과 결혼하기로 했다고 밝힌다. 그 다음 날 율희는 숙의와 함께 고마움을 표하려 꽃사들고 민우 사무실로 갔다가 집에 있다가 집으로 찾아간다. 서재에서 '無慕'라는 글자에 관심을 갖자, 민우는 전쟁때 쓴 것인데 어려운 일을 잊고 살자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민우는 율희에게 사랑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때 민식이 방문하여 약혼비용 5만원을 달라면서 율희에게 몇마디 쏘아부치고 간다.
- ④ 봄노래(40~55회): 민식은 하편에게 백금반지를 끼워주며 사랑의 맹세를 한다.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민우를 만난 율희는 자기 자존심 한부분은 밀쳐도 좋다며 목련을 선물한다. 민우는 그녀의 남장행각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다고 말한다.
- ⑤ 靑春去來(56~71회): 율희는 어머니 안여사의 요구로 제일교포 사업가 아들인 김훈구와 맞선을 보게 된다. 식

사가 끝나자 율희가 약속이 있다며 먼저 일어나는데 훈구가 바래다주겠다고 택시를 잡는다. 그런데 그 택시에서 민우가 두 여인과 함께 내리는 걸 보고 율희는 불쾌해진다. 늦게나마 약속장소에 갔으나 남도일이 없어서 훈구와 함께 인천으로 드라이브를 간다. 훈구는 차속에서 꽃다발과 초콜릿 등을 그녀에게 선물한다. 훈구는 자기와 결혼할 수 있는지 생각해 달라고 한다. 귀가하는데 집앞에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 ⑥ 薰風과 함께(72~87회): 민우는 자기 차에 율희를 태운 뒤 꽃다발과 초콜릿을 모두 던져버린다. 그는 택시에서 함께 내린 여인들은 사건의뢰인이었으며, 자기집 정원으로 그녀를 데려간다. 율희를 위해 분수를 만들었다는 그는 「분수」라는 시를 율희에게 암송케 한 뒤, 그녀를 껴안고 민식보다 먼저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불이 켜진다. 방금 들어왔다는 민식은 「분수」는 자기가 고교때 신문의 학생문예에 발표한 시라며 비아냥 거린다. 통금시간이 되어 서둘러 귀가했는데, 안여사에게 추궁당한다. 고아아이들 때문이라 둘러졌지만, 안여사는 그녀를 대전으로 데려간다. 대전가는 열차속에서 뒤쫓아 왔다는 훈구와 동승하게 된다.
- ⑦ 毒없는 가시(88~98회): 대전날 날 밤 율희는 학교 그만두고 결혼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그럴 수 없다고 한다. 이튿날 집에 찾아온 훈구에게 율희가 민우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을 말하니 그가 수긍하며 협조하겠다고 한다.
- ⑧ 出口없는 憤怒(99~108회): 결혼 일주일전 민식이 처음으로 하련 자취방에 갔는데 도일이 와서 하련에게 와이셔츠를 달라고 한다. 셋이 술을 마시다가 통금이 가까워지자 도일이 자고 가겠다고 하기에 불쾌한 민식이 나가려는데 하련의 만류로 결국 셋이 한방에 자게 된다. 그런데 잠들었던 민식은 하련이 도일을 껴안고 호느끼며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된다. 민식은 그녀의 뺨을 때리고 나와서 자유를 느낀다.
- ⑨ 太陽의 詩(109~117회): 며칠 후 율희 부녀와 훈구는 같은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이튿날 훈구가 동경으로 떠난다. 율희 아버지는 아직 그들이 결혼하지 않기로 했음을 모르고 있다. 율희는 민우와 함께 그의 집에 가서 사랑을 확인한다. 그런데 이미 들어왔다는 민식이 기척이 없자 잠긴 방문을 열어 들어갔더니 그는 방 가득 흩어진 꽃다발 위에 엎어져 음독자살한 상태였다. 장례식이 끝나 반달 후 처음 만난 율희와 민우는 민식의 묘에 참배를 한다. 율희는 민식의 죽음이 자기 책임이라면서 슬픔을 이겨내겠다고 다짐한다.

31. 안수길 「浮橋」

- ① 密會(1~17회): 김남주 집을 방문한 최지애가 남주어머니 이정순 여사와 임동호 선생간에 혼담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연극을 꾸며 둘이 만나게 한다. 그러나 이야기는 남주에게 대신 나가게 하여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다. 지애와 강득수가 식사하러 갔다가 임선생과 남주가 함께 있는 걸 보는데 득수는 꼴불견이라며 함석하지 않는다.
- ② 憂國老人(18~34회): 득수 할아버지제삿날 친척들이 많이 모였다. 득수 아버지인 강지규 노인의 딸말 수원택과 둘째며느리 옥순엄마는 득수의 생모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강노인은 하르빈에서 사업할 때 유치원 보모 정선비와 관계를 맺어 득수를 낳았는데, 주변에서 그 사실을 숨겨왔다. 그러나 정선비가 전쟁때 월남하여 최근에는 득수와 만나는 소문이 들려온다. 정선비는 요정을 하면서 남주아버지 김춘배의 정부노릇을 하고 있다. 득수의 중매인이 화제에 오르는데 신부감은 김남주다. 통금직전 들어온 득수는 제사 지내면서도 지애가 자신을 우정관계로 대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 생각한다.
- ③ 소탈한 사람(35~50회): 임선생에게 지애가 신문기자 됐다며 방문하여 취재와 원고청탁을 한다. 뒤이어 옥순 모녀가 와서 옥순을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간다. 제대에 임박해 휴가나온 아들 용기가 용돈을 받아 나가는데, 임선생 부인 윤혜숙 여사는 용기를 결혼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말한다. 저녁때 임선생 가족은 율희의 선생 박기택이 주연하는 오페라 구경갔다 남주를 만나 인사한다. 용기는 그녀에게 호감을 갖는다.
- ④ 苦悶(51~65회): 귀가한 남주는 이어서로부터 강노인집과의 혼담에 관해 듣고는 결혼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한다. 이야기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놀다가 요릿집 마담과 싸웠다는 소문 들었다고 말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때 김춘배가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정선비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정선비는 전쟁중에 부산에서 김춘배를 만나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 ⑤ 交流(66~81회): 옥순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강노인이 찾아와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데, 임선생은 자신의 친구였던 명수가 그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 지애와 함께 그룹 모임에 갔다가 남주와 함께 나오던 임선생은 간호원으로 근무하다 3년전에 결혼차 그만둔 금희를 만난다. 그녀는 수심이 있는 얼굴이었는데 지애네 옆집에 살고 있었으며, 그녀 남편 윤태섭도 만나게 된다. 남주는 독주회를 가지고 싶다고 임선생에게 말한다.
- ⑥ 愛情의 論理(82~101회): 김춘배가 정선비에게 발길을 끊은 지 달포가 지난 가을, 집 처분 문제에 대해 정선비 모녀가 얘기하던 중 득수가 방문한다. 득수는 고모로부터 ‘개구멍반이’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선비에게 요정 그만두라며 나간다. 그는 친구 P를 만나 권투구경을 갔다가 임선생 만나 인사한다. 득수와 P는 바에 들어갔다가 돈이 모자라 하던 중 마침 들어온 임선생이 계산해준다. 득수는 그 길로 지애 집으로 가서 우

정이 아니라 애정이라며 그녀를 껴안는데 술깨고 오라는 그녀의 말에 뺨을 때리고 귀가한다. 가위눌리는 꿈을 꾸고 난 이튿날 아침 자신의 행동에 후회한다.

- ⑦ 不協和音(102~123회): 남주는 지애와 함께 덕수궁에 들어가다가 기택을 만나 동행한다. 지애는 간밤의 득수와 의 일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론 황홀감도 느꼈다고 한다. 남주는 아버지가 정선비와 함께 중국집에서 나오는 걸 본다. 귀가한 남주는 중매장이가 놓고 갔다는 사진의 주인공이 득수임을 보고 놀란다. 그때 지애가 찾아와 득수사진을 보더니 둘 사이를 오해하여 가버린다. 이튿날 병원으로 임선생을 찾아가던 남주는 지애와 절에 갔다는 용기의 말에 그와 함께 찾아나선다. 절에 가보니 산책 나갔다가에 산으로 찾아다니면서 둘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
- ⑧ 距離(124~134회): 금희의 고모가 위독하다는데도 태섭은 남주를 만난다. 남주와 태섭이 독주회 장소 얘기하던 중에 지애를 만나는데 지애는 자기의 이름을 팔아 남주와 다닌다며 오해하고 가버린다. 남주는 울적한 마음에 태섭과 영화구경하다가 제자를 만나자 태섭을 경계한다. 한편 금희는 그들이 극장에 들어가는 걸 우연히 보고 귀가한 태섭을 추궁한다. 태섭은 오히려 금희에게 임선생을 섬기지 않냐며 공격한다.
- ⑨ 圓周(135~145회): 임선생은 용기가 남주를 좋아하고 있음을 느낀다. 임선생은 금희의 요청으로 그녀를 만난다. 그녀는 남편과의 문제로 고모집에 가 있다며,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말한다. 임선생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지 말라고 충고한다.
- ⑩ 염소(146~160회): 정선비는 집을 팔아 청량리 밖에서 염소치며 살기로 했다고 득수에게 말한다. 지애를 만난 득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진이 남주에게 건네졌음을 말하자 둘은 그것으로 인해 오해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득수는 술취해 껴안은 일 등에 대해 사과하고 지애는 경솔한 오해에 부끄러워한다. 며칠 후 득수가 생모를 만나니 그녀는 염소치우는 것과 함께 염소젖 파는 밀크홀을 하겠다고 하며 함께 가게를 보러 간다.
- ⑪ 아름다운 싸움(161~177회): 남주의 독주회가 태섭의 경제적 도움과 기택의 찬조출연 등으로 성공리에 끝난다. 용기는 남주에게 축하인사를 건네고 사랑을 쟁취할 방안을 강구한다. 평론가들의 독주회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주는 지애의 전화를 받고 그녀와 득수를 만나, 사진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된다. 지애는 득수에게 결혼하자고 하며, 득수는 그녀에게 입을 맞춘다.
- ⑫ 私生兒(178~190회): 기택의 방문을 받은 임선생은 정선비의 밀크홀 '염소장'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기택은 남주와 결혼하고 싶으니 그녀의 의향을 떠봐달라고 부탁한다. 혼담이 나오자 지애 집에서는 득수에게 요청을 했던 생모가 따로 있음을 알게 된다. 어머니로부터 그 사실을 들은 지애는 남주를 찾아가 의논하니 일단 득수와 만나서 왜 숨겼는지 물어보라고 한다.
- ⑬ 바람개비(191~203회): 임선생은 어느날 강노인, 득수와와의 관계 등을 정선비로부터 들어 알게 된다. 남주는 임선생 만나러 병원에 갔다가 '염소장'에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 갔다가 그가 아버지 정부와 다정히 얘기하는 걸 보고 놀란다. 남주는 그녀가 득수 어머니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남주는 임선생에게 기택과의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듣는다. 지애는 염소장에 가서 정선비를 보고 나서 득수를 만나니 그는 언젠가 말하려 했지만 지애가 떠날까 염려했다면 어머니가 나쁜 여자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지애는 자기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한다.
- ⑭ 煙氣(204~218회): 기택과 용기 사이에서 갈등하던 남주는 합의이혼키로 했다는 태섭으로부터 청혼을 받는다. 때마침 용기도 결혼하지는 편지를 보내온다. 지애는 조건 좋은 청년에게서 중매가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그쪽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한다. 한편 청혼을 거절하는 편지를 남주로부터 받은 태섭은 만취해 가게에 가서 화김에 피아노를 치던 중 정전이 되어 촛불을 켜는데, 모르는 사이에 잠들어 남주와 함께 있는 꿈을 꾸다 깨어보니 가게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 ⑮ 對岸(219~230회): 지애 삼촌은 형수의 부탁을 받았으며 득수에게 지애를 단념하라 한다. 신문사를 그만 둔 지애는 득수를 만나 행동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편 태섭은 화제로 중화상을 입어 입원했는데 금희를 만난 임선생은 태섭에게 돌아가길 권한다. 임선생이 염소장에 가서 정선비와 웃으면서 대화하는데 그걸 본 득수가 중년세대를 비방하며 큰소리친다. 이때 정선비가 그의 뺨을 때리자 득수가 뛰쳐나간다.
- ⑯ 探求하는 姿勢(231~254회): 딸이 없어졌다며 찾아온 지애어머니를 만난 남주는 득수가 좋은 청년이라고 말한다. 그시각 강노인은 임선생을 만나 득수의 가출 사실을 말하는데, 임선생은 정선비가 사흘전에 종적을 감춘 뒤 득수를 위해 사라진다는 편지를 보내왔음을 전한다. 마침 남주가 지애어머니와 함께 찾아오자 임선생은 두 노인을 설득하여 혼사를 성사시킨다. 임선생이 태섭에게 문병가니 그는 자업자득이었다며 사과하고, 간호하던 금희는 그의 걸을 떠나지 않을 뜻을 밝힌다. 한편 정선비는 옛동료가 경영하는 부산의 복지모자원에 찾아가 함께 일하기로 한다. 강노인은 임선생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익명으로 모자원을 돕겠다고 하고 득수는 어머니

니를 만나러 간다. 열흘 후 남주는 기택과 약혼식을 올린다. 피로연에 참석하고 나오던 임선생은 지애와 득수로부터 약혼식없이 바로 결혼키로 했으니 주례를 맡아달라고 부탁받는다. 귀가한 임선생은 용기와 함께 술을 마시며 할 일이 많지 않라며 위로와 충고를 한다. 이튿날 임선생 가족은 인천바다로 향한다.

32. 김영수 「水河」

- ① 아침의 對話(1~9회): 며칠만에 집에 들어온 최건호가 자식들(난주와 옥)의 사정에 무심한 것을 보며 경애는 이십여년을 어떻게 저런 남자와 살아 왔는지 눈앞이 캄캄하다. 건호가 돈을 주고 나간 뒤 경애도 외출했다가 난주를 만나 같은 잡지사 근무하는 김창수를 소개받는다. 그 후 경애는 남편이 젊은 여자와 지나는 걸 보고 나서 친정에 가 있기로 한다.
- ② 危險한 年齡(10~20회): 난주는 친구 채금희와 송은숙 그리고 창수를 집으로 초대한다. 건호는 집에 들러 옷갈아입고 나가면서 경애가 사흘째 집에 안 들어온다는 말을 들어도 무관심하다. 더구나 그는 젊은 여자를 밖에 세워둔 차에 대기시켜 놓은 상태였다. 파티가 시작되어 난주는 못마시던 맥주를 연거푸 들이켜 취해 집을 나간다. 그걸 본 옥이는 식모에게 이만환을 빌려 여행가방을 챙겨나가며 열흘동안 안 들어오겠다고 한다.
- ③ 動搖(21~31회): 친정에 있던 경애는 건호를 잘 안다는 손가가 창배(경애오빠)를 만나러 오는 것이 싫다. 어느날 미장원가던 경애는 여학교 동창 차보배를 만나는데 그녀는 유치원에 피아노 기증받기 위해 건호를 만나러 가겠다고 한다. 그 후 경애는 손가에 이끌려 요정에 갔다가 기생이 건호에 대한 말하는 걸 듣고 먼저 나온다.
- ④ 슬픈 寢室(32~40회): 주마담과 지내다가 귀가한 건호는 아이들이 집나간 지 닷새가 됐다고 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그는 잠자리에서 잠시 경애에게 집적거리다가 잠에 푹아떨어진다. 경애는 굴욕감을 느낀다.
- ⑤ 密會(41~49회): 며칠째 창수방의 옆방에 묵으며 함께 출근하던 난주는 어느날 집에 들어오라는 경애의 전화와 편지를 받는다. 난주가 조퇴해 버린 뒤 회사에 온 경애는 창수를 불러내 점심을 같이 하고 중국집에 가서 맥주까지 사 주고 나서 난주에게 자기를 만났다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한다. 회사에 들어간 창수는 난주에게 전화를 받는데, 그녀는 귀가하겠으니 그간 어디서 묵었는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 ⑥ 出版記念會(50~59회): 난주와 옥이 귀가한 며칠 후 경애는 창수의 초대장을 받고 창배의 출판기념회에 간다. 행사가 끝나 창수와 경애 모녀가 함께 거리에 나섰다가 난주가 만날 사람 있다며 빠지자, 둘이 바에 들어가게 된다. 창수가 권하는 바람에 경애는 맥주를 마시게 되고, 결혼 안 하냐는 말에 창수는 경애같은 사람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한다.
- ⑦ 宣言(60~72회): 난주와 창수가 바에 들어가 술마시는 걸 본 난주는 사흘간 회사도 안 나가고 누워지낸다. 그러다가 창수가 방문한다는 전화를 받고 금회집으로 놀러가버린다. 그리고 금회 오빠 진구를 만나 영화구경한다. 그는 난주를 아버지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한다. 한편 창수는 난주를 찾아왔다가 그녀가 없자 경애와 함께 맥주를 마신다. 그러다가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자 창수가 경애를 붙들고 춤추자고 하는데 마침 들어오면서 그걸 본 난주가 자기도 하고픈 대로 하겠다고 호느낀다.
- ⑧ 無防備(73~79회): 이튿날 진구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 회사 비서와 결혼하라는 말을 듣는다. 그가 아버지에게 난주의 취직을 부탁하니 지금은 자리에 없다고 한다. 난주가 방문하자 금희랑 셋이서 포도주를 마시다가 금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진구가 난주를 껴안고 입맞춘다. 진구는 사랑한다며 나중에 정식 청혼하겠다고 한다.
- ⑨ 그리운 사람(80~88회): 우편으로 사표를 내고 집에 있던 난주는 창수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 후 진구를 만나러갔는데 마침 옆좌석에 있던 창수가 오해하고 있다고 변명하는 걸 외면해버린다. 진구가 취직 자리 마련했다며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아버지 채상선에게 인사시킨다. 안방으로 진구를 부른 상선은 그녀와 가까이 말라고 한다. 난주를 바래다주던 진구는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한다.
- ⑩ 惡女(89~102회): 이튿날 아침 왜 회사 그만뒀느냐는 건호의 추궁에 난주는 엄마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진구를 본 건호는 그가 자기와 주마담을 놓고 쟁탈전 벌였던 상선의 아들임을 알고 어서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키자고 경애에게 말한다. 경애는 자기와 창수의 관계를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창수가 좋은 신랑감이라며 만나보라고 한다. 경애는 전화받고 창수를 만나러 가고, 건호는 주마담집으로 간다. 주마담이 부재중이어서 되돌아 나오던 건호는 손가를 만난다.
- ⑪ 밤길(103~115회): 경애가 술잘마신다는 말을 손가로부터 들은 건호는 자세히 알아보려고 요정으로 데려간다. 한편 경애는 창수가 이사할 집을 구해달라고 하자 함께 보배집으로 가서 방을 빌리기로 한다. 맥주를 마시다 취한 보배는 창수에게 의로운 경애를 잘 대해주라고 하는데 경애도 취해 잔다. 창수는 경애를 데리고 나와 자기집으로 간다. 창수가 경애를 끌어안고 키스한 뒤 그녀를 불행에서 구출하겠다고 한다.
- ⑫ 挑戰(116~132회): 11시 넘어 귀가한 경애는 못들어온다는 난주의 전화를 받는다. 이튿날 아침 난주 찾으러 나

가려는데 건호가 저녁에 손님 온다고 말하고 이사한 집에서 기다린다는 창수의 전화가 걸려온다. 금희집에 갔는데 난주가 없다고 하자 경애는 다방에 들어가 전화로 창수를 불러냈는데 마침 건호가 어떤 여자와 함께 가는 걸 목격한다. 창수를 만나 거리로 나온 경애는 친구와 함께 지나가던 난주를 만나나 난주가 피한다. 그 후 보배를 찾아갔다가 창수를 다시 만나는데 창수는 행복을 찾으라고 강변한다. 한편 경애 집에선 건호, 보배, 손가가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보배가 건호에게 피아노기증을 부탁하니 손가는 자기가 해준다고 한다. 경애가 들어오자 보배와 손가가 먼저 나가고, 부부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경애는 건호의 성관계 요구를 완강히 거절한다.

- ⑬ 青春問答(133~143회): 난주는 몰래 금희방에서 지내고 있었으나 결국 경애가 알게 된다. 친구는 난주를 만나 귀가하라고 하나, 그녀가 극구 거절하는 바람에 영친의 친구 윤여창네 집에 묵도록 한다.
- ⑭ 自己發見(144~157회): 경애가 금희집에 갔으나 난주는 이미 짐싸고 나간 뒤였다. 보배집에 갔다가 손가락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한 경애는 여자의 권리를 찾겠다며 이혼도 불사할 뜻을 비친다. 이튿날 보배집으로 갔다가 창수를 만나는데, 그는 용기를 갖고 병든 집에서 나오라고 한다.
- ⑮ 絶壁에서(158~171회): 손가가 경애에게 보배집에 자주가는 이유를 알았다며 협박하니 경애는 끼고 있던 다이아반지를 준다. 이튿날 경애는 어렵게 난주를 만나지만 난주는 병든집에서 나온 것이라며 가버린다. 보배는 손가가 독신이라고 호감을 표한다. 창수가 오자 보배가 외출하는데, 창수는 경애에게 부자연스런 필요가 있다며 그녀를 범한다.
- ⑯ 바람은 불고(172~184회): 사흘간 아무 소식없이 안 들어오던 건호는 경애를 그릴로 나오게 하여 다정하게 데리며 그녀가 손가에게 줬던 다이아반지를 선물이라며 건넨다. 경애는 창수에게 모든 걸 잊어달라고 전화한 뒤 귀가했는데, 난주가 집에 있었다. 난주가 곧 친구와 결혼한다고 하자 경애가 둘 사이에 뭘 일 없었는지 물으니 화내며 가버린다. 얼마후 귀가한 건호는 손가와 함께 일하게 됐으며 그가 다이아반지도 구해줬다고 말한다. 그때 손가가 찾아오자 경애는 옆집으로 피했다가 한참만에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억지로 합석한 경애에게 손가는 계속 협박조로 비아냥거린다. 이튿날 친구가 경애에게 찾아와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지만 극복해나가겠다고 한다.
- ⑰ 黃昏(185~198회): 그 이튿 후 건호가 손가와 함께 서류, 장부 등을 집에 갔다놓고 황급히 나가는데, 그 다음 날 형사가 그것들을 압수해간다. 난주는 건호의 밀수혐의로 구속 사실을 보도한 신문을 갖고 와서 올다가 간다. 회사로 전화했다가 창수가 이틀째 아파 못나온다는 말을 듣고 경애는 병문안 갔다가 썩 좋지 않은 기분으로 돌아온다. 얼마후 찾아온 손가는 돈을 먹었으니 곧 풀려날 것이라고 한다.
- ⑱ 꿈(199~210회): 손가가 이끌려 면회간 경애는 주마담이 면회마치고 나오는 걸 보고 돌아나온다. 그녀는 윤여창을 만나 난주가 사흘째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간다. 난주가 눈물 흘리며 하고픈 대로 하라고 흥분하기에 귀가한 경애는 석방돼 집에 온다는 건호의 전화를 받는다. 건호가 귀가하여 목욕하는 사이에 경애는 외출한다. 건호는 쾌활한 생각에 이혼할 마음을 먹으며 주마담을 찾아간다. 경애는 난주를 만나 모든 걸 고백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간다. 그러나 흥분상태이니 지금은 안 만나는 게 좋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친정에 가서,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는 편지를 난주에게 쓴다.
- ⑲ 訪問客(211~221회): 건호가 사흘간 주마담과 지내다 귀가했는데 여창이 난주의 편지를 갖고 온다. 편지 읽은 건호는 아버지 싫다고 집나간 자식 찾아서 뭐하냐고 한다. 난주가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말에 건호는 친구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한다. 얼마 후 보배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준다고 왜식집으로 안내해 창수를 만나게 하는데, 창수는 그가 건호를 보자 나가버린다.
- ⑳ 人工花園(222~236회): 친정간 지 닷새째 되던날 귀가하다가 보배를 만난 경애는 창수가 건호를 보자 말 한마디 못하고 나간 뒤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그가 남기고 간 편지를 보지도 않고 찢어버린다. 귀가했더니 육이가 자살하려고 약을 먹어 의사가 다녀가고 있었다. 건호는 모든 책임을 경애에게 뒤집어씌우는 말을 하며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회사문을 달아야 된다고 말한다. 한편 난주는 다방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귀가하는데, 친구가 집에 들어가라고 설득한다.
- ㉑ 슬픈 歸路(237~248회): 절망감을 느끼며 밤길을 걷던 건호는 주마담이 젊은 남자와 함께 가는 걸 보고 혼자 술마신 뒤 손가를 만나 편히 죽는 약을 구해달라고 한다. 이튿날 경애 모녀가 자기집에 있으니 데려가라는 상선의 말에도 건호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건호는 배회하다가 창수의 결혼식을 보면서도 그가 누구인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튿날 오후 경애모녀가 귀가하고, 흐느끼는 난주를 경애가 껴안는다.
- ㉒ 氷河(249~256회): 건호가 시름에 잠겨 밤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경애는 난주, 친구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간다. 난주는 병상의 건호를 보고 눈물 흘리며, 건호는 곁에 돌아온 모녀를 보고 만족한 표정을 짓는다. 사흘 뒤 퇴원하는 건호를 차속에서 부축하며 껴안은 경애가 애써 눈물을 참는다.

33. 정비석 「燕歌」

- ① 零號男性(1~18회): 여사무원 이숙경은 방준결 변호사가 들어오자 등을 닦아주는 등 호감을 보인다. 둘이 영하 구경 가자고 하던 중 구영희 여사가 찾아와 자기가 춤배우러 다녔다고 남편이 애인을 만들고 이혼할 구실을 만들고 있다며 도움을 청한다. 그녀의 남편은 토건회사 사장 안건식이고 요릿집 마담 채순실이 그의 애인인데, 채마담은 방변호사와도 전에 1년간 부부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 문기만이 방문하자 함께 춘우장 요릿집에 간다. 방변호사는 유혜연 마담에게, 문기만은 박미심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다. 유마담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 방변호사는 육체만 추구한다는 편견을 듣는다.
- ② 生日祝賀會(19~37회): 방변호사는 어머니 최은성 여사가 준숙 생일에 사위후보자인 한동욱과 며느리후보자인 김정옥을 초대할 계획을 세우자 질투심을 자극하기 위해 숙경도 초대한다. 준숙 생일날, 방변호사는 한동욱에게 준숙을 빨리 데려가달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김정옥에게만 애기를 함으로써 숙경의 질투심을 유발한다. 그걸 본 숙경이 일어서려 하자 술을 따라 달라며 감언이설로 못가게 한다.
- ③ 處女黃昏期(38~58회): 대실업가 딸 딸 임보희는 2년전 약혼남이 교통사고로 죽는 바람에 아직 미혼인데 방변호사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 최후까지 함께 미혼이었던 동창생이 보내온 청첩장을 받고 더 초라해진 그녀는 방변호사에게 전화했다가 숙경과 말다툼을 벌인다. 결국 방변호사와 통화가 이뤄져 만나기로 약속한 뒤 시간을 보낼 겸 영화보러 나가다가 여고 때 은사 문기만을 우연히 만나 함께 영화를 본다. 그와 헤어져 방변호사를 만나는데, 방변호사는 그녀를 호텔로 데려가 정조를 유린한다.
- ④ 病든 사람들(59~78회): 이튿날 방변호사는 숙경에게 보희와의 관계는 사교차원이라 말하며 키스한다. 구여사의 연락을 받고 나가니 그녀는 친구 집으로 그를 데려가서 노골적으로 유혹하지만 방변호사는 선불리 말려들지 않는다. 거기서 나온 방변호사는 이복동생 방준태를 만나는데, 구여사 얘기를 하자 그는 형에게 사건에서 손을 떼라며 나가버린다. 그 후 문기만이 사무실로 찾아와 함께 춘우장으로 갔는데, 구여사 남편 안건식이 그곳에 온 것을 알고, 유마담을 통해 그의 애인 채마담은 그보다 먼저 한대천의 애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방변호사는 유마담에게 호텔 가자고 하나, 그녀는 정신적인 면을 도외시한 관계는 의미 없다며 거절한다.
- ⑤ 愛情雙曲線(79~99회): 동욱은 약속 시간을 20분이나 어겼는데도 불평없이 기다린 준숙에게 동양적 매력을 느낀다. 이튿날 정옥이 친척을 데리고 와 여권을 발급받고는 동욱에게 저녁을 사겠다고 한다. 45분이 지나서야 약속장소에 나타난 그녀는 성의 테스트를 위해 일부러 늦게 나왔다고 한다. 동욱은 그녀의 발랄한 기지와 능란한 사교성에 매력을 느낀다. 다방에서 나와 정옥의 안내로 외교구락부를 거쳐 카바레에 가서 춤을 추는데 중년부인과 함께 온 방변호사를 만난다. 방변호사는 정옥에게 예전에 자기와 키스한 게 결혼 의사가 있는 게 아니냐며 이를 후 만나기로 한다.
- ⑥ 人生計算書(100~119회): 업무를 끝내고 임보희에게 전화가 걸려와도 받지 않는 방변호사는 숙경과 함께 여행하기로 한다. 그때 구여사가 찾아와 이혼 의사를 밝히고 돌아가자, 방변호사는 준태를 만나 채마담과는 안사장뿐만 아니라 자기도 관련있음을 알려주니 준태는 손을 떼겠다며 부하들이 조사한 구여사의 비행에 관한 기록을 건넨다. 이어 방변호사는 자운장에서 안사장을 만나 구여사 얘기를 꺼내며 공갈과 타협을 시도하지만 안사장은 이혼 위자료가 삼천만원 정도라는 말에 필쩍 뛰며 나가버린다. 잠시 후 들어온 채마담에게 방변호사가 전후사정을 설명하니 그녀는 잘 처리해주기를 부탁한다.
- ⑦ 毒나방(120~139회): 준숙은 동욱으로부터 오페라초대장을 받고 기뻐한다. 방변호사는 사무실로 찾아온 구여사에게 준태로부터 받은 비행 기록을 보여주자 그녀는 위자료를 많이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간다. 그는 정옥과 보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시샘하는 숙경을 끌어안고 키스하며 자기를 믿으라고 한 뒤 보희를 만나 유엔센터에서 정사를 벌인다. 언제 결혼하느냐는 그녀의 물음에 발뺌하고 춘우장으로 간 그는 술을 마신 뒤 자고 가겠다고 한다. 그는 돌아가라는 유마담의 얘기도 아랑곳 않고 모두 잠들면 자기에게 오라고 한다. 새벽 세시가 지나 유마담이 방변호사에게 찾아와서는 스스로 웃을 벗는다.
- ⑧ 마음의 放浪者들(140~156회): 안사장은 채마담의 설득에 마음을 바꿔 방변호사와 만나 위자료를 1천5백만원 정도로 잠정 합의한다. 방변호사는 정옥을 만나고 있던 동욱에게 찾아가 준숙과의 결혼을 권한다. 동욱이 고려했다며 먼저 간 뒤, 정옥과 방변호사는 식사하고 오페라 구경을 간다. 공연이 끝나 둘이 나오는데, 동욱과 준숙이 구경하고 나오다가 마주친다. 같은 방향인 동욱과 정옥이 택시에 동승하여 귀가하는데 아무리 애기해도 정옥이 관용을 베풀지 않자 동욱은 그녀와 작별하기로 한다.
- ⑨ 惡의 愉悅(157~177회): 방변호사는 구여사에게 적어도 일천만원의 위자료를 확보해 주겠다고 하며 사례금만 잘 달라고 하고, 정옥의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한다. 방변호사는 숙경에게 먼저 부산에 가 있을 테니 나중에 내려오라며 5만환을 준다. 그때 보희로부터 전화와서 만난 그는 결혼에 전혀 뜻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기만과 만나

춘우장에 가니 유마담이 많이 달라져 있다. 박미심에 따르면 밤마다 정한수 떠놓고 방변호사의 행복을 빈다는 것이다. 이튿날 부산출장건으로 역에 나갔더니 숙경과 유마담이 전송나와 있었다. 특히 유마담은 과일을 건네 주었다. 부산에 도착한 날 동창생들이 배운 환영연에 참석한 그는 술을 마신 뒤 기생을 데리고 잔다. 이튿날 숙경에게 전보치고 그 다음날까지 모든 일을 끝낸다. 그는 숙경을 만나 결혼해주겠다며 정사를 벌인다.

- ⑩ 가는 봄 오는 봄(178~197회): 해가 바뀌고 동옥은 준숙에게 청혼한다. 방변호사는 추궁하는 숙경에게 당장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다. 안사장을 만나 위자료 1천5백만원에 최종 합의하고 그 사실을 사무실로 찾아온 구여사에게 전하고, 여섯시에 정옥을 만나 청혼하니 그녀는 승낙할 의사를 밝힌다.
- ⑪ 空虛한 心境(198~215회): 입춘 지난 일요일, 기만과 함께 춘우장에 갔는데, 박미심이 며칠전부터 안 나온다는 말에 기만이 먼저 가버리자, 미심이 탄 남자와 살림을 차렸음을 유마담이 방변호사에게 알려준다. 방변호사가 차고가게 되자 유마담은 준비해뒀던 파자마를 꺼내주니, 흡족한 그는 청혼한다. 그녀는 자기가 화폐계 출신이니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튿날 방변호사는 안사장·채마담과 만나 이혼서류에 도장을 받고 위자료를 받는다. 절차가 끝나자 채마담이 안사장에게 더 친밀감있게 대하는 걸 보고 고독을 느낀다. 사무실에 돌아오니 구여사가 기다리고 있어 서류와 위자료를 건네주고 5백만원을 사례비로 받는다. 구여사는 방변호사를 돈으로 유혹해 보지만 통하지 않는다. 구여사가 돌아가고 다시 숙경과 말다툼하던 중 기만이 들어와서는 미심이 살림차렸다고 흥분하는데, 알고보니 그는 생리적 결합이 있었다.
- ⑫ 自然의 攝理(216~236회): 동옥과 준숙이 약혼식을 올린 뒤 어머니는 방변호사에게 결혼을 재촉한다. 방변호사도 결혼 생각을 굳히며 주변 여자들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보화가 가장 무난하리라 판단한다. 그러나 이튿날 출근해보니 그녀의 청첩장이 와 있었다. 숙경이 결혼증서를 써달라고 하자, 방변호사는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던 차에 정옥의 전화를 받고 그녀를 만나러 가는데, 도중에 구여사가 50대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걸 본다. 그는 정옥을 만나 식사하고 춤춘 뒤 그녀를 정복할 생각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한다.
- ⑬ 天網不漏(237~256회): 방변호사와 정옥은 결국 호텔로 들어가고 뒤쫓아간 숙경은 호텔을 주시하다가 삼층방에 불이 켜지는 걸 보고 비상용 계단을 이용해 그 객실 창문까지 접근한다. 방변호사와 정옥이 꺼안고 키스하는 걸 본 숙경은 창문을 열고 들어간다. 방변호사와 숙경이 말다툼하던 중 그녀가 격분하여 맥주병으로 그의 얼굴 등을 때리니 그가 피를 흘리고, 놀란 숙경은 창문으로 빠져나간다. 결국 그가 머리를 다쳐 입원하자 유마담이 찾아온다. 유마담이 자기 때문에 요릿집을 그만 둔 것을 안 방변호사는 그녀를 시켜 정옥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쓰게 하는데, 그 내용은 정옥에게 미안하다며 유마담과 결혼키로 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아내 될 사람을 가까이 두고 먼 여행을 돌아다녔다는 방변호사의 말에 유마담이 흐느껴 운다.

34. 한무숙 「빛의 階段」

- ① 無關心이라는 傲慢(1~8회): 임형인 사장은 두번이나 찾아온 소복업은 여인(경전)을 몰리치고 나서 박전무를 만나러 가다가 그녀를 치어 병원에 간다. 그런데 의사는 그녀가 차에 치인 것이 아니라 차원에서 뇌빈혈로 쓰러진 것이라고 한다. 그녀가 의식을 회복하자 형인은 집까지 태워다준다고 했으나 거절당한다. 귀가한 형인은 그 여인이 살던 집에 조문갔다가 죽은 이 사장의 미망인인 그녀를 본 기억이 떠올랐다. 그집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가 온 날이 오늘이었던 것이다.
- ② 산다는 것(9~22회): 서병규가 약수터에 다녀오니 큰아들 정식이 아버지 집안에 맞춰 귀국한다고 머느리가 전한다. 식사하던 중 경전이 방문하였는데, 그녀는 서병규 친구의 조카딸인 연옥의 딸이다. 병규가 동경유학시절 연옥을 본 이후 연옥이 여학교 다니면서부터 병규네 집에 살던 중 여전2년 때 임신했으나 버림받았는데 그녀는 경전을 낳고 죽는다. 그래서 경전은 삼촌의 아이로 입적하였고 그녀가 열살때 삼촌도 죽은 뒤부터 그녀는 병규를 아저씨라 부르며 따라온 터였다. 그런 그녀가 최근 남편을 잃고 집까지 처분하여 이사를 갔다.
- ③ 邂逅(23~34회): 장경원에 거래쳐 사람 만나러 갔던 형인은 우연히 경전을 만나 인사하는데 그녀는 책망의 눈길을 보낸다. 형인은 수경에서 열리는 진감축하연에 참석한 서정식을 만나 유치장에 함께 있던 기억 등을 얘기하다 헤어진다. 차를 타고 나오던 형인은 경전이 정해와 함께 있는 걸 본다. 경전과 함께 덕수궁 박물관에 간 정해는 그녀가 관음상같이 여겨진다.
- ④ 샤리아르(35~48회): 형인이 가위에 눌렸다 깨어보니 옆에서 미스윤이 자고 있었다. 그녀와 석달전부터 그의 건물인 샤리아르호텔에서 동거해 오고 있다. 형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학병반대운동으로 형무소에 있다가 해방후 출옥해보니 그녀가 미군과 살고 있었다. 미스윤은 전화를 받고 토오니라는 자기 친구가 장경원에서 형인을 봤다며 정원아버지 진감잔치에 참석했냐고 물어본다.
- ⑤ 斷崖(49~65회): 서병규는 큰아들 정식을 만나러 병원갔다가 바쁘다기에 혼자 음약다방에서 기다리던 중 정해

가 난희와 함께 앉아 있다가 젊은 여자와 아는 척하는 걸 본다. 정식이 들어오자 함께 호텔 그릴에 갔다가 형인을 만나는데 미스윤과 함께 있었다. 이튿날 정해는 난희가 고고학에 관심 많더라고 하자 서병규는 어제 다방에서 봤음을 말한다. 정해는 정원이라도 함께 영화보기로 했는데 친구편이 못 온다는 편지를 보냈더라고 한다.

- ⑥ 구차한 對話(66~81회): 형인은 우연히 정식을 만나 그의 병원에 갔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경전을 만나는데 그녀는 형인을 보자 안색이 달라진다. 형인은 미스윤이 자살소동을 벌였하기에 호텔로 갔는데 한 청년이 들어왔다 나가는 걸 본다. 그날 박전무와 함께 술을 진탕 마신 그는 내일이 어디 있느냐며 눈물을 흘린다. 이튿날 형인은 정식의 병원을 찾아갔는데 경전이 정해를 만나러 병원에 들렀다가 형인을 보자 나중에 온다며 나가버린다. 정해가 와서 셋이 점심을 먹는데, 정식이 경전의 사연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도 형인은 아무말이 없다. 형인은 정식 형제와 헤어져 패배감을 느끼며 호텔로 가서 미스윤을 껴안는다.
- ⑦ 遺物처럼(82~100회): 경전은 일주일전부터 박물관에 근무하면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다. 어느날 경전은 정식과 함께 영화구경했는데 앞자리에 형인이 앉아 있어 영화끝난 후 함께 차를 마신다. 형인의 항일투쟁 등에 대한 정식의 호평에 경전은 형인이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튿날 출근한 경전은 일주일 후에 고적발굴간다는 말에 관심을 갖는다. 정해와 경전이 박물관 난간에서 쉬고 있던 중 정원과 난희가 찾아와 국화구경하고 갔는데 난희의 안색이 좋지 않다. 이튿날 방문한 정원은 난희가 열등감이 심한 것 같다고 한다.
- ⑧ 빛의 意味(101~114회): 미스윤과 함께 경주에 여행한 형인은 그녀가 잠든 새벽에 석굴암에 올라 우연히 유적 발굴차 왔다는 정해와 경전을 만난다. 감은사지에 발굴 간다며 시간되면 오라는 정해의 말을 뒤로 하며 혼자 침성대 구경하다가 호텔에 가보니 미스윤이 서울에 가버리고 없었다. 혼자 호텔에 묵은 뒤에 이튿날 갑포로 간다. 집꾼의 안내로 박물관 일행이 묵은 숙소에 여장을 풀고 작업현장에 갔더니 경전이 매우 놀란다. 유물발굴작업을 보며 상념에 잠겼던 형인은 숙소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식사한 후 달밤에 밖에 나간 경전에게 가서 그녀를 통해 인생과 재회했다며 사랑한다며 손을 잡는다.
- ⑨ 明暗(115~130회): 귀경한 형인은 정식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정식은 폐암으로 판단하면서도 형인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 병원에 찾아온 경전과 함께 식사하고 성당앞을 지나는데 형인이 경전덕에 희망이 솟는다고 하자 경전은 그를 사모하고 있다고 밝힌다. 형인과 헤어져 경전이 정해집에 가니 마침 방문한 금희가 그녀를 피한다. 정해는 경전에게 뭔가 고백하려고 하는데 그녀는 듣지 않고 나가버린다. 이튿날 출근한 정해는 정원으로부터 난희가 아파서 경전이 결근한다는 전화를 받는다. 그날밤 정원은 정해에게 난희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음날 아침 정해는 경전이 살던 집이 형인의 소유로 돼 있는데 흥정이 다 된 상황에서 안 팔겠다고 하더라는 말을 듣는다. 그 사흘 뒤까지 경전은 여전히 결근하고 있었는데 난희는 거부증이라는 정신 착란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는다.
- ⑩ 歸依(131~150회): 난희를 입원시킨 경전은 형인을 만나 그의 신당동집으로 간다. 형인은 경전에게 청혼하나 그녀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거절한다. 그 길로 정식을 찾아간 형인은 가회동집을 경전의 시택에 돌려주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청한다. 그러나 그의 병세를 알고 있는 정식은 답하지 못한다. 귀가한 형인에게 박전무가 가회동집을 팔아야 하며 세금문제 수출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자 책임있는 일을 하자며 집은 돌려주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수출은 포기하자면서 결혼하기로 했음을 밝힌다. 그 후 미스윤이 토오나라는 청년과 형인에게 찾아가는데, 미스윤이 입을 다물고 있자 토오니가 그녀를 때리는 걸 보고 형인은 그를 쫓아낸다. 이튿날 정해가 전화를 받고 정식의 병원으로 가보니 형인이 위독한 상태였다. 금희에게 가 있던 경전을 정해가 데려왔을 때는 이미 입종한 뒤였다. 정해는 그가 행복하게 죽었다고 여긴다.